



심청가 바다별전집2

박동실 바다 · 김소희 바다

Bak Dong-sil Version Simcheongga
(Sung by Jeong Sun-im)

Kim So-hui Version Simcheongga
(Sung by Kim So-heui)



심청가 바디별전집 2

2008년 12월 10일 인쇄

2008년 12월 15일 펴냄

지은이 || 교주 : 최동현, 번역 : 박승배,
감수 : 최동현, Thomas Christopher Cummings,
Sumi Hong

발행 || 문화체육관광부 · 전라북도
문화체육관광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42
Tel. 02-3704-9119
전라북도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
Tel. 063-280-2114

인쇄처 || 신아출판사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 251-30
Tel. 063-275-4000

ISBN 978-89-5925-510-8 04810
978-89-5925-508-5 (전4권)

한영
대역

심청가

바디벌전집2

■ 책 머리에

이 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전라북도가 판소리의 세계화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판소리 영어 사설 자막 제작 사업’의 두 번째 결과물이다. 작년에는 첫 번째로 〈춘향가〉 다섯 바탕을 번역하여 자막 프로그램으로 제작한 바 있다. 올해는 〈심청가〉 여섯 바탕을 자막 프로그램으로 제작하고, 그 부산물로 한영대역 《심청가 바디별 전집》(1-4)을 내게 된 것이다. 작년에 〈춘향가〉 자막 프로그램이 나간 후 많은 사람들로 부터 분에 넘치는 칭찬과 격려를 받았다. 그 칭찬과 격려가 올해 또 이 작업을 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되었다.

이 성과물은 총 네권으로 되어 있는데, 1권은 〈김연수 바디 오정숙 창 심청가〉, 2권은 〈박동실 바디 정순임 창 심청가〉와 〈김소희 바디 김소희 창 심청가〉, 3권은 〈정웅민 바디 성우향 창 심청가〉와 〈정웅민 바디 성장순 창 심청가〉, 4권은 〈정웅민 바디 윤진철 창 심청가〉로 되어 있다. 이 정도면 현재 전승되고 있는 〈심청가〉를 모두 포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판소리의 번역은 쉬운 일이 아니다. 판소리 사설에 인용되고 있는 시, 소설, 역사, 고사 등은 엄청난 양에 이른다. 그래서 우리말 주석조차 쉬운 일이 아니다. 판소리 사설은 또한 우리 고전문학 작품 중에서도 가장 예술성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 예술성까지를 살리는 번역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는 번역자가

나타나기를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다. 누군가는 시작을 해야 할 일인 것이다. 그래서 무모하지만 우리가 나섰다. 우선은 예술성을 살리는 것보다도 의미전달을 목표로 삼았다. 따라서 이 번역을 보고 불만을 가진 분들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어찌 첫 술에 배부를 수 있겠는가? 다만 최종적인 목표에 이르기 위한 과정의 산물이라는 것으로 이해해 주기를 바랄 뿐이다.

올해는 판소리가 유네스코에 의해 ‘인류 구전 무형 유산’으로 선정된 지 5주년이 되는 해이다. 그 동안 판소리가 ‘인류 구전 무형 유산’으로 선정되었다고 자랑만 했지, 이 가치 있는 문화유산을 세계인과 함께 향유하기 위한 노력은 별로 하지 않았다. 이제 이 작고 보잘 것 없는 성과물이 판소리의 세계화를 위한 아주 중요한 단초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이 사업을 위해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신 문화체육관광부와 전라북도의 관계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드린다. 또한 이 책의 출판을 맡아 예쁜 책으로 꾸며주신 신아출판사 서정일 사장님과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린다. 이러한 분들의 귀한 관심과 애정이 판소리의 세계화를 앞당길 것으로 믿는다.

2008년 깊어가는 가을
최동현 · 박승배 씀

차 례

■ 책머리에 • 4

★ 박동실 바디 심청가(정순임 창)

1. 곽씨부인 품팔이	12
2. 기자 치성	14
3. 심청 출생	18
4. 삼신 축원	20
5. 딸을 안고 어름	24
6. 곽씨부인 유언	26
7. 심봉사 통곡	30
8. 상여소리	34
9. 평토제	40
10. 심봉사 우는 딸을 달랠	42
11. 젖동냥	46
12. 심청 부친 봉양	50
13. 심청 걸식	52
14. 시비 따라	56
15. 장승상택 부인 수양딸 제안	58
16. 심봉사 물에 빠짐	62
17. 심봉사 구출	66
18. 공양미 시주 약속	70
19. 심청의 위로	74
20. 심청 축원	78

21. 심청 매신	80
22. 행선 전야	84
23. 사당 하직	88
24. 심봉사 통곡	90
25. 선인 따라	96
26. 범피중류	100
27. 소상팔경	104
28. 인당수 투신	108
29. 선인 탄식	116
30. 심청 용궁행	116
31. 심봉사 딸 생각	122
32. 뽕덕이네 행실	124
33. 심청 환생	128
34. 화초타령	132
35. 천자 심청 발견	134
36. 심청 황후 책봉	136
37. 추월만정	138
38. 맹인 잔치 배설	140
39. 심봉사 황성길	142
40. 길소리	146
41. 뽕덕이네 도망	148
42. 황성길 다시 떠남	152
43. 심봉사 목욕	154
44. 무릉태수	158
45. 방아타령	160
46. 맹인 잔치 참여	166
47. 심황후 탄식	168
48. 부녀 상봉	170

49. 심봉사 개안	172
50. 심봉사 기뻐함	174
51. 여러 봉사 개안	176

★ 김소희 바디 심청가(김소희 창)

1. 심봉사 내력	228
2. 곱씨부인 품팔이	228
3. 기자 치성	230
4. 심청 출생	234
5. 삼신 축원	236
6. 심봉사 딸을 어름	240
7. 곱씨부인 유언	242
8. 심봉사 통곡	246
9. 상여소리	250
10. 평토제	256
11. 심봉사 우는 딸을 달랠	260
12. 젓동냥	262
13. 심청 부친 봉양	266
14. 심청 결식	268
15. 장승상대	274
16. 심봉사 물에 빠짐	278
17. 심봉사 구출	282
18. 공양미 시주 약속	284
19. 심청의 위로	290
20. 심청 치성	294
21. 심청 매신	296
22. 행선날	300

23. 심청 고백	302
24. 심봉사 통곡	306
25. 선인 따라	310
26. 범피중류	312
27. 소상팔경	316
28. 인당수 투신	318
29. 선인 탄식	326
30. 심청 용궁행	326
31. 심청 모친 상봉	330
32. 심청 환생	334
33. 화초타령	336
34. 천자 심청 발견	340
35. 심청 황후 책봉	342
36. 추월만정	342
37. 망사대	346
38. 뽕덕이네	348
39. 황성길	352
40. 뽕덕이네 도망	358
41. 심봉사 목욕	360
42. 무릉태수	366
43. 망아타령	368
44. 심황후 탄식	372
45. 심황후 부친 상봉	374
46. 심봉사 개안	378
47. 심봉사 환호	380
48. 후일담	384

A Brief Introduction to Pansori

- *Pansori* is performed by one singer and one drummer. The drummer maintains the rhythm (*jangdan*) with the use of the drum while the singer performs a long narrative poem by singing, narrating, and acting.
- In *Pansori*, songs and narrations alternate constantly. When the singer sings or speaks, he or she may open or close the fan, or act out the actions of characters of the work. In this literature *Aniri* is the narration mode. *Jinyangjo*, *Jungmori*, *Jungjungmori*, *Jajinmori*, *Hwimori*, *Eonmori*, *Eotjungmori* are singing modes of different rhythms.

Jinyangjo : One measure consists of six slow beats, and 24 beats in 4 measures make up one rhythm cycle. It is expressed in 18/8 time.

Jungmori : One measure consists of 12 beats of moderate speed, and it is expressed in 12/4 or 12/8 time.

Jungjungmori : One measure consists of 12 slightly quick beats, and it is expressed in 12/8 time.

Jajinmori : One measure consists of 4 slightly quick beats, and it is expressed in 12/8 time.

Hwimori : One measure consists of 4 very quick beat, and it is expressed in 4/4 time.

Eonmori : Alternating measures consist of 2 and 3 beats, and the complete cycle consists of 10 very quick beats. It is expressed in 10/8 time.

Eotjungmori : One measure consists of 6 beats, and it is expressed in 6/4 time.

정순임 창

Sung by Jeong Sun-im

1. (곽씨부인 품팔이) 심학규는 장님으로 몰락한 양반 가문의 후예인데, 어진 아내 곽씨부인이 품을 팔아 가장을 봉양한다.

[아니레 송 태조¹⁾ 입국지초²⁾에 황주 도화동³⁾ 사는 한 소경⁴⁾이 있으되,
성은 청송 심 가요, 이름은 학규라.

누대⁵⁾ 충효대가⁶⁾로서 성명⁷⁾이 자자터니,⁸⁾

가운⁹⁾이 영체¹⁰⁾하여, 이십에 안맹허니,¹¹⁾

낙수청운에 발자취 끊어지고,¹²⁾

겸하여 안맹하니

뉘라서 받드리오마는,

그 아내 곽씨부인 또한 현철하여,¹³⁾

가장¹⁴⁾ 공경,

치산범절,¹⁵⁾

구길¹⁶⁾ 바가 바이없어¹⁷⁾ 백집사가감¹⁸⁾이라.

가세가 빈곤하여 몸을 버려¹⁹⁾ 품을 팔 제,

[중중모리] 샅바느질, 관대,²⁰⁾ 도포,²¹⁾ 행의,²²⁾ 창의,²³⁾ 직령²⁴⁾이며,

협수,²⁵⁾ 쾌자,²⁶⁾ 중치막²⁷⁾과, 남녀의복의 잔누비질,²⁸⁾

외울뜨기,²⁹⁾ 곧추누비,³⁰⁾

서답³¹⁾ 빨래,

하절³²⁾ 의복, 한삼,³³⁾

고의,³⁴⁾ 망건³⁵⁾ 꿰매기, 배자,³⁶⁾

단초,³⁷⁾ 토시,³⁸⁾ 보선,³⁹⁾ 행전,⁴⁰⁾

쭈치,⁴¹⁾ 허리띠, 염낭,⁴²⁾

볼치,⁴³⁾ 휘양⁴⁴⁾이며, 복건,⁴⁵⁾

풍차,⁴⁶⁾ 처네,⁴⁷⁾ 주의,⁴⁸⁾

1. (Mrs. Gwak Works as a Day Laborer) Mr. Sim, a descendent of a fallen high class family, is blind. His virtuous wife, Mrs. Gwak, supports him by working as a day laborer.

[Aniri] Once upon a time, there lived a blind man in a village called Peach Blossom Village.

His last name was Sim, and his first name was Hak-gyu.

His family once was eminent and powerful.

But all that changed and he became blind at twenty.

His family no longer served in the government.

Besides, he is blind.

So who would respect him?

His wife, Mrs. Gwak, is wise and intelligent.

She respects her husband.

She does housework well and is good-mannered.

She can handle any work without a problem.

Since they are poor, Mrs. Gwak works hard as a day laborer.

[Jajinmoril] Mrs. Gwak does needlework on an official's, a Toist's, a scholar's, causal, and military clothes.

She quilts military, male, and female clothes.

She makes a headband and does fine needlework up and down.

She washes clothes.

She works on summer clothing,

an undershirt, male trousers, an inner hat, a female vest,

a button, wristlests, socks, leggings, a ramie band,

a bag, a belt, a round bag,

a long headgear, a muff, a cloth headgear,

a furred headgear, a small quilt, and a topcoat,

갓은 금침⁴⁹⁾에 수 놓기와,
 각대,⁵⁰⁾ 흥배,⁵¹⁾ 학 그리기,
 일년 삼백육십일 잠시도 놀지 않고,
 돈⁵²⁾을 모아 양⁵³⁾ 짓고,⁵⁴⁾ 양을 모아서 관⁵⁵⁾ 지어,
 이웃 사람에게 빚 주었다가 받아들여,⁵⁶⁾
 춘추시향⁵⁷⁾의 봉제사,⁵⁸⁾
 앞 못보는 가장⁵⁹⁾ 공대,⁶⁰⁾
 정성 드려 공경하니,
 상하 인근⁶¹⁾ 노소⁶²⁾ 없이 뉘 아니 칭찬하리.

2. (기자 치성)⁶³⁾ 꺾씨부인이 자식을 낳기 위하여 치성을 드리다가 선녀가 품안으로 들어오는 태몽을 꾀다.

[아니레] 하루는 심봉사 마누라를 불러,
 “여보 마누라. 세상에 부부야 뉘⁶⁴⁾ 없으리오마는,
 마누라는 전생에 무삼⁶⁵⁾ 죄로 이생⁶⁶⁾에 낄과 인연되어,
 앞 못 보는 가장 나를 한 시,⁶⁷⁾ 반 때⁶⁸⁾ 놀지 않고
 의복, 음식 때 맞추어 지성으로 날 공대하니,
 나는 편타⁶⁹⁾허려니와
 마누라 고생살이 간장이 다 녹는 듯하오.
 날 공대 그만하고, 우리 의논이나 협시다.
 우리 연장사십⁷⁰⁾인디,
 슬하⁷¹⁾에 일점혈육⁷²⁾이 없으니,
 죽어 황천⁷³⁾에 돌아간들 무삼 면목으로 선영⁷⁴⁾을 대하오리까?
 명산대찰⁷⁵⁾ 기도드려

She embroiders all sorts of quilts and pillows.
She draws a crane on a belt and a cloth.
She works 365 days a year without rest.
She earns money little by little and the amount of money
gradually increases.
She lends the money to a neighbor and takes it back along with
interest.
She holds a ritual to her husband's ancestors.
She takes good care of her blind husband.
She conscientiously serves him.
Everybody in the neighborhood praises her.

**2. (Praying for a Child) Mrs. Gwak prays to gods for
a child. One day she has a dream of conception in
which a goddess comes into her bosom.**

[Aniri] One day, Mr. Sim calls his wife.
“Hello, honey! We are a good couple like other couples,
but I feel sorry that your life is hard because you married me.
You don't take a rest even for a moment to support me.
You take good care of me with clothes and food.
I am physically happy,
but my liver melts down when I watch you suffer.
Take a break and let's discuss something.
“We are approaching forty.
Yet we don't have a child.
After I die, with what face would I see my ancestors?
Pray for a child in a large buddhist temple on a famous
mountain.

남녀간에⁷⁶⁾ 낳고 보면, 그 아니 좋겠소?”
 꼭씨부인 이른 말씀, “자식 보고싶은 마음에 무슨 일인들 못하오리까
 마는,
 가군⁷⁷⁾의 정대하십⁷⁸⁾을 몰라 발설치⁷⁹⁾ 못하였삽더니,
 오늘날 말씀하시니 지성신공⁸⁰⁾하오리다.”
[중모레] 명산대찰⁸¹⁾ 영신당⁸²⁾과,
 고묘⁸³⁾ 충사⁸⁴⁾ 석왕사⁸⁵⁾며,
 제불⁸⁶⁾ 제천⁸⁷⁾
 보살⁸⁸⁾ 미륵⁸⁹⁾ 나한불공⁹⁰⁾ 신중맞이⁹¹⁾ 칠성불공⁹²⁾
 가사시주⁹³⁾ 창호시주⁹⁴⁾ 인등시주⁹⁵⁾
 집에 들어 있는 날도
 성주⁹⁶⁾ 조왕⁹⁷⁾ 당산⁹⁸⁾ 천룡⁹⁹⁾ 군웅제¹⁰⁰⁾를 다 드리니,
 공든 탑이 무너지며, 심든 남기¹⁰¹⁾가 꺾어질까?
 갑자¹⁰²⁾ 사월 초파일날 한 꿈을 얻었구나.
 서기¹⁰³⁾가 반공하고¹⁰⁴⁾
 오채¹⁰⁵⁾ 영룡허더니만,
 일개¹⁰⁶⁾ 선녀 학을 타고 하늘로¹⁰⁷⁾ 내려올 제,
 머리에 오색 채관¹⁰⁸⁾이요, 몸에는 강선¹⁰⁹⁾이요,
 월패¹¹⁰⁾를 느깃이¹¹¹⁾ 차고, 옥패¹¹²⁾소리가 쟁쟁¹¹³⁾
 계화가지¹¹⁴⁾를 손에다 들고,
 부인 전에¹¹⁵⁾ 읊¹¹⁶⁾을 하며 옆에 와 앉은 거동,
 두렷한¹¹⁷⁾ 달 정기¹¹⁸⁾가 품안에 와 떨어진 듯,
 심신¹¹⁹⁾이 산란하여 진정키 어렵더니,
 선녀가 여짜오되, “서왕모¹²⁰⁾의 딸일러니,
 반도¹²¹⁾ 진상¹²²⁾ 가는 길에
 옥진비자¹²³⁾를 잠깐 만나 수어¹²⁴⁾ 수작¹²⁵⁾을 허옵다가,

Wouldn't it be nice if we have a child, a boy or a girl?"
Mrs. Gwak responds, "What would I not do to have a child?
I didn't express my thought because I didn't know yours.
Since you did it today, I will start praying to gods."

[Jungmori] She prays in buddhist temples and shrines on famous mountains,

She prays in shrines for worshiping gods and in a temple.
She prays to buddhist saints, gods in heaven,
statues of Buddha, a Buddha's disciple, a god general, and the Ursa Major.

She donates clothes, papers, and lamp oil to buddhist temples.
Even when she is at home,
she prays to the house god, the kitchen god, the terrace god,
the sky god, and the earth god.

Inevitably, her hard efforts pay off.
She has a dream at night in April.
The air is filled with favorable energy.

The colorful air is bright.

A goddess comes down from heaven on a stork.

She wears a colorful hat and divine clothes.

She wears jade ornaments which make beautiful sounds.

She holds a cinnamon branch in her hand.

She gives a big bow to Mrs. Gwak and sits down in front of her.

It looks as if a clear energy from the moon fell on her breast,
Mrs. Gwak is in raptures and can't calm herself down.

The goddess says, "I am a daughter of a goddess.

I was to offer a divine peach to the King of Heaven.

I had fun briefly with a goddess on my way back home.

시가¹²⁶⁾ 조금 늦었기로
 상제¹²⁷⁾께 득죄¹²⁸⁾허여 인간¹²⁹⁾에 내치시매,¹³⁰⁾
 갈 바 모르고 방황타가,
 태상노군,¹³¹⁾ 후토부인,¹³²⁾ 제불,¹³³⁾ 보살, 석가님이 댁으로 지시하야,
 명 받아 왔사오니,
 어여뻐¹³⁴⁾ 여기소서.”

3. (심청 출생) 괘씨부인이 태기가 있어 열 달 동안 조심하 며 지내다가 딸을 낳는다.

[아니리] 놀래어 깨어나니
 남가일몽¹³⁵⁾이었다.
 양주,¹³⁶⁾ 몽사¹³⁷⁾ 의논컨대,
 둘이 꿈이 똑같은지라.
 그날 밤 어찌 되었든가,
 그달부터 태기 있어
 십삭¹³⁸⁾을 배설허는디,¹³⁹⁾
 괘씨부인 천성¹⁴⁰⁾이 암전한 부인이라
 꼭 이렇게 하겠다.
 [중중모리] 석부정부좌,¹⁴¹⁾ 할부정불식,¹⁴²⁾ 이불청음성,¹⁴³⁾ 목불시
 사색,¹⁴⁴⁾
 십삭이 점점 차더니,
 하루는 해복¹⁴⁵⁾ 기미¹⁴⁶⁾가 있는디,
 “아이고, 배야. 아이고, 아이고, 허리야.”
 “거, 배가 아퍼요?”

But I was a little late.
The King of Heaven expelled me to the world of human beings.
I didn't know where to go.
Lao-tzu, a goddess, Bodhisattva, and Buddha directed me to
your family.
I took their order.
Please take good care of me."

**3. (The Birth of Sim Cheong) Mrs. Gwak conceives,
takes good care of herself for ten months, and gives
birth to a girl.**

[Aniri] Mrs. Gwak is petrified and wakes up.
It was a dream.
The couple discuss their dreams.
They learn that they had the same dream.
Something happened at that night.
From that month on, she shows signs of pregnancy.
She is pregnant for ten months.
Mrs. Gwak has a good character.
She spends the next ten months as follows:

[Jungjungmori] Mrs. Gwak avoids bad seats, bad-looking food,
obscene language, and bad colors.
Ten months gradually passed.
One day, she shows signs of labor.
"Ouch! My belly hurts! My waist hurts!"
"Does your belly hurt?"

심봉사 손을 쏴아 이윽히 생각터니,
 일편¹⁴⁷⁾은 반갑고, 일편 놀래어
 밖으로 더듬더듬 나가더니,
 “여보소, 귀덕이네,
 거, 이 사람아!
 거, 방에나 좀 들어가 보소!”
 쪼 한 단,¹⁴⁸⁾ 새 소반¹⁴⁹⁾에 정화수¹⁵⁰⁾ 떠 받쳐다 놓고,
 단정히 꿰어얹아 순산¹⁵¹⁾허기를 바래더니,
 이향¹⁵²⁾이 만실하고¹⁵³⁾
 채색¹⁵⁴⁾ 안개 두르더니
 혼미중¹⁵⁵⁾에 탄생허니 선인,¹⁵⁶⁾ 옥녀¹⁵⁷⁾ 딸이로다.

4. (삼신 축원) 심봉사가 삼신님께 딸의 복을 빈다.

[아니리] 순산¹⁵⁸⁾은 하였으나,
 남녀간에¹⁵⁹⁾ 무엇인지 몰라,
 “여보, 영감. 남녀간에 무엇인지 말씀이나 좀 하여주오.”
 “허허, 내가 눈이 있어야 알제.”
 눈 밝은 사람 같거든 애기 낳을 적에 남녀 분간을 허련마는,
 눈 없는 사람이라, 애기 머리 위에서 더듬더듬 더듬어 내려오는데,
 배꼽 밑을 거침없이 내려오것다.
 “아하, 아마도 마누라 같은 사람 낳았나 보오그려.”
[자진모리] 꼭씨부인 서운하여,
 “만득¹⁶⁰⁾으로 낳은 자식 딸이라니 서운허오.”
 “여보, 그런 말 마오.

He folds his fingers to count and thinks for a while.
He is delighted on the one hand and scared on the other.
He moves outside gropingly.
“Hey Mrs. Gwideok!
Hello, over there!
Please come to my room.”
He brings a bundle of straw and pure water on a small dining
table.
He kneels down and prays for an easy birth.
Exotic fragrance fills the room.
A colorful mist drifts around.
In this faint atmosphere, a girl is born as beautiful as a goddess.

4. (Praying to God of Birth) Mr. Sim prays to the gods for the happiness of his girl.

[Aniri] Mrs. Gwak gave an easy birth.
She doesn't know whether the baby is a boy or a girl.
“Honey, tell me whether the baby is a boy or a girl.”
“Gee, I would know if I had sight.”
If he had eyes, he would know the sex when the baby came
out.
Since he doesn't, he gropes the baby from its head to down.
His hand feels no obstacle below the navel.
“Oh, it appears you gave birth to a baby like you.”

[Jajinmori] Mrs. Gwak is disappointed.
“I am disappointed that the late child is a girl!”
Mr. Sim responds, “Darling, don't say that.

아들도 잘못 두면 옥급선영¹⁶¹허는 것이요,
 딸이라도 잘 길러서
 예절 먼저 가르치고, 침선¹⁶² 방적¹⁶³ 다 시키어,
 요조숙녀¹⁶⁴ 군자호구¹⁶⁵ 만나 잘 살게 되면,
 외손봉사¹⁶⁶인들 못 허리까?
 아예 그런 말 마오.”
[아니리] 첫국밥¹⁶⁷ 얼른 지어
 삼신상¹⁶⁸에 받쳐놓고
 비는디,
 눈 밝은 사람 같으면은 순순히¹⁶⁹ 빌런마는,¹⁷⁰
 앞 못 보는 봉사는 매양¹⁷¹ 팩성¹⁷²이라,
 남이 들으면 씹혀는¹⁷³ 듯 빌것다.
[중중모리] “삼십삼천¹⁷⁴ 도술천,¹⁷⁵ 석가세존,¹⁷⁶ 미륵님네,
 화위동심¹⁷⁷하여 다 굽어보옵소서.
 사십에 점지한 딸,
 한두 달에 이슬 맺고,
 석 달에 피 어리고,
 녁 달에 인형¹⁷⁸이 삼겨,¹⁷⁹
 다섯 달 오포¹⁸⁰ 났고,¹⁸¹
 여섯 달에 육점¹⁸² 삼겨,
 일곱 달 칠규¹⁸³ 열려,
 여덟 달에 사만팔천 털이 나고,
 아홉 달 구규¹⁸⁴ 열려,
 열 달에 찬 짐 반어¹⁸⁵
 금강문,¹⁸⁶ 하달문,¹⁸⁷ 뼈문,¹⁸⁸ 살문¹⁸⁹ 고이 열어
 순산으로 시켜주니,

A bad son can be a disgrace to our family.
We can raise her well.
Let's teach her etiquettes, needlework, and then weaving.
Let's choose a successful man as her husband.
He might hold a ritual for my ancestors.
So don't say that."

[Aniri] Soup and rice are prepared quickly.
They are placed on a table for God of Birth.
Mr. Sim prays.
If he had sight, he would pray in a polite manner.
Being blind, he always loses his temper.
He prays as if he is fighting with someone.

[Jungjungmori] "All gods in all heavens, Buddha, and Maitreya!
Please form a union and listen to me!
You assigned a daughter to me, a forty year old man.
In the first and the second months, dewdrops joined together.
In the third month, a lump of blood was created.
In the fourth month, she acquired the shape of a human being.
In the fifth month, she obtained the five internal organs.
In the sixth month, she came by all the six emotions.
In the seventh month, she got all the seven holes in the head.
In the eighth month, hair began to grow.
In the ninth month, all the nine holes opened.
In the tenth month, she became full of energy.
She came out gracefully through the door of bone and flesh.
It was an easy birth.

삼신¹⁹⁰) 덕택, 넓으신 은덕, 백골난망 잊으리까?
 다만 독녀¹⁹¹) 딸이오나,
 명¹⁹²)은 동방삭¹⁹³)의 명을 주고,
 복은 석승¹⁹⁴)같이 복을 주어,
 태임¹⁹⁵)의 덕행이며,
 반희¹⁹⁶)의 재질¹⁹⁷)이며,
 대순,¹⁹⁸) 증자¹⁹⁹) 효행이며,
 석승같이 복을 주어,
 외 붓듯,²⁰⁰) 달 붓듯²⁰¹) 잔병²⁰²)없이 잘 자라나,
 일취월장²⁰³) 시켜주오.”

5. (딸을 안고 어름) 심봉사가 딸을 안고 어른다.

[아니리] 빌기를 다한 후에 따순²⁰⁴) 국밥 떠 산모²⁰⁵)에게 주고,
 심봉사가 어찌나 마음이 좋아놓았든지, 물도 덜 마른 애기를 안고
 어루는디,²⁰⁶)

[중중모리] “둥둥둥, 내 딸이야, 어허둥둥, 내 딸이야.

금자동²⁰⁷)이나 옥자동,²⁰⁸)

금을 준들 너를 사며, 옥을 준들 너를 사랴?

둥둥둥, 내 딸이야, 어허둥둥, 내 딸이야.

날아가는 학선이,²⁰⁹) 얼음 궁게는²¹⁰) 수달피,²¹¹) 백미 닷 섬으 뉘
 하나,²¹²)

설설이²¹³) 기어라,

어허둥둥, 내 딸이야.

남전복답²¹⁴)을 장만헌들 이어서²¹⁵) 반가우며,

I am eternally grateful to the God of Birth for their virtuous work.

She is an only daughter.

Please help her to live long.

May she be rich!

May she be a good wife!

May she be intelligent!

May she be a good child!

May she be fortunate!

May she grow up well without being sick!

May she progress everyday!"

5. (Mr. Sim Dandles His Daughter) Mr. Sim dandles his daughter.

[Aniri] After the prayer, Mr. Sim gives the soup and rice to Mrs. Gwak.

Mr. Sim is so happy that he hugs and dandles the baby who is still wet.

[Jungjungmori] "Oh, my daughter! Oh, my daughter!

You are gold and jade.

You are more valuable than gold or jade.

Oh, my daughter! Oh, my daughter!

You are more precious than a flying divine crane and an otter in a ice hole,

Toddle slowly.

Oh, my daughter!

I feel happier with you than I would with a lot of lands.

산호 진주를 얻은들 사랑허기가 너 같으랴?

등 어허둥둥 내 딸이야.

너도 어서 수이²¹⁶ 자라

현철허고 효행이 있어

애비 귀염을 쉬²¹⁷ 보여라.

둥둥둥, 어허 둥둥 내 딸이야.”

6. (곽씨부인 유언) 산후별증이 나서 죽게 될 줄을 안 곽씨 부인이 심봉사에게 유언을 하고 숨을 거둔다.

[아니리] 이러구러²¹⁸ 지내갈 제,

그때여 곽씨부인 가세²¹⁹가 빈곤하여 산후 조리²²⁰ 바이없고,²²¹

빨래도 허고, 남의 일까지 맡아 하게 되니

뜻밖에 산후별증²²²이 일어나던 것이었다.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편두머리²²³야.

사대삭신²²⁴ 삼천육백 마디가 아니 아픈 데가 전혀 없구나.”

곽씨 부인 곰곰이 생각하니,

또한 살지 못할 것을 짐작허고,

세세히²²⁵ 유언을 허는디,

[진양조] 가군²²⁶의 손길을 부여잡고,

“아이고, 여보, 영감.

우리 둘이 서로 만나 해로백년²²⁷ 살까 허고,

앞 어두신 가군께서

내가 조금 범연허면²²⁸ 노염찌기²²⁹ 쉽겠기로,

You are more lovely than pearls to me.
Oh, my daughter!
Please grow up quickly.
Be intelligent and kind to your parents.
Be cute to your father quickly.
Oh, my lovely daughter!"

6. (The Last Words of Mrs. Gwak) Mrs. Gwak, knowing that she will die of a childbirth complication, says her last words to Mr. Sim and dies.

[Aniri] Mr. Sim spends time with the baby.
Since they are poor, Mrs. Gwak can't take a rest after the childbirth.
She does laundry and other's work.
Unexpectedly, she suffers from a childbirth complication.
"Ouch! My legs hurt! My waist hurts!
I have a headache!
I feel pain in all the muscles and joints of my body."
Mrs. Gwak thinks for while.
She believes she can't live anymore.
She gives her last words in detail.

[Jinyangjo] Mrs. Gwak holds her husband's hands.
"Oh, my darling!
We promised to live together until we die.
My husband is blind.
If I had not been a little careful, you would have lost temper.

남촌 북촌 품을 팔아 극진공대²³⁰⁾를 허쥔더니,
 천명²³¹⁾이 이뿐인가,
 인연이 끊쳤는가²³²⁾
 하릴없이²³³⁾ 죽게 되니,
 눈을 어이 감고 가며, 애통함을 어이하리?
 저 아기 자라나 제 발로 걷거들랑, 앞세우고 길을 물어, 내 무덤 앞을
 찾아와겨²³⁴⁾
 모녀 상봉을 시켜주면, 혼이라도 한이 없겠소.
 저 아기 이름을 심청이라 불러주오.
 차생²³⁵⁾의 미진한²³⁶⁾을
 후생애나²³⁷⁾ 다시 만나 이별 없이 사사이다.²³⁸⁾
 혈 말은 장차 무궁허나²³⁹⁾
 숨이 가빠서 못하겠소.”
 잡았던 손길을 스르르르 놓고,
 한숨 쉬고 돌아누워 어린 아기 끌어안고,
 혀도 차고,²⁴⁰⁾ 낮도 대고 문지르며,
 “천지도 무심코 귀신도 야속허다.
 니가 먼저 삼기겨나,²⁴¹⁾
 내가 조금 더 살겨나.
 너 낳자 나 죽으니,
 철천지²⁴²⁾ 깊은 한을 널로 하야²⁴³⁾ 품게가 되니,
 죽는 어미 산 자식이 생사간에²⁴⁴⁾ 무삼²⁴⁵⁾ 죄냐?”
[중모레] 한숨 쉬어 부는 바람, 삼삼비풍²⁴⁶⁾이 되어 있고,
 눈물겨워 오는 비는 소소세우²⁴⁷⁾ 날리도다.
 하늘은 나직허고 구름은 자욱헌디,
 수풀에 우는 저 새 적막히 머무르고,

I intended to serve you well by working as a day laborer,
but my life stops here.
Our relationship ends here.
I can't help myself from dying.
I can't close my eyes due to my grief.
If that child grows up and walks on her own, please visit
my tomb with her.
If I see her, my soul will feel better.
Please call our child Cheong.
There is something to be desired in our relationship in this
world.
Let's meet again in the next world and live without parting.
I have many things to say,
but I can't breathe anymore."
Mrs. Gwak releases her husband's hands.
She sighs, turns around, and hugs the baby.
She clicks her tongue and rubs her face.
"Heaven and gods are heartless.
You should have been born earlier,
or I should live a little more.
I die upon your birth.
A grief is rooted deep in my mind because of you.
Why does death separate the dying mother and the living child?"

[Jungmori] A sigh becomes a wind creating plaintive sounds.
A fine rain comes quietly and sadly.
The sky is low and filled with clouds.
A bird sings a sad song in the woods.

북천에 외기러기는 황룡 애원²⁴⁸)을 슬피 울 듯,
구부구부²⁴⁹) 흐르는 물은 오열²⁵⁰)하여 흘러가니,
하물며 사람이야 누가 아니 슬퍼허리?
폭각질²⁵¹) 두세 번에 숨이 진다.

7. (심봉사 통곡) 심봉사가 곱씨부인이 죽은 것을 뒤늦게 알고 몸부림치며 통곡한다.

[아니리] 그때여 심봉사는 곱씨부인 죽은 줄을 모르고,
“여보, 마누라. 병든다고 다 죽겠소?
내 의가²⁵²)에 나가 약 지어 가지고 올 테니
편안히 누워 계시오.”
심봉사 급한 마음으로 약방에 가
약을 급히 지어 집으로 돌아와,
귀덕이네 시켜 수일승전반복²⁵³)에 급히 짜서
방으로 들어와,
“여보 마누라, 이 약 잡수시오.
이 약 잡수시면 즉효²⁵⁴)하리라 합디다.”
아무리 불러봐도 대답이 없제.
“식음²⁵⁵)을 전폐터니²⁵⁶)
기허²⁵⁷)하여 그러시오?
이 약 잡습시다.”
곱씨부인을 안아 일으키랴 혈 제,
사지²⁵⁸)에 맥이 없고,
수족²⁵⁹)이 늘어지니
덜컥 의심이 나서,

A wild goose cries sadly in the north sky.
A winding stream chokes with sobs at every turn.
How can a human being not feel sad?
With a few hiccups, she takes her last breath.

7. (Mr. Sim's Wailing) Mr. Sim later realizes that Mrs. Gwak died, and wails wildly.

[Aniri] Meanwhile, Mr. Sim does not know that his wife has died.

"Hello dear. Not all sick people die.

I will go and get medicine from a doctor.

Wait for me here."

He goes to a drug store quickly.

He brings medicine quickly.

He asks Mrs. Gwideok to pour water, boil the herb, and squeeze it.

He comes back into the room rapidly.

"Honey, please take this medicine.

It will have an immediate effect."

No matter how hard he calls, she doesn't answer.

"You neither ate nor drank for a while.

Are you weak now?

Please take this medicine."

He tries to help her sit up.

Her four limbs don't have strength.

Her hands and legs hang down.

He suddenly feels something horrible.

콧궁기²⁶⁰)에 손을 대보니,
 콧궁기에 찬 기운이 도는구나.
 그제야 꺾씨부인 죽은 줄을 짐작하고
 실성발광²⁶¹)으로 미치는데,
[중중모리] 심봉사 기가막혀 뺏다 절컹²⁶²) 주짖으며,
 “어허. 허허허허. 이것이 웬 일이냐?
 었다, 동네사람들, 우리 마누라가 죽었소.
 허허허어, 참으로 죽었는가?
 죽을 줄 알았으면 약 지리 가지 말고
 머리맡에 앉았다 극락 세계로 가라고 염불²⁶³)이나 외울 것을.
 약능활인²⁶⁴)이요, 병불능살인²⁶⁵)이라더니,
 약이 모두 원수로다.”
 약그릇을 번뜻 들어 방바닥에 부딪치고,
 섰다 거꾸러져 떼그르르르르 궁굴러²⁶⁶) 보고,
 가슴을 광광 치고,
 머리도 찌걱찌걱,²⁶⁷)
 두 발을 둥둥둥둥,
 여광여취,²⁶⁸) 실성발광,²⁶⁹)
 남지서지²⁷⁰)를 가리켜,
 “아이고, 마누라. 마오. 죽지 마오.
 평생 정한 것은 사생동거²⁷¹) 허잖더니,
 염라국이 어디라고 날 버리고 가라시오?
 아이고, 마누라, 마누라, 마누라, 마누라,
 이게 웬일이요?
 인제 가면 언제 와요?
 청춘작반호환향²⁷²)의 봄을 따라 오라시오?

He puts his hand near her nose.
 There is no breath in her nostrils.
 He now realizes that his wife has died.
 He goes wild, losing his mind.
[Jungjungmori] Mr. Sim is struck speechless and slumps down.
 “Oh, my god! I can’t believe this.
 Villagers! My wife has died.
 Oh, did you really die?
 If I had known you would die, I shouldn’t have gone for the
 medicine.
 I should have been with you and prayed that you go to heaven.
 They say that medicine can save a person, and illness can’t kill
 a person.
 For me, however, the medication was rather an enemy.”
 Mr. Sim holds up and throws the medicine bowl on the floor.
 He falls down and tumbles over.
 He hits his chest with his fists.
 He shakes his head back and forth.
 He jumps up and down.
 He looks as if he were crazy or drunk.
 He points to the south and the west.
 “Hello, my dear. Don’t die.
 We promised to live and die together.
 How can you go to the world of the dead, leaving me behind?
 Oh, my dear. Oh, my darling. Oh, my dear.
 I can’t believe this.
 When are you coming back?
 Are you coming back when spring comes?

청천유월내기시²⁷³)에 달을 따라 오라시오?
 해도 졌다 다시 들고,
 꽃도 졌다 다시 피고,
 하늘이 장천²⁷⁴) 구만 리되 삼경²⁷⁵)이 되면 이슬 오고,
 북경²⁷⁶)이 머다 해도 사신행차²⁷⁷)가 왕래헌디,
 마누라는 한 번 가면 다시 오지 못하느니.
 구차히 살자헌들 누굴 믿고 살어나며,
 동지²⁷⁸) 대한²⁷⁹) 긴긴 밤을 젓 먹고자 우는 자식,
 뉘 젓 맥여²⁸⁰) 길르리까? 아이고, 마누라.”
 목제비질²⁸¹)을 덜컹덜컹,
 이리저리 헤매이며,
 “아이고, 마누라! 아이고, 이를 어쩔거나!”

8. (상여소리) 동네 사람들이 상여소리를 하며 곽씨부인의 상여를 메고 나간다.

[아니리] 동네 사람들이 모두 모여들어,
 “고분지통²⁸²) 진정하오.”
 “허허, 여러분들이 오셨소.
 위따,²⁸³) 우리 마누라가 날 버리고 세상을 떠났소그려.”
 “허 참, 가공헌²⁸⁴) 일ियो.”
 동네 사람들이 의논키를,
 “현철하신 곽씨부인이 어느새 죽었으니,
 감장²⁸⁵)이나 하여 주는 것이 어떻겠소?”
 공론²⁸⁶)이 일구여출²⁸⁷)이어늘,
 의금관곽²⁸⁸) 정히²⁸⁹) 하야,

Are you coming back when the moon rises?
The sun set and rose back.
Flowers fell down and bloomed again.
The sky is wide and far, but dew comes down at night.
Beijing is far, but diplomats come and go,
but my wife who has gone will never come back.
Even if I am willing to live, who will I depend on?
The baby will cry for milk during the long night in the cold
winter.
Whose milk will I give her? Alas, honey!"
His head falls down as if his neck were broken.
He moves around wildly.
"Oh, my honey. What should I do now?"

8. (The Bier Song) Villagers sing the bier song while carrying Mrs. Gwak's bier.

[Aniri] Villagers come to Mr. Sim's house.
"Mr. Sim, please calm down."
"Hello, villagers,
my wife has just died, leaving me behind."
"Oh, we feel sorry."
The villagers talk to each other.
"Mrs. Gwak, a good woman, has died.
Why don't we have her funeral on behalf of Mr. Sim?"
Opinions from many mouths are in an agreement.
They prepare a clean shroud and coffin.

소방상²⁹⁰ 대뜰²⁹¹ 우에 결관²⁹²허여 내어놓고,
지상여²⁹³를 곱게 꾸며
명정,²⁹⁴ 공포,²⁹⁵ 삽선²⁹⁶ 등물²⁹⁷ 좌우로 갈라세고,²⁹⁸
거리제²⁹⁹를 지낼 적에,

[창조] “영이기가 왕즉유탕

재진견래 영결종천.³⁰⁰

관음보살.³⁰¹”

[중모리] 요령³⁰²은 땡기랑, 땡기랑, 땡기랑, 땡기랑.

“어허 넘차 너화님.³⁰³

어허 어허 넘차 어이가리 넘차 너화님.”

“현찰허신 곱씨부인,

행실도 음전허고³⁰⁴

재질³⁰⁵이 특수터니마는

어느 사이에 죽었네그려.”

“어허너 어허 넘차 어이 가리 넘차 너화님.”

“북망산³⁰⁶이 머다더니

건너 안산³⁰⁷이 북망이로구나.”

“어허너 어허 넘차 어이 가리 넘차 너화님.”

“여보소, 상두꾼,³⁰⁸ 말을 듣소.

너도 죽어 이 길이요,

나도 죽어서 이 길이라.

인간 세상을 떠나는 것은 우리가 모두 다 일반이로구나.”

“어허너 어허 넘차 어이 가리 넘차 너화님.”

땡기랑, 땡기랑, 땡기랑, 땡기랑, 땡기랑.

“어허넘차 너화님.”

“남문을 열고

파루³⁰⁹를 치니,

They prepare a bier tied with a string in front of the room.
They decorate a bier with paper flowers.
A banner, a towel, boards, and so forth are displayed.
They hold a ritual outside of the house.

[Poetic Mode] “The soul is on the bier to a tomb.
We say with respect, good-bye for good.
The Buddhist Goddess of Mercy!”

[Jungmori] A bell jingles. Jingle, jingle, jingle.
“Yo-ho! Yo-ho!
“Yo-ho! Yo-ho! How should we go? Yo-ho!”
“Mrs. Gwak was wise.
She was nice and kind.
She was talented and special,
but she has already died.”
“Yo-ho! Yo-ho! How should we go? Yo-ho!”
“The mountain of the dead is said to be far.
It is that mountain in front of us.”
“Yo-ho! Yo-ho! How should we go? Yo-ho!”
“Hey bier-carriers! Listen to me.
If you die, you go this way.
If I die, I go this way too.
All of us will leave the world of human beings.”
“Yo-ho! Yo-ho! How should we go? Yo-ho!”
Jingle, jingle, jingle, jingle, jingle.
“Yo-ho! Yo-ho!”
“The south gate is open.
The curfew-lifting bell rings.

계명 산천³¹⁰)에
 해 밝아온다.”
 “어허너 어허 넘차 어이 가리 넘차 너화님.”
 그 때여 심봉사는 굴관 제복³¹¹) 정히 허고,
 상부³¹²) 뒷채 검쳐잡고³¹³)
 아이고 아이고 울고 가며,
 상부 뒷채에다 목도 달려 보고,³¹⁴)
 손뼉 치고 하하 웃어도 보며,
 “아이고, 여보, 마누라! 무정허고 야속허네.”
 상여는 그대로 나가면서
 “어허넘차 너화님.”
 “아이고, 여보 마누라! 나도 가세, 나도 가세.
 눈 먼 가장, 간난 자식 불고³¹⁵) 인정을 바리시고³¹⁶)
 영결종천허네그러.
 산첩첩 노망망의³¹⁷)
 다리 아파 어이 가며,
 일침침 월명명에³¹⁸)
 어느 곳을 가서 쉬어가리.
 부창부수³¹⁹) 우리 정곡³²⁰)
 날과 둘이 함께 가세.
 아이고, 마누라! 무정허고 야속하네.”
 “어 넘차 너화님.”
 도화동 남녀노소 호상³²¹)으로 따라가며 심봉사를 만류한다.
 앞에 상두꾼이 선소리³²²)한다.
 “먼 산 호랑이 술주정허고,
 물가 가재는 사두걸음³²³)친다.”
 “어허넘차 너화님. 어허넘차 너화님 어이 가리 넘차 너화님.”

The rooster cries on a mountain,
 The sun rises."
 "Yo-ho! Yo-ho! How should we go? Yo-ho!"
 Meanwhile, Mr. Sim puts his clothes in order.
 He holds the end of the bier.
 He cries as he follows the bier.
 He hangs his neck at the end of the bier.
 He claps his hands and laughs.
 "Alas! My darling! You are cruel to me."
 The bier moves forward.
 "Yo-ho! Yo-ho!"
 "Alas, my honey, let me follow you.
 You are cruel to leave a blind husband and a little baby.
 You left for good.
 We have a long journey over mountains.
 How can I go when my legs hurt?
 It is getting dark, and the moon is dim.
 Where can I take a rest?
 We were a good couple.
 Let me go with you.
 Oh, my dear! You are cruel and heartless."
 "Yo-ho! Yo-ho!"
 Everybody from Peach Blossom Village follows and consoles Mr. Sim.
 A bier-carrier up front leads the song.
 "A tiger on a distant mountain is drunken.
 A crayfish walks backward."
 "Yo-ho! Yo-ho! Yo-ho! How should we go? Yo-ho!"

9. (평토제) 심봉사가 평토제를 지내며 무덤 앞에서 슬피 운다.

[아니리] 향양지³²⁴) 가리어

안장을 지은 후에³²⁵)

평토제³²⁶)를 지낼 적에,

봉사에게 무슨 축문³²⁷)이 있으리오마는,

이십 안 봉사³²⁸)라,

자기 평생 신세를 생각하고

자탄하여 지어 울음을 우는디,

[축문] “차호³²⁹) 부인, 차호 부인,

요차요조숙녀혜여,³³⁰)

행불구혜고인이라.³³¹)

기백년이해로터니³³²)

홀연몰혜언귀오?³³³)

유추자이영세혜여,³³⁴)

이걸 어찌 길러 내며,

백양모에 일락헌디³³⁵)

산은 첩첩 밤 깊어,

여추추³³⁶) 두루혜여,³³⁷)

무슨 말을 하자한들,

격유현이로수혜여,³³⁸)

뉘라서 대답허리?

선래상지상봉³³⁹)하야

차생³⁴⁰)에는 하릴없네.”³⁴¹)

[진양조] “주과포혜³⁴²) 박전³⁴³)이여, 많이 먹고 돌아가오.”

축문을 지어 외우더니마는,

무덤 앞에 가 꺼꾸러지더니마는,

9. (Burial Ritual) Mr. Sim weeps, holding the burial ritual in front of the tomb.

[Aniri] A sunny place is selected.
The coffin is carefully buried.
The burial ritual is held.
It sounds impossible that a blind man has an ode,
but he became blind at twenty.
He thinks about his overall life.
He composes an ode in lamentation.

[Written Prayer] “Woe to me, my wife!
You were a good wife.
You were a great person.
We promised to grow old together.
How could you come back when you suddenly died?
You left for good, leaving a child behind.
How can I raise her?
The sun already sets over a tree.
Mountains surround us in a deep night.
Ghosts seem to make sounds from all directions.
I want to speak with you,
but the world of the dead and the world of the living are separate.
Who could answer me?
Let’s meet again in a divine world.
I can’t speak with you in the world of living anymore.”

[Jinyangjo] “Please help yourself to the poor food on the altar.”
Mr. Sim finishes reciting his ode.
He falls over in front of the tomb.

“아이고, 여보, 마누라.
 앞산도 첩첩하고
 뒷산도 적막헌데,³⁴⁴⁾
 마누라의 영혼은 어느 곳으로 가라시오?
 무정하고 야속허네.
 마누라 신체³⁴⁵⁾가 집안에 가서 있을 때는 오히려 마음이 든든터니,
 오날부텀은 외로운 이 신세가,
 어느 장남헌³⁴⁶⁾ 자식이 내가 있소?
 일가친척이 어디가 있소?
 아무도 없는 이 신세가
 누구를 대하여 의논을 허오리까?
 아이고, 마누라, 나는 가오.
 잘 사시오.³⁴⁷⁾ 마누라, 부디 잘 가시오.”
 북통단장성³⁴⁸⁾으로 우니
 장사³⁴⁹⁾의 빈객³⁵⁰⁾들이, “봉사님, 그만 울고 어서 일어나시오.”
 심봉사 정신 차려 눈물 씻고,
 “허허, 수고들 많이 허셨소.
 은혜가 백골난망³⁵¹⁾이오그려.”
 한숨쉬고 일어나더니마는,
 집으로 돌아갈 제, 었더지고³⁵²⁾ 자빠지고 울며불며
 끌리어서 돌아간다.

10. (심봉사 우는 딸을 달래) 동네사람들의 위로를 받고 집 으로 돌아간 심봉사가 우는 딸을 달래며 슬퍼한다.

[중모레] 집이라고 들어서니,

“Hello, honey.
 There are many mountains in front.
 The mountains in the back are dreary.
 Where does your soul intend to go?
 You are cold and heartless.
 When your body was at home, I rather felt secure,
 but I am alone from today and on.
 Do I have a grown-up child?
 Do I have a relative?
 I have nobody to turn to.
 Who should I talk with?
 Alas, honey. I am leaving.
 Take care. Honey, take care.”
 He bewails as if his intestine were cut off.
 Guests of the funeral say, “Mr. Sim, please stop crying and get up.”
 Mr. Sim collects himself and wipes tears out.
 “Thank you for the hard work.
 I will never forget your favor.”
 He takes a deep breath and stands up.
 Coming back home, he falls over again and again in tears.
 He is helped by others.

**10. (Mr. Sim’s Soothing the Baby) Consoled by the
 villagers, Mr. Sim comes back home and laments
 while soothing the crying daughter.**

[Jungmori] Mr. Sim is back home.

부엌은 적막하고
 방안은 텅 비었난디,
 향내, 쉼내³⁵³)만 피어 있다.
 방 가운데 우뚝 서서 한참 동안을 생각더니,
 심봉사 발광증³⁵⁴)이 나,
 앉았다 선뜻 일어나며
 문갑,³⁵⁵) 책상을 두루쳐³⁵⁶) 메어다가³⁵⁷)
 와직끈 와그르르르르 쿵 쿵광탕 부딪치며,
 쓰던 수건, 빗던 빗집³⁵⁸)을 모두 주워 내던지더니마는,
 “아서라,³⁵⁹) 이것이 쓸데가 없다.
 이것 두어 무엇 허겼느냐?”
 정신없이 문을 툭 차더니 부엌으로 충충³⁶⁰) 내려서며,
 “마누라 거기 있소? 거 어디 갔소? 허어, 내가 미쳤구나.”
 방으로 다시 들어와
 방 가운데 주저앉아 우두커니 앉았을 제,
 그때여 귀덕이네 아이 안고 들어와서,
 “봉사님, 이 애기로 보더라도
 너머³⁶¹) 애통³⁶²) 마시오.”
 “거, 귀덕이넌가?
 이리 주소, 어디 보세.
 종종 와서 젓 좀 주소.”
 귀덕이네는 건너가고
 아기 안고 자탄³⁶³)혈 제,
 원춘³⁶⁴)에 닭이 울고,
 찬바람은 시르르르르르.
 어린 아기 놀래 깨어 젓 달라고 슬피 운다.

The kitchen is quiet.
The room is empty.
Only the smell of incense and mugwort are left.
He stands in the middle of the room, absent-minded for a while.
Mr. Sim goes wild.
He moves up and down.
He lifts up and holds a box and a desk.
He throws them on the floor, creating thumping sounds.
He picks up an old towel and an old comb and throws them away.
“Alas! These things are useless.
For what should I keep them here?”
Confused, he kicks the door and runs to the kitchen.
“Honey, are you here? Where are you? Alas, I am crazy.”
He comes back into the room.
He sits in the middle of the room, absent-minded.
At that moment, Mrs. Gwideok comes in with the baby.
“Mr. Sim, think about this baby.
Don’t lament too much.”
“Are you Mrs. Gwideok?
Let me take the baby.
Please come here often and give her milk.”
Mrs. Gwideok goes over to her home.
He holds the baby in his arms and laments his hard fate.
A rooster cries from a distant village.
A cold wind blows.
The baby is scared and cries sadly for milk.

“응아, 응아.”

심봉사 기가 막혀 우는 애기를 부여안고,

“우지 마라. 우지를 말어라.

너그³⁶⁵ 모친은 먼 디³⁶⁶ 갔다.

낙양동촌³⁶⁷ 이화정의 숙낭자³⁶⁸를 보러 갔다.

황릉묘 이비³⁶⁹한테 하소연을 하러 갔다.

가는 날은 안다마는

오마는³⁷⁰ 날이 막연쿠나.

니 팔자가 얼마나 좋으면,

너 낳은 칠일만에 너그 모친을 잃었겠느냐?

우지 마라. 우지를 마라.

우지 말라면은 우지 마라.

배가 고파 운다마는

강목수생³⁷¹이라,

마른 낭기³⁷² 물이 나갔느냐?

우지 마라. 우지 마라.

날이 새면 젖 많이 얻어 먹여 주마.

내 새끼야, 우지 마라.”

11. (젓동냥) 심봉사가 젓동냥으로 심청을 기른다.

[중중모리] 우물가 두레박³⁷³ 소리, 심봉사 반겨 듣고

젓을 멕이러 나간다.

한편에 아기 안고, 또 한편 지팽이 짚고,

더듬 더듬 더듬 더듬 더듬 더듬히³⁷⁴ 나간다.

“Eunga! Eunga!”

Mr. Sim is astonished and holds the crying baby in his arms.

“Please don’t cry.

Your mom went far away.

She went to meet an ancient girl on a pavilion.

She went to a shrine to tell ancient queens about her sad life.

We know when she left,

but we don’t know when she will come back.

You are born with a bad fate.

You lost your mom seven days after you were born.

Please don’t cry.

I told you not to cry.

You cry because you are hungry,

but a dry branch doesn’t have water.

Water does not come out of a dry tree.

Please don’t cry.

I will give you a lot of milk once the day breaks.

Please don’t cry, my daughter.”

11. (Milk-Begging) Mr. Sim raises Sim Cheong by begging for milk.

[Jungjungmori] Mr. Sim is delighted to hear bucket sounds near the well.

He goes to the well to get milk.

The baby is in one hand, and a cane is in the other.

He moves forward unsteadily.

우물가 찾아가서 애연히³⁷⁵⁾ 비는 말이,
 “여보시오, 부인님네들. 이 애 젓 좀 먹여 주오.
 칠일 안으 모친 잃고
 젓을 못 먹어서 죽게 되니,
 이 애 젓 좀 먹여 주오.”
 보고 듣는 부인들이, “아이고, 그것 불쌍하구나.”
 젓을 많이 먹여주며, “여보시오, 봉사님.
 내일도 안고 오시고, 모레도 안고 오시면,
 우리 애기는 못 먹여도
 그 애 설마 굶기리까?”
 심봉사 좋아라고,
 “은혜 백골난망³⁷⁶⁾이오.”
 육칠월 띄약별³⁷⁷⁾에 지심³⁷⁸⁾ 매고 쉬는 곳도 허유허유³⁷⁹⁾ 찾어가고,
 시내 유수³⁸⁰⁾ 빨래하는 그런 곳도 찾아 가서,
 “여보시오, 부인네들. 댁 집에 귀한 애기 먹다 남은 젓 한통 이에 젓
 조금만 먹여주오.”
 보고 듣는 부인들이 다투어 서로 먹여주니,
 심봉사가 좋아라고,
 양지바른 언덕 밑에 터버리고³⁸¹⁾ 쉬어 앉어
 아이를 안고 어룬다.³⁸²⁾
 “둥둥둥, 내 딸이야. 어화 둥둥 내 딸이야.
 아이고, 내 새끼, 배불렀구나.
 이 덕이 뉘 덕이냐?
 동네 부인의 덕이라.
 수복강녕³⁸³⁾을 허옵소서.
 너도 어서 수이³⁸⁴⁾ 자라

He arrives at the well and asks pathetically.
“Hello ladies, please give some milk to this baby.
She lost her mom seven days after she was born.
She is starving now.
Please give her some milk.”
The ladies respond, “What a poor baby!”
They give her a lot of milk. “Hello, Mr. Sim.
Come to us tomorrow, and the day after tomorrow.
Our babies might be hungry,
but would we let your baby go hungry?”
Mr. Sim is delighted.
“I eternally appreciate your favor.”
He manages to find the women resting after removing weeds
in the scorching sunshine.
He finds his way to the women washing clothes in the stream.
“Hello, ladies! If some milk is left after your precious child is
fed, please give some to this baby.”
Ladies compete with each other to give milk to the baby.
Mr. Sim is joyous.
He sits down and takes a rest in a shiny place.
He dandles the baby.
“Oh, my lovely daughter. Oh, my daughter.
My child is now full.
To whom do we owe this?
We owe this to the ladies in the village.
May they live long and healthy lives!
My daughter, please grow up quickly.

현철하고 효행이 있어
 애비 귀염³⁸⁵을 쉬 보여라.
 어려서 고생하면 부귀다남³⁸⁶을 헨다더라.
 아들 같은 내 딸이야,
 언덕 밑에 귀남이³⁸⁷ 아니냐?
 설설이³⁸⁸ 기어라, 어화 둥둥 내 딸이야.”
 따둑따둑³⁸⁹ 잠들이고,
 삼배 전대³⁹⁰를 두루 뭉치어 왼편 어깨다 들어메고,
 한달 육장³⁹¹ 전 거두기,³⁹²
 어린 아기 맘죽차로³⁹³ 갱엿,³⁹⁴ 홍합을 많이 사 근근히³⁹⁵ 지내갈 적,
 매월 삭망³⁹⁶ 소대기일³⁹⁷을 허망히 모두 넘어가니,
 그 때여 심청이난 장래 귀히 될 사람이라,
 천지 귀신이 도와주고 제불보살 음조하야,³⁹⁸
 외 분뎡,³⁹⁹ 달 분뎡 잔병 없이 잘 자러나
 육칠세가 되었드라.

12. (심청 부친 봉양) 하루는 심청이 아버지께 자신이 밥을 빌어 공양을 하겠다고 말한다.

[아니리] 하루는 심청이 저의 부친 앞에 단정히 꿇어앉아,
 “아버지, 오늘부터 제가 나가 밥을 빌어 조석⁴⁰⁰ 공양하오리다.”⁴⁰¹
 심봉사 이 말 듣더니, “악아, 내 아무리 곤궁헌들,
 무남독녀⁴⁰² 외딸을 내보내 밥을 빌어오게 허다니?
 그런말 다시 하지 마라.”

Be wise and virtuous.
Your father will love you.
A painful childhood bears future success.
My daughter is like a son.
Aren't you my precious child?
Toddle slowly. Oh, my daughter!
He pats her to sleep.
He hangs a bag made of hemp cloth on his left shoulder.
He begs from stores in a market.
He buys a lot of glutinous rice jelly and sea mussels to make
a soup for the baby.
He can't hold monthly religious rituals for his wife.
Now, Sim Cheong is fated to achieve a feat in the future.
With the secret help from various gods,
she grows up well without getting sick.
She is now seven.

12. (Sim Cheong Supports Her Father) One day Sim Cheong says that she will beg for food to support her father.

[Aniri] One day, Sim Cheong kneels down politely in front of her father.

"Father, from today and on I will beg for food and serve you meals.."

Mr. Sim responds, "Sweetheart, I am poor,
but could I send my only child to beg for food?
Don't say that again."

[진양조] 심청이가 여짜오되,

“말 못허는 가마귀도 공림⁴⁰³의 저물어진 날에 반포지은⁴⁰⁴를 허옵
난디,

하물며 사람이야 일러⁴⁰⁵ 무엇허오리까?

아버지 어두신 눈으로 짙은 데⁴⁰⁶ 야찬 데⁴⁰⁷

천방지축⁴⁰⁸ 다니시다 병이 날까 염려오니,

아버지는 오날부터 집에 가만히 계옵시면,

제가 나가 밥을 빌어서 조석 공양을 허오리다.”

13. (심청 결식) 심청이 밥을 빌어 아버지를 봉양한다.

[아니레] “기특타,⁴⁰⁹ 내 딸이야.

너 그런 말 다 어디서 들어 배웠느냐?

용생용⁴¹⁰ 봉생봉⁴¹¹이라더니,

현철⁴¹²허신 너의 모친을 닮았거든

내게 그런 효심이 없을쏘냐?

네 뜻이 정 그렇다면 오늘 아침만 얼른 다녀오너라.”

[중모레] 밥을 빌러 나가는데,

먼 산에 해 비칠 제

앞마을에 연기난디,⁴¹³

헌 베 중우⁴¹⁴ 다님⁴¹⁵ 메고,

앞췌⁴¹⁶ 없는 헌 저고리,

청목⁴¹⁷ 휘항⁴¹⁸ 둘러쓰고,

서리 아침 치운⁴¹⁹ 날에

팔짱 끼고 옆걸음⁴²⁰쳐 별벌 떨고 가는 모양,

[Jinyangjo] Sim Cheong responds,
“Even a dumb crow feeds its parents in return in a grove at the
sunset in fall.
A human being should do the same thing all the more.
You are blind, and the street is rugged.
I am afraid you might get sick if you rush around.
Please stay home from today and on.
I will beg for food and serve you with meals.”

13. (Sim Cheong's Begging) Sim Cheong supports her father by begging for food.

[Aniri] “Good! My daughter!
Where did you learn those scholarly words?
A good parent gives birth to a good child.
You resemble your virtuous mother.
It is natural that you are considerate to your parents.
If you insist, please make a trip only this morning and come
back quickly?”

[Jungmori] Sim Cheong goes out to beg.
The sun rises from a distant mountain.
Smokes rise up in the neighboring village.
She wears old hemp trousers tied by ankle bands.
Her old jacket doesn't have a frontal cloth.
She jams a blue cotton headgear on.
It is a cold morning, with frost.
She folds her arms and shudders as she sidles along.

수풀에 울던 새가 외로이 날아간 듯,
 바람 불고 비 오는 날 어미를 못 잊어서 떠나가는 가마귀라.
 가가문전⁴²¹⁾ 당도하여 애연히⁴²²⁾ 비는 말이,
 “모친 세상 바리시고⁴²³⁾
 앞 어두신 우리 부친
 어느 님 줄을 모르시오?
 한 술씩만 주시오면 치운 방 늙은 부친 시장을 면켰내다.⁴²⁴⁾”
 부인이 가공하여,⁴²⁵⁾
 그릇밥, 김치, 장을 애끼잡고 덜어 주니,
 두서너 집이 죽한지라,⁴²⁶⁾
 속속히⁴²⁷⁾ 돌아가서
 사립⁴²⁸⁾ 안을 들어서며,
 “아이고, 아버지. 춥지 않소? 시장하시지요?
 어언간⁴²⁹⁾에 더디었소.”
 그 때여 심봉사는 어린 딸을 내보내고 혼자 앉아 자탄허다,
 심청 소리를 듣더니마는,
 “거, 청이 오느냐?
 아이고, 내 새끼야.
 손 시리다 불췌어라.
 발도 차구나.”
 어루만지면서,
 “애닭구나, 너그⁴³⁰⁾ 모친.
 너그 모친이 살았으면, 널로 하야⁴³¹⁾ 밥을 빌어 이 밥 먹고 산단 말이나?
 모진 목숨 죽지도 않고
 자식 고생까지 시키네.
 아이고, 어쩔거나.”

She looks like a bird flying away alone after crying in a bush,
and like a crow departing on a windy and rainy day because
it can't forget its parents.
She arrives at a house and begs in a pathetic manner.
"My mother left this world.
My father is blind.
You must know of him.
A spoon of food would relieve my old father of hunger in a
cold room."
A lady takes a pity on her.
She generously gives her a bowl of rice, kimchi, and sauces.
She gets enough food from a few houses.
She goes back home in a hurry.
She goes through a twig gate.
"Hello, father. You must feel cold and hungry.
I got late without my knowledge."
Mr. Sim has been sighing over his fate alone after she left.
He hears Sim Cheong's voice.
"Hi, there. Are you Sim Cheong?
Oh, sweetheart!
Your hands are cold. Come to this warm place.
Your feet are cold too."
He caresses her.
"A thought about your mother breaks my heart.
If she were alive, I wouldn't have to live on food you begged
for.
My life is persistent.
Your life is hard because of me.
Alas! Woe to us."

부녀 서로 붙들고서 한참 앓아 울음을 운다.

[중중모리] 춘하추동 사시절⁴³²⁾ 동네 걸인이 되는데,

일년, 이년, 삼사년,

나이 십이 세가 되어지니,

동넛집 바느질쌔,

공밥⁴³³⁾ 먹지를 아니하고,

일 없는 날 밥을 빌어 근근히 지내갈 제,

세월이 여류허여⁴³⁴⁾

나이 십오 세가 되었구나.

14. (시비 따라) 무릉촌 장승상댁 부인이 심청을 부르자, 심청이 시비를 따라 건너간다.

[아니리] 이러한 소문이 원근⁴³⁵⁾에 자자터니,⁴³⁶⁾

그때여 무릉촌 장승상⁴³⁷⁾댁 부인께서 시비⁴³⁸⁾를 보내어 심청을 청했
것다.

심청이 저희 부친께 여쭙기를,

“아버지. 무릉촌 장승상댁 부인이 시비를 보내어 저를 청했사오니,
어찌 하오리까?”

“아차차, 내 잊었구나.

내가 먼저 너를 그 댁에 보냈어야 할 것을.

악아, 그 부인으로 말하자면 일국⁴³⁹⁾의 재상⁴⁴⁰⁾ 부인이요,

너희 죽은 모친과는 아주 절친한 터이니,

묻는 말에나 대답하고, 공손히 앉아 있다

곧 돌아오도록 하여라.”

They hug each other and cry for a while.
[Jungjungmori] Sim Cheong begs in the village all year around.
One, two, three, and four years pass.
Sim Cheong is now twelve.
She does needlework for money.
She tries not to eat free food.
When there is no needlework, she lives on begging.
Time flies like an arrow.
She is now fifteen.

**14. (Following a Maid) A noble lady in Paradise Village
invites Sim Cheong. Sim Cheong follows a maid
over to the noble lady.**

[Aniri] Words about Sim Cheong spread all over.
A noble lady in Paradise Village sends her maid to Sim Cheong
to invite her.
Sim Cheong asks her father.
“The noble lady in Paradise Village sent a maid to invite me.
What should I do?” “Gee, I forgot about her.
I should have sent you there before she invited you.
Speaking of her, she is the wife of a minister of this country.
She was a very close friend of your deceased mother.
Answer her questions and sit politely.
Come back quickly.”

[진양조] 시비 따라 건너갈 제,
 승상택 계신 곳을 원원히⁴⁴¹⁾ 바라보니,
 대문 앞에 심은 버들, 청청한⁴⁴²⁾ 시상춘⁴⁴³⁾에,
 황금같은 저 꼬꼬리는 자어내니⁴⁴⁴⁾ 유사⁴⁴⁵⁾로구나.
 대문 안을 들어서니,
 가사⁴⁴⁶⁾도 웅장하고
 문창⁴⁴⁷⁾도 화려하다.
 당상으⁴⁴⁸⁾ 반백⁴⁴⁹⁾이나 된 부인이 심청을 보고 반기시며,
 “네가 진정 심청이냐?
 듣던 말과 같도다.”
 당상으로 인도하여 좌⁴⁵⁰⁾를 주어 앉으라고 한다.

15. (장승상택 부인 수양딸⁴⁵¹⁾ 제안) 장승상택 부인이 수양 딸이 되어 줄 것을 청하지만, 심청은 거절한다.

[중중모리] 심청이 거동뻐라.
 가장⁴⁵²⁾ 단장헌 일 없이
 천자⁴⁵³⁾ 만고 국색⁴⁵⁴⁾이라.
 염용하고⁴⁵⁵⁾ 앓는 거동,
 백석청탄⁴⁵⁶⁾ 맑은 물에 목욕을 하고 앓은 제비, 사람 보고서 날아
 난⁴⁵⁷⁾ 듯,
 황홀한 저 얼굴은 천심⁴⁵⁸⁾에 돋은 달이 수변⁴⁵⁹⁾에 가서 비치는 듯,
 말하고 웃는 양은 부용화⁴⁶⁰⁾가 새로 피는 듯,
 천정⁴⁶¹⁾ 미간⁴⁶²⁾의 두 눈썹은 초생달이 뜬 듯하고,
 도화 양협⁴⁶³⁾의 고운 빛은 무릉도원⁴⁶⁴⁾이 비치는 듯,

[Jinyangjo] Sim Cheong follows the maid.
She sees the distant place where the noble lady is.
In front of the gate are green willows.
A golden nightingale flies among the willow branches.
Sim Cheong goes through the gate.
The house looks majestic.
The door and the window are splendid.
A lady in her fifties on the floor, warmly welcomes Sim Cheong.
“Are you Sim Cheong?
They were right about you.”
The noble lady leads Sim Cheong to the floor and offers a seat.

15. (The Proposal of the Noble Lady to be Adopted)
The noble lady asks Sim Cheong to be her adopted
daughter, but Sim Cheong declines her proposal.

[Jungjungmori] Behold Sim Choeng.
She did not use any makeup,
but she is a rare beauty.
She sits elegant and quiet.
She looks as if a swallow bathed in a beautiful stream, saw a
human being, got frightened, and tried to fly up.
Her adorable face looks like the moon in the middle of the sky
reflected on the water.
When she speaks and smiles, she looks like a blooming lotus
flower.
Her eyebrows on her forehead look like a crescent moon.
Her cheeks give off light like divine peach blossoms.

백우홍화 돋는 양, 어허 한 날을 실었도다.⁴⁶⁵⁾

부인이 칭찬허며,

“전생 내 몰라도

응당 선녀로다.

도화동에 적거하야⁴⁶⁶⁾

무릉춘에 내가 나고,

도화동에 내가 나니,

무릉춘 봄이 들어

도화동 개화⁴⁶⁷⁾로다.

이내 말을 들어봐라.

승상은 일찍 기세허고,⁴⁶⁸⁾

아들이 삼형제나 황성⁴⁶⁹⁾ 가서 등사허고,⁴⁷⁰⁾

다른 자식은 손자가 없으니

뉘하고 말벗 없어,

대하나니 촛불이요, 보는 것이 고서⁴⁷¹⁾로다.

네 신세 생각허니,

양반 후예로서 저다지 곤곤허니,⁴⁷²⁾

나의 수양딸이 되었으면,

예절도 숭상허고 문자도 학습하야,

기출⁴⁷³⁾같이 성취⁴⁷⁴⁾시켜

만년⁴⁷⁵⁾ 영화⁴⁷⁶⁾를 볼 것이니,

네 뜻이 어떠허냐?”

[중모레] 심청이가 여짜오되, “명도⁴⁷⁷⁾가 기구허여

낳은 지 칠일 만에 모친을 잃사옵고,

앞 어두신 부친께서 동냥 젓을 얻어먹여 근근히 길렀더니,

내가 부친 모시기를 모친 곁 모시옵고,

She looks as if a red flower from a white lotus root embraced
the sunlight.
The noble lady adores her.
“I don’t know about the former life,
but you must have been a goddess.
A goddess is relegated to Peach Blossom Village.
I was born in Paradise Village.
You were born in Peach Blossom Village.
Spring has come to Paradise Village.
Peach Blossom Village blooms.
Please listen, sweetheart.
My husband died a long time ago.
My three sons are in Seoul, working for the government.
I don’t have a grandchild.
I don’t have anybody to talk with.
All I have is the candles and old books.
I thought about your fate.
You, a descendent of a high class, are poor and lonely.
If you are adopted to me,
You will learn the virtues and classics.
I will support your marriage,
and be happy in the twilight of my life.
What do you say?”

[Jungmori] Sim Cheong answers, “My fate is terrible.
I lost my mother seven days after I was born.
My blind father managed to raise me by begging for milk.
I serve my father as if he were my mother.

우리 부친 날 믿기를 아들같이 믿사오니,
 사정이 서로 의지하여
 모쪼록⁴⁷⁸⁾ 모시자 허옵내다.”
 말을 마친 후에 두 눈에 눈물을 듣거니 맺거니⁴⁷⁹⁾
 떨어지는 양은 춘풍세우⁴⁸⁰⁾가 도화⁴⁸¹⁾에 잠겼다 점점이⁴⁸²⁾ 떨어지니,⁴⁸³⁾
 부인이 가궁허여⁴⁸⁴⁾
 부끄러이 말하면서, “출천지대효⁴⁸⁵⁾로다.
 좁은 마음으로 실언⁴⁸⁶⁾을 하였으니
 부디 섭섭히 생각마라.”

16. (심봉사 물에 빠짐) 딸의 귀가가 늦어지자, 심봉사가 딸을 찾으러 나가다가 개천에 빠진다.

[아니리] “일력⁴⁸⁷⁾이 다해가오니 이만 물러갈까 하오이다.”
 부인이 연연하여⁴⁸⁸⁾
 양식과 채단⁴⁸⁹⁾을 후히 주며,
 “나는 너를 딸로 알 것이니,
 너는 나를 잊지 말고,
 모친으로 알고 종종 다니는 것이 다행일까 하노라.”
 하직코 돌아올 제,
 [창조] 그때여 심봉사는 딸을 승상댁에 보내놓고 적적한 빈 방에 딸 오기를 기다릴 제,
 [진양조] 배는 고파 등에 붙고
 방은 치워서⁴⁹⁰⁾ 한기⁴⁹¹⁾ 들 제,
 먼 데 절 쇠북⁴⁹²⁾을 치는디,

My father trusts me as if I were his son.
We depend on each other.
I wish to take care of him.”
When she finishes, her eyes are wet with tears.
Tears fall down as if a fine spring rain stayed in a peach flower
and drops fell down.
The noble lady takes pity on her.
She feels ashamed and says, “You are a good child.
I was narrow-minded to make the improper remark.
Please don’t feel bad.”

**16. (Mr. Sim Falls into a Stream) Sim Cheong gets late.
Mr. Sim goes out to meet her and falls into a
stream.**

[Aniri] “It’s getting dark, so I must leave now.”
The lady feels sympathy for Sim Cheong.
She gives her food and silks generously.
“I shall take you as my daughter.
Please don’t forget me.
Take me as your mother and visit here often.”
She says good-bye and leaves.

[Poetic Mode] Meanwhile, Mr. Sim waits for his daughter alone
in the quiet and empty room after sending her to the noble lady.
[Jinyangjo] He is very hungry.
It is cold in the room.
A bell rings from a distant buddhist temple.

날 저문 줄을 짐작하고 혼자 앉아서 딸을 부른다.
 “나의 딸 심청이는 어이하여 못 오느냐?
 부인에게 붙들렸나?
 집에 오다 욕을 보느냐?
 내 딸 소문이 사방에 낭자터니,
 승상부인이 오란다 허고,
 몹쓸 놈들이 중로⁴⁹³)에 가 늘어서서 내 딸마저 다려갔느냐?”⁴⁹⁴)
 원갓 생각을 다 하면서
 오고가는 사람 소리도 듣고,
 개만 커경경 짖고 나도,
 ‘내 딸 청이 게 오느냐?’
 가만히 들어 보고, 나뭇잎만 떨어져도,
 “내 딸 청이 게 오느냐?”
 아무리 불리도 적막공적,⁴⁹⁵) 인적⁴⁹⁶)이 끊쳤으니,
 “내가 분명 속았구나.
 이놈의 노릇을 어찌를 헐꼬나.”
 자진복통⁴⁹⁷)으로 울음을 운다.
[자진모리] 심봉사 답답하여,
 닫은 방문 필쩍⁴⁹⁸) 열고
 지팡막대 찾아 쥐고
 더듬 더듬 더듬 더듬 더듬 더듬이⁴⁹⁹) 나가다가,
 길⁵⁰⁰) 넘은 개천물에 미끄러져 물에 가 푹!
 나올라고 읊겨 디디면
 도로 들어가 허리가 획!
 또 읊겨 디디면
 도로 들어가 턱에가 꺾 차노니,

He calls his daughter, thinking that it is getting dark.
“Why is my daughter, Sim Cheong, not coming back?
Is the noble lady holding her?
Did something happen on her way back home?
Words about my daughter were everywhere.
I fear that after hearing that the noble lady wanted to see her,
bad guys stood in a row on the street and kidnapped her.”
All sorts of thoughts occur in his mind.
When he hears passersby,
or when a dog barks,
he says, ‘Is that my daughter, Cheong?’
When he listens carefully, he can hear leaves fall down.
“Is that my daughter, Cheong?”
However hard he shouts, there is nobody to help him on the street.
“It was surely a false perception!
What should I do?”
He goes wild and cries hard.

[Jajinmori] Mr. Sim is restless.
He opens the closed door abruptly.
He finds and grabs a cane.
He moves forward unsteadily.
He slips into a stream deep enough to bury a man.
He steps on something to get out,
but he slides back down, and his waist moves fast.
He steps on something to get out,
but he slides back down, and his chin reaches the surface.

심봉사 읍도⁵⁰¹) 뛰도 못하고,
“아이고, 도화동 사람들! 심학규 죽네!”
아무리 불러봐도 적막공적에 인적이 끊어지니,

17. (심봉사 구출) 지나가던 몽은사의 화주승이 심봉사를 구해낸다.

[아니리] 일모도궁⁵⁰²)하얏으니
뉘라 사람 살리리오마는,
사람 살 곳은 곳곳마다 유지것다.⁵⁰³
그때 마침 중 하나가 올라가는데,
[옛모리] 중 올라간다. 중 하나 올라간다.
저 중이 어떤 중인고?
행색⁵⁰⁴)을 알 수 없네.
연년⁵⁰⁵) 묵은 중,
허디현⁵⁰⁶) 중, 몽은사 화주승⁵⁰⁷)인데,
절 중창⁵⁰⁸)하러 허고 권선문⁵⁰⁹) 메고
시주집⁵¹⁰) 찾아갔다
절 찾아가는 길이라.
청산은 암암허고⁵¹¹)
설월⁵¹²)은 돌아올 제,
석경⁵¹³)의 빗긴⁵¹⁴) 길로 인도한⁵¹⁵) 곳을 올라간다.
저 중의 호사⁵¹⁶) 보소.
굴갓⁵¹⁷) 쓰고, 장삼⁵¹⁸) 입고,
백팔염주⁵¹⁹) 목에 걸고, 단주⁵²⁰) 팔에 걸어,
백저포⁵²¹) 장삼⁵²²)에 진홍띠⁵²³) 둘러 띠고,

He can neither move nor run.
“Gosh! Villagers in Peach Blossom Village! Sim Hak-gyu is
drowning! Help!”
However hard he shouts, nobody is on the dreary street.

**17. (Rescue of Mr. Sim) A buddhist monk from
Mongeun Temple rescues Mr. Sim out of the water.**

[Aniri] It is dark, and the street is empty.
There is nobody around,
but there is sure to be a human.
At that moment, a buddhist monk goes up a mountain.

[Eotmori] A monk goes up a mountain.
Who is that monk?
We can't know how he looks.
He is many years old.
He is in a shabby attire from Mongeun Temple.
He carries a sign soliciting donations to reconstruct his temple.
He visited houses for donations.
He is on his way back to his temple.
A green mountain is dark.
A moon rises over the snow ground.
He goes up toward an oblique gravel road.
Behold the monk's luxurious costume!
He wears a cylindrical bamboo hat and a ramie coat.
He has strings of 108 beads on his neck and 8 beads on his
arms.
He wears a red belt on the white ramie coat.

소년 당상헌⁵²⁴ 별랑⁵²⁵을 귀 우에 떡 붙이고,
 용두 새긴 육환장,⁵²⁶
 쇠고리 길게 달어 처절 철철철 흔들 흔들 호늘거리고 내려오며,
 육관대사⁵²⁷ 성진⁵²⁸이 용궁에 문안 갔다
 과약주⁵²⁹ 취케 먹고 팔선녀⁵³⁰ 희롱하던
 성진대사의 거동이라.
 중이라 허는 것은 절에 들어도 염불, 속가⁵³¹에 가도 염불,
 “아아헤헤헤이 나무아미타불⁵³² 관세음보살.”⁵³³
 염불하고 올라갈 제,
 풍편⁵³⁴에 들리는 소리,
 사람을 구하거늘,
 저 중이 깜짝 놀래,
 “이 울음이 웬 울음, 이 울음이 웬 울음?
 마외역⁵³⁵ 저문 날에 하소대⁵³⁶로 울고 가는 양태진⁵³⁷의 울음이냐?
 이 울음이 웬 울음?
 여우가 변화하여⁵³⁸ 나를 호리란⁵³⁹ 울음인가?
 이 울음이 웬 울음?”
 죽장을 들어메고
 이리 끼웃 저리 끼웃,
 소리나는 곳 살펴보니,
 어떠한 사람인지 개천물에 풍덩 빠져서, “어푸, 어푸!”
 거의 죽게가 되었구나.
 저 중의 급한 마음, 저 중의 급한 마음
 굴갓, 장삼 훨훨 벗고, 행전,⁵⁴⁰ 다님, 버선 벗어
 세누비⁵⁴¹ 바지가래⁵⁴²를 딸딸 되게⁵⁴³ 말아 자개미⁵⁴⁴ 딱 붙이고,
 물논⁵⁴⁵의 백로 격으로⁵⁴⁶ 징검, 징검, 징검, 징검 들어가,

A symbol of a government official is attached above his earlobe.
 The head of a dragon is carved on his cane.
 Iron rings making sounds hang down on the cane.
 In a novel, Seongjin Monk went to the dragon palace.
 He drank a lot of fruit wines and flirted with eight goddesses.
 He looks like Seongjin Monk.
 A monk should chant a prayer in and out of a temple.
 "Save us, merciful Buddha and the Goddess of Mercy!"
 The monk chants a prayer while going up.
 He hears a faint sound in the wind.
 It is a sound for help.
 The monk is surprised.
 "What is this sound? What is this cry?
 Is this the cry of Yang Taizhen(楊太眞), an ancient beautiful
 woman, on the way to a pavilion at the sunset?
 What is this cry?
 Is this the cry of a fox which intends to bewitch me?
 What is this cry?"
 He lifts up his bamboo cane.
 He looks here and there.
 He looks at the place where the sound originates.
 A man fell into a stream and is drowning there.
 He is about to die.
 The monk feels the need to do something in a hurry.
 He takes off his cylindrical hat, coat, and socks.
 He pulls up his quilted trousers up to the crook of the knee.
 He strides on a rice paddy filled with water like a white heron.

심봉사 고추상투⁵⁴⁷)를 에뚜루미쳐,⁵⁴⁸⁾

“이것이 무엇인가?”

건져 놓고 보니, 전에 보던 심봉사라.

18. (공양미 시주 약속) 눈을 뜰 수 있다는 말에 심봉사는 공양미 삼백 석 시주 약속을 하지만, 중이 떠난 뒤 후 회한다.

[아니레] 화주승이 심봉사를 업고 집으로 돌아오니,

그제야 심봉사 정신을 차려,

“거, 날 살려준 이가 뉘지요?”⁵⁴⁹⁾

“예. 몽은사 화주승입니다.”

“거 참, 활인지불⁵⁵⁰⁾이라더니,

꼭 죽을 사람 살려주니 은혜 백골난망⁵⁵¹⁾이오그려.”

“은혜랄 게 뭐 있습니까.

앞 못 보신 탓이지요.

그러나 좋은 수⁵⁵²⁾가 있소마는.”

“수라니 무슨 수꼬?”⁵⁵³⁾

“예, 우리 절 부처님이 영험⁵⁵⁴⁾이 많아

빌면 아니 되는 것이 없고,

고하면⁵⁵⁵⁾ 응하오니,⁵⁵⁶⁾

공양미⁵⁵⁷⁾ 삼백 석⁵⁵⁸⁾을 부처님께 시주⁵⁵⁹⁾하면 삼년 내로 그 어둔
눈을 뜨실 수 있으리다마는.”

“뭇이 어찌?

아니, 자네 절 부처님이 영험이 많아

공양미 삼백 석만 시주하면, 이 꼭 굶어빠진 눈구녁⁵⁶⁰⁾을 뜰 수가 있다고?”

He encircles Mr. Sim's topknot with his arm.

"What is this?"

After getting him out, he learns he is Mr. Sim.

18. (The Promise to Donate Rice) Mr. Sim promises to donate rice in the hope that he opens his eyes, but he regrets after the monk leaves.

[Aniri] The monk carries Mr. Sim to his house.

Mr. Sim now comes to himself.

"Hi, who saved me? Who are you?"

"I am a monk from Mongeun Temple."

"That's right. Buddha saves people.

Since you saved me, you have my eternal appreciation."

"It was not a sweat at all.

Your blindness is blameworthy.

I have a good idea."

"Good idea? What?"

"Buddha in my temple can work out a miracle.

A prayer can get you anything.

Any request is responded to.

If you donate 300 bags of rice to my temple, you will gain sight within three years."

"What did you say?

Your Buddha can work out a miracle.

If I donate 300 bags of rice, will I open these completely rotten eyes?"

“예.”

심봉사가 눈뜬다는 말에 어찌 좋아왔던지,
전후사⁵⁶¹도 생각지 않고 대번에⁵⁶² 일을 저지르는데,
“어이, 요쇼.⁵⁶³ 그 권선문⁵⁶⁴에 삼백 석 적소, 적어.”

저 중이 깜짝 놀래 허는 말이,

“아이고, 봉사님. 댁내 가세⁵⁶⁵를 둘러보니
삼백 석 키녕 서 홉⁵⁶⁶ 곡식도 없을 것 같은디,
어찌실려고 그러시오?”

“뭇이 어찌?

야, 요놈 봐라, 여.

내가 남의 집 살림 속을 어찌 알고 허는 말이여?
적으라면 썩 못 적어?”

“예. 지금 적고 있습니다.

봉사님, 부처님께 허언⁵⁶⁷을 허면 앓은뱅이가 된다 허니,
내월 십오일날 공양미 삼백 석을 몽은사로 올려주옵소서.
소인은 이만 물러가옵니다.”

“어, 글랑⁵⁶⁸ 염려 말고 불공이나 착실히 드려주게.”

중은 기재⁵⁶⁹허여 절로 돌아가고,

심봉사는 곰곰이 앓어 생각다가

번쩍 정신이 들어,

“허허! 내가 복을 빌어 눈뜨려다 도리어 죄를 짓는구나.”

[중모레] 묵은 근심 햇 근심⁵⁷⁰이 동무지어서⁵⁷¹ 일어난다.

“아이고, 아이고, 내 신세야.

어떤 사람 팔자⁵⁷² 좋아 이목구비⁵⁷³가 완연⁵⁷⁴헌디,

이놈 팔자 어찌허여 형세⁵⁷⁵없고 앞 못보니,

이런 팔자 어디가 있으랴?

“Yes.”

At the words about opening eyes, Mr. Sim can't contain his joy. Without thinking carefully, he makes a commitment in no time.

“Hey, write down 300 bags of rice on the donation roster.”

The monk is astonished.

“Mr. Sim, look at what you've got.

You don't even have a handful of rice, not to mention 300 bags.

How will you handle the consequence?”

“What did you say?

How rude you are!

What makes you think you know about my financial situation?

Just do as I tell you to do.”

“Okay, I am writing it down.

Mr. Sim, if you tell a lie to Buddha, you will be crippled.

Send 300 bags of rice to Mongeun Temple on the 15th next month.

Let me take off now.”

“Don't worry! Just pray good to Buddha on behalf of me.”

The monk records it and goes back to his temple.

Mr. Sim reflects on what he did.

He wises up.

“Gosh, I committed something wrong to open my eyes.”

[Jungmori] Old and new concerns rise up in Mr. Sim's mind.

“Alas! Woe to me.

Others are lucky to have ears, eyes, a mouth, and a nose.

I have a bad fate to be poor and blind.

Who could be more miserable than I?

간간한⁵⁷⁶⁾ 어린 딸로 사해⁵⁷⁷⁾ 동네 밥을 빌어 근근⁵⁷⁸⁾ 연명⁵⁷⁹⁾하는
 노이
 삼백석이 어뎠다고⁵⁸⁰⁾
 활기 있게 적었으니,
 나의 딸 심청이가 만일 이 말을 듣고 보면 애통자진⁵⁸¹⁾을 할 것인데,
 몹쓸 노이 죽지도 않고 못난 짓만 허네그려.
 아이고, 어쩔거나?
 아이고, 이를 어찌를 할거나?”
 복통 단장성으로⁵⁸²⁾ 울음을 운다.

19. (심청의 위로) 심청이 돌아 와서 사정을 듣고 아버지를 위로한다.

[자진모레] 심청이 들어온다.
 시비를 뒷세우고⁵⁸³⁾
 천방지축⁵⁸⁴⁾ 들어와,
 닫은 방문 찢쩍 열고
 부친의 모냥⁵⁸⁵⁾을 보더니 부친 앞으로 우르르르르르르르.
 “아이고, 아버지! 이것이 웬 일이오?
 날 찾아 나오시다 개천에 빠지셔서 이 봉변⁵⁸⁶⁾을 당하였소?
 승상택 노부인이 굳이 잡고 만류허기로 어언간⁵⁸⁷⁾에 더디었소.
 말씀이나 하여 주오.
 답답하여 못 살겠소.”
 [아니레] 심청이 저의 방으로 급히 들어와 옷 한 벌 꺼내어,
 “아버님, 우선 젖은 옷이나 갈아입으시고
 잠시 동안만 계옵시면,

I manage to survive by living off my daughter who begs in the village.

I can't get 300 bags of rice,

but I put my name on the roster without hesitation.

If my daughter, Sim Cheong, knows about this, she will grieve.

A useless man only does a bad thing instead of dying.

What should I do?

What should I do now?"

He cries as if his intestine were cut off.

19. (Sim Cheong's Consolation) Sim Cheong comes back, listens to the story, and consoles her father.

[Jajinmori] Sim Cheong comes back home.

A maid follows her.

She comes into the room fast.

She opens the door fast.

She sees her father and runs to him.

"Father, what happened to you?

Did you fall into a stream on your way to meet me?

I am late because the noble lady held me.

Please tell me.

I feel suffocated."

[Aniri] Sim Cheong goes into her room and pulls out a pair of clothes.

"Father, please change the wet clothes.

Please wait for a moment.

곧 진지 지어 올리겠습니다.”

심봉사 허는 말이, “나 밥이고 뭇이고 안 먹을란다.”

“아버지, 제가 더디 왔다고 노하셨소?”

“아니다. 너 알 일도 아니고,

나 혼자 앓다가 콧 죽어 버릴란다.”

“아버님, 아버님은 저를 아들 겹 믿사옵고

대소사⁵⁸⁸)를 의논터니,

오늘날 너 알아 쓸 곳 없다 하시니,

소녀 마음 매우 췌사옵니다.”

홀쩍 홀쩍 울음을 우니, 심봉사 하릴없이,

“악아, 내 어찌 너를 속일 리야 있겠느냐?

내가 죄다 말허마.

너 오기를 기다리다 못하여 나가다가,

이 앞 개천물에 풍덩 빠져

거의 죽게가 되었구나.

그때 마침 몽은사 화중⁵⁸⁹)인가 발기목탁⁵⁹⁰) 아들놈인지 지나다가

나를 건져 살려놓고,

살살 피어 허는 말이,

뭐 저의 절 부처님이 영험이 많아

빌면 아니 되는 것이 없고,

고하면 응한다고,

공양미 삼백 석을 저의 절 부처님께 시주하면,

삼년 내로 이 콧 굽아빠진 눈구녁을 떠서 대명천지⁵⁹¹)를 볼 수가 있

다는구나.

눈뜬다는 말에 전후사도 생각지 않고 대변에 일을 저질렀으니,

이런 죽일 놈의 애비가 어디 있드란 말이냐?”

I will prepare a meal soon.”

Mr. Sim responds, “Forget the meal. I won’t eat anything.”

“Father, are you angry because I got home late?”

“No, you don’t have to know.

I will brood over the problem alone and die abruptly.”

“Father, you trust me as if I were your son.

You always consulted matters with me,
but today you said I don’t have to know.

I am very disappointed.”

Since she sobs, Mr. Sim can’t help from saying,

“Sweetheart, how could I hold something back from you?

Let me tell you everything.

I couldn’t wait for you here, so I came out.

I fell into the stream in front of our house.

I was about to die.

At that moment, a bad monk from Mongeun Temple was passing
by.

He saved me.

He said something enticing.

His Buddha can work out a miracle.

A prayer can get you anything.

Any appraisal is responded to.

If I donate 300 bags of rice to his temple,

I will open these completely rotten eyes and see the bright
world within three years.”

The words about opening eyes prompted me to make a
commitment.

Who could be a worse father than I in the world?”

[중모레] 심청이가 여짜오되,
 “옛날 꺾거⁵⁹²라고 허는 효자, 찬수⁵⁹³ 공양⁵⁹⁴ 극진혈 제,
 삼세 된 어린아이가 부모 반찬 먹는다고
 산 자식을 묻으라고,
 파는 땅⁵⁹⁵ 금을 얻어 부모 봉양을 허여 있고,
 맹종⁵⁹⁶이라 허는 효자, 엄동설한⁵⁹⁷에 죽순⁵⁹⁸ 끊어 부모 봉양을
 허였으니,
 사친지효도⁵⁹⁹가 옛 사람만은 못하여도,
 지성이면 감천이라,⁶⁰⁰
 공양미 삼백 석을 구하리다.”

20. (심청 축원) 심청이 공양미 삼백 석을 구해달라고 하늘 에 빈다.

[아니레] 이렇듯 부친을 만단⁶⁰¹으로 위로하고,
 심청은 그 날부터 목욕재계⁶⁰² 정히⁶⁰³ 허고,
 후원에⁶⁰⁴ 단⁶⁰⁵을 못고⁶⁰⁶
 지성⁶⁰⁷으로 비는디,
 [진양조] 후원에 단을 못고,
 북두칠성 자야반으⁶⁰⁸
 촛불을 돋오⁶⁰⁹ 키고,⁶¹⁰
 새 사발에 정화수⁶¹¹ 떠서 새 소반⁶¹²에 받쳐놓고,
 두 손 합장 비난 말이,
 “비나니다. 비나니다. 하나님전⁶¹³ 비나니다.
 하느님이 일월⁶¹⁴ 두심이 사람의 안목이온바,⁶¹⁵
 일월이 떨어지면 무삼⁶¹⁶ 분별을 하오리까?

[Jungmori] Sim Cheong responds,
“An ancient man served his parents well with good food,
but his three year old child ate his parents’ food,
so he tried to bury his child.
While digging ground, he found gold and supported his parents.
Another ancient man, a good son, supported his parents with
bamboo sprouts.
I am not as good as the ancient people,
but wholeheartedness moves heaven.
I will get 300 bags of rice.”

20. (Sim Cheong Prays) Sim Cheong prays to heaven for 300 bags of rice.

[Aniri] Sim Cheong consoles Mr. Sim many times.
From that day on, she cleans her body.
She makes an altar in the back yard.
She begins to pray conscientiously.
[Jinyangjo] Sim Cheong builds up an altar in the back yard.
It is deep night with the Great Bear.
She turns on a candlelight.
She places a bowl of pure water on a small dining table.
She puts her two hands together to pray.
“I pray. I pray. I pray to God. I pray.
God created the sun and the moon so that we can see things.
If they fall down, how can we see things?”

무자생⁽⁶¹⁷⁾ 소경 아버 이십에 안맹허여⁽⁶¹⁸⁾ 시물⁽⁶¹⁹⁾을 못하오니,
 명천⁽⁶²⁰⁾이 감동하사,
 아버의 허물을 심청 몸으로 대신하고,
 부친의 어두운 눈을 밝게 점지⁽⁶²¹⁾허옵소서.”
 [창조] “인간의 충효지심⁽⁶²²⁾ 천신⁽⁶²³⁾ 어이 모르리까?
 칠일 안에 모친 잃고
 앞 못 보신 부친으게 겨우겨우 자라나서,
 육보지덕택인댄⁽⁶²⁴⁾ 호천망극⁽⁶²⁵⁾하오리까?
 명천⁽⁶²⁶⁾이 감동하사 공양미 삼백 석을 시급⁽⁶²⁷⁾하여 주옵소서.”

21. (심청 매신)⁽⁶²⁸⁾ 심청이 남경장사 선인들에게 공양미 삼백 석에 몸을 판 뒤, 장승상택 수양딸로 가게 되었다며 아버지를 속인다.

[아니리] 빌기를 다한 후에,
 하루난 그 동리에 요란하게 외치는 소리,
 [중중모리] “우리는 남경⁽⁶²⁹⁾ 장사 선인⁽⁶³⁰⁾으로,
 인당수라 하는 데는 인제수⁽⁶³¹⁾를 허는 고로,⁽⁶³²⁾
 십오 세나 십육 세나 먹은 처녀가 있으면은 중값⁽⁶³³⁾을 주고 살 것이니,
 몸 팔릴 처녀 있습나?”⁽⁶³⁴⁾
 이렇듯 웨는⁽⁶³⁵⁾ 소리 원근산천⁽⁶³⁶⁾이 땡그렇게⁽⁶³⁷⁾ 들린다.
 [아니리] 심청이 이 소리를 반겨 듣고,
 ‘천우신조⁽⁶³⁸⁾ 기회로다.’
 동네 사람도 모르게 선인들을 청하여 허는 말이,
 “나는 이곳 본촌⁽⁶³⁹⁾ 사람으로,

My father became blind at twenty and can't see things.
 All-knowing heaven, please be moved.
 I will replace his fault with my body.
 Please make his dark eyes bright.”
[Poetic Model] “God must know loyalty and filial piety.
 I lost my mother seven days after I was born.
 My blind father managed to raise me.
 I want to return his favor, which is as vast as the sky.
 All-knowing heaven, please be moved and get me 300 bags of rice.”

**21. (Sim Cheong Sells Herself) Sim Cheong sells herself
 to sailors doing business with Chinese at 300 bag
 of rice. She tells a lie to her father that she is
 adopted to the noble lady.**

[Aniri] She finishes her prayer.
 One day, shouts are heard in the village.
[Jungmori] “We are sailors doing business with the Chinese.
 A human sacrifice is made at Indang Water.
 We want to buy a fifteen or sixteen year old virgin at a high
 price.
 Is there a girl for sale?”
 The shouts are clearly heard in close and distant places.
[Aniri] Sim Cheong is glad to hear the shouts.
 ‘this is an opportunity from heaven.’
 She speaks to the sailors in secret, even to her villagers.
 “I live in this village.

부친이 안맹하여
 공양미⁽⁶⁴⁰⁾ 삼백 석⁽⁶⁴¹⁾을 불전⁽⁶⁴²⁾에 시주하면 그 어두신 눈을 뜨실
 수 있다 하오나,
 가세가 절빈⁽⁶⁴³⁾하야 주선⁽⁶⁴⁴⁾할 길 바이없어
 저를 팔까 하오니,
 저를 사가심이 어떠하오리까?”
 선인들이 좋아라고,
 “낭자는 출천지대효녀⁽⁶⁴⁵⁾시오.
 그러면 값을 얼마 주오리까?”
 “더 주시는 것은 처분이요,
 덜 주시면은 낭패⁽⁶⁴⁶⁾오니,
 공양미 삼백 석을 몽은사 부처님께 바쳐주옵소서.”
 “글랑은 염려 말고,
 우리의 행선⁽⁶⁴⁷⁾ 날이 내월⁽⁶⁴⁸⁾ 십오일이니,
 그날은 저희들과 떠나야 하웁니다.”
 “중값 받고 팔린 몸이
 내 뜻대로 하오리까?
 그는 염려 마옵소서.”
 선인들과 하직하고 집으로 돌아와
 부친전에 고허기를,⁽⁶⁴⁹⁾
 “아버님. 공양미 삼백 석을 몽은사로 바쳤사오니,
 오늘날부터 아무 걱정 마옵시고 편히 계시옵소서.”
 심봉사 이 말 듣고 깜짝 놀래,
 “악아, 네가 그 많은 쌀을 어디서 구했드란 말이냐?”
 심청이 허는 말이, “장승상댁 부인에게 사정을 여쭙었더니,
 공양미 삼백 석을 선뜻 내어주시며,

My father is blind.
The donation of 300 bags of rice to Buddha would open his
eyes,
but we are poor, so we can't make that happen.
I intend to sell myself.
What do you say about buying me?"
The sailors are delighted.
"You are a good daughter.
How much do you want?"
"Giving more is up to you,
but giving less is problematic.
Send 300 bags of rice to Mongeun Temple."
"Don't worry about that.
We are leaving on the 15th next month."
You will have to go with us on that date."
"I am sold at a high price.
How would I refuse?
Don't worry about that."
She says goodbye to the sailors and comes back home.
She speaks to her father.
"I donated 300 bags of rice to Mongeun Temple.
From now on, stop worrying and feel at ease."
Mr. Sim is astonished with her words.
"Honey, how did you get that much rice?"
Sim Choeng replies, "I told the story to the noble lady.
She gave me 300 bags of rice without hesitation.

저를 수양딸⁽⁶⁵⁰⁾로 데려간다 하더이다.”

“거 참, 그 일 잘 되었다.

그 때 수양딸로 들어간다면야 누가 날다려⁽⁶⁵¹⁾ 딸 팔어 먹었다 허겠느냐?

거 참, 그 일 잘 되었다.”

22. (행선 전야) 죽으러 가기 전날, 심청이 부친과 이별을 준비하며 슬피 운다.

[창조] 심청 같은 효심에 어찌 부친을 속일 리가 있겠느냐마는,
그 또한 효심이라.

그렇저렇 지내갈 제

행선 날이 하룻밤이 격한지라.⁽⁶⁵²⁾

[진양조] “눈 어둔 백발 부친 영결허고⁽⁶⁵³⁾ 죽을 일과,
사람이 세상에 삼겨났다가⁽⁶⁵⁴⁾ 십오 세에 죽을 일이 정신이 막막허고,
이리 허여도 뜻이 없고, 저리 허여도 생각이 없네.”

식음⁽⁶⁵⁵⁾을 전폐⁽⁶⁵⁶⁾허고

수심으로 지내다가 다시 곰곰이 생각허니,

“아서라,⁽⁶⁵⁷⁾ 내 이러다 못쓰겠다.

내가 하루라도 살았을 제 부친 의복을 지어 놓으리라.”

춘추 의복 상침⁽⁶⁵⁸⁾ 접것⁽⁶⁵⁹⁾ 박음지어⁽⁶⁶⁰⁾ 농에 넣고,

갓, 망건⁽⁶⁶¹⁾도 다시 손질하여 손쉽게 걸어 놓고,

행선 날을 생각허니

하루밤이 격한지라.⁽⁶⁶²⁾

밤은 적적⁽⁶⁶³⁾ 삼경⁽⁶⁶⁴⁾이 되고,

She said she would adopt me as her daughter.”

“Oh, that’s good.

If you are adopted to her as her daughter, nobody will say I sold you to her.

Things turned out very well.”

22. (Eve of Departure) On the eve of the departure date, Sim Cheong prepares for parting with her father while weeping.

[Poetic Mode] Filial piety would have stopped her from telling a lie to her father,

but she did it also out of filial piety.

Somehow, time passes by.

One night remains before the departure date.

[Jinyangjo] “I am worried about parting with my old blind father for good.

I am also concerned that I will die at the age of fifteen.

I am confused, and I don’t have any thought.”

She stops eating and drinking.

She spends several days worrying and thinking.

“No, I shouldn’t do this.

I should make clothes for my father while I am alive.”

She sews spring and fall clothes and puts them in a wardrobe.

She repairs his hat and headband, and puts them in a handy place.

She thinks about the departure date.

One night remains.

It is quiet and late at night.

은하수는 기울어졌네.
 부친이 께까
 크게 울든⁽⁶⁶⁵⁾ 못하고,
 속으로 느끼어 경경열열하야⁽⁶⁶⁶⁾
 수족⁽⁶⁶⁷⁾도 만지고, 얼굴도 대어보며,
 “아이고, 아버지. 날 볼 날이 몇 날이며,
 날 볼 밤이 몇 밤이오?
 내가 철⁽⁶⁶⁸⁾을 안 연후로 밥벌기를 놓았더니마는⁽⁶⁶⁹⁾
 오늘 밤이 망중⁽⁶⁷⁰⁾이오그려.
 오늘밤 오경⁽⁶⁷¹⁾이 함지⁽⁶⁷²⁾에 머무르고,
 내일 아침 돋는 해를 부상⁽⁶⁷³⁾에 땀 양이면,
 불쌍한 우리 부친 더 모시고 보련마는
 일거월래⁽⁶⁷⁴⁾를 어느 뉘기라⁽⁶⁷⁵⁾ 막을쏘냐?”
 천지⁽⁶⁷⁶⁾가 사정이 없어,
 이윽고 닭이 ‘꼬끼오!’
 “닭아, 닭아, 닭아, 우지를 마라.
 반야⁽⁶⁷⁷⁾ 진관⁽⁶⁷⁸⁾의 맹상군⁽⁶⁷⁹⁾이 아니어든,⁽⁶⁸⁰⁾
 네가 울면 날이 새고,
 날이 새면 나 죽는다.
 나 죽기는 싫지가 않으나,
 불쌍하신 우리 부친 어찌 잊고 가드란 말이냐?”

The Milky Way is off the center of the sky.
For fear that her father might wake up,
she can't cry loudly,
so she sobs only in her mind.
She caresses his limbs and face.
“Alas, father! How many days can you see me?
How many nights can you see me?
After I grew up, I begged around for you.
Tonight is the last night.
If the sun stays in Grand Pond tonight,
and if the rising sun is tied on the East Sea tomorrow,
then, I can serve my father more,
but who could stop time from flowing?”
Time is ruthless.
A rooster cries.
“Rooster, rooster, rooster, please don't cry.
I am not the ancient man your cry once saved at night.
If you cry, the day breaks.
If the day breaks, I die.
I don't mind my dying.
How can I forget and leave my poor father?”

23. (사당 하직) 행선날 아침, 심청은 부친께 아침밥을 지어 올리고, 사당에 가서 하직 인사를 한다.

[중중모리] 날이 차차 밝어지니,
어느새 선인들이 사립⁽⁶⁸¹⁾ 밖으 와 종긋종긋.⁽⁶⁸²⁾
“여보, 낭자. 여보, 낭자. 오늘이 행선날이오니 어서 급히 가옵시다.”
심청이 이 말 듣더니, “여보시오, 선인님네.
오늘이 행선날이온 줄 내 이미 알거니와,
앞 어두신 우리 부친께서 저 몸 팔린 줄 모르오니,
잠깐 지체하옵시면 진지 망중 지어드린 후 떠나는 것이 어떠하오?”
[아니리] 선인들이 쾌히 승낙하니,
정제⁽⁶⁸³⁾로 들어가
눈물 섞어 밥을 지어 부친 앞에 상 올리며,
“아버지, 진지 많이 잡수시오.”
“악아, 오늘 아침에는 밥이 매우 이르구나.”
“짓노라 지은 것이 그리 되었습니다.”
부녀천륜⁽⁶⁸⁴⁾이어든
몽조⁽⁶⁸⁵⁾ 어찌 없을쏘냐?
“악아, 내가 간밤에 묘한 꿈을 꿔지야.”
“무슨 꿈이신데요?”
“내가 하얀 소복⁽⁶⁸⁶⁾을 입고
큰 수레를 타고 갓없이⁽⁶⁸⁷⁾ 가보이던구나.
내가 너를 붙들고 울고불고 야단이 났었지야.
그 꿈을 깨고 내 손수 해몽을 해봤는데,
수레라 허는 것은 귀한 사람이 타는 법이라,

23. (Saying Goodbye in the Ancestral Shrine) In the morning of the departure date, Sim Cheong makes breakfast for her father and says goodbye to her ancestors in the ancestral shrine.

[Jungjungmori] The day breaks little by little.
The sailors are already outside, peeping through the twig gate.
“Hello, miss. Today is the departure date. Let’s hurry up.”
Sim Sheong responds, “Hello, sailors.
I know today is the departure date.
But my blind father doesn’t know that I am sold.
Would you hold on so that I can serve him with the last meal?”

[Aniri] The sailors grant her wish with pleasure.
She gets into the kitchen.
She makes a meal in tears and brings a meal table to her father.
“Father, help yourself.”
“Honey, we have an early breakfast today.”
“I just made the breakfast early.”
Given that father-daughter relationship is from heaven,
there is sure to be a foreboding dream.
“Sweetheart, I have a strange dream last night.”
What dream was it?
“You wore white clothes.
You were going somewhere indefinitely on a big coach.
I grabbed you frantically in tears.
I woke up and interpreted the dream.
Only a noble person can be on a coach.

아마 장승상택에서 너 데려 갈 제 가마 태워 다려갈라는가⁶⁸⁸ 보더라.”

“아버지, 그 꿈 장히⁶⁸⁹ 좋습니다.”

[진양조] 진지상을 물린⁶⁹⁰ 후에

사당⁶⁹¹으로 하직⁶⁹²을 간다.

후원에 돌아를 가더니,

사당문을 가만히 열고

통곡재배⁶⁹³ 하직을 한다.

“아이고, 삼대⁶⁹⁴ 할아버지, 삼대 할머니, 그 지차⁶⁹⁵ 불쌍한 우리 부친.

불효 여식⁶⁹⁶ 청이는

아비의 눈 뜨기 위함으로 남경 장사 선인들께 몸이 팔려 인당수 제수로 가옵니다.

조종향화⁶⁹⁷를 일로 좇아⁶⁹⁸ 꿇게가 되니

불승영모⁶⁹⁹허웁니다.”

사당문을 가만히 닫고 나서더니,

부친앞으로 우르르르르르르 달려들어

부친의 목을 안고 엎드리며,

“아이고, 아버지!”

24. (심봉사 통곡) 심청이 사실을 고하자 심봉사는 죽기로 작정하고 몸부림치며 통곡한다.

[아니레] 말 못하고 딱 기절을 하였구나.

물색⁷⁰⁰ 모르는 심봉사는 깜짝 놀래,

“악아, 네가 이것이 웬 일이냐?

오늘 아침 반찬이 너무 걸더니⁷⁰¹)

It appears the noble lady will take you to her house on a carriage.”

“Father, it was a great dream.”

[Jinyangjo] Sim Cheong takes the meal table out.

She goes to the family shrine to say goodbye.

She turns around to the backyard.

She slowly opens the door of the ancestral shrine.

She gives four big parting bows in tears.

“Alas, grandfather and grandmother, and next, my poor father!

I am a bad daughter.

To open my father’s eyes, I am sold to the sailors and to be used as a sacrifice at Indang Water.

I cannot hold a ritual for you any longer.

I will miss you forever.”

She slowly closes the door and comes back to the room.

Sim Cheong runs to her father.

She falls down and hugs him by his neck.

“Alas, father!”

24. (Mr. Sim Wails) Sim Cheong tells the truth. Mr. Sim wails frantically, ready to die.

[Aniri] Sim Cheong is speechless and passes out.

Knowing nothing, Mr. Sim is petrified.

“Honey, what is going on?

We had a lot of food for breakfast.

무얼 먹고 채했느냐?
 소금을 좀 먹어 불라느냐?”
 아무리 불려도 대답이 없으니,
 “아이고, 이것이 참 기절헌 것이 아니어?
 악아, 어떤 놈이 봉사의 딸이라고 정개⁷⁰²)를 하더냐?
 정신차려 말하여라.”
 그제야 심청이 겨우 정신차려,
 “공양미 삼백 석을 누가 저를 주오리까?
 남경 장사 선인들께 삼백 석에 몸이 팔려,
 오늘 인당수 제수로 가오니,
 저를 망종 보옵소서.”
 심봉사가 이 말을 들어노니,
 눈 뜨기는커녕 누구냐⁷⁰³) 빠지는 말을 들어왔으니,
 일이 장차 어찌 되겠느냐?
[중중모리] 심봉사 이 말 듣고, 섰다 절컹⁷⁰⁴) 주저앉더니,
 “어허, 허허허 어허, 이것이 웬 말이냐!
 악아, 허허 그 말 들음직허다.
 너 하나 날⁷⁰⁵) 양으로
 명산대찰⁷⁰⁶) 영신당,⁷⁰⁷
 나무 보면 목신제,⁷⁰⁸) 돌 보면 석신제⁷⁰⁹)를 지성으로 공을 들여
 천만의외⁷¹⁰) 너를 낳고,
 너 낳은 칠일 만으 어린 너를 품안에 안고 동냥젖을 얻어먹여 이만큼
 자랐기로,
 너그⁷¹¹) 모친 죽은 설움을 차차 잊었더니,
 내가 이것이 웬일이냐?
 애비더러 묻도 앓고 네 맘대로 한단 말이냐?

Do you have an attack of indigestion?

Would you eat some salt?"

No matter how he speaks, she doesn't respond.

"Oh my god. Did you pass out?

Honey, were you ridiculed because you are a blind man's daughter?

Collect yourself."

Sim Cheong now comes to herself."Who would give me 300 bags of rice?

I am sold to sailors trading with the Chinese at 300 bags of rice.

I am leaving today to be used as a sacrifice at Indang Water. This is the last time with you."

Mr. Sim just heard what she said.

Her words could gouge out his eyes rather than open them. Something big is about to happen.

[Jungjungmori] After hearing Sim Cheong, Mr. Sim slumps down.

"My god! What on earth did you say?

What you said sounds terrific.

In order to have you,

your mother visited famous buddhist temples and shrines.

She conscientiously held rituals to a large tree and a large rock.

At last we had you.

Seven days after your birth, I held you in my arms and begged for milk to raise you.

I slowly overcame the sorrow over your mother's death.

I can't believe what you did.

How could you sell yourself without asking me?

눈 팔어 너를 살 데,⁷¹²⁾
 너를 팔어 내 눈 뜯들, 그 눈 떠서 누굴 보랴?
 어쩐 놈의 팔자간디,⁷¹³⁾ 아내 죽고 자식 잃고,
 사궁지수⁷¹⁴⁾가 된단 말이나?
 안 되고, 못 가지야!
 예이, 천하⁷¹⁵⁾ 선인놈들아.
 장사도 좋거니와,
 앞 못 보는 무남독녀
 철 모르는 어린것을
 날 모르게 유인하여 값을 주고 산단 말이나?
 동네방네 사람들 저런 놈들을 그저 두오?
 예이, 천하 상놈들아!
 옛글을 모르느냐?
 칠년대한⁷¹⁶⁾ 가물 적에 사람 잡아 빌라 허니,
 탕임금⁷¹⁷⁾ 어지신 말쑼,
 내가 지금 비는 비는 사람을 위함이니,
 사람 잡아 빌 양이면 내 몸으로 대신 가리라.
 몸으로 대신하여, 신영백모 전조단발,⁷¹⁸⁾ 상림들⁷¹⁹⁾ 빌었더니,
 대우방수천리⁷²⁰⁾에 풍년이 들었단다.
 그런 일도 있었으니 내 몸으로 대신 가면 어떠하냐?
 돈도 싫고, 쌀도 싫고,
 눈 뜨기도 내사⁷²¹⁾ 싫다!”
 마른 땅에 새우 뛰듯,
 여산폭포⁷²²⁾ 돌 굴굴듯,⁷²³⁾
 치둥굴⁷²⁴⁾ 내리둥굴,⁷²⁵⁾
 가슴을 황황 치고,
 발 동동 구른다.

I should rather sell my eyes to buy you.
Even if I open my eyes by selling you, whom could I see with them?
My fate is bad to lose my wife and daughter.
I have all the four miseries of a life.
No way. You can't go.
Hey you bad sailors!
Doing business is okay.
She is a blind man's only child
She is just a kid.
How could you lure and buy her without my knowledge?
Villagers, don't let the villains alone.
How bad you are, sailors!
Don't you know the old story?
People tried to sacrifice a human during the seven year drought.
An ancient king, Tang(湯), said kind words.
We pray for the sake of human beings.
If we want to pray with a human sacrifice, use his body instead.
He cut his nails and hair, tied himself with white grass, and prayed.
They had a big rain and a good harvest in the wide area.
Given the old story, I want to go instead of my daughter.
I want neither money nor rice.
I don't want to open my eyes either!"
As if a shrimp jumped on the dry ground,
and a rock rolled over on a waterfall,
he rolls up and down,
hits his chest with his fists,
and stamps on the ground.

25. (선인 따라) 심청이 선인들을 따라서 슬피 울며 떠나간다.

[아니리] 이렇듯 울고 불고 야단이 났을 적에,
선인들이 이 정상⁷²⁶을 보더니,
“우리들이 비록 사람을 사서 장사를 할지언정,
심봉사 정상이 저다지⁷²⁷ 가공⁷²⁸허니,
쌀 삼백 석, 돈 삼십 냥, 백목⁷²⁹ 세 필⁷³⁰을 각각 동중⁷³¹에 맡겨두고,
심봉사 평생 먹고 살 수 있도록 주선하여 놓고,
심청이를 가져하니,
[중모레] “못 가지야. 못 가지야. 날 버리고 못 가지야.
너 먼저 내가 죽을란다.
아이고, 이놈의 신세 보소.
마누라도 죽고
자식까지 마저 잃네그러.”
엎더저서⁷³² 기절을 하니,
그때여 동네 사람들이 심봉사를 만류하고,
불쌍한 심청이는 하릴없이 따라간다.
선인들을 따라간다.
끌리는 치맛자락 거듬거듬이⁷³³ 걷어 잡고,
흐트러진 머리카락은 두 귀 밑에 늘어지고,⁷³⁴
비와 같이 흐르는 눈물, 옷깃에 모두 다 사무친다.⁷³⁵
엎더지며 자빠지며 천방지축⁷³⁶ 따라간다.
건넌말⁷³⁷ 바라를 보며,
“이진사댁 작은악아,
작년 오월 단오날에 앵두 따고 노던⁷³⁸ 일을 네가 행여⁷³⁹ 잊었느냐?
너희들은 팔자 좋아 부모 모시고 잘 있거라.

**25. (Following the Sailors) Sim Cheong weeps sadly as
she follows the sailors.**

[Aniri] Mr. Sim cries and acts frantically.
The sailors have been watching the sad scene.
We buy a human being to do business,
but Mr. Sim is that pitiful.
So we entrust villagers with a lot of rice, money, and cotton
cloths
that Mr. Sim can use for the rest of his life.”
They ask Sim Cheong to go.
[Jungmori] “No way! You can’t go. You can’t leave me.
I would rather die before you go.
How sad my fate is!
My wife has died.
In addition, I am losing my child.”
He falls down and passes out.
At that moment, villagers stop Mr. Sim.
Poor Sim Cheong leaves with the sailors.
She follows the sailors.
She holds up her trailing skirt.
Untidy hair hangs down under her ears.
Her tears fall down like rain, soaking her clothes.
She falls over as she hurriedly follows the sailors.
She looks over at the neighboring village.
“The second daughter in Mr. Lee’s house!
Don’t forget we had a good time on May 5th last year, picking
up cherries.
You are fortunate to live with your parents.

나는 오늘 우리 부친 이별허고, 죽으러 가는 길이로다.”
 동네 남녀노소 없이 눈이 붓게 모도⁷⁴⁰ 울어,
 하나님이 아신 배라,⁷⁴¹
 백일⁷⁴²은 어디 가고 음운⁷⁴³이 자욱헌데,
 청산도 쟁그리난 듯,
 간수⁷⁴⁴는 오열허여⁷⁴⁵
 휘늘어져 곱던 꽃이 이울고저⁷⁴⁶ 빛을 잃고,
 요요한⁷⁴⁷ 버들가지 줄 듯이 늘였구나.
 춘조⁷⁴⁸는 슬피 울어
 백반제송⁷⁴⁹허는 중에,
 “문노라, 저 피고리,
 어느 뉘를 이별허고
 환우성⁷⁵⁰을 게서⁷⁵¹ 울고,
 뜻밖의 두견이 소리, 피를 내어 운다마는,
 야월공산⁷⁵² 어디 두고
 진정제성⁷⁵³ 단장성⁷⁵⁴은
 네 아무리 불여귀⁷⁵⁵라 가지 우에 얹어 운다마는,
 값을 받고 팔린 몸이
 어느 년, 어느 때나 돌아오리?”
 바람에 날린 꽃이 얼굴에 와 부딪치니,
 꽃을 쥐어 손에 들고,
 “약도춘풍불해의면
 하인취송에 낙화래랴?⁷⁵⁶
 송 무제 수양공주 매화장은 있건마는,⁷⁵⁷
 죽으러 가는 몸이
 뉘를 위하여 단장⁷⁵⁸하며,

Today I parted with my father, and I am going to die.”
Every villager weeps till his eyes swell.
Even heaven knows this.
The bright sun is blocked with dark clouds.
Mountains seem to frown.
A brook in a valley bewails.
Beautiful flowers wither down and lose their color.
Long and thin willow branches droop.
A spring bird chirps plaintively.
Everything sees off Sim Cheong in tears.
“I ask you, nightingale.
Did you bid farewell to somebody?
Why are you singing so sadly?
Unexpectedly, a cuckoo cries, spewing out blood.
You left a moonlit, quiet, and empty mountain.
You weep plaintively.
On a branch you chirp as if you can’t return.
I am sold at a price.
When will I come back?”
A flower flies in the wind and hits her face.
She grabs the flower.
“If this spring wind did not know my sorrow,
why would it send the flower to me?
An ancient princess was adorned with ume blossoms,
but I am on my way to die,
so I don’t have to be adorned with anything.

청산에 지는 꽃은 지고 싶어 지라마는,
 바람에 떨어지니 제 마음이 아니로다.
 죽고 싶어 죽으랴만,
 사세⁷⁵⁹)가 부득허니
 수원수구⁷⁶⁰)를 어이하리?”
 한 걸음에 눈물을 짓고, 두 걸음에 돌아보면서
 강두⁷⁶¹)로만 당도한다.

26. (범피중류) 심청이 인당수를 향해 배를 타고 가며, 주변 의 경관을 보고 탄식한다.

[자진모리] 한 곳을 당도하여,
 배이마⁷⁶²)에다 족관⁷⁶³)놓고
 심청을 인도하여 뱃장⁷⁶⁴) 안에다 앉힌 후,
 건장한 선인들이 각 채비⁷⁶⁵)를 단속한다.
 닳⁷⁶⁶) 감고, 돛을 달고,
 키⁷⁶⁷) 잡고, 뱃머리 들어,
 북을 두리둥,
 여기야 여기야 여기야 여기야,
 북을 두리둥 둥둥둥 두리둥 둥둥둥 둥둥둥 둥둥둥 둥둥둥둥.
 [진양조] 범피중류,⁷⁶⁸) 둥덩실 떠나간다.
 망망현⁷⁶⁹) 창해⁷⁷⁰)이며
 탕탕⁷⁷¹)현 물결이로구나.
 백빈주⁷⁷²) 갈매기는 홍요안⁷⁷³)으로 날아들고,
 삼강⁷⁷⁴)의 기러기난 한수⁷⁷⁵)로만 돌아든다.

Flowers on a green mountain fall down not because they want to.

A wind makes them fall down even if they don't want to.

I am dying not because I want to.

I have no choice but to die.

I can't blame anybody."

As she walks, she sheds tears and looks back.

She arrives at the ferry.

26. (Drifting Along in the Sea) Sim Cheong is on a boat bound for Indang Water. She sighs while watching beautiful sites.

[Jajinmori] They arrive at a certain place.

They put a plank between the land and the bow.

They lead Sim Cheong to a seat on the boat.

Robust sailors prepare for the departure.

They pull up the anchor and unfold the sail.

They hold the rudder and turn the bow around.

They hit the drum.

Yo-ho! Yo-heave-ho!

Tom-tom, Boom-boom.

[Jinyangjo] The boat drifts along in the middle of the sea.

The sea is wide and vast.

The waves are strong.

Seagulls fly from an island of white flowers to a hill of red grass.

Geese from three big rivers come back to another big river.

요량현⁷⁷⁶ 남은 소리⁷⁷⁷
 어적이언마는,⁷⁷⁸
 곡종인불견에 수봉만 푸르렀다.⁷⁷⁹
 애내성중만고수⁷⁸⁰는 날로 두고 이름이라.
 장사⁷⁸¹를 지내갈 제
 가태부⁷⁸²는 간 곳 없고,
 굴삼려⁷⁸³ 어복충훈⁷⁸⁴
 무양⁷⁸⁵도 허도턴가?⁷⁸⁶
 황학루⁷⁸⁷를 당도하니,
 일모향관하치시오?
 연파강상사인수⁷⁸⁸는
 최호⁷⁸⁹의 유적이로구나.
 봉황대⁷⁹⁰를 당도하니,
 삼산은 반락청천외요,⁷⁹¹
 이수중분백로주라.⁷⁹²
 이태백⁷⁹³이 노던⁷⁹⁴ 데요,
 심양강⁷⁹⁵을 당도하니,
 백낙천⁷⁹⁶ 일거후에⁷⁹⁷
 비파성⁷⁹⁸이 끊어졌다.
 적벽강⁷⁹⁹을 그저 가라.
 소동파⁸⁰⁰ 노던 풍월⁸⁰¹
 의구하여⁸⁰² 있다마는,
 조맹덕⁸⁰³ 일세지웅,⁸⁰⁴ 이금으⁸⁰⁵ 안재재오?⁸⁰⁶
 월락오제⁸⁰⁷ 깊은 밤에,
 고소성⁸⁰⁸ 외에다가⁸⁰⁹ 배를 매어,
 한산사⁸¹⁰ 쇠북⁸¹¹ 소리는 전후 상응허여⁸¹² 객선⁸¹³에 텅텅 떨어
 진다.⁸¹⁴

A clear sound approaches from a distant place.
 It must be the sound of a pipe by a fisherman.
 When the sound stops, there are only green mountain peaks.
 The oars make sad sounds as if they were about Sim Cheong.
 The boat passes by a certain place.
 A famous ancient official, Jia Yi(賈誼), has gone.
 A famous ancient poet, Qu Yuan(屈原), became food for fish
 there.
 How is he doing now?
 The boat arrives at a famous pavilion, Huanhelou(黃鶴樓).
 The sun sets. Is my hometown far?
 A wet fog rising up from a river intensifies anxiety.
 That is the trace of the ancient poet, Cui Hao(崔灝).
 The boat reaches a famous tower.
 Three Mountain's peaks rise up through the clouds.
 Two rivers flow around an island.
 Another famous ancient poet, Li Bai(李白), enjoyed himself here.
 The boat comes up to another famous river.
 Another famous ancient poet, Bai Letian(白樂天), has gone,
 So has the sound of the lute.
 The boat arrives at another famous river.
 Another famous ancient poet, Su Dongpo(蘇東坡), enjoyed
 himself here.
 The beautiful scenery has not changed.
 Where is the famous one-time hero, Cao Cao(曹操), who was
 here?
 It is deep night when the moon has set and a crow cries.
 The boat arrives at a famous fortress.
 The bell sounds from a buddhist temple reach the travelers' boat
 in harmony.

진회수⁸¹⁵)를 건너가니,
 격강의⁸¹⁶ 상녀⁸¹⁷)들은
 망국한⁸¹⁸)을 모르고서,
 연룡한수월룡사헌디⁸¹⁹)
 후정화⁸²⁰)만 부르는구나.⁸²¹)
 소상강을 들어가니
 악양루⁸²²) 높은 집은 호상⁸²³)에 높이 솟아,
 동남⁸²⁴)로 바라를 보니 오산⁸²⁵)은 첩첩,⁸²⁶) 초수⁸²⁷)는 만중⁸²⁸)이라.
 반죽⁸²⁹)의 젖은 눈물은 이비⁸³⁰) 한을 띠어 있고,
 무산⁸³¹)의 지는 달은 동정호⁸³²)에 가 비쳤으니,
 상하천광⁸³³)이 푸르렀다.
 삼협⁸³⁴)의 잔내비⁸³⁵)는 자식 찾는 슬픈 소리로
 천객⁸³⁶)소인⁸³⁷)이 몇몇이나 눈물을 지랴?

27. (소상팔경) 심청이 소상팔경을 지나가며 열녀와 충신들 의 원혼을 만난다.

[중모리] 소상팔경⁸³⁸) 지내갈 제,
 한 곳을 당도허니
 옥패⁸³⁹) 소리가 쟁쟁,⁸⁴⁰)
 어떠한 두 부인이 죽림⁸⁴¹) 새로⁸⁴²) 나오는데,
 자하상⁸⁴³) 서주끈⁸⁴⁴)에
 신을 끌고 나오면서,
 “저기 가는 심소저⁸⁴⁵)야.
 네가 나를 모르리라.

The boat gets to a famous canal,
Bar girls on the other side of the river
did not mourn the fall of their country.
When the thick fog was over the cold river and the bright moon
was above the white sand,
they only sang songs.
The boat now enters another famous river.
A tower is high as if it soared from a lake.
To the southeast of the tower are many mountains and rivers.
The tears on the bamboos signify two ancient queens' grief.
The moon rising over a mountain is reflected on a lake.
The blue sky is reflected on the lake.
The apes of a famous canyon sadly call their children,
squeezing out tears from the relegated official and poet.

**27. (The Eight Beautiful Sites) Sim Cheong meets the
souls of faithful women and loyal subjects, when
she passes by the eight beautiful sites.**

[Jungmori] The boat passes by the eight beautiful sites.
The boat reaches a certain place,
Clear sounds of jewels are heard.
Two ladies come out of a bamboo grove.
They wear a purple skirt and an auspicious bead string.
They drag their shoes as they come out.
“Hello there, Miss Sim.
You must not know me.

나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창오산봉상수절이라야
 죽상지루내가떨이라.⁸⁴⁶⁾
 천추⁸⁴⁷⁾의 깊은 한을 하소⁸⁴⁸⁾할 곳이 없었더니,
 지극한 네 효성을 하례⁸⁴⁹⁾코자 나왔노라.
 요, 순, 우, 탕 기천년에⁸⁵⁰⁾ 지금은 어느 때며,
 오현금,⁸⁵¹⁾ 남풍시⁸⁵²⁾를 이제까지 전하더냐?
 수로⁸⁵³⁾ 먼먼 길을 조심하여 다녀가라.”
 이는 아황,⁸⁵⁴⁾ 여영⁸⁵⁵⁾이라.
 오강⁸⁵⁶⁾을 당도하니,
 풍랑⁸⁵⁷⁾ 대작⁸⁵⁸⁾허고
 찬 기운이 치달으며,
 어떠한 사람이 나온다.
 면여거륜⁸⁵⁹⁾허고
 미간⁸⁶⁰⁾이 광활⁸⁶¹⁾헌디,
 가죽을 몸에 입고
 앞에 와 선뜻 나서며 심소저를 부른다.
 “슬프구나.
 우리 오왕⁸⁶²⁾ 백비⁸⁶³⁾의 참소⁸⁶⁴⁾ 듣고,
 축루검⁸⁶⁵⁾ 나를 주어
 이 물에 풍덩 빠졌으니,
 장부의 원통함이 눈 없는 게 한이로다.
 수로 천리 먼먼 길을 조심하여 다녀가라.”
 이는 원고⁸⁶⁶⁾ 허니, 오나라 충신 오자서⁸⁶⁷⁾라.
 거연⁸⁶⁸⁾ 사오삭⁸⁶⁹⁾이 꿈과 같이 지내가니,
 금풍삼이석기허고,

We have the following story.
 After the mountain collapses and the river dries up,
 our tears on the bamboos will disappear.
 We had nobody to talk with about our old griefs.
 We are here to praise your filial piety.
 Thousands of years have passed since famous ancient kings have
 died.
 Were his pentachord and poem inherited?
 Take care in the long journey in the sea.”
 They are the two famous ancient queens, E Huang (娥皇) and
 Nu Ying (女英).
 The boat arrives at a river.
 A strong wind makes large waves.
 A cold energy is felt.
 A man shows up.
 His face is as large as a wheel.
 The space between his eyebrows is wide.
 He wears leather.
 He comes out swiftly and speaks to Miss. Sim.
 “Woe to me!
 My king listened to a false charge by a premier.
 The king gave me a sword to kill myself.
 My body was thrown into this river.
 I was resentful that I didn’t have eyes.
 Take care in the long journey in the sea.”
 This is a famous loyal subject of ancient times, Wu Zixu(伍子胥).
 Several months have already passed like a dream.
 The cool fall wind blows in the evening.

옥우곽이쟁영이라.⁸⁷⁰⁾
 낙하는 여고목제비허고,
 추수는 공장천일색이라.⁸⁷¹⁾
 무변낙목소소하여,⁸⁷²⁾
 옥로,⁸⁷³⁾ 청풍⁸⁷⁴⁾이 붉어 있다.⁸⁷⁵⁾
 외로울손⁸⁷⁶⁾ 어선들은 등불을 돋우어 달고 어가⁸⁷⁷⁾로 화답허니,
 일발청산⁸⁷⁸⁾은 봉봉이⁸⁷⁹⁾ 칼날 되고,
 돋우난 것이 수색⁸⁸⁰⁾이라.
 지레 내가 죽자 허니 선인들이 수직허고,⁸⁸¹⁾
 살아 실려 가자 허니 갈 길이 막막허네.
 앞길은 점점 가까워오고,
 고국은 점점 멀어진다.

28. (인당수 투신) 인당수에 당도하여 고사를 지낸 후 심청이 바다로 뛰어든다.

[자진모리] 한곳을 당도허니
 이난⁸⁸²⁾ 곳 인당수⁸⁸³⁾라.
 광풍⁸⁸⁴⁾이 대작⁸⁸⁵⁾허고,
 바다가 뒤넘으며,⁸⁸⁶⁾
 어룡⁸⁸⁷⁾이 싸우는 듯.
 대천바다⁸⁸⁸⁾ 한가운데, 노⁸⁸⁹⁾도 잃고, 닻도 잃고,
 용충줄⁸⁹⁰⁾ 끊어져,
 키⁸⁹¹⁾도 빠지고,
 바람 불고 안개 잦아진⁸⁹²⁾ 날,

The wide sky is bright,
A lonely bird flies along with the falling evening glow.
The clear water and the high sky of fall are of the same color.
Lonely leaves fall down over a wide area.
The leaves contain a clear dew and a cool wind.
Lonely fish boats hang lamps high and respond with a fishing song.
Thin mountain peaks are sharp like knives,
What rises up is anxiety.
I can't kill myself because the sailors are around.
I can't be carried alive because my future is dark.
The destination comes near little by little.
Hometown gets far.

**28. (Jumping into Indang Water) Sim Cheong reaches
Indang Water. After the ritual, she jumps into the
water.**

[Jajinmori] They arrive at a certain place.
This is Indang Water.
A strong wind blows.
The sea turns over.
It is as if a fish fought with a dragon.
In the middle of the vast sea, they lost oars and the anchor.
The string holding the sail is cut off.
The rudder is pulled off.
It is a windy and foggy day.

갈 길은 천리 만리나 남았는디,
 사면이 어둑 점글어⁸⁹³⁾ 지척⁸⁹⁴⁾ 분별힐 수 없다.
 선인들이 황황대급⁸⁹⁵⁾ 고사기계⁸⁹⁶⁾를 차려
 섬쌀⁸⁹⁷⁾로 밥을 짓고,
 큰 소 잡아 헤뜨리고,⁸⁹⁸⁾
 동이 술,⁸⁹⁹⁾ 삼색⁹⁰⁰⁾ 실과,⁹⁰¹⁾ 오색⁹⁰²⁾ 탕수⁹⁰³⁾를 바쳐 놓고,
 산 돌⁹⁰⁴⁾ 잡아
 큰 칼 꽃아 기는 듯이 받쳐 놓고,
 심청을 정한⁹⁰⁵⁾ 의복을 입혀
 고사 끝에 바칠 차로⁹⁰⁶⁾ 뱃머리에다 얹혀 놓고,
[아니레] 그때여 영좌⁹⁰⁷⁾가 복채를 들어,
 고사를 지내는디,
[중중모레] 복을 두리둥 둥둥둥둥둥둥둥둥.
 “헌원씨⁹⁰⁸⁾ 배를 모아⁹⁰⁹⁾ 이제불통허고,⁹¹⁰⁾
 후생⁹¹¹⁾이 본을 받아 다 각기 위업허니,⁹¹²⁾
 막대한 공 이 아닌가?
 하우씨⁹¹³⁾ 구년지수⁹¹⁴⁾ 배 타고 다스릴 제,
 오복⁹¹⁵⁾의 정한 음식⁹¹⁶⁾ 구주⁹¹⁷⁾로 돌아들고,⁹¹⁸⁾
 해성의⁹¹⁹⁾ 패한 장수 오강⁹²⁰⁾으로 돌아들 적으 그도 또한 배를 타고,
 임술지추칠월에 종일위지소요하야,⁹²¹⁾ 지국충 어사와,⁹²²⁾ 어부의 즐
 거움이라.
 경세우경년⁹²³⁾의 상고⁹²⁴⁾ 선인⁹²⁵⁾ 이 아닌가?⁹²⁶⁾
 우리 동무 스물세 명 상고로 위업하야⁹²⁷⁾ 경동경서⁹²⁸⁾ 다니다가,
 인당수 용왕님네 인제수⁹²⁹⁾를 반삼기로⁹³⁰⁾ 십오세 처녀를 넣사오니,
 동해 적룡신,
 남해 청룡신,

They haven't reached the final destination yet.
It is dark, and they can't even see a close thing.
The sailors hurriedly prepare for a rite.
A bag of rice is cooked.
A cow is slaughtered for food.
A jar of wine, three fruits of different colors, and soups of five colors are prepared.
A A live pig is slaughtered.
It is hung on a big knife as if it crawled.
They have her put on clean clothes.
To be offered at the end of the ritual, she is placed at the bow.

[Aniri] The leader of the sailors holds up drumsticks.

The rite begins.

[Jajinmori] The drum creates sounds: tom-tom, boom-boom.

"An ancient king made a boat, connecting two separated places.
Some people followed him and became sailors.

Isn't this a great accomplishment?

Another ancient king dealt with the nine year flood on a boat.
He levied taxes on five areas and shipped them to nine areas.
A defeated ancient warrior warrior, Xiang Yu(項羽), came back to a river on a boat.

A fisherman spent leisure time in summer drifting around on a small boat.

We, sailors, have been doing business for several years.

We, 23 sailors, have been taking business trips to many places.
We offer a fifteen year old virgin to the dragon king at Indang Water.

The red dragon king in the east sea,
the blue dragon king in the south sea,

서해 백룡신,
 북해 흑룡신,
 강한지장⁹³¹⁾과
 천택지군⁹³²⁾이
 일시로⁹³³⁾ 흠향⁹³⁴⁾을 허옵시고,
 비렴⁹³⁵⁾으로 바람 불어
 직수문적하야,⁹³⁶⁾ 배도 무쇠배⁹³⁷⁾가 되어,
 수천 리 대해⁹³⁸⁾ 중에 무사히 행선⁹³⁹⁾하옵기 짐지⁹⁴⁰⁾하야 주옵소서.”
 그저 북을 두리둥둥둥둥둥둥둥둥,
 고사를 끝내더니,
 “심청아, 물 때⁹⁴¹⁾가 늦어가니, 어서 급히 물에 들어라!”
 성화같이⁹⁴²⁾ 재촉하니,
 심청이 이 말을 듣더니
 정신없이 일어나 뱃전을 붙들더니,
 일신수족⁹⁴³⁾을 벌벌 떨며,
 “여보시오, 선인님네, 도화동쪽이 어디요?”
 선인이 손을 들어 도화동을 가리킨다.
 “저 건너, 흑운⁹⁴⁴⁾이 적막하고 희연⁹⁴⁵⁾ 구름이 담담한⁹⁴⁶⁾ 디,⁹⁴⁷⁾
 그 아래가 도화동일세.”
 심청이 바라보며 두 손을 합장⁹⁴⁸⁾하고
 뱃전 안에 엮드려져,
 “아이고, 아버지. 심청은 죽거니와⁹⁴⁹⁾
 아버지는 눈을 떠 천지만물⁹⁵⁰⁾을 보옵시고,
 날같은⁹⁵¹⁾ 불효 여식을 생각지 마옵소서.
 나 죽기 싫잖으나,
 혈혈단신⁹⁵²⁾ 우리 부친, 누계⁹⁵³⁾ 의지헌단 말이나?”

the white dragon king in the west sea,
the black dragon king in the north sea,
the generals of rivers,
and the kings of streams and ponds,
please take this sacrifice together.
Give us a wind via the god of the wind.
Make our boat strong with the certificate from the dragon king.
Please let our boat travel safely in the middle of the vast sea.”
The drum is hit. Tom-tom. Boom-boom.
The rite is over.
“Sim Cheong, it is time to get into the water. Jump in quickly!”
They urge her to get in.
Sim Cheong heard them.
She stands up, confused, and holds the bow.
Her limbs tremble.
“Hello, sailors! In which direction is Peach Blossom Village?”
A sailor holds up his hand and points to a direction.
“Over there, black clouds are desolate, and white clouds are clear.
Below them is Peach Blossom Village.”
Sim Cheong looks at that direction and puts her hands together.
She gets down on her knees inside the boat.
“Alas, my father! I am dying.
Please open your eyes and see the world.
Please don’t think about your bad daughter.
I don’t mind dying,
but who will my lonely father turn to?”

가슴을 뛰다리며 복통단장⁹⁵⁴터니,
 “여보시오, 선인님네.
 억십만금⁹⁵⁵ 퇴⁹⁵⁶를 내어,
 고국으 돌아가서, 도화동 찾아가서,
 우리 부친이 눈 뵈으면 뵈다던지,
 애통⁹⁵⁷하야 세상을 바렸으면⁹⁵⁸ 바렸다던지,
 존망⁹⁵⁹을 알아다가,
 이 물에 지내거든⁹⁶⁰ 나의 혼을 불러 그 말을 부대⁹⁶¹ 일러주오.”
 “글랑은⁹⁶² 염려말고
 어서 급히 물에 들어라.”
 물결을 살펴보니,
 원해⁹⁶³ 만리는 하늘에 닿았난디,
 태산같은 닻덩이⁹⁶⁴ 뱃전 통통,
 풍랑은 우르르르르르르,
 물결은 위리령 위리령,
 그저 뱃전을 탕탕, 와르르르르르르르.
[휘모리] 심청이 거동봐라.
 바람 맞은 병신처럼 이리 비틀, 저리 비틀,
 뱃전으로 나가더니, 다시 한 번 생각한다.
 “내가 이리 진퇴함은⁹⁶⁵ 부친의 정⁹⁶⁶ 부족함이라.”
 치마폭 무릅쓰고,⁹⁶⁷
 두 눈을 딱 감고,
 뱃전으로 우루루루루루 달려들어,
 손 한번 헤치더니,⁹⁶⁸
 강상에⁹⁶⁹ 몸을 던져,
 기러기 낙수격⁹⁷⁰으로 뿔다, 물에 가 퐁!

She hits her chest in grief.
“Hello, sailors!
I hope you make a lot of money.
Come back to our country and visit Peach Blossom Village.
Please see if my father opened his eyes or not,
and if he left this world in resentment or not.
Please find out whether he is alive or dead.
When you pass by here, please call to my soul and let me
know.”
“Don’t worry about that.
Get into the water right away.”
She takes a look at waves,
The distant sea touches the sky.
Large waves hit the stern,
Winds generate loud sounds.
Waves roll over vigorously.
They hit the bow, creating loud sounds.

[Whimori] Behold Sim Cheong!
She staggers as if she were hit by a wind.
She proceeds to the bow and thinks one more time.
“I move back and forth because I don’t love my father enough.”
She covers her face with her skirt.
She closes her eyes.
She runs to the bow.
She moves her hand.
She throws herself into the water.
She falls into the water like a wild goose.

29. (선인 탄식) 심청이 물에 빠진 후 선인들이 울며 떠나간다.

[아니리] 빠져놓으니,
[진양조] 향화⁹⁷¹)는 풍랑을 쫓고,⁹⁷²
명월⁹⁷³)은 해문⁹⁷⁴)에 잠겼도다.
묘창해지일속이라.⁹⁷⁵
제문⁹⁷⁶)을 물에다가 넣을 적에,
청천⁹⁷⁷)의 외기러기는 북천⁹⁷⁸)으로 울고 가고,
창과만경⁹⁷⁹) 너른⁹⁸⁰) 바다 쌍쌍백구⁹⁸¹)만 흘러 뒀다.⁹⁸²
우후청강⁹⁸³)을 못 이기어 비거비래⁹⁸⁴) 왕래커늘,
선인들 마음이 처량하여 면면히⁹⁸⁵) 바라보며,
“아차차차차, 불쌍허구나.
우리가 장사도 좋거니와,
사람을 사서 물에다 넣고 우리 후사⁹⁸⁶)가 잘 되겠느냐?”
영좌⁹⁸⁷)도 울고, 집좌⁹⁸⁸)도 울음을 울며,
“명년부텨⁹⁸⁹) 이 장사를 말자.
닷 감어라, 어그야 에허어허 어그야 어흐어.”
술렁술렁 남경으로 떠나간다.

30. (심청 용궁행) 옥황상제의 명을 받은 용왕이 물에 빠진 심청을 수궁으로 데려가는데, 용궁이 화려하다.

[아니리] 이러한 출천대효⁹⁹⁰)를

29. (The Sailors Sigh) After Sim Cheong jumps into water, the sailors leave weeping.

[Aniri] Sim Cheong falls into the water.
[Jinyangjo] Incense follows the waves.
The bright moon is below the horizon.
Sim Cheong's body is a little grain in the blue sea.
The written ode is thrown into the sea.
A wild goose flies to the north sky, while crying.
Seagulls hover over the wide blue sea in pairs.
The birds are flying to a clear river after it rained.
The sailors, feeling sad, look at each other's face.
"Oh, poor Sim Cheong!
Doing business is all right,
But children won't be able to prosper because we threw a
human into the water."
The leader and his assistants weep.
"Let's stop this from next year on.
Pull up the anchor. Yo-ho! Yo-heave-ho!"
They head to China in big motions.

**30. (Sim Cheong's Heading to the Dragon Palace)
Under the order from the King of Heaven, the
dragon king brings Sim Cheong to the magnificent
dragon palace.**

[Aniri] Sim Cheong is a good daughter.

천신⁹⁹¹)인들 어찌 모를 리 있으리오?
 이 때에 옥황상제⁹⁹²)께서 사해용왕⁹⁹³)을 불러 하교⁹⁹⁴)하시되,
 모일⁹⁹⁵) 모시⁹⁹⁶)에 출천대효 심청이 물에 들 것이니,
 착실히 모시어라.
 엄명⁹⁹⁷)이 지엄하니,⁹⁹⁸)
 사해용왕 명을 듣고
 백옥 교자⁹⁹⁹)에 고이 모시고 수궁으로 들어올 제,
[옛모레] 천지가 명랑하고
 일월이 초적헌디,¹⁰⁰⁰)
 천상¹⁰⁰¹) 선관¹⁰⁰²) 선녀들이 십낭자를 보라 하고 좌우로 벌여있다.
 태을진¹⁰⁰³)은 학을 타고,
 안기생¹⁰⁰⁴)은 난¹⁰⁰⁵)을 타,
 적송자¹⁰⁰⁶) 구름 타고,
 갈선옹¹⁰⁰⁷)은 사자 타고,
 청의동자 홍의동자¹⁰⁰⁸) 쌍쌍이 모였는데,
 서왕모, 마고선녀,¹⁰⁰⁹) 남악부인¹⁰¹⁰)을 모셨는데,
 팔선녀¹⁰¹¹) 시위¹⁰¹²)하여,
 고운 얼굴, 고운 의상, 향기가 이상하다.
 수궁 풍악¹⁰¹³)을 시작할 제,
 왕자진¹⁰¹⁴)의 봉피리¹⁰¹⁵) 나나노 나노 불고,
 광처사¹⁰¹⁶) 죽장고¹⁰¹⁷) 정저꿍 정꿍,
 성연자¹⁰¹⁸)의 거문고는 스리렁 둥덩둥,
 장자방¹⁰¹⁹) 옥통소 뗏띠루 띠루띠,
 현파¹⁰²⁰) 북소리는 두리둥통 둥둥,
 해강¹⁰²¹)의 해금 소리 고가그가고가,
 능과사,¹⁰²²) 보허사¹⁰²³)를 샅들어¹⁰²⁴) 노래할 제,

How could God in heaven not know about her?
 The King of Heaven gives an order to the dragon king of the
 four seas.
 Sim Cheong, a good daughter, will jump into the water at a
 certain time.
 Take good care of her.
 The order is grim.
 The dragon king takes the order.
 Sim Cheong is taken to the dragon palace on a white carriage.
[Eotmori] The sky and the earth are clear.
 The sun and the moon are quiet.
 Gods and goddesses from heaven are in rows to get a glimpse
 of Miss Sim.
 The highest god is on a crane.
 Another is on a divine bird.
 Another is on a cloud.
 Another is on a lion.
 Children in blue and red clothes stand in pairs.
 The three legendary goddesses are here.
 Eight goddesses are on the left and right.
 Faces, clothes, and smells are all beautiful and exotic.
 The music of the dragon palace begins.
 What is played are an ancient phoenix-shaped pipe,
 an ancient brassware-shaped drum,
 an ancient six-stringed zither,
 an ancient jade flute,
 an ancient leather drum,
 and an ancient Korean fiddle.
 In addition, a pond song and a divine song are sung.

낭자한¹⁰²⁵ 풍악 소리 수궁이 진동허여
 별유천지¹⁰²⁶ 세계로다.
 노경골이 위량하여 인광이 여일이요,¹⁰²⁷
 집어린이작와허니¹⁰²⁸ 서기가 반공이라.¹⁰²⁹
 응천상지삼광이요,¹⁰³⁰
 비인간지오복이라.¹⁰³¹
 산호렴¹⁰³²
 대모 병풍¹⁰³³ 광채 찬란허고,
 동으로 바라보니 삼백 척 부상¹⁰³⁴ 가지 일륜홍¹⁰³⁵이 어리었고,
 남으로 바라보니 요지 풍광¹⁰³⁶ 푸른 물에 태봉¹⁰³⁷이 훨훨 날아,
 서으로¹⁰³⁸ 바라보니 약수 유사¹⁰³⁹가 아득헌디, 일쌍¹⁰⁴⁰ 청조¹⁰⁴¹
 가 날아든다.
 북으로 바라보니 춘설¹⁰⁴²이 현란헌디 벽도화¹⁰⁴³만 붉었다.
 음식을 들이난디¹⁰⁴⁴
 세상 음식이 아니로다.
 자하주¹⁰⁴⁵ 천일주¹⁰⁴⁶를 인포¹⁰⁴⁷로 안주 놓고,
 호리병에 제호탕,¹⁰⁴⁸ 감로주¹⁰⁴⁹를 놓았다.
 한가운데 삼천 벽도¹⁰⁵⁰를 덩그렇게 괴어있다.¹⁰⁵¹
 옥황상제의 어명이라,
 사해용왕 하회¹⁰⁵²에 각 궁의 시녀를 보내 조석으로¹⁰⁵³ 시위¹⁰⁵⁴
 할 제,
 행여나 부족함이 있을까, 조심이 각별터라.¹⁰⁵⁵

The music trembles the sea palace.
This is a paradise.
The crossbeam made of old whales' bones gives off light like the sun.
The roof made of fish scales radiates favorable energy into the sky.
The sun, the moon, and stars shine together.
The five blessings are here.
A door blind is made of corals.
A folding screen made of the turtle shells radiate brilliant lights.
To the east is a large divine tree on which the sun hangs.
To the south is a beautiful stream over which a divine bird flies.
To the west is a long river over which a couple of bluebirds fly to the palace.
To the north are eye-dazzling white flowers and red peach blossoms.
The food is brought in.
It is heavenly.
Old divine wines and meat are served.
In gourd bottles are divine milk and wine made of dew.
Divine peaches are piled up at the center of the meal table.
By the order of the King of Heaven,
the dragon has the maids of his palace serve Sim Cheong day and night.
He makes conscientious efforts to serve Sim Cheong well.

31. (심봉사 딸 생각) 한편, 심봉사는 딸을 잃고 눈물로 세월을 보낸다.

[아니리] 이렇듯 수궁에 머무를 제,
그때여 도화동에서는 심청이 효심에 감동되어,
무릉촌 장승상부인과 동네 사람들이 강두¹⁰⁵⁶)에 집을 짓고 비¹⁰⁵⁷)를
세웠으되,
그 비명¹⁰⁵⁸)을 타루비¹⁰⁵⁹)라 하였었다.

[진양조] 강촌¹⁰⁶⁰)에 밤이 들어 수훈¹⁰⁶¹)이 적막헌디
외로운 강두에 망사대¹⁰⁶²)만 우뚝 솟아,
물새 소리는 비웃비웃 까르르르르르르,
갈대 소리는 스리렁 스리렁,
무심한 잔나비¹⁰⁶³) 짝을 지어 슬피 우니,
그 때여 심봉사는 망사대를 찾아가서,
비석을 안고 울음 운다.

“아이고, 내 딸 청아!

인간 부모를 잘못 만나 생죽음¹⁰⁶⁴)을 당하였구나.

네 애비를 생각커든 나를 어서 다려가거라.¹⁰⁶⁵)

살기도 나는 귀찮히고,

눈뜨기도 내사 싫다.”

비문 앞에 가 꺼꾸러지더니마는,

치둥굴¹⁰⁶⁶) 내리둥굴,¹⁰⁶⁷)

머리도 지끈,¹⁰⁶⁸) 가슴을 쿵쿵,

두 발을 굴리며

망지소조¹⁰⁶⁹)로 울음을 운다.

**31. (Mr. Sim Misses his Daughter) Meanwhile, Mr. Sim
does not spend a day without crying after losing
his daughter.**

[Aniri] Sim Cheong stays in the sea palace.

Meanwhile, in Peach Blossom Village, moved by Sim Cheong's
filial pity,

the villagers and the noble lady in Paradise Village constructed
a building and a monument at the ferry.

The monument is called 'tear-Shedding Monument.'

[Jinyangjo] It is a dreary quiet night in the village near the river.
A tower stands high at the lonely ferry.

Water birds make sounds,

Reeds make sounds too.

Heartless monkeys cry plaintively in pairs.

Mr. Sim visits the tower.

He hugs it and cries.

"Alas, my daughter!

You died unfairly because you were born to wrong parents.

If you love me, please take me there.

I don't want to live anymore.

I don't want to open my eyes."

He falls down in front of the monument.

He rolls over up and down.

He hits his head and chest with his fists.

He stamps on the ground.

He wails frantically.

32. (뽕덕이네 행실) 심봉사는 행실이 고약한 뽕덕이네를 만나 살다가 도화동을 떠난다.

[아니리] 이렇듯 낮이면 강두에 나가 비문을 안고 울음을 울고,
밤이면 집으로 돌아와 눈물로 세월을 보낼 적에,
그 고을에 묘한 여자가 하나 있는데,
이 여자인즉슨¹⁰⁷⁰ 호¹⁰⁷¹)가 뽕과였다.
심봉사가 딸 덕분에 전곡간¹⁰⁷²)이나 두고 산다는 말을 듣고,
동네사람도 모르게 자원출가¹⁰⁷³)를 허였는데,
이년의 입정머리¹⁰⁷⁴)가 어찌나 좋아났던지,
그 불쌍한 심봉사 가산¹⁰⁷⁵)을 꼭 먹성질¹⁰⁷⁶)로 없애기로 작정을 허는데,
이렇든 것이었다.

[자진모리] 쌀 퍼주고 떡 사먹고,
배 주고 고기 사고,
현 의복은 옛 사 먹고,
잡곡일랑 돈을 사¹⁰⁷⁷) 청주,¹⁰⁷⁸) 탁주¹⁰⁷⁹) 모두 받아¹⁰⁸⁰) 저 혼자 실
컷 먹고,
시원한 정자 밑에 옷통 벗고 낮잠 자기.
사시장천¹⁰⁸¹) 밥을 얹고 이웃집에 밥 붙이기.¹⁰⁸²)
여자 보면 내외¹⁰⁸³)허고,
남자 보면 썩웃고,
빈 담뱃대 손에 들고 보는 대로 담배 청기.¹⁰⁸⁴)
이돈 저돈 모두 받아 술받기¹⁰⁸⁵)와
이웃집에 가 욕 잘허고,

**32. (Bbaengdeok's Behavior) Mr. Sim lives with
Bbaengdeok, a bad woman, and leaves Peach
Blossom Village.**

[Aniri] During the day, Mr. Sim goes to the ferry, hugs the monument, and cries.

At night, he comes back home and spends time in tears.

There is a queer woman in the village.

Her nickname was Bbaengpa.

She hears Mr. Sim has some grain and money thanks to his daughter.

She voluntarily married him without the villagers' knowledge.

This woman has a terrible eating habbit.

She is determined to eat away Mr. Sim's pathetic food and money.

She eats them away as follows:

[Jajinmori] Bbaengdeok sells hulled rice and buys rice cakes.

She sells ramie cloths and buys meat.

She sells old clothes and buys candies.

She sells cereals, buys rice wines, and drinks them alone as much as she can.

She takes a nap on the pavilion with the upper part of her body naked.

She doesn't make a meal at all and eats a meal with her neighbor.

She avoids women.

She smiles at men.

She holds an empty tobacco pipe and asks for tobacco from anybody.

She spends a lot of money to buy wine.

She gossips with others in a neighborhood.

초상집에 가 씹 잘 허기.
 잠자면서 이 갈기와 배 굵고,
 발목 떨고,
 한밤중에 울음 울고,
 일에는 반편¹⁰⁸⁶)이요,
 말에는 출랑이¹⁰⁸⁷)요,
 먹을 속은 껍매기로다.¹⁰⁸⁸)
 힐끗¹⁰⁸⁹) 허면 헬끗¹⁰⁹⁰) 허고, 헬끗 허면 힐끗 허고, 뺨쭙¹⁰⁹¹) 허면
 뺨쭙¹⁰⁹²) 허고, 뺨쭙뺨쭙 썰룩벌룩.¹⁰⁹³)
 남이 혼인혈 양으로 단단히 믿었는데 해답¹⁰⁹⁴)을 잘허기와
 신부 신랑 잠자는 데 가만가만 들어가서,
 손뺨 치며, “불이야!”
 이년의 행실머리¹⁰⁹⁵)가 이리하여도,
 심봉사는 아무런 줄을 모르고,
 [아니리] 어떻게나 뺨덕이네한테 빠져 났던지,
 나무칼로 귀를 약간 도려가도 모를 지경이 되었던가 보더라.
 하루는 심봉사가 뺨덕이네를 불러,
 “여보소, 뺨덕이네.
 우리가 이렇게 금슬¹⁰⁹⁶) 좋게 사는 것은 좋네마는
 남의 눈도 있고 하니,
 다른 동네로 가서 살아보세.”
 “거야¹⁰⁹⁷) 영감 맘대로 하시오.”
 약간의 세간¹⁰⁹⁸) 챙겨 가지고
 정처 없이 떠나는디,

She fights with others during the funeral.
When she sleeps, she gits her teeth and scratches her belly.
She shakes her leg.
She cries in the middle of night.
She can't get work done.
Her language is flippant.
She knows how to eat food for free.
She always teases others with peculiar facial expressions
opposite to those of others.
She speaks ill of a man and a woman who planned to marry
later.
When a newly wed couple sleep, she furtively approach them.
She claps her hands, "Fire!"
This woman behaves badly, as stated above,
but Mr. Sim doesn't know about her.

[Aniri] Mr. Sim fell in love with Bbaengdeok so deeply that
he wouldn't even realize, even if his ear were cut off a little
with a wood knife.
One day, Mr. Sim tells Bbaengdeok.
"Hello, Bbaengdeok!
It is good that we get along in conjugal harmony,
but I don't know the way villagers see us.
Let's move to another village."
"Suit yourself, honey."
They pack up only a little bit of their properties.
They leave without a definite destination.

33. (심청 환생) 심청이 꽃 속에 환생하여 인당수로 나오니, 지나던 도사공이 발견하여 신고 온다.

[중모리] 정처 없이 떠나간다.

“도화동아, 잘 있거라.

무릉춘아, 부디 잘 살어라.

나는 간다. 나는 간다.

이제 내가 떠나가면 어느 세월에 돌아오리.”

도화동 사람들은 모두 나와 인사를 하고,

울며불며 떠나간다.

그 때여 옥황상제¹⁰⁹⁹께서 사해용왕¹¹⁰⁰을 불러 다시 하교¹¹⁰¹를 내리신다.

“심청이 방년¹¹⁰²이 늦어 가니

인당수로 환송¹¹⁰³하라.”

분부가 지엄허니 사해용왕 명을 듣고 채비를 단속한다.

꽃봉¹¹⁰⁴ 속에 심소저를 모시고

양개¹¹⁰⁵ 시녀 시위¹¹⁰⁶하여, 조석공양¹¹⁰⁷

찬수¹¹⁰⁸ 등물¹¹⁰⁹을 신고 인당수에 가 번뜻 뗏다.

천지조화¹¹¹⁰요,

용왕님의 증험¹¹¹¹이라,

바람이 분들 흘러가며, 비가 온들 요동허리.¹¹¹²

오색채운¹¹¹³이 어리어

주야로¹¹¹⁴ 등딩등딩¹¹¹⁵ 떠 있을 제,

남경 갔던 선인들은 억십만금¹¹¹⁶ 퇴¹¹¹⁷를 내어 고국으로 돌아간다.

복을 두리둥 등둥,

**33. (Sim Cheong's Reincarnation) Sim Cheong is
reincarnated in a flower back to Indang Water.
The sailors passing by spot the flower and take
it back home.**

[Jungmori] Mr. Sim and Bbaengdeok leave without a definite destination.

"Goodbye, Peach Blossom Village.

"Take care, Paradise Village.

I am leaving. I am leaving.

I don't know when I will come back."

Everyone of Peach Blossom Village sees them off.

They leave in tears.

Meanwhile, the King of Heaven calls and issues an order to the dragon king again.

"Sim Cheong is now old enough to get married.

Send her back to Indang Water."

The dragon king takes the stern order and orders a preparation.

Miss Sim is escorted into a flower.

She is served by two maids day and night.

She comes out of Indang Water abruptly with food and others.

This is the work of god.

This is a miracle by the dragon king.

The flower does not move, despite wind or rain.

Colorful clouds surround it.

It stays on the surface day and night.

The sailors go back home after making a lot of profits in China.

A drum is hit.

“어그야 어이야 어그야 어허 어그야 어이야 어허 어그야.”

인당수를 당도하야,

제물¹¹¹⁸)을 물에 풀고,

심소저의 녀을 불러 망곡제¹¹¹⁹)를 지내는구나.

“넋이야 넋이로다,

홍북한¹¹²⁰)을 지어내던 왕소군¹¹²¹)의 넋도 아니요,

당상¹¹²²)의 백발¹¹²³) 부친 감은 눈을 뜨라 허고 생죽음¹¹²⁴)을 허였으

니, 가련허고 불쌍한 것이 심소저의 넋이로구나.

넋이라도 왔거드면 많이 흠향¹¹²⁵)하옵소서.”

영좌¹¹²⁶)도 울고, 집좌¹¹²⁷)도 울고, 젓군¹¹²⁸) 화장¹¹²⁹)들이 울음을
운다.

[아니레] 눈물 씻고 한 곳 바라보니,

난데없는 꽃 한 송이 해상¹¹³⁰) 위 번뜻 떴거늘,

선인들이 가까이 가 그 꽃을 건져 뱃장¹¹³¹) 안에 놓고 보니,

서기¹¹³²)가 반공¹¹³³)하고,

크기가 수레같거늘,

고국에 돌아와 수다한¹¹³⁴) 많은 재물을 다 각기 분배할 제,

도사공¹¹³⁵)은 무슨 마음인지 재물을 마다허고,

꽃봉이를 차지하여,

저의 집 후원 정한¹¹³⁶) 곳에 고이 모셔놓았겠다.

이때는 어느 땐고?

송천자¹¹³⁷) 황후 봉¹¹³⁸)허신 후 납비¹¹³⁹)를 아니허시고,

세상의 기화요초¹¹⁴⁰)를 심어놓고

조석으로¹¹⁴¹) 소일¹¹⁴²)하시는데,

“Yo-ho. Yo-ho. Yo-ho.”

They arrive at Indang Water.

They throw sacrificial offerings on the water.

They invoke Miss Sim’s soul and hold a rite.

“We hereby invoke a soul.

We are not invoking the soul of a resentful ancient woman.

We are invoking the soul of a pitiful and poor Miss Sim who died an unfair death to open her old father’s eyes.

If her soul is here, please take these offerings.”

The leader, boatmen, oarsmen, and cooks weep.

[Aniri] The sailors wipe their tears.

Unexpectedly, they spot a flower floating on the sea.

They pull it up, put it on the boat, and take a look at it.

A favorable energy surrounds it.

It is as large as a wheel.

They come back to their country and divide the huge properties among themselves.

Somehow, the leader is not interested in a property.

He only takes the flower.

He carefully puts it in a clean place in his backyard.

What happens in the world now?

The emperor remains unmarried after the queen died.

He plants beautiful flowering plants.

He spends time watching them day and night.

34. (화초타령) 천자가 꽃을 좋아하여 심어놓고 즐기는데, 이를 안 도선주¹¹⁴³⁾는 바다에서 건져온 꽃을 바친다.

[중중모리] 화초도 많도 많다.

팔월 부용의 군자용,¹¹⁴⁴⁾

만당추수의 홍련화.¹¹⁴⁵⁾

암향부동월황혼,¹¹⁴⁶⁾ 소식 전틴¹¹⁴⁷⁾ 한매화,¹¹⁴⁸⁾

진시유랑거후재¹¹⁴⁹⁾는, 붉어 있다 복송꽃.¹¹⁵⁰⁾

구월 구일의 용산음 소축신 국화꽃.¹¹⁵¹⁾

삼천 제자¹¹⁵²⁾를 강론¹¹⁵³⁾을 허니 행단춘풍¹¹⁵⁴⁾의 살구꽃.

이화만지불개문¹¹⁵⁵⁾허니 장신문전 배꽃¹¹⁵⁶⁾이요,

천태산¹¹⁵⁷⁾ 들어가니 양변개작약이라.¹¹⁵⁸⁾

원정부지이별을 허니¹¹⁵⁹⁾ 옥창오견의 앵도화.¹¹⁶⁰⁾

축국한¹¹⁶¹⁾을 못이기어 제혈하던¹¹⁶²⁾ 두견화.¹¹⁶³⁾

이화,¹¹⁶⁴⁾ 노화,¹¹⁶⁵⁾ 계관화,¹¹⁶⁶⁾

홍국,¹¹⁶⁷⁾ 백국,¹¹⁶⁸⁾ 사계화,¹¹⁶⁹⁾

동원도리편시춘,¹¹⁷⁰⁾

목동요지가 행화춘.¹¹⁷¹⁾

월중단계무삼경¹¹⁷²⁾ 달 가운데 계수나무,

백일홍, 영산홍, 왜철쭉,

진달화, 난초, 파초,

오미자, 비자,¹¹⁷³⁾ 감과,¹¹⁷⁴⁾ 유자,

속 누르다¹¹⁷⁵⁾ 능금, 포도, 머루,

으름,¹¹⁷⁶⁾ 대초,¹¹⁷⁷⁾

34. (Flower Song) The emperor, loving flowers, plants
flowers here and there and enjoys watching them.
The owner of the boat donates the flower from the
sea to him.

[Jungjungmori] There are many flowers and flowering plants.
A lotus flower blooming in August looks like a wise man.
A fall pond is full of red lotus flowers.
The fragrance of Japanese apricot wanders in the dim moonlight.
All the peach blossoms were planted by an ancient poet.
A chrysanthemum once derided a relegated subject in fall.
Apricot blossoms bloomed in spring when Confucius gave a
lecture to three thousand students.
A court lady didn't open the gate when pear blossoms were
piled up in a palace.
There were peony blossoms on both sides of a road on a
mountain.
A woman watched cherry blossoms from a window while
missing her husband in the battle field.
An azalea threw up blood, overtaken by the grief that its country
fell.
There are plum flower, reed flower, cockscomb,
red chrysanthemum, white chrysanthemum, and Chinese rose.
A peach blossom blooms in spring.
A shepherd points to a village of apricot blossoms.
A cinnamon tree is on the bright moon.
There are garden zinnia, wild azalea,
azalea, irise, plantain,
Maximowiczia chinensis, torreyia nut, citron,
yellow apple, grape, wild grape,
clematis berry, and jujube.

각색 화초, 갖은 향과¹¹⁷⁸⁾ 좌우로 심었는디,
향풍¹¹⁷⁹⁾이 건뚝¹¹⁸⁰⁾ 불면, 벌, 나무,¹¹⁸¹⁾ 새, 짐승들이 지지¹¹⁸²⁾ 울며
노닌다.

[아니레] 이때에 도선주는 천자님이 세상의 기화요초를 모은다는 말
을 듣고,

인당수 건진 꽃을 천자¹¹⁸³⁾님께 진상¹¹⁸⁴⁾허니,

천자 보시고 기특타¹¹⁸⁵⁾ 칭찬하신 연후에,

차읍¹¹⁸⁶⁾ 태수를 제수하신¹¹⁸⁷⁾ 후에,

그 꽃을 옮겨 황극전¹¹⁸⁸⁾에 심어 놓고 보니,

서기¹¹⁸⁹⁾가 반공¹¹⁹⁰⁾하고,

향기 또한 진동터라.

천자님이 그 꽃을 사랑하사,¹¹⁹¹⁾

꽃의 이름을 지으실 제,

서천서역¹¹⁹²⁾ 연화꽃¹¹⁹³⁾이 떨어져 해상¹¹⁹⁴⁾으로 등실 떠오르는 듯허니,

그 꽃 이름을 강선화¹¹⁹⁵⁾라 지으시고,

조석으로¹¹⁹⁶⁾ 소일¹¹⁹⁷⁾을 허시는디,

35. (천자 심청 발견) 천자가 꽃을 보다가 꽃 속에 있는 심청을 발견한다.

[진양조] 일일은¹¹⁹⁸⁾ 천자님이 화계¹¹⁹⁹⁾ 배회하실 적에,

명월은 만정허고¹²⁰⁰⁾

미풍¹²⁰¹⁾은 부동¹²⁰²⁾이라.

강선화 꽃봉이¹²⁰³⁾가 언뜻 요동¹²⁰⁴⁾하더니마는,¹²⁰⁵⁾

무슨 소리가 두런두런, 사람 소리가 들리거늘,

천자님이 고이¹²⁰⁶⁾ 여겨 가차이¹²⁰⁷⁾ 들어가 꽃봉오리를 열고 보니,

Diverse flowering plants and fragrant fruit trees are on the left and right.

Bees, butterflies, and birds sing and dance when a gentle breeze blows.

[Aniri] The leader of the sailors hears that the emperor collects flowers from the world.

He offers the flower from Indang Water to the emperor.

The emperor takes a look and praises him.

He grants a governor position to him.

He takes the flower to his office.

A favorable energy surrounds it.

Fragrance vibrates the air.

The emperor loves the flower.

He gives it a name.

It looks as if a lotus flower came from the paradise via the sea.”

The flower is named, God Descending Flower.

He spends time watching it.

35. (The Emperor Discovers Sim Cheong) The emperor spots Sim Cheong in the flower while watching it.

[Jinyangjo] One day, the emperor takes a walk in the garden.
The moon is bright.

A breeze blows gently.

God Descending Flower faintly shakes.

An indistinct human sound comes out of it.

Thinking it mysterious, the emperor approaches and opens the flower.

옥같은 한 소저가 문 밖을 나오려다,
 다시 몸을 움추더니¹²⁰⁸⁾ 동정¹²⁰⁹⁾이 없는지라.
 천자님이 고이 여겨 가차이 들어가 꽃봉오리를 열고 보니,
 옥같은 한 소저가 앓았는데
 양개¹²¹⁰⁾ 시녀가 시위¹²¹¹⁾를 하였구나.

36. (심청 황후 책봉) 심청이 황후가 되니 태평성대가 된다.

[아니리] 천자 괴이¹²¹²⁾ 여겨 물으시기를,
 “너희들은 사람이냐, 귀신이냐?
 귀신이면 물러가고,
 사람이면 말을 하여라.”
 한 시녀 복지하여¹²¹³⁾ 여짜오대,
 “소녀는 다른 사람이 아니오라, 남해궁¹²¹⁴⁾ 시녀온데,
 상제¹²¹⁵⁾께 명을 받자옵고 예까지 왔나이다.”
 천자 괴이하야 궁녀로 시위케 하여 별궁¹²¹⁶⁾에 모셔놓고,
 그 이튿날 만조백관¹²¹⁷⁾ 조희석¹²¹⁸⁾에 간밤 꽃 사연을 말씀하시니,
 제신¹²¹⁹⁾들이 여짜오되,
 “국모¹²²⁰⁾ 안 계심을 하늘이 알으시고 인연을 보냈으니,
 국모로 모심이 옳을 듯 하옵니다.”
 천자 그 말이 옳다 생각하고,
[중중모리] 일관¹²²¹⁾ 시켜 태일¹²²²⁾하야
 꽃봉 속의 심소저를 황후로 봉하시니,¹²²³⁾
 국가의 경사가 되어 만조제신¹²²⁴⁾들은 산호만세¹²²⁵⁾ 부르고,

A beautiful girl was about to come out of the flower.
She flinches and doesn't move.
Thinking it mysterious, the emperor approaches and opens the flower.
There is a beautiful girl.
She is served by two maids.

36. (Sim Cheong Becomes Empress) Sim Cheong becomes the empress, and the country becomes a paradise.

[Aniri] Thinking them strange, the emperor asks,
“Are you human beings or ghosts?
If you are ghosts go away.
If you are human beings, speak.”
A maid kneels down and responds.
“We are maids from the dragon palace in the south sea.
We are here by the order of the King of Heaven.”
Thinking them strange, he has his maids escort them to a special place.
The following morning, he talks about the flower during the meeting with his subjects.
The subjects say,
“Heaven sent the empress, knowing that we don't have one.
It is natural that we take her as the empress.”
The emperor thinks that it is right.
[Jungjungmori] The emperor has the fortune-telling official choose a lucky date.
He appoints Miss Sim from the flower as his empress.
All the subjects wish happiness for the emperor and empress.

억조 창생¹²²⁶) 만민들은 격양가¹²²⁷)를 일삼으니,
심황후 어진 성덕¹²²⁸)으로 당년¹²²⁹)부터 풍년이 들어
요순의 천지¹²³⁰) 다시 되고
선강지계¹²³¹)가 되었더라.

37. (추월만정) 심황후가 부친 생각을 하며 눈물짓는다.

[아니리] 이렇듯 심황후 몸은 비록 귀히 되었으나,
다만 생각나는 것은 부친뿐이라.
일야¹²³²)는 옥난간¹²³³)에 앉아,
부친을 생각허고 울음을 우는디,
[진양조] 추월¹²³⁴)은 만정¹²³⁵)허여
산호주렴¹²³⁶)에 비치어 들고,
실술¹²³⁷)은 슬피 울어 나유¹²³⁸) 안에 흠어질 적으,
청천¹²³⁹)의 외기러기는 월하¹²⁴⁰)에 높이 떠서
뚜루루뚜루루루 꺾룩, 울음을 울고 나니,¹²⁴¹)
심황후 반기¹²⁴²) 여겨,
“오느냐, 저 기력아.
네 어디로 행하느냐?¹²⁴³)
소중량¹²⁴⁴) 북해상¹²⁴⁵)에 편지 전턴 기러기냐?
도화동을 가거들랑 불쌍하신 우리 부친전에 편지 일장¹²⁴⁶)을 전하여
다오.”
방으로 들어와 편지를 쓰랴 혈 제,
한 자 쓰고 눈물 짓고,
두 자 쓰고 한숨을 ‘후유’ 쉬니,

All the people sing the happy song everyday.
Thanks to the empress's virtue, they being to have good harvest.
The country becomes a paradise.
Happy and peaceful days continue.

37. (The Garden is Bright with the Fall Moon) Empress Sim in tears misses her father.

[Aniri] Empress Sim became a noble person,
but she only thinks about her father.
One night, she sits on the terrace.
She thinks about her father and weeps.

[Jinyangjo] The garden is bright with the fall moon.
The moonlight comes in through the blinds made of corals.
Sad cricket chirps hit a thin silky curtain.
A lonely wild goose flies high in the clear sky.
It cries sadly.
Empress Sim is glad to see it.
“Hey, wild goose over there!
Where are you headed?
Are you the wild goose which sent a letter to an ancient
diplomat?
If you go to Peach Blossom Village, please send a letter to my
father.”
Empress Sim comes back into her room.
She writes one character and sheds tears.
She writes another character and sighs.

눈물이 떨어져 글자가 모두 수묵¹²⁴⁷)이 되고,
언어가 오착¹²⁴⁸)이로구나.
편지 접어 손에 들고 건상¹²⁴⁹)을 바라보니,
기러기는 간 곳이 없고,
창망한¹²⁵⁰) 구름 밖에 별과 달만 밝았구나.
심황후가 기가 막혀 편지를 던지고 울음을 운다.

38. (맹인 잔치 배설¹²⁵¹) 심황후는 천자에게 사정을 고하고 맹인잔치를 배설하는데, 심봉사는 도화동에 와서 딸 생각을 하며 슬퍼한다.

[아니리] 황제 내궁¹²⁵²)에 드시어 황후를 보시니,
얼굴에 수심¹²⁵³)이 가득하고, 두 눈에 눈물 흔적이 있거늘,
“귀는¹²⁵⁴) 황후이시고, 부¹²⁵⁵)는 천하¹²⁵⁶)를 가졌는데,
눈물 흔적이 웬 일이요?”
그때여 심황후 전후사를 다 말씀드리는데,
“첩은 본시 남해 궁녀가 아니라,
도화동 사는 심학규의 딸이온데,
부친이 안맹하여
공양미¹²⁵⁷) 삼백 석¹²⁵⁸)에 몸이 팔려 인당수에 들었더니,
용왕님의 은덕¹²⁵⁹)을 입사와 예까지 와,
천자님의 홍은¹²⁶⁰)을 입사옵고 몸은 비록 귀히 되었으나,
[창조] “다만 생각나는 것은 부친뿐이오니,
바라옵건대 황성¹²⁶¹)서 맹인연¹²⁶²)을 열어 주옵시면,
그 가운데에 부친을 상봉¹²⁶³)혈까 하옵니다.”

The tears make all the characters indistinct.
The letter becomes illegible.
She holds the letter in her hand and looks up to the sky.
The wild goose is gone.
The bright moon and stars are over the clouds.
Empress Sim throws the letter away and cries.

38. (Throwing a Banquet for the Blind) The empress talks about her problem to the emperor and throws a banquet for the blind. Meanwhile, Mr. Sim misses his daughter back in Peach Blossom Village.

[Aniri] The emperor visits the empress's residence.
He realizes her face is filled with worry and her eyes with tears.
"You are an empress, having all the wealth in the world.
Why is there the trace of tears?"
Empress Sim tells him everything.
"Originally, I am not a court lady from the south sea.
I am Sim Hak-gyu's daughter from Peach Blossom Village.
My father is blind.
I was sold at 300 bags of rice to be sacrificed into Indang Water.
Thanks to the dragon king, I was sent here.
Thanks to you, the emperor, I became a noble person.

[Poetic Model] "But I only think about my father.
I hope that you throw a banquet in the capital city for the blind
so that I can see my father among the blind."

천자님이 이 말을 듣더니마는,
 “천하에 대호녀시오.”
 그날 즉시 맹인 연회를 열어
 팔도 각읍¹²⁶⁴ 맹인들을 불러오는데,
 그때여 심봉사는 딸 생각이 나면 도화동을 찾아 드는데,
 [중모레] 도화동을 찾아드니
 딸의 생각이 절로 난다.
 봄이 가고
 여름이 되니 녹음방초¹²⁶⁵ 한이로다.
 산천은 적적한디¹²⁶⁶ 물소리만 처량쿠나.
 도화동 사람들은 모두 나와 인사를 하고,
 딸과 같이 놀던 처자¹²⁶⁷들은 종종¹²⁶⁸ 와서 인사를 하니,
 심봉사 기가 막혀, “아이고, 내 딸 심청아.
 인간 부모를 잘못 만나 생죽음을 허였구나.
 날 잡아가거라! 나를 물어가거라!
 삼신국 소귀¹²⁶⁹들아, 날 잡아가거라!
 아귀,¹²⁷⁰ 악신¹²⁷¹들아, 날 다려가거라!¹²⁷²
 살기도 나는 귀찮허다.
 아이고, 이를 어찌를 혈꺼나.”
 북통단장성¹²⁷³으로 울음을 운다.

39. (심봉사 황성길) 심봉사가 관가에서 노자돈을 받아 뽕 덕이네와 황성길을 출발한다.

[아니리] 하로난 관가¹²⁷⁴에서 심봉사를 불러들여,

The emperor responds,
“You are a good daughter.”The banquet starts right away.
The blind from every corner of the country are invited.
Meanwhile, Mr. Sim visits Peach Blossom Village whenever a
thought about his daughter occurs.

[Jungmori] Mr. Sim enters Peach Blossom Village.
A thought about his daughter occurs automatically.
Spring has gone.
It is now summer with green grass and trees,
The mountains quiet, and streams are plaintive.
All the villagers come out and greet Mr. Sim.
His daughter’s old friends often visit and say hello to him.
Mr. Sim is dumfounded. “Oh, my daughter!
You died unfairly because you were born to poor parents.
Take me there! Take me there!
Bad ghosts, take me there.
Evil spirits, take me there.
I don’t want to live any longer.
What should I do now?”
He bewails as if his intestines were cut out.

**39. (Mr. Sim on the Way to the Capital City) Mr. Sim
gets some travel money from the local government
and leaves for the capital city with Bbaengdeok.**

[Aniri] One day, the local government calls Mr. Sim.

“황성서 맹인잔치를 하니,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올라가야 하오니,
심봉사님도 여기 노자¹²⁷⁵ 후히¹²⁷⁶ 줄 터이니
어서 급히 올라가옵소서.”
심봉사 좋아라고,

[중중모리] “얼씨구나, 돈 봐라. 절씨구나, 돈 봐라.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 좋네. 얼씨구나, 절씨구.”
저의 집으로 들어서며,
“여보소, 뽕과!

집안 어른이 어디 갔다가 집안이라고 들어서면,
우루루루 달려들어 영접하는 게 도리에 옳제,
좌이부동¹²⁷⁷이 웬 일인가?

에라, 요 계집, 요망허다,”
뽕덕이네가 나온다. 뽕덕이네가 나와.

“아이고, 영감. 영감 오신 줄 내 몰랐소.
내 잘못되었소. 이리 오시오. 이리 오라면 이리 와.”

[아니리] “여보소, 뽕과. 이리 오소. 내 자네에게 할 말 있네.
우리가 이렇게 금슬 좋게 살다가,
만일에 내가 먼저 죽고 없으면, 자네는 어떻게 살랑가?”¹²⁷⁸

“아이고, 영감도. 그것도 말씀이라고 하시오?
영감 죽고 없으면, 나 혼자 어찌 산다요?
나도 삼년상¹²⁷⁹ 딱 지내고, 저 깊은 물에 풍덩 빠져 죽죠.”

“아이고, 그러구본께¹²⁸⁰ 우리 뽕덕이네가 천너지.¹²⁸¹
다름이 아니라, 황성서 맹인잔치 험다고 오라고 하니,
나하고 같이 올라가세.”

[중모리] “안 갈라요. 못 가겠소.

“There is a banquet for the blind in the capital city.
Every blind person should be there.
I’ll give you a lot of travel money.
Please hurry to the capital city.”
Mr. Sim is delighted.

[Jungjungmori] “Hurrah! Look at this money. Hurray!
Yippee! Whoopee! Hurrah! Hurray! Oh, boy!”
He comes back home.
“Hello, Bbaengdeok!
If the head of family comes back home,
it is your duty to come out quickly and greet him.
Why aren’t you answering me?
What a bad woman!”
Bbaengdeok comes out.
“Hello, honey! I didn’t know you were back.
I am sorry. Please come close to me. Come here.”

[Aniri] “Look honey. Come here. I have something to tell you.
We get along in conjugal harmony.
What would you do if I die first?”
“Oh, darling. Why do you say that?
How can I live along if you die?
After three years of ritual for you, I will drown to death in that
deep stream.
“Good. On close examination, Bbaengdeok is a virtuous woman.
A banquet is held for the blind in the capital city.
Let’s go there together.”

[Jungmori] “I don’t want to go there.

나는, 나는 안 갈라요.

영감은 눈이 어두워 황성 잔치에 참례¹²⁸²하지만,

멀쩡히 눈뜬 년이

황성 천 리 어디라고 다리 아파서 못 가겠소.”

심봉사 기가막혀,

“오지마라. 오지마라. 너 아니라도 나 혼자 갈란다.

현철허신 껍씨부인 오늘까지 살았으면, 이런 폐단¹²⁸³이 있겠으며,

출천대호 내 딸 청이 오늘까지 살았으면, 애비 혼자 가게 하겠느냐?

예끼, 호랭이가 파삭 깨물어 갈 년!”

뽕덕이네 가만히 생각해 본깨¹²⁸⁴ 지가¹²⁸⁵ 잘못되었거든.

“아이고, 영감도. 내가 어쩐가볼라고¹²⁸⁶ 속을 폭 썬본깨.¹²⁸⁷

영감 속은 어찌 그리 용렬¹²⁸⁸하시오?”

“무엇이 어찌? 내 속이 용렬해?

내 속이 용렬하면, 네 속은 땅 두꾸¹²⁸⁹ 같다.”

그날 밤을 지새우고,

40. (길소리) 심봉사는 뽕덕이네와 황성길을 가면서 길소리를 한다.

[진양조] 아침밥을 지어 먹고,

뽕덕이네로 눈을 삼아 황성길을 떠나갈 제,

신세¹²⁹⁰ 자탄¹²⁹¹으로 울음을 운다.

“어이 갈꺼나, 어이를 가리?

황성 천리 먼먼 길을 앞을 못 보니 어이 가리?

여보소, 뽕덕이네.”

“예?”

I have no reason to go there.
You are eligible to participate in the banquet because you are blind,
but I have normal eyes.
The capital city is too far, and my legs will hurt.”
Mr. Sim is stunned.
“Fine, don’t come. I will go there without you.
If the wise lady, Mr. Gwak, were alive, I wouldn’t go through this humiliation.
If my good daughter were alive, I wouldn’t go there alone.
A tiger should bite you hard and take you away!”
Reflecting on herself, Bbaengdeok realizes she was wrong.
“Hello, honey. I said so just to see how you would respond.
How narrow-minded you are!”
“What? I am narrow-minded?
If I am narrow-minded, you are hollow-minded.”
The night goes.

40. (Travel Song) Mr. Sim sings a travel song on his way to the capital city with Bbaengdeok.

[Jinyangjo] Mr. Sim eats breakfast.
With Bbaengdeok’s help, he leaves for the capital city.
He laments over his lot.
“How can I go there?
The capital city is far, and I am blind.
Hello, Bbaengdeok!”
“Yes.”

“자네는 응당 천지만물¹²⁹²)을 볼 터이니,
 이 곳은 어데며, 저것은 산이라,
 보는 대로 알 터이니,
 자세히 일러 주게.
 지척 분별¹²⁹³)을 못하는 몸이
 누구를 보려고 황성을 갈이거나?
 어리 가리니,¹²⁹⁴) 어이를 갈까?”

41. (뽕덕이네 도망) 주막에서 자다가 뽕덕이네가 황봉사와 도망해 버리자 심봉사가 탄식한다.

[아니리] 그렇저런 길을 걸어 일모¹²⁹⁵)가 되니,
 주막에 들어 잠을 잘 제,
 뽕덕이네는 전일부터 알고 지내는 황봉사와 눈이맞어 갖고,¹²⁹⁶)
 심봉사를 잠들여 놓고 밤중 도망을 허였졌다.
 물색¹²⁹⁷) 모르는 심봉사는 첫새벽에 일어나서 뽕덕이네를 찾는다,
 “여보소, 뽕파. 그만 자고 일어나소.
 요새는 삼복더위라 낮에는 뜨거워서 못 가겠으니,
 새벽길¹²⁹⁸) 사오 리나 쳐야¹²⁹⁹) 헐 걸.
 어서 일어나! 어이!”
 방 네 구석을 더듬어본들 아무 흔적이 없지.
 “여보, 주인. 우리 마누라 거기 없소?”
 주인 나와 허는 말이,
 “어제 저녁에 어떤 봉사하고 밤길 쳐야 한다고 벌써 떠났소.”
 “무엇이 어찌? 아, 그러면 진즉 나한테 말 좀 해주지 그랬소?”

“You can see things in the world for sure.
You must know where we are and where a mountain is.
You must know anything you see.
Tell me things in detail.
I can’t even see anything close to me.
What should I go to the capital city for?
How can I go there?”

**41. (Bbaengdeok Runs Away) Sleeping in an inn,
Bbaengdeok runs away with Mr. Hwang, and Mr.
Sim sighs.**

[Aniri] While Mr. Sim and Bbaengdeok walk on the road, the sun sets.
They drop by an inn and go to sleep.
Bbaengdeok falls in love with Mr. Hwang, a blind man, she knew before.
While Mr. Sim sleeps, she runs away with Mr. Hwang.
Knowing nothing, Mr. Sim gets up early in the morning and looks for Bbaengdeok.
“Hello, Bbaengdeok, get up now.
It is hot these days, so we can’t walk during the day.
We should walk in the morning as much as we can.
Get up! Hey!”
He fumbles about in the room for her in vain.
“Hello, landlord! Is my wife there?”
The landlord comes out.
“She left last night with a blind man, saying they should go at night.”
“What? You should have told me earlier.”

“나는 그 양반허고 내외간¹³⁰⁰인 줄 알았제.”

심봉사 그제야 뺨덕이네 도망간 줄 알고,

“허허 기어이 그년이 갔네그려.”

[진양조] “허허, 허허. 우리 뺨덕이네 날 버리고 도망을 갔네!

환과고독¹³⁰¹ 사궁¹³⁰² 중에 홀애비가 으뜸이라.

타도¹³⁰³ 타관¹³⁰⁴ 낫선 곳에 날 버리고 도망을 갔네.

야, 이 천하¹³⁰⁵ 의리 없고 사정없는 요년아!

당초에 내가 버릴 태면 있든 곳에서 마다고¹³⁰⁶ 허지,

수백 리 타향에다가 날 버리고,

네가 무엇이 잘 될거나, 요년아!

귀신이라도 못 되지야, 요년아.

위라¹³⁰⁷ 위라 위라 위라,

현철¹³⁰⁸허신 곱씨부인도 죽고 살고,

출천대효¹³⁰⁹ 내 딸 청이 생목숨¹³¹⁰도 끊고 사는디,

네까짓 년을 내가 못 잊으면 미친 놈이로구나.

예끼, 호랑이가 꼭 깨물어 갈 년!”

[아니리] 심봉사가 울음을 울다 제 손수 설움이 풀려

한 번 너덕대¹³¹¹ 보겠다.

[엇중모리] “사람이라 허는 것은, 의리가 없고 보면 요만현¹³¹² 대접

도 못 받는 법이니,

무도한¹³¹³ 너를 생각허는 게 내 그르다.¹³¹⁴

현철하신 곱씨부인도 북망산¹³¹⁵에다 묻어 놓고,

출천대효 심청이도 인당수로 보냈는디,

너 같은 년 간다 하여도 나 못 살 리 만무¹³¹⁶허고나.

예라,¹³¹⁷ 요년아, 잘 가거라.

나 혼자 갈란다.

잘 가거라.”

"I thought they were a husband and wife."

Mr. Sim realizes that Bbaengdeok ran away.

"Oh god! The woman finally left me."

[Jinyangjo] "Oh my god. Bbaengdeok ran away from me!

Of the four miseries, being widower is the worst.

She ran away from me in a foreign and unfamiliar place.

What a thankless and heartless woman!

If she planned to forsake me, she should have done it at home.

You abandoned me far from home.

You will not be happy at all, bad woman!

You can't even become an evil spirit.

Let me forget her.

I survived the death of my wise wife, Mrs. Gwak.

I also survive the unfair death of my good daughter.

I will be a crazy man if I don't forget you.

A tiger should bite her hard and take her away!"

[Aniri] When Mr. Sim sobs, sorrow wells up in his mind.

He speaks a grumble.

[Eotjungmori] "If a person is thankless, she will not be respected at all.

It is wrong for me to think about you, a bad person.

I buried my wise wife, Mrs. Gwak, on a mountain.

I sent my good daughter to Indang Water.

It is out of the question that I can't survive on reason you left me.

Goodbye, you bad woman.

I will go there alone.

So long."

42. (황성길 다시 떠남) 날이 밝자 심봉사는 뽕덕이네를 야속해 하며 다시 황성길을 떠난다.

[아니리] “예끼, 급살¹³¹⁸)을 맞을 년!

내가 너를 다시 생각하면 인사불성¹³¹⁹) 쇠¹³²⁰) 아들놈이다.”

[중모리] 주막 밖을 나서더니 그래도 생각이 나서,

섰던 자리에 펴썩 주앉으며,¹³²¹)

“아이고, 뽕덕이네! 덕이네! 뽕덕이네!

세상천지의 몫쓸 년아.

눈 뜬 가장 배반기도 사람치고는 못힐 텐디,

눈 어둔 날 버리고

내가 무엇이 잘 될거나?

새 서방 따라서 잘 살어라.”

그렇저렇 올라갈 제,

이때는 어느 땐고?

오뉴월 삼복시¹³²²)라.

태양은 불빛 같고,

더운 땀을 휘뿌릴 제,¹³²³) 한 곳을 점점 당도하니,

시내 유수¹³²⁴)는 청산으로 돌고,

이 골 물이 주루루, 저 골 물이 팔팔.

열의 열두 골 물이 한 테로 합수쳐,¹³²⁵)

천방저 지방저 월터저 구부저,¹³²⁶) 방울¹³²⁷)이 버끔저,¹³²⁸)

건너 병풍석¹³²⁹)에다 마주 황황 마주 썰려,¹³³⁰)

대해수중¹³³¹)으로 내려가느라고,

버끔¹³³²)이 북찍,¹³³³)

울렁거려¹³³⁴) 뒤뚱, 워르르르 췌췌 뒤둥그러져,¹³³⁵)

**42. (Leaving for the Capital City Again) After the day
breaks, Mr. Sim leaves for the capital city again,
feeling bitter against Bbaengdeok.**

[Aniri] “May a disaster fall on her!

If I think about her again, I would be a son of cow knowing
nothing.”

[Jungmori] Getting out of the inn, Mr. Sim thinks about
Bbaengdeok again.

He flops down on the spot.

“Alas! Bbaengdeok! Bbaengdeok!

What a bad woman!

It is cruel even to betray a sighted husband,
but you betrayed a blind man.

Do you think you will be happy?

Have a happy life with the new husband!”

He somehow walks to the capital city.

What time of the year is it now?

It is hot summer now.

The sun is really hot.

Sweating a lot, Mr. Sim arrives at a certain place.

A stream turns around a green mountain.

Water flows naturally from valleys.

The water from many valleys forms a stream.

The stream rolls wildly, making foam.

It bumps head-on against a large rock.

It heads to the middle of the sea.

Foam rises up in water.

Waves shake the reflection of the mountain.

산이 울렁거려 휘돌아가니,
심봉사 좋아라고

43. (심봉사 목욕) 심봉사가 황성 가는 길에 목욕하다가 옷 을 도둑맞는다.

[중중모리] “얼씨구나 절씨구. 얼씨구나 절씨구.
저런 물에 가 목욕을 하면 서러운 마음도 잊힐 테요, 깨끗한 정신이
돌아올 테니,
어찌 아니가 좋을쏜가?¹³³⁶⁾
얼씨구 절씨구 절씨구.”
상하 의복을 벗어 지팡이로 눌러놓고,
더듬더듬 들어가 물에 가 풍덩 들어서며,
“에, 시원하고 장히¹³³⁷⁾ 좋네.”
물 한 주먹 덩벽¹³³⁸⁾ 쥐어 가슴을 슬슬 문지르며,
또 한 주먹 덩벽 쥐어 양치질도 켄켄¹³³⁹⁾ 하고,
“에, 시원하고 장히 좋다.
삼각산 올라선들 이에서¹³⁴⁰⁾ 시원허며,
동해수¹³⁴¹⁾를 다 마신들 이에서 더 시원헐꼬나?
얼씨구 좋구나 지화자 좋네.”
툼병툼병 노닌다.
[아니레] 목욕을 하고 물 밖에 나가,
옷을 입을 양으로
목수 줄¹³⁴²⁾ 텅기듯이 주루루 올라가서 더듬더듬 찾아보는데,
의복이 간 곳이 없제.

The stream turns around the mountain.
Mr. Sim is delighted.

**43. (Mr. Sim Takes a Bath) Mr. Sim takes a bath on
his way to the capital city and gets his clothes
stolen.**

[Jungjungmori] “Yippee! Whoopee! Hurrah! Hurray!
If I take a bath in that stream, I will shake off my grief and
think clearly.
That would be great.
Hurrah! Hurray! Yippee!”
He takes off his clothes and weighs them down with his cane.
He moves slowly into the stream.
“Oh, cool! It feels so good.”
He holds up a handful of water and cleans his chest.
He picks up another and cleans his teeth.
“Oh, cool! It feels so good.”
There would be no cooler stream than this one.
No water would be cooler than this one.
Yippee! Whoopee! Hurrah!”
He splashes water.

[Aniri] After the bath, Mr. Sim gets out of the water.
He intends to put on his clothes.
He moves up in a straight line and fumbles for them,
but they are gone.

“어, 여기에다 옷을 놓아 두었는데
 어디 갔을까?
 웁지. 지팽이가 여기 있는 것 본까¹³⁴³⁾
 이 자리가 분명 맞는다,
 바람에 날아갔나?
 아니면 누가 봉사 옷 갖고 장난헌 것 아니여?
 어여¹³⁴⁴⁾ 장난 말고 옷 가져와, 어이!”
 아무리 불리도 인적¹³⁴⁵⁾이 없지.
 그제야 도적맞은 줄 짐작하고,
[중모레] “허허, 이제는 꼭 죽었네.
 허허, 이제는 영 죽었네.
 불꽃같은 이 더위에 옷을 훨썬¹³⁴⁶⁾ 벗었으니
 디여서도¹³⁴⁷⁾ 죽거니와,
 알몸이 되었으니 굶어서도 꼭 죽었네.
 백수풍신¹³⁴⁸⁾ 늙은 몸이
 우아래¹³⁴⁹⁾를 벗었으니
 황성길을 어이 가리?
 야, 이 무지한¹³⁵⁰⁾ 도적 놈아!
 내 옷 가져오너라.
 먹고 입고 남은 허다한¹³⁵¹⁾ 부잣집 다 버리고, 내 옷을 가져가면
 나는 이 자리에서 앓은뱅이 되란 말이냐?
 내 옷 가져오너라.
 여보시오, 혹시 부인네들 내 앞에 지내가거던¹³⁵²⁾ 저리 돌아가시오!
 나 어찌다 훨썬 벗었소.
 귀머거리 앓은뱅이 날보다는¹³⁵³⁾ 상팔자¹³⁵⁴⁾라.
 일월¹³⁵⁵⁾이 밝았어도 동서분별¹³⁵⁶⁾을 내 못하니,

“Gosh, I put my clothes here.
Where did they go?
Yes, my cane is here,
so they must be here.
Were they flown away by the wind?
Or is somebody playing with a blind man’s clothes?
Stop teasing me! Bring my clothes right away!”
There is no a trace of human, however loudly he speaks.
He now realizes that his clothes were stolen.

[Jungmori] “Alas! I will surely die now!
I am bound to die now!
I am naked in this hot weather,
so I will be scorched to death.
Or since I am naked, I will starve to death.
I am old with grey hair.
Besides, I am completely naked.
How can I go to the capital city?
Hey, you cruel villain!
Bring my clothes.
You chose me over a rich person having lots of extra clothes.
Should I sit here for good?
Bring my clothes.
Hello! If there is a woman in front of me, please turn around.
I somehow got naked.
A deaf or a crippled man should be better than I.
I can’t see anything even though the sun and the moon are bright.

살아 있는 내 팔자야.
모진 목숨 죽지도 못하고,
내가 이 지경이 웬 일이냐?”

44. (무릉태수) 심봉사는 지나가던 무릉태수에게 옷을 얻어 입고 다시 길을 떠난다.

[아니리] 이때에 무릉태수 지내다가 심봉사를 보더니,
“여봐라, 저기 저 봉사는 어떤 봉사인지,
삼도 네거리¹³⁵⁷)에서 옷을 벗고 저리 슬피 우는지,
연유를 말하여라.”

[중모리] “예, 예, 아뢰리다. 예, 소맹¹³⁵⁸)이 아뢰리다.
소맹이 다른 봉사 아니오라, 황성잔치 가는 봉사온데,
간밤에 이 아래 주막에서 계집을 잃고 오다,
날이 심히 더웁기로 목욕을 하고 나와 보니,
어떤 무지한 도적놈이 내 의관¹³⁵⁹)을 가져갔소.
찾어주고 가시든지, 의복을 한 벌 주시든지,
양단간으로¹³⁶⁰) 허웁소서.
옛글에 이르기를,
적선지가 필유여경이요,
적악지가 필유여왕이라¹³⁶¹) 하였으니,
여보, 태수장,¹³⁶²) 살려주오!”
태수 듣고 가공히여¹³⁶³) 상하 의복을 내어주니,
심봉사 받아 입고,
백배치사¹³⁶⁴) 하직하고 황성길로 올라간다.

How bad my lot is!
My cruel life persists.
Why did this trouble fall on me?"

**44. (Governor of Paradise Region) Mr. Sim sets off
after getting clothes from the governor of Paradise
Region passing by.**

[Aniri] At that moment, the governor of Paradise Region passing
by notices Mr. Sim.

"Hey, who is that blind man over there?
Why are you sobbing sadly naked on this public road?
Report to me."

[Jungmori] "Okay, let me report to you, sir.
I am going to the banquet for the blind in the capital city.
I lost my wife last night in an inn over there.
It was so hot that I took a bath in a stream.
I realized that a rude thief stole my clothes.
Please find my clothes or give me some clothes.
Please choose one of the two options.
An old saying holds that
a fortune will befall a good family,
and a misfortune will befall a bad family.
Governor, please help me."
The governor takes pity on him and give him clothes.
Mr. Sim takes them and puts them on.
He bows to the governor repeatedly and leaves for the capital
city.

낙수교¹³⁶⁵)를 얼른 건너 녹수정¹³⁶⁶)에 들어가서,
시원한 그늘을 찾아 앉았을 제,

45. (방아타령) 심봉사가 방아를 찧는 여인들을 만나 방아 를 찧어주고 밥을 얻어 먹는다.

[아니리] 그 어느 촌가¹³⁶⁷)인지, 부인네들이 방아를 찧다가
심봉사에게 농¹³⁶⁸)을 청하것다.

“아이고, 저기 저 봉사도 황성잔치 가는 봉사지매.¹³⁶⁹)

그렇게 앉아 있지 말고,

여기 와서 방아 좀 찧어주면

밥도 주고, 술도 주고 그럴 텐디.”

심봉사 이말 듣고, “날 뭘 좀 주어야 찧어주지.”

“아이고매! 저 봉사 술찬히¹³⁷⁰) 우멍허구만.¹³⁷¹)

주기는 뭘 쥐? 술 주고, 밥 주면 되지.”

“그러. 그러면 한 번 찧어볼거나?”

심봉사 방아줄¹³⁷²)을 느끈히¹³⁷³) 잡고,

한 발을 방아 우에 척 올려놓고,

한번 신을 내어 찧어보는다,

[중중모리] “어유화 방아요. 어유화 방아요.

떨그덩 땡땡 자주나 찧자.

어유화 방아요.”

“이 방애¹³⁷⁴)가 뉘 방아?

강태공의 조작¹³⁷⁵)이로다.”

“어유화 방아요.”

He passes a bridge and enters a pavilion.
He sits on a cool place below a shadow.

**45. (Mill Song) Mr. Sim comes across milling women
and mills for them in return for a meal.**

[Aniri] Some women are milling in a village in the country.
They speak a joke to Mr. Sim.
“Oh, that blind man must be going to the banquet in the capital city too.
Don’t just sit there.
Come over here and mill for us.
Then, we will give you a meal and wine.”
Mr. Sim responds, “You should give me something first.”
“Oh god! That blind man is quite a beast.
We can only give food and wine, nothing else.”
“Fine, let me mill for you.”
Mr. Sim grabs a mill string softly.
He puts his foot on the mill.
He begins to mill joyously.

[Jungjungmori] “Here goes a mill. Here goes a mill.
Let’s mill often, making milling sounds.
Here goes a mill.”
“Whose mill is this?
This mill is made by an ancient politician.”
“Here goes a mill.”

“이 방아를 지을¹³⁷⁶⁾ 적에 서른 세명 역군¹³⁷⁷⁾들이 낙락장송¹³⁷⁸⁾ 베
어다 이 방아를 만들었네.”

“어유화 방아요.

떨그덩 땡땡 잘 쪼자.

어유아 방아요.”

“옥빈홍안¹³⁷⁹⁾의 태돌런가,¹³⁸⁰⁾

가는 허리다¹³⁸¹⁾ 잠¹³⁸²⁾을 질렀구나.”¹³⁸³⁾

“어유화 방아요. 어유화 방아요.”

“만첩청산¹³⁸⁴⁾ 들어가 계화나무¹³⁸⁵⁾ 가지 끝에 피꼬리 앉아 노래한다.”

“어유화 방아요.”

“한 다리를 치켜들고 또 한 다리를 굴리는구나.”¹³⁸⁶⁾

“어유화 방아요.”

“머리 들어 오르는 양은

창해 노룡¹³⁸⁷⁾이 성을 낸 듯,

머리 숙여 내리는 양은

초희왕¹³⁸⁸⁾의 돈술런가?”¹³⁸⁹⁾

“어유화 방아요.

떨그덩 땡땡 자주만 쪼자.

어유아 방아요.”

“사람을 비양턴가,¹³⁹⁰⁾ 두 다리를 벌렸구나.”

“어유화 방아요.

떨그덩 땡땡 자주만 쪼자.

어유아 방아요.”

[자진모리] “어유화 방아요, 어허유화 방아요.

떨그덩 땡땡 잘 쪼는다.

어유화 방아요.”

This mill was made by thirty three workers who cut down a tall pine tree.”

“Here goes a mill.

Let’s mill well, making milling sounds.

Here goes a mill.”

“This mill looks like a beautiful girl.

A hairpin is pierced through a slim waist.”

“Here goes a mill. Here goes a mill.”

“A nightingale sings a song at the end of a cinnamon branch on a deep mountain.”

“Here goes a mill.”

“One foot is on the ground, and the other one stamps on the mill.”

“Here goes a mill.”

“The mill pulls up its head.

It looks as if an old dragon lost its temper in a wide blue sea.

The mill pulls down its head.

It looks as if an ancient king bowed.”

“Here goes a mill.

Let’s mill often, making milling sounds.

Here goes a mill.”

“The mill spread its legs like a human.”

“Here goes a mill.

Let’s mill often, making milling sounds.

Here goes a mill.”

[Jajinmori] “Here goes a mill. Here goes a mill.”

Let’s mill well, making milling sounds.

Here goes a mill.”

“미끌미끌 기장¹³⁹¹) 방아,
 사박사박이¹³⁹²) 올미¹³⁹³) 방아.”
 “어유화 방아요.”
 “짙기 좋은 나락¹³⁹⁴) 방아,
 지긋지긋이¹³⁹⁵) 보리 방아.”
 “어유화 방아요.”
 “아이고, 매워라, 고추 방아,
 구스럼허구나,¹³⁹⁶) 깨묵¹³⁹⁷) 방아.”
 “어유화 방아요.”
 “옆에서 짙는 부인, 궁둥이도 너부등허구나.¹³⁹⁸)”
 “어유화 방아요.”
 “들이가 짙게 되면 물방아¹³⁹⁹)가 제격¹⁴⁰⁰)이요,
 집에 달아¹⁴⁰¹) 짙게 되면 디딜방아¹⁴⁰²)가 좋을시구나.”
 “어유아 방아요.”
 “황성 천 리 가는 길에 방아 짙기도 처음이로다.”
 “어유화 방아요.”
 “떨끄덩 땡땡 잘 짙는다.”
 “어유화 방아요.
 허유와 방아요. 허유화 방아요.”
 “떨끄덩 땡땡 잘 짙는다.”
 “어유화 방아요.”
 “이 방아를 어서 짙어,”
 “어유화 방아요.”
 “보리쌀 뜨물에 호박국 끓여라.”
 “어유화 방아요.”
 “우리 방아꾼들 배 충족¹⁴⁰³)하세.”
 “어유화 방아요.”

“A millet mill is slippery.
A adlay mill is dry.”
“Here goes a mill.”
“A rice mill is easy.
A barley mill is hard.”
“Here goes a mill.”
“A pepper mill is hot.
A sesame mill smells good.”
“Here goes a mill.”
“A milling woman’s hip is large.”
“Here goes a mill.”
“A water mill is appropriate in the field.
A tread mill is appropriate in the house.”
“Here goes a mill.”
“This is the first time to mill on the way to the capital city.”
“Here goes a mill.”
“Let’s mill well, making milling sounds.”
“Here goes a mill.
Here goes a mill. Here goes a mill.”
“Let’s mill well, making milling sounds.”
“Here goes a mill.”
“Let’s mill quickly.”
“Here goes a mill.”
“Make a soup out of pumpkin and barley-washing water.”
“Here goes a mill.”
“Let’s fill up the stomachs of mill workers.”
“Here goes a mill.”

“사철 찢는 쌀방아요,
 명절 때면 떡방아로다.”
 “어유화 방아요.”
 “오르락내리락 잘 찢는다.”
 “어유화 방아요.”
 “빼구빼구¹⁴⁰⁴ 잘 찢는다.”
 “어유화 방아요. 어유화 방아요.”
 [중중모리] “떨끄덩 땡땡 자주 찢어라.
 점심때가 늦어간다.”
 “어유화 방아요.”

46. (맹인 잔치 참여) 심봉사가 황성 맹인 잔치에 참여한다.

[아니리] 이렇듯 방아를 찢어주고,
 [중중모리] 점심밥 얻어먹고 종로¹⁴⁰⁵로 나올 적에,
 골목골목 거리거리 소경 천지가 되었네.
 봉명 군사¹⁴⁰⁶ 영기¹⁴⁰⁷ 메고 골목골목 다니면서,
 “각도 각읍¹⁴⁰⁸ 소경님네!
 오늘 잔치 망종¹⁴⁰⁹이니
 어서 와 참례¹⁴¹⁰허소.”
 수문장¹⁴¹¹은 좌정¹⁴¹²하여, 날마다 오는 소경님네 거주 성책하
 야¹⁴¹³ 들어갈 제,
 그 때여 심봉사는 파방관¹⁴¹⁴에 당도를 허여
 성책기도 올리려고,¹⁴¹⁵
 마당에 자리를 허고 시름없이 앉았구나.

“Rice is milled to be unshelled all the year around.
Rice is milled to be a rice cake for big holidays.”

“Here goes a mill.”

“The mill works well, moving up and down.”

“Here goes a mill.”

“Let’s mill well, making milling sounds.”

“Here goes a mill. Here goes a mill.”

[Jungjungmori] “Let’s mill often, making milling sounds.
We passed the time for lunch.”

“Here goes a mill.”

46. (Joining the Banquet) Mr. Sim joins the banquet for the blind in the capital city.

[Aniri] Mr. Sim mills for the women.

[Jungjungmori] Mr. Sim eats lunch and goes downtown in Seoul.
The whole city is crowded with the blind.

Soldiers carrying banners wander about in the city.

“Blind folks from villages in this country!

Today is the last day of the banquet.

Please hurry to the banquet.”

A gatekeeper sits and records the addresses of the incoming
blind, as they get in.

Mr. Sim joins the banquet when it is about to end.

He puts his name and address on the roster.

He sits in the yard without any worry.

47. (심황후 탄식) 심황후가 부친을 기다리며 탄식한다.

[아니리] 그때여 심황후는

맹인잔치 배설¹⁴¹⁶)헌 지 여러 날이 되었으나

부친은 오지 않으니,

일야¹⁴¹⁷)는 옥난간¹⁴¹⁸)에 앉아 부친을 생각하고 울음을 우는디,

[진양조] 그 때여 심황후는 혼자 앉아 탄식을 허는디,

“천지신명¹⁴¹⁹)이 이다지도 무심헌거나?

황송하신 처분으로 맹인잔치 허옵기는, 불쌍하신 우리 부친 상봉혈까
바랬더니,

어이하여 못 오신고?

당년 칠십¹⁴²⁰)

노환¹⁴²¹)으로 병이 들어서 못 오신가?

불효 여식 날 보내고 애통자진¹⁴²²)을 허시다가 세상을 떠나셨나?

몽은사 부처님의 영험¹⁴²³)으로 감은 눈을 뜨옵시고 맹인 축으가¹⁴²⁴)
빠지셨나?

어이하여서¹⁴²⁵) 못오신거나?

오날 잔치 망종인디,

어이하면은¹⁴²⁶) 상봉을 혈꺼나?”

아무도 모르게 울음을 운다.

47. (Empress Sim Sighs) Empress Sim sighs while waiting for her father.

[Aniri] Meanwhile, let's turn to Empress Sim.

Several days have passed since the banquet was thrown, but her father doesn't show up.

One night, she sits and sighs by a jade railing, thinking about her father.

[Jinyangjo] Meanwhile, the empress sits and sighs alone.

"How can gods in heaven and on the earth this cruel?

With the emperor's support, I hold this banquet to meet my poor father.

Why isn't my father coming?

He is seventy years old.

Is he sick because he is old?

Has he died, after sending and missing his bad daughter?

Is he classified as a sighted person because he opened his eyes thanks to Buddha's miracle?

Why isn't he coming?

Today is the last day of the banquet.

How can I meet my father?"

She sighs alone in secrete.

48. (부녀 상봉) 심황후가 심봉사를 보고 처자를 묻자, 심봉사가 울면서 자신의 내력을 말한다.

[아니리] 이렇듯 슬피 울다 한 곳을 바라보니,
어떠한 맹인인지 저 말석¹⁴²⁷)에 시름없이 앉어있거늘,
심황후 시녀 불러 분부하시되,
“너희들은 급히 나가 저기 저 봉사가 거처¹⁴²⁸)가 어디이며, 성명이
무엇인지, 처자¹⁴²⁹)가 있는지 낱낱이 알아오도록 하여라.”
[창조] 그때여 심봉사는 언제든지 처자 말만 나오면, 감은 눈에서 눈
물이 비오듯이 쏟아지는데,
[중모리] “예 예 예예, 소맹¹⁴³⁰)이 아뢰리다. 예, 소맹이 아뢰리다.
소맹이 사육기는 황주 도화동이 거토¹⁴³¹)웁고,
성은 청송 심가¹⁴³²)요, 이름은 학규인데,
곽씨문¹⁴³³)에 취처¹⁴³⁴)하여
이십에¹⁴³⁵) 안맹¹⁴³⁶)허고,
사십에 상처¹⁴³⁷)한 후,
강보¹⁴³⁸)에 싸인 여식¹⁴³⁹) 동냥젖을 얻어 먹여 근근히¹⁴⁴⁰) 길렀더니,
효성이 출천¹⁴⁴¹)하여 아버지의 눈 어둔 것이 평생의 한이 되어,
공양미¹⁴⁴²) 삼백 석¹⁴⁴³)을 몽은사로 시주¹⁴⁴⁴)하면 애비 눈을 뜬다허니,
저 죽는 것을 생각잖고 남경 장사 선인들께 삼백 석에 몸이 팔려,
물에 빠져 죽었소!
자식 팔아먹은 놈이
세상 살아 무엇하리까.
몹쓸 놈의 인간을 죽여 주오.
어서 급히 능지처참¹⁴⁴⁵)을 시켜 주오.”

48. (The Reunion of the Father and the Daughter)
Empress Sim spots Mr. Sim and asks him about his
wife and child. He speaks about himself in tears.

[Aniri] While sighing, Empress Sim sees a certain place.
A blind man sits in a corner without worry.
Empress Sim calls a maid.
“Go out quickly and ask that blind man over there about his
address, name, wife, and child in detail.”

[Poetic Mode] Whenever Mr. Sim is asked about his wife and
child, tears fall down like a rain from his closed eyes.

[Jungmori] “Okay, ma’am, let me tell you in detail about myself.
I live in Peach Blossom Village.

My last name is Sim, and my first name is Hak-gyu.

I had a wife, Mrs. Gwak.

I lost my sight at the age of twenty.

I lost my wife at the age of forty.

I managed to raise my little daughter by begging around for
milk.

Being a good daughter, she wished to open her father’s eyes.
She heard her father would open his eyes if 300 bags of rice
was donated to Mongeun Temple.

Without minding her death, she sold herself to sailors at 300
bags of rice.

She drowned herself.

I sold my child.

I have no reason to continue my life.

Kill me. I am a bad person.

Please dismember my body right away.”

감은 눈에서 눈물이 듣거니 땀거니,¹⁴⁴⁶⁾
그저 퍼버리고¹⁴⁴⁷⁾ 울음을 운다.

49. (심봉사 개안) 심봉사가 딸을 만난 기쁨에 눈을 뜬다.

[자진모리] 심황후 이 말 듣고
산호주렴¹⁴⁴⁸⁾을 걷어버리고
버선발로 우루루루루 쫓아나와,
부친의 목을 안고,
“아이고, 아버지! 여태 눈을 못 뜨셨소?
몽은사 화주승¹⁴⁴⁹⁾이 공들인다¹⁴⁵⁰⁾ 허더니마는
영검¹⁴⁵¹⁾이 덜 허신가?
아이고, 아버지. 인당수 풍랑 중에 빠져죽던 심청이가 살어서 여기
왔소.
아버지, 눈을 떠서 청이를 보옵소서.”
심봉사 이 말을 듣더니,
먼 눈을 희번쩍희번쩍¹⁴⁵²⁾허더니마는,
“아니, 누가 날더러¹⁴⁵³⁾ 아버지라고 혀?
나는 자식도 없고
아무도 없는 사람이오.
그러니 누가 날더러, 에이?
내 딸 심청이는 인당수에 죽었넌디,
여기가 어디라고 살아오다니 웬 말이냐?
이것이 꿈이냐, 이것이 생시냐?

Tears are in his closed eyes and fall down.
He cries, letting his legs go wild.

**49. (Mr. Sim Opens His Eyes) Mr. Sim opens his eyes
at the joy of meeting his daughter.**

[Jajinmori] Empress Sim heard Mr. Sim.
She pulls aside the coral blind.
She runs to her father without putting shoes on.
She hugs her father's neck.
“Oh my father! Haven't you opened your eyes yet?
The buddhist monk of Mongeun Temples promised to pray for
you.
His efforts were not hard enough.
Father! I died in the wind and wave at Indang Water, but I came
back alive.
Father, please open your eyes and look at me.”
Mr. Sim heard her.
He moves his blind eyeballs, showing the white spots
irregularly.
“Uh? Who is calling me father?
I don't have a child.
I have nobody.
Who is calling me father? Uh?
My daughter died at Indang Water.
How can she be here alive?
Is this a dream or real?

꿈이거든 깨지 말고,
 생시거든 어디 보자.”
 더듬 더듬 더듬 만져보고
 어찌할 줄 모를 적으,
 난데없는 오색 채운¹⁴⁵⁴)이 황극전¹⁴⁵⁵)에 두르더니,
 청학,¹⁴⁵⁶) 백학,¹⁴⁵⁷) 난봉,¹⁴⁵⁸) 구중¹⁴⁵⁹) 운무간¹⁴⁶⁰)에 왕래하며,
 심봉사 감은 눈을 희번쩍 희번쩍 희번쩍!
 눈을 떴구나.

50. (심봉사 기뼈함) 심봉사가 딸의 얼굴을 보고 기뼈하며 춤을 춘다.

[중모레] 감은 눈을 번쩍 뜨고 심황후를 살펴보더니,
 “얼씨구나, 좋을씨구. 지화지화 자자 좋을씨구.
 어두운 눈을 내가 다시 뜨고 보니,
 천지일월¹⁴⁶¹)이 장관¹⁴⁶²)이요,
 갑자 사월 초파일날 몽중¹⁴⁶³)에만 보았더니,
 눈을 뜨고 다시 보니 그때 보던 얼굴이라.
 얼씨구나 좋을씨구.
 여보소, 동지네¹⁴⁶⁴)들,
 고왕금래¹⁴⁶⁵) 생각해도 이런 경사 나는 참 보았네.
 얼씨구나 좋을씨구.”
 여러 봉사들도 눈을 뜰 제,
 오뉴월 장마통에 갈모¹⁴⁶⁶) 뜨는¹⁴⁶⁷) 소리가 나고,

If this is a dream, I don't want to wake up.
If this is real, let me see you."
Mr. Sim fumbles over her.
He is at a loss what to do.
Out of blue, colorful clouds surrounds the emperor's office.
A blue crane, a white crane, and a phoenix fly between clouds
and fog.
He moves his blind eyeballs, showing the white spots
irregularly.
At last, he opens his eyes.

**50. (Mr. Sim Cheers) Mr. Sim sees his daughter's face
and dances in joy.**

[Jungmori] Mr. Sim opens his closed eyes and takes a look at
Empress Sim.
"Yippee! Whoopee! Hurrah! Hurray! Oh boy!
Now that I opened my eyes,
the sky, the earth, the sun, and the moon look spectacular.
I saw you in my dream of conception, in April, in the past.
Now that I opened my eyes, I can recognize your face.
"Yippee! Whoopee!
Hello, folks!
I have never heard of a happier event than this.
Hurrah! Hurray!"
Other blind persons open their eyes.
It sounds as if a rain falls down on a dry paper.

날아가는 새짐승도 그 날 그 시로¹⁴⁶⁸) 눈을 뜨니,
심황후 어지신 성덕,¹⁴⁶⁹) 세상 천지에 무맹인이라.¹⁴⁷⁰)

51. (여러 봉사 개안) 여러 봉사가 함께 눈을 뜨고 성덕을 칭송한다.

[중중모리] 여러 봉사 눈 뜨고 춤을 추면서 노닌다.
“얼씨구나 절씨구.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 좋네, 얼씨구나 좋을씨구.
감엇던 눈을 뜨고 보니
천지일월¹⁴⁷¹)이 장관¹⁴⁷²)이요,
황극전¹⁴⁷³) 높은 궁궐 맹인 잔치도 장관이요,
열좌¹⁴⁷⁴) 맹인이 눈을 떴으니
춤출 ‘무’ 자¹⁴⁷⁵)가 장관이로다.
얼씨구나 절씨구.
요순적¹⁴⁷⁶) 시절에도 눈떴단 말은 처음이요,
태고적¹⁴⁷⁷) 시절 이래로 감은 눈 떴단 말 나는 처음 들었네.
얼씨구 얼씨구 절씨구.
송천자¹⁴⁷⁸) 폐하도 만만세,¹⁴⁷⁹)
심황후 폐하도 만만세,
부원군¹⁴⁸⁰)도 만만세,
여러 맹인들도 만만세.
천천만만세¹⁴⁸¹) 태평으로만 놀아보세.
얼씨구 얼씨구 절씨구.
얼씨구나, 아!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 좋네. 얼씨구나 절씨구.”
[엇중모리] 그 때여 심봉사는 부원군으로 봉허시고,¹⁴⁸²)

Even birds and animals open their eyes at that moment.
Thanks to Empress Sim's virtue, the world became free of blind persons.

51. (The Blind Open Their Eyes) The blind open their eyes and praise the virtue of Empress Sim.

[Jungjungmori] The blind open their eyes and dance in joy.
“Yippee! Whoopee! Hurrah! Hurray! We feel so good!
We opened our blind eyes.
The sky, the earth, the sun, and the moon are spectacular.
The banquet in the high palace is splendid.
Many blind people opened their eyes.
The dancing blind are magnificent.
“Yippee! Whoopee!
No blind person opened his eyes even in the ancient peaceful time.
We never heard a blind person opened his eyes since ancient times.
“Yippee! Whoopee! Hurrah!
Hurray for the emperor!
Hurray for the empress!
Hurray for the empress's father!
Hurray for the blind!
Let's live happy lives for thousands of years.
Hurrah! Hurray!
Yippee! Whoopee! Hurrah! Hurray! We feel so good.”

[Eotjungmori] Mr. Sim is declared the father of the empress.

무릉촌 장승상부인은 별급상사¹⁴⁸³) 시키시고,
화주승¹⁴⁸⁴)은 불리들여 당상¹⁴⁸⁵)을 시키시고,
젓 먹이던 부인들과 귀덕어미는 천금상¹⁴⁸⁶)을 내리시고,
도화동 백성들은 세역¹⁴⁸⁷)을 없앴으니,
천천만만세를 부르더라.
그 뒤야 뉘 알리오?
더질더질. ¹⁴⁸⁸⁾

A reward is granted to the noble lady in Paradise Village.
A government position is secured for the buddhist monk of
Mongeun Temple.
A lot of money is given to Mrs. Gwideok and women who gave
milk to Sim Cheong.
Villagers of Peach Blossom Village are exempted from taxes.
Everybody wishes a long life to the emperor.
Who would know what happens later?

- 1) 宋太祖. 송나라를 세운 조광윤(趙匡胤). 서력 기원 960년에 왕위에 올라, 975년에 죽기까지 16년 동안에 걸쳐 재위했음.
- 2) 立國之初. 건국 초기.
- 3) 桃花洞. 복숭아꽃 피는 마을 이란 뜻의 중국 지명.
- 4) 맹인. 눈먼 사람.
- 5) 累代. 여러 세대에 걸치는 기간.
- 6) 忠孝大家. 충성스런 벼슬아치와 효자를 많이 배출한 큰 집안.
- 7) 盛名. 훌륭한 아름다운 명성.
- 8) 藉藉터니. 자자하더니. (퍼진 소문 따위가) 왁자하더니.
- 9) 家運. 집안의 운수.
- 10) 零替. 세력이나 살림이 차차 아주 보잘 것 없이 구차하게 됨.
- 11) 眼盲허니. 눈이 먼니.
- 12) 洛水靑雲에 발자취 끊어지고, 벼슬길에 나아가지 못하고, '낙수청운'은 벼슬길을 이르는 말.
- 13) 賢哲하여. 어질고 총명하여.
- 14) 家長. 집안의 어른. 남편.
- 15) 治產凡節. 살림살이를 하고 예절을 지키는 여러 가지 태도.
- 16) 모자랄, 흠잡을.
- 17) 전혀 없어.
- 18) 百執事可堪.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음.
- 19) 몸이 상할 만큼 열심히.
- 20) 冠帶. 본래 벼슬아치가 쓰던 모자와 허리띠를 함께 일컫는 말로, 관리의 복장을 가리킴.
- 21) 道袍. 소매가 넓고, 길이가 발등에까지 미치며, 뒷자락에 띠 폭을 댄, 옛날 선비의 통상 예복.
- 22) 行衣. 소매가 넓은 두루마기에 검은 천으로 깃을 댄 선비의 옷.
- 23) 襜衣. 창옷. 옆구리가 터지고 소매가 넓은, 벼슬아치가 보통 때에 입던 옷.
- 24) 直領. 깃 동정이 곧게 된 군복.
- 25) 夾袖. '동달이'라고도 함. 붉은 소매를 단 검은 두루마기에 붉은 안을 넣고 뒷술기를 길게 켜 군복.
- 26) 快子. 등술기는 길게 찢고, 소매를 달지 않은 무관의 옷.
- 27) 소매가 넓고 길며, 옆이 터져서 네 폭으로 된 남자의 옷.
- 28) 여러 겹이 아닌 단 하나의 울로 뜯은 망건이나 탕건.
- 29) 가느다란 바늘로 가늘게 한 올씩 외올을 뜨는 바느질.
- 30) 위와 아래로 곧게 촘촘히 누비는 바느질.
- 31) 빨래 또는 생리대.
- 32) 夏節. 여름철.
- 33) 汗衫. 땀받이. 속적삼.
- 34) 袴衣. 사내의 흠바지.

- 35) 網巾. '망건'은 상투를 할 때, 머리가 흘러내리지 않게 하기 위해 이마에 매던 그물처럼 생긴 물건.
- 36) 簪子. 마고자처럼 생기고, 소매가 없는 여자의 덧저고리.
- 37) 단추. 옛날에는 바둑알 같은 것을 넣고 형겔으로 짜서 만들거나, 형겔을 뭉치어 실로 꿰매어 매듭으로 만들어 썼다.
- 38) 팔뚝에 끼워 추위를 막는데 쓰는 기구. 저고리 소매처럼 생겼는데, 한 쪽은 넓고, 한 쪽은 좁음.
- 39) 버선.
- 40) 行纏. 바지·고의를 입을 때 가든하게 하기 위하여 정강이에 꿰어 무릎 아래에 매는 물건.
- 41) 주머니.
- 42) 髻囊. 두루주머니. 아가리에 잔주름을 잡고 끈 두 개를 좌우로 꿰어서 여닫게 된 주머니. 끈을 줄라매면 전체가 거의 둥글게 됨.
- 43) 불개. 방한구(防寒具)의 하나로, 털가죽이나 형겔 조각에 솜을 놓아 기름하게 접어 만들어서, 두 뺨을 싸서 머리 위에 잡아매.
- 44) '휘항(揮項)'이라고도 함. 추울 때 머리에 쓰는 물건으로, 남바위같이 생겼으나 뒤가 훨씬 길고, 목덜미와 뺨까지 싸게 되었음.
- 45) 幅巾. 도복(道服)에 갖추어서 머리에 쓰는 쓰개. 검은 형겔으로 위는 둥글고 뺨쪽하게 만들며, 뒤에 넓은 자락이 길게 늘어지고, 양 옆에 끈이 있어 뒤로 돌려 맴.
- 46) 風遮. 머리에 쓰던 방한구.
- 47) 덧덮는 얇고 작은 이불.
- 48) 周衣. 두루마기.
- 49) 衾枕. 이불과 베개, 곧 침구.
- 50) 角帶. 벼슬아치의 예복에 매던 띠.
- 51) 胸背. 관복의 가슴과 등에 붙이던, 수를 놓은 형겔. 문관은 학을, 무관은 호랑이를 수 놓음.
- 52) 열 푼. 한 냥의 10분의 1.
- 53) 兩. 냥. 엽전을 셀 때 열 돈에 해당하는 단위.
- 54) 만들고.
- 55) 貫. 엽전 열 냥에 해당하는 돈.
- 56) 이자를 쳐서 거둬들여.
- 57) 春秋時享. 해마다 음력으로 시월에 조상의 산소에서 지내는 것과, 음력 이월, 오월, 팔월, 십일월에 사당에 지내는 제사.
- 58) 奉祭祀. 제사를 지내는 일.
- 59) 家長. 남편. 집안의 어른.
- 60) 恭待. 공손하게 잘 대접함.
- 61) 隣近. 가까운 이웃.
- 62) 老少. 늙은이와 젊은이.
- 63) 祈子 致誠. 자식을 얻기 위하여 신이나 부처에게 지성으로 빌.

- 64) 누가.
 65) 무슨.
 66) 이승. 지금 살고 있는 세상.
 67) 한 시간.
 68) 아주 짧은 시간.
 69) 편하다.
 70) 年將四十. 나이가 곧 사십이 됨.
 71) 膝下. 아버지의 곁.
 72) 一點血肉. 단 하나의 자식.
 73) 黃泉. 저승. 사람이 죽은 뒤에 그 혼이 가서 산다고 하는 세상.
 74) 先塋. 선산(先山). 조상의 무덤, 또는 조상의 무덤이 있는 곳.
 75) 名山大刹. 이름난 산에 있는 큰 절.
 76) 男女間. 남자든지 여자든지 아무 것이나.
 77) 家君. 남에게 자기의 아버지나 남편을 이룰 때 씀.
 78) 正大하심. 의지나 언행 따위가 올바르고 당당함.
 79) 發說치. 발설하지. 입 밖으로 내지.
 80) 至誠神供. 정성을 다하여 신에게 소원을 빚.
 81) 名山大刹. 이름난 산과 큰 절.
 82) 靈神當. 신령을 모신 집.
 83) 古廟. 오래된 사당.
 84) 叢祠. 여러 신을 모신 사당.
 85) 釋王寺. 석가모니를 모시는 절.
 86) 諸佛. 여러 부처.
 87) 諸天. 하늘에 있는 모든 신.
 88) 菩薩. 부처를 따르고 중생을 구제한다는, 부처의 다음가는 성인. 고승을 존경하여 이르
 는 말.
 89) 彌勒. 도솔천에 살며, 억만년 뒤에 인간 세상에 내려와 중생을 구제한다는 미래의 부처.
 90) 羅漢佛供. 소승 불교의 수행자 가운데 가장 높은 경지에 이른 성자인 나한에게 드리는
 불공.
 91) 神衆맞이. 여러 신장(神將)에게 드리는 불공.
 92) 七星佛供. 칠성님을 모신 칠성당에 드리는 불공. ‘칠성님’은 칠원성군으로 복두칠성을
 가리킴. 지손의 탄생과 화복을 주관한다고 함.
 93) 袈裟시주. 중이 입는 옷인 법의를 짓는 데에 드는 비용을 내는 일.
 94) 窓糊시주. 절에 있는 방의 창문을 발라 주는 일.
 95) 引燈시주. 부처 앞의 등불을 켜는 데에 쓰이는 기름을 불가에 바치는 일.
 96) 성조(成造). 본디 집을 지키는 신령을 뜻하였으나, 대개는 새로 집을 짓는 일을 가리킴.
 97) 竈王. 부엌을 지킨다는 신.
 98) 堂山. 남쪽 지방의 민속신앙으로, 토지나 마을의 수호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곳. 보통마
 을에 가까운 산이나 언덕, 또는 큰 나무 밑이 되는데, 제사는 정초에 지낸다. 여기서는

‘당산제’의 뜻으로 쓰였다.

- 99) 天龍. 천상계에 산다는 귀신.
- 100) 군웅신에게 드리는 제사. ‘군웅신’은 무속의 신의 하나.
- 101) 힘들여 심은 나무. ‘남기’는 나무.
- 102) 甲子. 갑자년. 육십갑자의 첫째 해.
- 103) 瑞氣. 상서로운 기운. 복되고 좋은 일이 있을 듯한 기운.
- 104) 蟠空하고. 공중에 서리고.
- 105) 五彩. 파랑, 노랑, 주홍, 까망, 하양의 다섯 가지 빛깔을 말하는데, ‘갓가지 빛깔’의 뜻으로도 쓰인다.
- 106) 一個. 하나. 한 사람.
- 107) 하늘로부터.
- 108) 彩冠. 빛깔이 고운 관.
- 109) 降仙. 하늘에서 내려온 신선. 따라서 여기는 ‘채단(綵緞. 온갖 비단)’의 잘못.
- 110) 月佩. 선녀들이 찬다는, 달처럼 생겼거나 달이 그려진 패물.
- 111) 느깃. 느깃하게. 조금 느슨하게.
- 112) 玉佩. 여자들이 차던, 옥으로 만든 패물.
- 113) 琤琤. 옥이 울리는 맑은 소리.
- 114) 桂花가지. 계수나무의 가지.
- 115) 婦人 前에. 부인 앞에.
- 116) 揖. 두 손을 맞잡아 얼굴 앞으로 들어올리고 허리를 구부려서 공손히 하는 절.
- 117) 엉클어지거나 흐리지 아니하고 아주 분명한.
- 118) 精氣. 사물의 순수한 기운.
- 119) 心身. 몸과 마음.
- 120) 西王母. 옛날 중국에서 받들었던 선녀(仙女). 성(性)은 양(陽), 이름은 회(回). 산해경(山海經)에는 그 모양이 반인(半人) 반수(半獸)로 표범의 꼬리에 범의 이를 가지고, 더벅머리에 풀다리(풀로 만든 머리 장식)를 썼다 함. 그 여자의 남쪽에는 청조(靑鳥)가 있어서 먹을 것을 마련해 주었다 함.
- 121) 蟠桃. 삼천 년에 한 번씩 열린다는 신선 세계의 복숭아. 한 번 먹으면 장생불사(長生不死)를 한다 함.
- 122) 進上. 진귀한 물품이나 지방의 토산물 따위를 임금이나 고관 따위에게 바침.
- 123) 玉眞 妃子. ‘옥진낭자’라고 하는 선녀.
- 124) 數語. 몇마디 말.
- 125) 酬酌. 서로 말을 주고받음.
- 126) 時가. 시각이.
- 127) 上帝. 옥황상제. 도교에서 말하는 하느님으로, 천지 창조 때에 나타나서 영원히 죽지 않고 옥경산에서 산다고 함.
- 128) 得罪. 죄를 얻음. 죄를 지음.
- 129) 人間. 사람이 사는 세상.
- 130) 내치서서. 강제로 밖으로 내쫓으셔서.

- 131) 太上老君. ‘노자’를 도가에서 높이어 부르는 말.
- 132) 后土夫人. 당나라 때 중국인들이 받들던 신. 중국 양주에 가면 이 신을 모시는 사당이 있다고 함.
- 133) 諸佛. 여러 부처.
- 134) 가엾게. 불쌍히.
- 135) 南柯一夢. 중국 당나라 때의 이공좌(李公佐)가 지은 소설 〈남가기(南柯記)〉에서 유래된 말로, ‘덧없이 지나간 한때의 부귀와 영화가 꿈과 같다’는 뜻으로 이르는 말.
- 136) 兩主. 바깥주인과 안주인. 부부.
- 137) 夢事. 꿈꾼 일.
- 138) 十朔. 열 달. ‘삭’은 ‘음력 초하루’를 나타내는 말인데, ‘달’의 뜻으로도 쓰인다.
- 139) 排設하는디. 배설하는데. ‘배설’은 연희나 어떤 의식에 쓰는 여러 가지 기구를 벌여 베풀어 놓는 일. 여기서는 ‘아기가 자라나는 데에 걸리는 열 달을 준비하다’, 곧 ‘(열 달이) 걸리다’의 뜻으로 쓰였다.
- 140) 天性. 타고난 성품.
- 141) 席不正不坐. 자리가 반듯하지 않으면 앉지 않고. 주나라 문임금의 어머니인 태임(太任)이 실천했던 태교의 한가지.
- 142) 割不正不食. 반듯하게 자른 음식이 아니면 먹지 않고, 태임의 태교의 한 가지.
- 143) 耳不聽淫聲. 잡된 소리는 듣지 않고, 태임의 태교의 한가지.
- 144) 目不視邪色. 사악스러운 빛깔은 보지 않고, 태임의 태교의 한 가지.
- 145) 解腹. 해산.
- 146) 機微. 어떤 일의 조짐.
- 147) 한편으로.
- 148) 짚, 땔나무, 채소 따위의 묶음.
- 149) 小盤. 자그마한 밥상.
- 150) 井華水. 이른 새벽에 길은 물.
- 151) 順產. 순순히 출산함.
- 152) 異香. 이상야릇하게 좋은 향기.
- 153) 滿室하고. 방에 가득 차고.
- 154) 彩色. 여러 가지 고운 빛깔.
- 155) 昏迷中. 정신이 헛갈리고 가물가물하여 희미한 가운데.
- 156) 仙人. 신선.
- 157) 玉女. 선녀 또는 미녀.
- 158) 順產. 산모가 아무 탈 없이 순조롭게 아이를 낳음.
- 159) 男女間에. 남자와 여자 중에. 아들과 딸 중에.
- 160) 晚得. 늦게 얻음. 늦은 나이에 자식을 얻음.
- 161) 辱及先榮. 욕됨이 조상에까지 미침.
- 162) 針線. 바느질.
- 163) 紡績. 길쌈.
- 164) 窈窕淑女. 마음씨가 착하고 자태가 아름다운 여자.

- 165) 君子好逑. 군자의 좋은 배필. '군자'는 덕행과 학식이 있는 남자를 가리키나, 조선조 때에는 아내가 자기 남편을 이르는 말로도 썼음.
- 166) 外孫奉祀. 외손자가 제사를 받들어 모심.
- 167) 아이를 낳은 뒤에 먹는 첫 번째 국과 밥. 대개 쌀밥과 미역국을 먹는다.
- 168) 三神床. 삼신에게 바칠 음식을 차려놓은 상. '삼신'은 아이 낳는 일을 맡고 있다는 민속의 세 신.
- 169) 諄諄히. 다정스럽고 친절하게.
- 170) 빌으련마는.
- 171) 每樣. 늘. 마냥.
- 172) 온순하지 못하고 급하며 화를 잘 내는 성질.
- 173) 싸움하는.
- 174) 三十天. 불교 용어로, 사람이 생사 윤회하는 욕계(慾界) 여섯, 색계(色界) 열여덟, 무색계(無色界) 아홉 하늘을 아울러 이르는 말.
- 175) 忉率天. 불교의 욕계(慾界) 육천(六天)의 넷째 하늘. 내외의 두 원(院)이 있는데, 내원은 미륵보살이 살면서 석가의 교화를 받지 못한 중생을 위하여 설법하며, 외원은 천중(天衆)의 환락 장소라고 함.
- 176) 釋迦世尊. 석가모니를 높여 이르는 말.
- 177) 和爲同心. 서로 화합하여 한 마음이 됨.
- 178) 人形. 사람 꼴.
- 179) 생겨.
- 180) 五包. 오장(五臟). 사람 몸의 다섯 가지 내장인 간장, 심장, 비장, 폐장, 신장.
- 181) 나고.
- 182) 육부(六腑). 사람 뱃속의 여섯 가지 기관인 담, 위, 대장, 소장, 삼초, 방광.
- 183) 七竅. 사람 얼굴에 있는 귀, 눈, 코, 입의 일곱 개 구멍. 칠성구멍이라고도 함.
- 184) 九竅. 칠규에다 똥, 오줌 구멍을 더한 아홉 구멍.
- 185) 찬 김 받아. 열 달만에 달이 다 찬 기운을 받아.
- 186) 金剛門. 금강석같이 단단한 문. 곧 여자의 음문.
- 187) 下達門. 아래로 통하는 문. 곧 여자의 음문.
- 188) 여자의 골반을 비유하는 말.
- 189) 여자의 음부를 해학적으로 표현한 말.
- 190) 三神. 아이를 점지한다는 세 신령.
- 191) 獨女. 외딸.
- 192) 命. 목숨. 수명.
- 193) 東方朔. 한(漢)나라 무제 때의 사람. 해학과 변설로 이름이 났는데, 속설에 서왕모의 복숭아를 훔쳐 먹고 장수하였다고 함.
- 194) 石崇. 중국 진(晉)나라 남안(南安) 사람으로, 자는 계륜(季倫). 벼슬길에 나서 형주자사(荊州子使)를 거쳤으며, 뒤에 무역으로 큰 부자가 되어 금곡원(金谷園)에서 천하일색 녹주(綠珠)와 행복(幸樂)을 누렸다 함. 땔나무 대신 촛불을 사용하고, 50리나 되는 비단의 장막을 만들 정도로 낭비벽이 심했다고 한다. 권신 사마소(司馬昭)의 인척인 왕개(王

- 愷)와 부를 다투었으나 왕개가 항상 졌다고 한다. 사마륜(司馬倫)에 의해 살해되었다.
- 195) 太任. 주나라 왕계(王季)의 아내이며 문임금의 어머니. 왕계의 어머니인 태강(太姜), 문임금의 아내인 태사(太似)와 더불어 주나라 왕실의 새어머니로 꼽히며, 어진 아내의 표상으로 받들린다.
- 196) 班姬. 반첩여(班婕妤). 중국 한나라의 여류시인. 반황(班況)의 딸. 성제 때 뽑혀서 첩어가 되었으나, 조비연(趙飛燕) 자매에게 미움을 받아 장신궁으로 물러가 태후(太后)에게 시중드는 동안 서글픈 마음을 시로 읊었는데, 〈원가행(怨歌行)〉을 지었음.
- 197) 才質. 재주와 기질.
- 198) 大舜. '순임금'을 높여 부르는 말. 어리석은 아버지와 악독한 계모 밑에서 자라났는데, 계모가 여러 차례 그를 죽이려고 했으나, 늘 효성을 다하여 어머니를 섬겼다.
- 199) 曾子. 이름은 삼(參). 공자의 제자 일흔두 명 가운데서 특히 중자와 민손(閔損)이 효자로 꼽힌다. 일찍이 외밭을 가꾸다가 외 덩굴을 다치게 했다고 꾸짖는 아버지를 원망하는 노래를 지어 부르다가 공자에게 꾸중을 들은 뒤로는 효성을 다해 부모를 섬겼다. 《효경》과 《대학》을 지었다.
- 200) 불어나듯이.
- 201) 외가 자라 불어나고, 달이 커져 불어나듯이.
- 202) 자주 앓는 자질구레한 병.
- 203) 日就月將. 나날이 다달이 진보하거나 자라남.
- 204) 따뜻한.
- 205) 產母. 출산한 아이의 어머니. 출산한 여자.
- 206) 어르는데. 무엇을 보이거나 들려 주거나 몸을 흔들어 주거나 하여 어린애의 마음을 기쁘게 해 주는데.
- 207) 金子童. 금자동이. 어린아이를 금처럼 보배롭고 귀하다는 뜻으로 이르는 말.
- 208) 玉子童. 옥자동이. 어린아이를 옥처럼 보배롭고 귀하다는 뜻으로 이르는 말.
- 209) 鶴仙이. 신선이 타고 다닌다는 학.
- 210) 구멍에는.
- 211) 水獺皮. 수달의 가죽. 고급 모피임. 수달이 얼음 구멍을 내고 물속으로 다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음.
- 212) 白米 닷 섬에 뉘 하나. '쌀 닷섬에 든 벼 한 알갱이'라는 말이니, '아주 귀한 것'을 뜻한다.
- 213) 슬슬.
- 214) 南田北畝.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논밭. 곧, 너른 논밭.
- 215) 이에서. 이보다.
- 216) 빨리.
- 217) 빨리.
- 218) 그럭저럭.
- 219) 家勢. 집안 살림살이의 형편.
- 220) 產後調理. 애기를 낳은 후 몸을 보살피는 일.
- 221) 전혀 없고.
- 222) 產後別症. 아기를 낳은 뒤에 조섭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생기는 여러 가지 병 증세.

- 223) 偏頭머리. 편두통(偏頭痛). 갑자기 일어나는 발작성의 두통.
- 224) 온몸의 근육과 뼈마디.
- 225) 細細히. 자세하고 자세하게.
- 226) 家君. 남편 혹은 자기 아버지를 높여 이르는 말.
- 227) 偕老百年. 백년이나 살아 함께 늙음. 부부가 함께 늙음.
- 228) 泛然하면. 차근차근하지 못하고 데면데면하면.
- 229) 노여움이 끼이기. 화를 사기. ‘찌기’는 ‘끼기’.
- 230) 極盡恭待. 정성을 다하여 공손하게 잘 대접함.
- 231) 天命. 타고난 수명.
- 232) 끊어졌는가.
- 233) 어쩔 수 없이.
- 234) 찾아오셔서.
- 235) 此生. 이승.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세상.
- 236) 未盡恨. 다하지 못한 한.
- 237) 後生애나. 죽어서 저승에서 사는 삶에서나.
- 238) 사십시다.
- 239) 無窮허나. 끝이 없으나.
- 240) 허끝을 입천장 앞쪽에 붙였다가 떼어 소리를 내고.
- 241) 생기거나.
- 242) 徹天之. 하늘에 사무치는.
- 243) 너로 인하여. 너 때문에.
- 244) 生死間에. 살거나 죽거나. 세상에 다시는 없을 만큼 썩 심한 형편임을 한탄할 때에 쓰임. 천하에.
- 245) 무슨.
- 246) 颯颯悲風. 구슬피 부는 바람 소리.
- 247) 蕭蕭細雨. 적막하고 쓸쓸히 내리는 가는 비.
- 248) 黃陵 哀怨. 순임금의 두 왕비인 아황(娥皇)과 여영(女英)은 순임금이 창오산에서 죽자, 상강 호수에 뛰어들어 목숨을 끊었는데, 뒤엣 사람들이 그들의 넋을 달래려고, 상강 가에다 사당을 지어주고, ‘황릉묘’라고 이름 붙였다. ‘황릉 애원’은 이비의 한을 가리키는 말.
- 249) 굵이굵이. 여러 굵이로 휘어지는 모양.
- 250) 嗚咽. 목메어 울.
- 251) 딸꼭질.
- 252) 醫家. 의술에 능한 사람.
- 253) 水一升煎半服. 불 한 되를 붓고 반이 되게 달여 먹음.
- 254) 卽效. 즉시 나타나는 효력.
- 255) 食飲. 먹고 마시는 일.
- 256) 全廢터니. 전폐하더니. 아주 없애버리더니. 전혀 듣지 않더니.
- 257) 氣虛. 원기가 허약함.

- 258) 四肢. 두 팔과 두 다리를 함께 이르는 말.
 259) 手足. 팔과 다리.
 260) 窶구명.
 261) 失性發狂. 제 정신을 잃고 미침.
 262) 단단한 물체가 조금 가볍게 맞부딪칠 때 나는 소리, 또는 그 모양.
 263) 念佛. 불경을 외는 일.
 264) 藥能活人. 약이 사람을 살릴 수 있음.
 265) 病不能殺人. 병은 사람을 죽이지 못함.
 266) 텅굴어. 굴리.
 267) 자꾸 찌걱거리는 소리. 느슨하여진 나무틀이나 영성하게 묶인 짐작 따위가 쏠리는 소리. 여기서는 머리를 자꾸 흔들어 찌걱거리는 소리가 나는 듯하게 하다는 뜻.
 268) 如狂如醉. 미친 듯 취한 듯, 제 정신이 아닌 상태.
 269) 失性發狂. 제 정신을 잃고 미침.
 270) 南之西之. 남쪽서쪽으로. 이리저리.
 271) 死生同居. 죽거나 살거나 같이 삶.
 272) 青春作伴好還鄉. 청춘을 벗삼아 기쁜 마음으로 고향에 돌아가리라. 당나라 두보의 시 〈문관군하남하북(聞官軍河南河北)〉의 한 구절.
 273) 青天有月來幾時. 푸른 하늘에 머지않아 달이 떠오르는 때. 이백의 시 〈과주문월(把酒問月)〉의 첫 구절.
 274) 長天. 끝없이 멀고도 넓은 하늘.
 275) 三更. 저녁 일곱 시부터 다음날 새벽 다섯 시까지의 밤 동안을 다섯으로 나눈 것 가운데서 세 번째 시간. 곧, 밤 열한 시부터 다음날 한 시까지의 한밤중.
 276) 北京. 중국의 수도 베이징.
 277) 使臣行次. 임금이나 국가의 명령을 받고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외국으로 길을 떠나는 일.
 278) 冬至. 이십사절기의 하나. 대설(大雪)과 소한(小寒) 사이에 들며 태양이 동지점을 통과하는 때인 12월 22일이나 23일경이다.
 279) 大寒. 이십사절기의 하나. 소한(小寒)과 입춘(立春) 사이에 들며, 태양의 황경(黃經)이 300도에 이른 때로 한 해의 가장 추운 때이다. 1월 20일경이다.
 280) 먹여서.
 281) 목접이질. 목이 뻐 정도로 목을 자꾸 꺾는 것.
 282) 鼓盆之痛. 중국 춘추시대에 초나라의 장주가 그 아내가 죽자, 슬픈 노래를 지어 질동이를 두드리며 불렀다는 옛일에서 나온 말로, '아내가 죽은 슬픔'을 뜻함.
 283) 어따. 무엇이 몹시 심하거나 하여 못마땅해서 빈정거릴 때 내는 소리.
 284) 可矜憐. 불쌍한. 가엾은.
 285) 勸葬. 장사를 치르는 일.
 286) 公論. 여럿이 의논함. 또는 그런 의논.
 287) 一口如出. 여러 사람의 말이 한 입에서 나온 듯이 똑같음. '여출일구(如出一口)'를 변형시킨 말.
 288) 衣衾棺槨. 수의와 관을 한꺼번에 이르는 말.

- 289) 정성들여 깨끗하고 온전하게.
- 290) 小方牀. 대방상(大方牀)을 쓰지 못할 만큼 좁은 곳에서 쓰는 작은 상여. '대방상'은 나라의 높은 벼슬아치가 죽었을 때에 쓰는 크고 호화로운 상여.
- 291) 덧돌이 놓이는 부분. '토방'이라고도 함.
- 292) 結棺. 종이나 베 따위로 관을 싼 뒤에 삼줄 따위로 묶는 일.
- 293) 紙喪輿. 종이로 꽃을 만들어 꾸민 상여.
- 294) 銘旌. 정해진 길이와 폭의 주홍빛 천에다 죽은 사람의 관직과 본관과 성씨 따위를 적은 깃발. 장대에 달아 상여 앞에서 들고 갔다가 널 위에 퍼고 함께 묻음.
- 295) 功布. 삼베를 다섯 자에서 여섯 자 길이로 잘라 만든, 상여가 집에서 떠날 때에 명정과 함께 앞에 세우고 갔다가 관을 묻을 때에 관을 덮는 수건.
- 296) 襲扇. 운불삼. 발인 때에 상여의 앞뒤에 들고 가는 제구인 운삼과 불삼을 한꺼번에 일컫는 말. 운삼은 구름무늬가 그려진 부채모양의 널판. 불삼은 '亞'자 꼴이 그려진 널조각.
- 297) 等物. 같은 종류의 물건.
- 298) 갈라세우고.
- 299) 상여가 장지를 향하여 집을 나갈 때에 집 밖에서 일가와 친척이 지내는 제사.
- 300) 靈輻既駕 往卽幽宅 載陳遺禮 永訣終天. 혼백이 상여에 이미 올려졌으니, 이제 가면 무덤이읍니다. 보내는 예를 모두 갖추어 배편 뒤에 아주 헤어집니다. 상여가 떠날 적에 음식 등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내면서 외는 축문(祝文).
- 301) 觀音菩薩. 관세음보살(觀世音菩薩). 대자대비의 상징으로서 가장 널리 받들어 모시는 보살.
- 302) 搖鈴. 손에 들고 흔들며 소리를 내는, 작은 종처럼 생긴 기구. 상여가 나갈 때 앞에서 흔들며 소리를 메김.
- 303) 상두가, 또는 향두가(香頭歌)의 후렴.
- 304) 말이나 행동이 곱고 우아하고. 양전하고 점잖고.
- 305) 才質. 재주와 기질.
- 306) 北邙山. 중국의 낙양에 가까이 공동묘지가 있던 언덕들을 통틀어 일컫던 말로, '묘지', 또는 '저승'의 뜻으로 쓰임.
- 307) 案山. 청룡(靑龍), 백호(白虎), 주산(主山)과 함께 풍수학상의 네 요소의 하나로, 집터나 뿔자리의 앞에 있는 산.
- 308) 상여꾼. 상여를 메는 사람.
- 309) 罷漏. 조선조 때, 서울 같은 큰 도시에서 새벽 네 시에 큰 종을 서른세 번 쳐서, 그 앞날 열 시쯤부터 단았던 성문을 열고 통행금지를 풀던 신호.
- 310) 鷄鳴 山川. 닭이 울어 날이 밝아 올 무렵의 산천.
- 311) 屈冠 祭服. 상주가 두건 위에 덧쓰는 관과 상복. 굴관은 '굴건'이라고도 하는데, 넓이가 한치 오분쯤 되는 삼베 세 가닥을 종이로 여러 겹 붙인 것.
- 312) 상여.
- 313) 거머쥐어 잡고.
- 314) 달게 해 보고. 매달아 보고.

- 315) 不顧. 돌아보지 않고.
 316) 인정을 저버리고.
 317) 山疊疊 路茫茫의. 산은 겹겹이 쌓였고, 길은 먼데.
 318) 日沈沈 月暝暝에. 날이 저물고 달빛도 어두운데.
 319) 夫唱婦隨. 남편이 부르면 아내가 곧 뒤따라서 답한다는 뜻으로, 부부가 서로 뜻이 잘 통하여 화애함을 말함.
 320) 情曲. 간곡한 정.
 321) 護喪. 상여 뒤를 따라가는 사람.
 322) 다른 사람들이 후렴으로써 받아 할 수 있도록 먼저 메기는 소리.
 323) 뒷걸음.
 324) 向陽地. 남쪽을 향해서 별이 잘 드는 곳.
 325) 安葬을 지은 後에. 장사를 고이 지낸 뒤에.
 326) 平土祭. 관을 묻은 후에 흙을 덮어 원래의 바닥 높이와 같게 한 뒤에 지내는 제사.
 327) 祝文. 제사 때에 읽어 신명께 고하는 글.
 328) 날 적부터 봉사였던 것이 아니라, 스무 살에 장님이 되었음을 뜻하여 하는 말.
 329) 嗟乎. 아, 슬프다.
 330) 邀此窈窕淑女兮여. 이처럼 어진 여자를 맞아들였도다.
 331) 行不苟兮古人이라. 행실이 옛 사람에 견주어 조금도 뒤지지 않는도다.
 332) 期百年而偕老더니. 백 년을 기약하고 함께 늙자 하였더니. 곧 '늙도록 오래 같이 살자'는 말.
 333) 忽然歿兮焉歸오? 갑자기 죽으니 어찌 다시 돌아올 수 있으리오?
 334) '유치자이영서해(遺稚子而永逝兮)여'의 잘못. 어린 자식을 남겨 놓고 영원히 가버렸도다.
 335) 白楊暮에 日落한다. (중국에서, 묘지에 심던 나무인) 백양나무에는 이미 날이 매우 저물어 해가 지는데. 박지원이 적은 <열하일기>의 '도강록(渡江錄)'편에 "길옆에 흔히 무덤이 있는데……백양을 줄지어 많이 심었다"라고 되어있다.
 336) 如啾啾. 귀신이 우는 듯한 소리.
 337) 두루兮여. 사방에 가득하나.
 338) 隔幽顯而路殊兮여. 이승과 저승이 갈리어 길이 다르구나.
 339) 仙來相知相逢. 신선세계에서 왔으므로 서로 알아보고 함께 만남.
 340) 此生. 이승. 이 세상. 살아 있는 동안.
 341) 어찌할 수 없네.
 342) 酒果脯醢. 제사를 차리는 기본 음식인 술, 과일, 포육, 식혜.
 343) 薄奠. 변변치 못한 제사.
 344) 寂寞한데. 막막한데.
 345) 身體. 송장.
 346) 장성한.
 347) 저승에 가서 잘 살라는 뜻.
 348) 腹痛斷腸聲. 창자가 끊기는 듯이 애통한 소리.
 349) 葬事. 죽은 사람을 땅에 묻는 일.

- 350) 賓客. 손님.
- 351) 白骨難忘. 흰 뼈가 되어도 은혜를 잊지 못함.
- 352) 잘못하여 앞으로 넘어지고.
- 353) 시체가 나간 뒤에, 집안에서 그 냄새를 없애려고 향과 쑥을 태워 피우는 냄새.
- 354) 發作症. 어떤 병의 증세나 동작 따위가 갑자기 세차게 일어나는 증상.
- 355) 文匣. 문서나 문구 따위를 넣어 두던 긴 껍. 서랍이나 문짝이 달리었고, 흔히 두 짝을 포개어 뒀.
- 356) 들쳐. 물건의 한쪽 머리를 쳐들어.
- 357) 매다가. 어깨에 걸치거나 올려놓았다가.
- 358) 빗, 빗술, 빗치기 따위를 넣어 두던 도구.
- 359) 그렇게 하지 말라고 금지할 때 하는 말.
- 360) 걸음을 크게 떼어 급히 걷는 모양.
- 361) 너무.
- 362) 哀痛. 슬퍼하고 가슴아파함.
- 363) 自嘆. 자기 일에 대하여 탄식함.
- 364) 遠村. 멀리 있는 마을.
- 365) 너의.
- 366) 데.
- 367) 洛陽東村. 낙양성의 동쪽 마을.
- 368) 梨花亭의 淑娘子. 숙향(淑香)은 송나라 때의 미인인데, 난리를 만나 부모와 헤어지고, 천태산에서 마고 선녀를 만나 이화정에서 수를 놓으며 살게 되었다고 한다.
- 369) 二妃. 순임금의 두 왕비인 아황과 여영.
- 370) 온다고 하는.
- 371) 剛木水生. 마른나무에서 물을 얻음. 이치에 맞지 않음을 비유해서 하는 말.
- 372) 나무.
- 373) 줄을 길게 달아 우물물을 퍼 올리는 데 쓰는 도구. 바가지나 판자, 또는 양철 등으로 만든다.
- 374) 더듬더듬하면서.
- 375) 哀然히. 불쌍하게.
- 376) 白骨難忘. 흰 뼈가 될지라도 잊을 수 없음. 절대 잊지 않겠다는 말.
- 377) 심하게 내리쬘는 여름의 뜨거운 별.
- 378) 기음. 논밭에 난 잡풀.
- 379) 허위허위. 허위적거리는 모양.
- 380) 流水. 흐르는 물.
- 381) 터버리고. 털썩 주저앉아.
- 382) 무엇을 보여주거나, 들려주거나, 흔들어주거나 하여 어린 아이의 마음을 기쁘게 하여 준다.
- 383) 壽福康寧. 길고, 복이 많고, 건강함.
- 384) 쉬. 빨리.

- 385) 귀여움.
- 386) 富貴多男. 부자로 잘 살며, 몸이 귀하게 되고, 아들을 많이 낳음.
- 387) 貴男이. 옛날에 아들 못지않게 잘 크라는 뜻으로 여자 아이에게 곧잘 붙여주던 이름. '언덕 밑에 귀남이'란 말은 '집이 가난해서 이렇게 언덕 밑에 앉았지만 귀한 집 아들 못지않다'는 뜻.
- 388) 슬슬.
- 389) 다독다독. 자꾸 다독이는 모양. '다독이다'는 '아기를 재우거나 달래거나 귀여워할 때 몸을 가만가만 두드리다.'
- 390) 纏帶. 무명이나 베 따위로 길게 만들어 허리에 두르거나 어깨에 매던 긴 자루.
- 391) 六場. 여섯 번의 장날.
- 392) 塵거두기. 가게로 다니며 구걸하기.
- 393) 암죽을 끓일려고.
- 394) 검은 옛. 갓 고아낸 검은 색깔의 옛. 이것을 여러 번 잡아늘이면 희고 연한 옛이 된다.
- 395) 僅僅히. 겨우겨우.
- 396) 朔望. 삭망전(朔望奠). 상중에 있는 집에서 다달이 초하루와 보름날 아침에 지내는 제사.
- 397) 小大葬日. 소대상(小大祥). 사람이 죽은 지 한 돌만에 지내는 제사인 '소상'과 두 돌만에 지내는 제사인 '대상'을 한꺼번에 일컫는 말.
- 398) 陰助하야. (하늘이나 귀신이) 남몰래 도와서.
- 399) 불어나듯.
- 400) 朝夕. 아침 저녁.
- 401) 供養하오리다. (웃어른을 모시어) 음식을 잘 대접하오리다.
- 402) 無男獨女. 아들 없이 오직 하나만 있는 딸.
- 403) 空林. 낙엽이 진 숲.
- 404) 反哺之恩. 까마귀의 새끼가 자라서 어미에게 먹이를 잡아다 주어서, 길러준 은혜를 갚는 일.
- 405) 말하여.
- 406) 깊은 곳.
- 407) 얕은 곳.
- 408) 天方地軸. 매우 급하여 방향을 잡지 못하고 허둥거리며.
- 409) 奇特타. 기특하다. 마음씨나 행동 등이 신기하여 귀염성이 있다.
- 410) 龍生龍. 용이 용을 낳음. 훌륭한 사람이 훌륭한 자식을 낳는다는 말.
- 411) 鳳生鳳. 봉이 봉을 낳음. 훌륭한 사람이 훌륭한 자식을 낳는다는 말.
- 412) 賢哲. 어질고 사리에 밝음.
- 413) 연기 나는데.
- 414) 中衣. 고의(袴衣). 바지.
- 415) 대님.
- 416) 옷의 앞자락에 대는 쇠. '쇳'은 저고리나 두루마기 따위의 깃 아래쪽에 달린 길쭉한 형쇠.

- 417) 靑木. 김푸른 물을 들인 무명.
- 418) ‘휘항(揮項)’이라고도 함. 추울 때 머리에 쓰던 모자의 하나. 남바위와 비슷하나 뒤가 훨씬 김.
- 419) 추운.
- 420) 맞바람 따위를 바로 받지 않으려고 옆으로 몸을 돌려 걷는 걸음.
- 421) 家家門前. 잡잡마다의 문 앞.
- 422) 哀然히. 슬프게.
- 423) 世上 버리시고. 돌아가시고.
- 424) 免췌나이다. 면하겠습니다.
- 425) 可矜히여. 불쌍히 여겨.
- 426) 두서너 집만 돌면 넉넉히 먹을 만큼 얻게 되는지라.
- 427) 速速히. 빨리.
- 428) 사립문. 나뭇가지를 엮어 만든 문짝을 달아 만든 문.
- 429) 於焉間. 알지 못하는 동안에 어느덧.
- 430) 너희.
- 431) 너로 인하여. 너 때문에.
- 432) 四時節. 네 계절.
- 433) 제 값을 치르지 않거나 일을 하지 않고 거저 먹는 밥.
- 434) 歲月이 如流히여. 세월이 흐르는 물과 같이 빨리 흘러.
- 435) 遠近. 먼 곳과 가까운 곳.
- 436) 藉藉터니. 자자하더니. (퍼진 소문 따위가) 파다함.
- 437) 丞相. 우리나라의 재상과 맞먹던 중국 벼슬.
- 438) 侍婢. 늘 가까이 있으면서 시중드는 여자 중.
- 439) 一國. 한 나라.
- 440) 宰相. 임금을 보필하며 모든 관원을 지휘, 감독하는 자리에 있는 이품 이상의 벼슬을 통틀어 이르는 말.
- 441) 遠遠히. 멀리.
- 442) 靑靑한. 푸르고 푸른.
- 443) 柴桑村. 중국 강서성 덕화현에 있는 마을. 도잠이 집 앞에 버드나무를 심어 놓고 살던 곳.
- 444) 자아내니. 자아내는 것이. (기게나 물레 따위를 돌려, 부드러운 섬유에서 실을 뽑아내는 것이. 피꼬리가 버드나무 가지 사이를 날아다니는 모습을 마치 버드나무 가지로 된 실을 뽑아내는 것과 같다고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임.
- 445) 柳絲. 버들가지로 된 실. 여기서는 버드나무의 늘어진 가지를 비유적으로 일컬은 말.
- 446) 家舍. 집.
- 447) 門窓. 문의 창살.
- 448) 堂上에. 마루 위에.
- 449) 斑白. 흑백이 반절씩 서로 섞인 머리털.
- 450) 座. 앉을 자리.

- 451) 남의 자식을 데려다가 제 자식처럼 기른 딸.
 452) 假粧. 화장.
 453) 天姿. 타고난 아름다운 맵시.
 454) 國色. 나라에서 으뜸갈 만한 미인.
 455) 斂容하고. 조심스러운 몸가짐을 하고.
 456) 白石清灘. 흰 돌 위에 흐르는 맑은 여울.
 457) 날러는. 날려고 하는.
 458) 天心. 눈으로 보이는 하늘의 한 가운데.
 459) 水邊. 물 가.
 460) 芙蓉化. 연꽃.
 461) 天庭. 관상에서 두 눈썹의 사이 또는 이마의 복판을 이르는 말.
 462) 眉間. 두 눈썹의 사이.
 463) 桃花 兩頰. 복사꽃이 핀 듯이 예쁜 두 뺨.
 464) 武陵桃源. 도연명의 <도화원기(桃花源記)>에서 나온 말로, 신선이 사는 곳. 여기서는 '선녀'의 뜻으로 쓰임.
 465) '백우홍화만재일(白藕紅花滿載日)'을 풀이한 대목인 듯함. '하얀 연뿌리에 피어난 붉은 꽃이 햇빛을 가득 실었구나'라는 뜻으로, 미인의 흰 살결과 볼그레한 볼과 환한 웃음을 표현한 말.
 466) 謫居하야. (하늘에서 이 세상으로) 귀양 와서.
 467) 開花. 꽃이 폼.
 468) 棄世하고. 죽고.
 469) 皇城. 황제가 있는 나라의 서울.
 470) 登仕하고. 벼슬길에 오르고.
 471) 古書. 옛날 책.
 472) 困困하니. 가난하고 외로우니.
 473) 己出. 자기가 낳은 자식.
 474) 成娶. 장가를 들. 여기서는 '혼인'의 의미로 썼음.
 475) 晚年. 나이가 들어 늙어가는 시기.
 476) 榮華. 몸이 귀하게 되어 이름이 세상에 빛남.
 477) 命途. 운명.
 478) 될 수 있는 대로. 아무쪼록.
 479) 떨어지기도 하고, 맺히기도 함.
 480) 春風細雨. 봄바람 부는 데 내리는 가랑비.
 481) 桃花. 복숭아꽃.
 482) 點點이. 방울방울.
 483) 떨어지는 듯하니.
 484) 可矜하여. 불쌍하여.
 485) 出天之大孝. 하늘이 낸 큰 효자.
 486) 失言. 말을 잘못 함.

- 487) 日力. 그날의 해가 넘어갈 때까지의 남아 있는 동안.
 488) 憐憐하여. 가련하고 불쌍히 여겨서.
 489) 綵緞. 온갖 비단을 통틀어 일컫는 말.
 490) 추워서.
 491) 寒氣. 추운 기운. 병적으로 몸에 생기는 추운 기운.
 492) 종(鐘).
 493) 中路. 길 가운데.
 494) 데려갔느냐?
 495) 寂寞空跡. 적막하게 아무 자취도 없음.
 496) 人跡. 사람의 자취.
 497) 自盡腹痛. 거의 죽을 지경이 되도록 뼈에 사무치게 원통함.
 498) 문이나 뚜껑 따위를 급작스럽게 여는 모양.
 499) 더듬거리면서.
 500) 사람의 키 정도의 길이.
 501) 옮기지도. 옮겨가지도.
 502) 日暮途窮. 날은 저물고 갈 길은 막힘.
 503) 有之것다. 있는 법이렸다.
 504) 行色. 길으로 드러나는 차림이나 태도.
 505) 年年. 여러 해.
 506) 험디헌. 매우 낡은. 여기서는 ‘매우 낡은 옷으로 차려입은’이라는 의미에 가까움.
 507) 化主僧. 속세에 나가서 불교를 포교하며 부처에게 바칠 공양물과 중들의 음식과 옷 따위를 대주는 책임을 맡은 중.
 508) 重棚. 낡은 건물을 헐거나 고쳐서 다시 지음.
 509) 勸善文. 절을 짓거나 불사(佛事)를 하기 위하여 선심(善心) 있는 신자들에게 재물을 내주기를 청하는 글.
 510) 施主집. 중이나 절에 물건을 베풀어주는 사람의 집.
 511) 暗暗하고. 어둑어둑하고.
 512) 雪月. 눈 쌓인 위로 뜨는 달.
 513) 石徑. 자갈길.
 514) 비스듬히 기운 길. 경사진 길.
 515) 引導한. 앞길이 이끌리어 난.
 516) 豪奢. 지나칠 만큼 호화롭게 사치함, 또는 그러한 사치.
 517) 벅슬한 중이 쓰던 갓. 대로 만들었는데 모자 위가 둥글게 되었음.
 518) 長衫. 중의 옷. 검은 베로 길이가 길고, 품과 소매를 넓게 만들.
 519) 작은 구슬 108개를 꿰 염주. ‘염주(念珠)’는 염불할 때에, 손으로 돌려 개수를 세거나 손목 또는 목에 거는 기구.
 520) 團珠. 밤알만한 나무 구슬 여덟 개를 꿰어 만들어 팔에 거는 염주.
 521) 白苧布. 흰 모시.
 522) 長衫. 중의 옷. 검은 베로 길이가 길고, 품과 소매를 넓게 만든다.

- 523) 眞紅띠. 짙고 산뜻한 붉은색 허리띠.
- 524) 少年 堂上한. 어린 나이로 승과에 급제하여 당상관이 된.
- 525) 정삼품 이상의 벼슬아치들이 징표로서 달던 ‘옥관자’의 속칭일 듯하다.
- 526) 龍頭 새긴 六環杖. 고리가 여섯 개 달리고 용의 머리가 새겨진, 도가 높은 스님이 짚고 다니던 지팡이.
- 527) 六觀大師. 조선 왕조 숙종 때의 학자인 김만중이 지은 국문 소설 《구운몽》에 나오는 스님.
- 528) 性眞. 소설 《구운몽》에 나오는 육관대사의 제자. 하늘에서 죄를 짓고 인간 세상으로 내려와서 여덟 선녀를 거느리고 살게 되는 양소유.
- 529) 果藥酒. 과실을 넣어 담근 약주.
- 530) 八仙女. 소설 《구운몽》에 따르면, 본디는 남악에 사는 위 부인의 시녀들이는데, 육관대사의 명을 받아 용궁을 다녀오던 성진과 만나 잠깐 놀다가, 대사의 화를 함께 사서, 양소유라는 이름으로 인간 세상으로 내려진 성진의 처첩이 되었다.
- 531) 俗家. 속세 사람들의 집.
- 532) 南無阿彌陀佛. 아미타불에 돌아가 의지한다는 뜻으로, 엄불할 때 외는 소리. ‘아미타불’은 서방 정토에 있는 부처. 대승 불교 정토교의 중심을 이루는 부처로, 수행 중에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대원(大願)을 품고 성불하여 극락정토에서 교화하고 있으며, 이 부처를 염하면 죽은 뒤에 극락세계에 간다고 한다.
- 533) 觀世音菩薩. 대자대비의 상징으로서 가장 널리 받들어 모시는 보살.
- 534) 風便. 바람결.
- 535) 馬嵬驛. 중국의 섬서성에 있는, 당나라 현종이 안녹산의 난을 맞아 피난을 가면서 어쩔 수 없이 양귀비를 죽인 곳.
- 536) 누대 이름일 듯하나, 확실히는 알 수 없다.
- 537) 楊太眞. ‘태진’은 양귀비의 호.
- 538) 變化하여. 술법을 써서 제 몸을 감추거나 다른 것으로 변하게 하여.
- 539) 호리려는. 남의 정신을 흐리게 하여 넋을 빼앗으려는.
- 540) 行纏. 바지를 입을 때 가드하게 하기 위해 정강이에 꿰어 무릎 아래에 매는 베조각.
- 541) 細누비. 누빈 줄이 촘촘하고 고운 누비. ‘누비’는 두 겹의 천 사이에 솜을 넣고 줄이 죽죽 지게 박는 바느질. 또는 그렇게 만든 물건.
- 542) 바짓가랑이.
- 543) 단단하고 팽팽하게.
- 544) 겨드랑이 또는 오금 양쪽의 오목한 곳.
- 545) 무논. 물이 늘 괴어있는 논.
- 546) 白鷺格으로. 흰 해오라비가 강을 건너가듯이.
- 547) 늙은이의 조그마한 상투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548) 돌돌 감아 또아리쳐.
- 549) 누구요?
- 550) 活人之佛. 사람을 자비로이 살리시는 부처님.
- 551) 白骨難忘. 죽어 흰 뼈가 되어도 잊지 못함. 영원히 잊지 못함.

- 552) 일을 처리하는 방법이나 수완.
 553) 수일꼬?
 554) 靈驗. 사람의 기원에 대하여 신이나 부처가 베풀어주는 영묘한 효과.
 555) 告하면. 어떤 사실을 알리거나 말하다.
 556) 물음이나 요구, 필요에 맞추어 대답하거나 행동하니.
 557) 供養米. 부처님께 바치는 쌀.
 558) 石. 섬. 부피의 단위. 곡식, 가루, 액체 따위의 부피를 잴 때 쓴다. 한 섬은 한 말의 열 배로 약 180리터에 해당한다.
 559) 施主. 중이나 절에 물건을 베풀어 주는 일.
 560) 누구명. '눈'을 속되게 일컫는 말.
 561) 前後事. 앞뒷일.
 562) 서슴지 않고 단숨에. 그 자리에서 당장.
 563) 여보시오.
 564) 勸善文. 절을 짓거나 불사(佛事)를 하기 위하여 선심(善心) 있는 신자들에게 재물을 내주기를 청하는 글.
 565) 家勢. 집안 살림살이의 경제적 형편.
 566) 부피의 단위. '되'의 십분의 일이 홑임.
 567) 虛言. 빈 말. 거짓말.
 568) 그것일랑은. 그것은.
 569) 記載. 적어 올림. 적어 놓음.
 570) 햇 근심. 새로운 근심.
 571) 동무지어서. 짝을 지어서 함께.
 572) 八字. 사람의 한 평생의 운수. 사주팔자에서 유래한 말로, 사람이 태어난 해와 달과 날과 시간을 간지(干支)로 나타내면 여덟 글자가 되는데, 이 속에 일생의 운명이 정해져 있다고 본다.
 573) 耳目口鼻. 귀·눈·입·코를 아울러 이르는 말. 또는 귀·눈·입·코를 중심으로 한 얼굴의 생김새.
 574) 完然. 흠이 없이 완전함.
 575) 形勢. 살림살이의 경제적인 형편.
 576) 간들간들한. 아슬아슬하게 위태로운.
 577) 四海. '온세상'이란 뜻인데, 여기서는 다만 '온'의 뜻으로 쓰였다.
 578) 僅僅. 겨우겨우.
 579) 延命. 목숨을 겨우 이어 살아감.
 580) 어디 있다고.
 581) 哀痛自盡. 마음과 힘을 기울여 온갖 정성을 다하며 애달아함.
 582) 腹痛 斷腸聲으로. 마음이 아파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소리로.
 583) 뒤에 세우고.
 584) 天方地軸. 너무 급하여 허둥지둥 분주한 모양.
 585) 모양.

- 586) 逢變. 뜻밖의 변이나 망신스런 일을 당함. 또는 그 변.
- 587) 於焉間. 알지 못하는 동안에 어느덧.
- 588) 大小事. 크고 작은 모든 일.
- 589) ‘화주승’을 우습게 표현한 말.
- 590) 發起木鐸. ‘발기’는 ‘불도를 구하려는 마음을 일으킴’이라는 뜻이므로, ‘목탁을 지니고 다니면서 불도를 구하려는 사람’을 우습게 표현한 것임.
- 591) 大明天地. 아주 환하게 밝은 세상.
- 592) 郭巨. 후한(後漢) 사람으로, 부모에게 효성이 지극하였으나 가난하였다.
- 593) 饑需. 반찬거리가 되는 것. 또는 반찬의 종류.
- 594) 供養. 웃어른을 모시어 음식을 드림.
- 595) 땅을 파다가.
- 596) 孟宗. 중국 삼국시대 오나라 사람으로 효자. 그의 늙은 어머니가 병이 들어, 겨울임에도 죽순이 먹고 싶다고 하므로, 구할 길이 없어 대숲에 가서 슬피 울었는데, 밤이 깊어진 뒤에 보니 죽순이 두어 줄기 솟아나와 이를 어머니께 갖다 드렸다고 함.
- 597) 嚴冬雪寒. 눈 내리는 깊은 겨울의 추위.
- 598) 竹筍. 대나무의 땅속줄기에서 돌아나는 어린 싹. 식용으로 쓴다.
- 599) 事親之孝道. 부모를 섬기어 효도함.
- 600) 至誠이면 感天이라. 정성이 지극하면 하늘도 감동하게 된다.
- 601) 萬端. 무수히 많은 갈래나 토막. 여기서는 ‘무수히 많은’이라는 의미.
- 602) 沐浴齋戒. (부정을 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목욕을 하고, 육식을 삼가며, 몸가짐을 깨끗이 하는 일.
- 603) 淨히. 맑게. 깨끗이.
- 604) 後園. 집 뒤에 있는 정원이나 작은 동산.
- 605) 壇. 제사를 지내기 위해 흙이나 돌을 쌓아 만든 터.
- 606) 쌓아올리고, 축조하고.
- 607) 至誠. 지극한 정성.
- 608) 子夜半에. 한밤중에.
- 609) 둔우어.
- 610) 켜고.
- 611) 井華水. 이른 새벽에 길은 물.
- 612) 小盤. 자그마한 밥상.
- 613) 하느님前. 하느님께.
- 614) 日月. 해와 달.
- 615) 眼目이온바. 눈인데.
- 616) 무슨.
- 617) 戊子生. 육십 갑자의 무자년에 태어난.
- 618) 眼盲. 눈이 멀어.
- 619) 視物. 사물을 봄.
- 620) 明天. 모든 것을 다 아는 하늘.

- 621) 點指. 신이나 부처님이 사람에게 자식이나 원하는 물건이 생기게 하여줌.
- 622) 忠孝之心. 충과 효의 마음.
- 623) 天神. 하늘에 계신 신. 하느님.
- 624) 欲報之德澤인덴. 덕택을 갚으려고 하면.
- 625) 昊天罔極. 넓은 하늘처럼 끝이 없음.
- 626) 明天. 모든 것을 다 아는 하늘.
- 627) 施給. 베풀어줌.
- 628) 賣身. 몸을 팔.
- 629) 南京. 난징. 중국 장쑤성(江蘇省) 남서쪽에 있는 도시. 양쯔강(揚子江) 하류 연안에 있는 수륙 교통의 요충지이며, 역대 왕조의 도읍지로 명승고적이 많다.
- 630) 船人. 뱃사람.
- 631) 人祭需. 사람 제물.
- 632) 하기 때문에.
- 633) 重값. 많은 값.
- 634) 있습니까?
- 635) 외치는.
- 636) 遠近山川. 멀고 가까운 산천. 온 산천.
- 637) 크고 우렁차게.
- 638) 天佑神助. 하늘이 돕고, 신이 도와줌.
- 639) 本村. 주가 되는 마을을 갈라져 나간 마을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
- 640) 施主. 중이나 절에 물건을 베풀어 주는 일.
- 641) 石. 섬. 부피의 단위. 곡식, 가루, 액체 따위의 부피를 잴 때 쓴다. 한 섬은 한 말의 열 배로 약 180리터에 해당한다.
- 642) 佛前. 부처님 앞.
- 643) 絶貧. 매우 가난함.
- 644) 周旋. 일이 잘 되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힘씀.
- 645) 出天之大孝女. 하늘이 낸 큰 효녀.
- 646) 狼狽. 계획한 일이 실패로 돌아가거나 어그러짐.
- 647) 行船. 배를 타고 감. 배가 떠남.
- 648) 來月. 다음달.
- 649) 告하기를. 말씀드리기를.
- 650) 다른 사람의 자식을 제 자식으로 삼아 기른 딸.
- 651) 나더러. 나에게.
- 652) 隔한지라. 사이를 둔지라. 남은지라.
- 653) 永訣하고. (죽어서) 아주 이별하고.
- 654) 생겨났다가. 태어났다가.
- 655) 食飲. 먹고 마시는 일.
- 656) 全廢. 전혀 하지 않음.
- 657) 그렇게 하지 말라고 금지할 때 하는 말.

- 658) 上針. 박이웃이나 보료·방석 따위의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실밥이 겹으로 드러나게 꿰매는 일.
- 659) 겹깃. 겹웃.
- 660) 박음질하여. ‘박음질’은 실을 겹쳐 겹어서 튼튼하게 꿰매는 바느질.
- 661) 網巾. 상투를 할 때, 머리가 흘러내리지 않게 하기 위해 이마에 매던 그물처럼 생긴 물건.
- 662) 隔한지라. 사이를 둔지라. 남은지라.
- 663) 寂寂. 조용하고 쓸쓸함.
- 664) 三更. 옛적에 하루 저녁을 다섯으로 나눈 세 번째 시각. 밤 11시에서 1시 사이.
- 665) 울지는
- 666) 哽哽咽咽. 슬퍼서 목매어 울.
- 667) 手足. 손과 발.
- 668)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힘.
- 669) 그만두었더니마는.
- 670) 亡終. 마지막.
- 671) 五更. 다섯으로 나눈 하룻밤의 다섯째 부분으로, 새벽 네 시쯤 되는데, 여기서는 날이 새는 시각을 상징하는 말.
- 672) 咸池. 해가 진다고 하는 큰 못.
- 673) 扶桑. 해가 뜨는 곳. 그곳에 있다는 상상의 뽕나무. 동쪽 바다에 있다고 하며, 서쪽으로 진 해가 상상의 뽕나무인 부상에 걸려 있다가 다음날 아침에 뜬다고 함.
- 674) 日去月來. 해가 지고 달이 뜸. 곧, 시간이 흐름.
- 675) 누구라. 누가.
- 676) 天地. 여기서는 ‘자연의 섭리’의 뜻으로 쓰였다.
- 677) 半夜. 한밤중.
- 678) 秦關. 진나라의 관. ‘관’은 국경이나 국내의 요지의 통로에 두어서, 외적을 경비하며, 출입하는 사람이나 화물을 조사하던 곳. 여기서는 맹상군이 닭울음소리를 잘 내는 식객의 도움으로 무사히 도망쳐 나온 함곡관을 가리킴.
- 679) 孟嘗君. 전국시대 제(齊)나라 사람으로, 성은 전(田), 이름은 문(文)임. 일찍이 빈객들을 후히 대접하여 많은 사람이 그의 집에 출입하였는데, 맹상군이 진(秦)나라 소왕에게 잡혀 죽게 되었을 때, 닭울음소리를 잘 내는 식객(食客)의 도움으로 함곡관을 빠져나와 무사히 도망친 일이 있었다.
- 680) 아니라면.
- 681) 사립문.
- 682) 기웃기웃.
- 683) 부엌.
- 684) 父女天倫. 하늘이 정해준 아버지와 딸 사이의 인륜.
- 685) 夢兆. 꿈에 나타나는 길흉의 징조.
- 686) 素服. 흰옷.
- 687) 끝없이.

- 688) 데려가려는가.
 689) 壯히. 매우.
 690) 다른 자리로 옮겨 놓은.
 691) 祠堂. 조상의 신주를 모셔놓은 집.
 692) 下直. 먼 길을 떠날 때 웃어른께 작별을 고함.
 693) 痛哭再拜. 아주 슬프게 울면서 두 번 절함.
 694) 三代. 아버지와 아들과 손자의 세 대.
 695) 그 之次. 그 다음.
 696) 女息. 딸자식. 딸.
 697) 祖宗香火. 향을 피워서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일.
 698) 이를 따라서. 이로부터.
 699) 不勝永慕. 영원히 그리워하는 마음을 이기지 못함.
 700) 物色. 까닭이나 형편.
 701) 음식 따위가 가짓수가 많고 꾸밈하더니.
 702) 정가. 지나간 허물을 들추어 흥분.
 703) 누구명. '눈'을 얹잡아 일컫는 말.
 704) 단단한 물체가 조금 가볍게 맞부딪칠 때 나는 소리, 또는 그 모양.
 705) 낱을.
 706) 名山大刹. 이름난 산에 있는 큰 절.
 707) 靈神堂. 부처와 여러 신을 모신 집.
 708) 木神祭. 민속 신앙에서, 큰 나무에 신이 있다고 믿고 지내는 제사.
 709) 石神祭. 큰 바위에 신이 있다고 믿고 지내는 제사.
 710) 千萬意外. 전혀 뜻밖에.
 711) 너의.
 712) 너를 살 것인데.
 713) 팔자기에.
 714) 四窮之首. 사궁 중에서 첫 번째. 곧 늙은 홀아비. '사궁'은 늙은 홀아비, 늙은 홀어미, 부모 없는 아이, 자식 없는 늙은이를 통틀어 일컫는 말.
 715) 천하에. 매우 드물거나 뛰어나서 세상에서 비길 데가 없음을 이르는 말.
 716) 七年大旱. 은나라 탕임금 때에 칠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들었던 큰 가뭄.
 717) 湯임금. 중국 전설상의 은나라 왕조의 건설자. 하(夏)나라의 걸왕(桀王)을 내쫓고 천하의 자리에 올랐음. 이름은 이(履), 또는 천을(天乙).
 718) 身嬰白茅 剪爪斷髮. 몸을 흰 띠풀로 묶고, 손톱 깎고 머리카락을 자름. 탕임금이 기우제를 지낼 때 그렇게 했다고 함.
 719) 桑林 들에서. '상림'은 탕임금이 기우제를 지낸 곳.
 720) 大雨方數千里. 사방 수천 리에 큰 비가 내림.
 721) 나는.
 722) 廬山瀑布. 여산에 있는 폭포 이름. 여산은 지금의 중국 장시성(江西省) 남쪽에 위치한 산으로, 명승지이자 유명한 피서지이다.

- 723) 텅굴 듯.
 724) 올라가며 텅끓.
 725) 내려가면서 텅끓.
 726) 情狀. 가엾은 형편.
 727) 저토록.
 728) 可矜. 불쌍하고 가엾음.
 729) 白木. 무명배.
 730) 疋. 일정한 길이로 말아 놓은 피륙을 세는 단위.
 731) 洞中. 동네에.
 732) 엮드려져서.
 733) 흩어져 있거나 널려 있는 것들을 자꾸 대강 모으는 모양.
 734) 늘어져 있고.
 735) 깊이 스며든다.
 736) 天方地軸. 너무 급하여 허둥지둥 분주한 모양.
 737) 건너 마을.
 738) 놀던.
 739) 어찌다가 혹시.
 740) 모두.
 741) 바이라.
 742) 白日. 밝은 해.
 743) 陰雲. 하늘을 덮은 시커먼 구름.
 744) 澗水. 골짜기에서 흐르는 물.
 745) 嗚咽하여. 목메어 울어서.
 746) 시들려고.
 747) 嫋嫋한. 길고도 가느다란.
 748) 春鳥. 봄철의 새들.
 749) 百般啼送. 온갖 것이 모두 울며 보내는.
 750) 喚友聲. 짝을 그리워하며 우는 소리.
 751) 겨워서. 이기지 못해서.
 752) 夜月空山. 달 밤에 적막한 빈 산.
 753) 盡情啼聲. 온 마음을 다하여서 구슬프게 우는 소리.
 754) 斷腸聲. 창자를 끊는 듯한 슬픈 소리.
 755) 不如歸. '돌아가지 못한다'는 뜻으로 '소쩍새'를 가리키는 말. 주나라 말기에 촉 지방의 제후로 스스로 황제라고 일컫는 두 우, 곧 망제(望帝)는 왕위를 신하에게 빼앗기고 멀리 도망갔다가, 돌아와서 복위하려고 했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죽어서 그 혼이 소쩍새가 되었다는데, 그 울음 소리가 '불여귀', 또는 '귀촉도'로 들렸다고 한다.
 756) 若道春風不解意 何因吹送 落花來라? 당나라 때의 시인이자 화가인 왕유의 시 〈희제반석(戲題盤石)〉의 한 구절. 시의 뜻은 '봄바람이 내 뜻을 알지 못한다면, 어찌 술잔 위에 꽃잎을 불어 보내겠느냐?'인데 여기서는 '봄바람이 내 슬픈 뜻을 모른다면, 어찌

- 내게로 이 꽃잎을 날려 보내겠느냐의 뜻으로 쓰였다.
- 757) 宋武帝 垂楊公主 梅花粧은 있건마는. '송나라 무제의 딸인 수양 공주가 매화로 단장한 일이 있지마는'의 뜻인데, '매화장'은 처마 밑에 누운 공주의 얼굴 위에 매화 꽃잎이 떨어져 내려앉아 마치 매화 꽃잎으로 화장을 한 듯이 그윽한 향기를 풍겼음을 말한다.
- 758) 丹粧. 머리, 얼굴, 옷차림 따위를 곱게 꾸밈.
- 759) 事勢. 일의 돌아가는 형편.
- 760) 誰怨誰咎: 누구를 원망하거나 탓함.
- 761) 江頭. 강가의 나루 근처.
- 762) 뱃머리
- 763) 足板. 배에 오르기 쉽도록 배와 물을 이어대는 판자.
- 764) 나무로 만든 배의 안쪽 바닥.
- 765) 어떤 일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건, 자세 따위를 미리 갖추어 차림. 또는 그 물건이나 자세.
- 766) 배를 한곳에 멈추어 있게 하기 위하여 줄에 매어 물 밑바닥으로 가라앉히는, 갈고리가 달린 기구. 갈고리가 흠바닥에 박히어 배가 움직이지 못하게 된다.
- 767) 배의 방향을 조종하는 장치.
- 768) 泛彼中流. 바다 한가운데로 배가 떠서 간다.
- 769) 茫茫한. 아득하게 넓은.
- 770) 滄海. 넓고 큰 바다.
- 771) 蕩蕩. 크고 힘차며 사나운 모습.
- 772) 白蘋洲. 흰 꽃이 피는 부평초가 가득한 물가 섬
- 773) 紅蓼岸. 단풍이 들어 붉은 데만 남은 여뀌가 가득한 언덕.
- 774) 三江. 오나라의 송강과 전당강과 포양강의 세 강.
- 775) 漢水. 양자강의 지류.
- 776) 嘹唳한. 소리가 맑아 멀리까지 들리는.
- 777) 남은 소리. 여운.
- 778) 漁笛이언마는. 어부들이 부는 피리소리인 듯하건마는.
- 779) 曲終人不見에 數峰만 푸르렀다. 당나라 시인 전기(錢起)의 〈상령고슬(湘靈鼓瑟)〉의 한 구절. 원문에는 “노래 소리가 그치자 사람은 보이지 않고(曲終人不見), 강물 위에 두어 산봉우리만 푸르르다(江上數峰靑)”로 되어 있음. 이시는 전기가 순임금의 두 왕 비이 아황과 여영이 빠져 죽은 상강의 물이 들어오는 곳인 동정호가를 거닐다가 노래를 듣고 지었다고 함. 여기서는 심청이 빠져 죽은 뒤에 올 적막감을 표현한 말.
- 780) 欸乃聲中萬古愁는. 노닐하는 소리 속에 만고의 근심이 들어있다는 말은.
- 781) 長沙. 중국 호남성의 중심지. 한나라 때의 가의(賈誼)가 태부의 벼슬자리에 있던 곳.
- 782) 賈太傅. 이름은 의(誼). 태부는 벼슬 이름. 중국 전한(前漢) 사람으로, 굴원의 닳을 위로하는 〈조굴원부(弔屈原賦)〉를 남겼음. 〈조굴원부〉의 첫 구절은 ‘임금의 은혜를 공손히 받들어 장사에서 죄를 기다리게 되었다. 들으니, 굴원이 스스로 먹리수에 몸을 던졌다 하네.’이다. 장사와 가태부를 연결시킨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 783) 屈三閭. 중국 저숙 시대의 초나라 사람인데, 이름은 평(平)이고 자는 원(源)으로 삼려

- 대부의 벼슬자리에 있다가 쫓겨나 어부사 이소경을 짓고 먹라수에 빠져 죽었다.
- 784) 魚腹忠魂. 시 어부사에서 “차라리 강물에 몸을 던져 강물의 고기 뱃속에 장사 지내고 싶다”고 읊은 뒤에 물에 빠져 죽은 굴평의 넋.
- 785) 무양(無恙). 몸에 탈이나 병이 없음을 뜻하는 인사말로, 웃어른에게 자신을 말하거나 아랫사람의 안부를 물을 때에 쓰이는데, 여기서는 단순한 인사말로 쓰였다.
- 786) 하듯딘가? 하였딘가?
- 787) 黃鶴樓. 중국의 호북성 무창현 서쪽의 황학산에 있는 누각. 촉나라의 비문위라는 사람이 신선이 되어 학을 타고 다니다가 이 누대에서 쉬어간 적이 있어서 붙여졌다는 이름.
- 788) 日暮鄉關何處是오? 연파강상사인수(煙波江上使人愁). 최호가 지은 시 〈황학루(黃鶴樓)〉의 끝 구절. 날이 저무는데 내 고향은 어디쯤일까? 사방을 둘러봐도, 강물 위에 피어 오르는 안개는 시름만 더해주네. 여기서는 그러한 외로운 정경을 가리키는 듯함.
- 789) 崔灝. 당나라 현종 때의 시인인데, 그가 지은 시 가운데 〈황학루〉가 유명함.
- 790) 鳳凰臺. 중국 강소성 남경에 있는 이름난 누대.
- 791) 三山은 半落青天外. 삼산은 반이나 구름 속에 가려 마치 푸른 하늘 밖으로 떨어지는 듯이 우뚝 솟아 있고, 두 줄기로 나뉜 강물은 백로주가 끼고 흘러간다. 이백의 〈등금릉 봉황대(登金陵鳳凰臺)〉시의 한 구절. 삼산(三山)은 세 봉우리로 이루어졌으며 양자강이 휘감고 흐르는 남경의 서남쪽에 있는 산.
- 792) 二水中分白鷺洲라. 두 강물을 백로주가 가운데서 나누고 있다. ‘백로주’는 양자강 가운데 있는 모래섬. 이수(二水)는 진수(秦水)와 회수(淮水)를 가리킴.
- 793) 李太白. 당나라 때 시인 이백(李白). 태백(太白)은 자(字)이고 호(號)는 청련(靑蓮). 성당(盛唐) 때의 대시인으로 두보와 함께 시종(詩宗)으로 존앙받았다. 신선이 하늘에서 땅으로 귀양와서 사람이 되었다는 뜻으로 ‘적선(謫仙)’이라고도 일컬어진다.
- 794) 놀던.
- 795) 尋陽江. 강서성 구강현 북쪽에 있는 양자강의 한줄기로, 당나라 때의 시인인 백거이가 밤에 늪은 기생이 타는 비파 소리를 듣고 〈비파행〉을 짓고 놀던 곳.
- 796) 白樂天. 당나라 시인으로 이름은居易(居易). 〈장한가(長恨歌)〉와 〈비파행(琵琶行)〉이 특히 유명함.
- 797) 一去後에. 한 번 가버린 뒤에.
- 798) 琵琶聲. 비파 소리. 백거이가 당나라 현종 10년에 구강군의 사마로 좌천이 되어 갔다가 그 이듬해 가을에 구강의 나루터에서 친구를 보내는데, 늪은 기생이 켜는 비파 소리를 듣고 난 뒤에 〈비파행〉을 지은 일을 두고 한 말이다.
- 799) 赤壁江. 중국 호북성 황강현 동쪽에 있는 강. 손권, 유비의 연합군과 조조의 백만 대병이 수전을 벌인 곳. 이 싸움에서 조조가 대패했음. 또한 소식(동파)이 〈적벽부〉를 지어 부른 곳이기도 함. 소식은 이곳으로 귀양을 와서, 음력 7월 16일 날 밤 배를 띄우고 놀며 〈적벽부(赤壁賦)〉를 지었다고 함.
- 800) 蘇東坡. 이름은 ‘식(軾)’이고, 호가 ‘동파’인 북송의 문인. 〈적벽부(赤壁賦)〉를 지어 널리 알려짐.
- 801) 노던 風月. 놀던 풍월. 즐기던 경치.
- 802) 依舊하여. 옛날과 다름없이.
- 803) 曹孟德. 조조(曹操). 맹덕은 그의 호임. 한나라 왕실을 무너뜨리고 위나라를 세우는

기틀을 다졌다.

- 804) 一世之雄. 한 때의 영웅.
805) 而今에. 지금에. 지금은.
806) 安在哉오? 어디에 있는가?
807) 月落烏啼. 달은 지고 까마귀가 울.
808) 古蘇城. 중국 강소성 오현의 소주(蘇州).
809) 外에다가. 밖에다가.
810) 寒山寺. 중국 강소성 소주부 풍교진(楓橋鎮)에 있는 절. 당나라 때 시인인 장계(張繼)의 〈풍교야박(楓橋夜泊)〉이란 시로 유명함.
811) 종(鐘).
812) 前後 相應 허여. 앞뒤로 서로 어울려서.
813) 客船. 손님을 태우는 배.
814) 당나라 때 시인 장계(張繼)의 시 〈풍교야박(楓橋夜泊)〉에서 딴 구절로, 원문은 다음과 같다. ‘월락오제상만천 강풍어화대수안 고소성의한산사 반야종성도객선(月落烏啼霜滿天 江楓魚火對愁眼 姑蘇城外寒山寺 夜半鐘聲到客船)’ 달은 지고 까마귀 우는데 서리는 하늘에 가득하다. 강가의 단풍나무, 고기잡이 불 시름에 졸며 바라본다. 고소성 밖 한산사의 종소리가 나그네 탄 배까지 들린다.
815) 秦淮水. 중국 강소성 표수현에서 서북쪽으로 강령성을 지나 양자강으로 흘러드는 운하인데, 진나라 때에 만들어졌다. 강가의 풍경이 아름다워 술집이 많다고 한다.
816) 隔江의. 강 건너편의.
817) 商女. 술과는 여인.
818) 亡國恨. 나라가 망한 한. 여기서는 중국 남북조시대에 진(秦)나라의 후주가 〈후정화〉라는 노래를 만들어 부르며 놀기만 일삼다가 나라를 망하게 했던 일을 가리킴.
819) 煙籠寒水月籠沙한데. 안개는 차가운 강물 위에 자욱하고, 달빛은 모래밭에 빛나는데.
820) 後庭花. 중국 남북조시대 진(秦)나라의 후주가 만든 노래의 이름.
821) 당나라 때 시인인 두목(杜牧)의 〈박진회(泊秦淮)〉라는 시를 그대로 딴 것인데, 원문은 다음과 같다. 煙籠寒水月籠沙 夜泊秦淮近酒家 商女不知亡國恨 隔江猶唱後庭花(안개는 차가운 강물 위에 자욱하고, 달빛은 모래밭에 빛나는구나. 밤 되어 진회에서 묵으려는데 술집이 가까와, 술 파는 여자들은 나라가 망한 슬픔도 모르고, 강 건너 술집에서는 후정화만 부르는구나). ‘진회수’는 중국 강소성 표수현에서 서북쪽으로 강령성을 지나 양자강으로 흘러드는 운하인데, 경치가 좋아 술집이 많다고 함. ‘망국한’은 여기서는 중국 남북조시대에 진(秦)나라의 후주가 〈후정화〉라는 노래를 만들어 부르며 놀기만 일삼다가 나라를 망하게 했던 일을 가리킴. ‘후정화’는 후주가 만든 노래의 이름.
822) 岳陽樓. 중국 동정호에 있는 이름난 누대.
823) 湖上. 호수 위.
824) 東南으로. 동남쪽 방향으로.
825) 吳山. 옛 오나라 땅(지금의 강소성 일대)의 산들.
826) 疊疊. 겹겹이 쌓임.
827) 楚水. 옛 초나라 땅(지금의 호남성과 호북성)의 강물.

- 828) 萬重이라. 여러 겹으로 싸였다.
- 829) 斑竹. 알록무늬가 있는 대. 소상강 부근에서 나는 알록무늬가 있는 대를 '소상반죽'이라고 함. 순임금이 죽자, 순임금의 두 왕비인 아황(娥皇)과 여영(女英)이 흘린 피눈물이 상강의 대밭에 떨어져서 생겼다고 함.
- 830) 二妃. 순임금의 두 왕비인 아황(娥皇)과 여영(女英)을 가리킴.
- 831) 巫山. 중국 사천성 무산현 동쪽에 있는 열두 봉우리로 이루어진 명산.
- 832) 洞庭湖. 중국 후난성(호남성) 북부에 있는 중국 제2의 담수호.
- 833) 上下天光. 위와 아래(곧 호수에 비친 하늘과 하늘에 있는)의 하늘 빛.
- 834) 三峽. 중국 사천, 호북 두 성의 경계에 있는 양자강 중류의 좁은 골짜기. 무산(巫山) 산지(山地)의 침식으로 세 협곡이 이어져, 예로부터 유명한 경승지임.
- 835) 잔나비. 원숭이.
- 836) 遷客. 지방으로 좌천되거나 귀양 간 사람.
- 837) 騷人. '시인' 또는 '문사'를 이르는 말. 초나라의 굴평이 지은 <이소부(離騷賦)>에서 비롯됨.
- 838) 瀟湘八景. 중국의 소주와 상강이 합치는 곳에 여덟 가지 아름다운 경치로 '평사낙안(平沙落雁), 원포귀범(遠浦歸帆), 산시청담(山市晴嵐), 강천모설(江天暮雪), 동정추월(洞庭秋月), 소상야우(瀟湘夜雨), 연사모종(煙寺暮鐘), 어촌낙조(漁村落照)'를 꼽는다.
- 839) 玉佩. (여자들이 지니는) 옥으로 만든 패물.
- 840) 琤琤. 옥이 울리는 맑은 소리.
- 841) 竹林. 대숲. 대나무숲.
- 842) 사이로.
- 843) 紫霞裳. 선녀가 입는다는 자줏빛 치마.
- 844) 瑞珠玕. 상서로운 구슬을 꿰 끈.
- 845) 沈小姐. 심씨 성을 가진 아가씨.
- 846) 蒼梧山崩湘水絕이라야 竹上之淚乃可滅이라. 이태백이 쓴 시 <원별리(遠別離)>의 한 구절. 창호산이 무너지고 상수 강물이 끊어져야, 대나무 위에 흘린 눈물이 사라질 것이다. '창호산'은 순임금이 죽은 곳. 순임금이 죽자, 그의 두 왕비인 아황과 여영이 달려가 피눈물을 흘리다가 따라 죽었는데, 그 눈물이 소상강 가의 대나무에 묻어 소상반죽(소상강 가에서 나는 알록달록한 무늬가 있는 대)이 되었다는 전설이 있다.
- 847) 千秋. 오래고 긴 세월.
- 848) 하소연. 억울한 일이나 잘못된 일, 딱한 사정 따위를 간곡히 호소함.
- 849) 賀禮. 축하하는 인사.
- 850) 堯, 舜, 禹, 湯, 幾千年에. 요임금, 순임금, 우임금. 탕임금과 같은 어진 임금이 죽은 지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 851) 五絃琴. 순임금이 타던 다섯 줄로 된 악기.
- 852) 南風詩. 순임금이 지었다는 시로, 순임금은 오현금을 타며 이 시를 노래불렀다고 한다. 효행을 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853) 水路. 물길.
- 854) 娥皇. 순임금의 첫째딸이자 요임금의 첫째 왕비.

- 855) 女英. 순임금의 둘째딸이자 요임금의 둘째 왕비.
- 856) 烏江. 중국 안휘성에 있는 강. 유방에게 패한 항우가 자살한 곳인데, 강동에서 군사를 일으킨 항우가 오강을 건너 천하를 넘보았다가, 마지막에 다시 쫓겨 이 강을 건너 강동으로 달아나려다가 자살했음.
- 857) 風浪. 바람이 강하게 불어 일어나는 물결.
- 858) 大作. 크게 일어남.
- 859) 面如巨輪. 얼굴이 수레바퀴처럼 큼.
- 860) 眉間. 두 눈썹 사이.
- 861) 廣闊. 흰하게 넓음.
- 862) 吳王. 오나라 왕. 여기서는 부차(夫差)를 가리킴.
- 863) 伯嚭. 오나라 재상. 초나라의 대신이었던 백주리의 손자로, 백주리가 초나라에서 죽임을 당하자 오나라에 와서 재상이 되었으나, 오자서를 모함하여 죽게 했다.
- 864) 讒訴. (간사하고 못된 말로) 남을 헐뜯어 옷사람에게 꾸며 고해 바침.
- 865) '속루검(屬鏤劍)'의 잘못. 오나라 왕 부차가 오자서에게 자결하라고 내린 칼.
- 866) 누구인고. 누구인가.
- 867) 伍子胥. 초나라 사람으로 그의 아버지 오사(伍奢)와 형 오상(伍尚)이 초나라 평왕에게 죽임을 당하자, 오나라로 망명한 후 장군이 되어 원수를 갚았다. 그러나 간신 백비(伯嚭)의 참소로 죽임을 당했으며, 그의 시신은 가죽 부대에 담겨져 강물에 버려졌다. 자서는 그의 자(字)이며, 이름은 원(原)이다.
- 868) 遽然. 별안간.
- 869) 四五朔. 너댓달.
- 870) 金風颯而夕起하고 玉宇廓而崢嶸이라. 가을 바람이 저녁에 쌀쌀하게 불고, 넓은 하늘이 말쑥하게 빛난다. 조선 왕조 때에 김인후가 지은 <칠석부(七夕賦)>의 첫 구절.
- 871) 落霞는 與孤鶩齊飛하고 秋水는 共長天一色이라. 저녁놀을 따라 외로운 따오기가 날고, 가을의 맑은 물은 높은 하늘과 같은 빛깔이라. 당나라 때의 시인 왕발(王勃)의 시 <등왕각서(騰王閣序)>의 한 구절.
- 872) 無邊落木蕭蕭下여. 넓은 곳에 낙엽이 쓸쓸히 소리 내며 떨어지고. 당나라 두보의 시 <등고(登高)>의 한 구절.
- 873) 玉露. 깨끗한 이슬.
- 874) 清風. 맑고 시원한 바람.
- 875) 단풍이 붉어 있다는 의미인 듯.
- 876) 외롭도다.
- 877) 漁歌. 어부들이 부르는 노래.
- 878) 一髮靑山. 한 가닥의 머리카락처럼 가물가물 보이는 산. 송나라 문인 소식의 시 <장매역 동조각(澄邁驛通潮閣)>의 한 구절인 '청산일발시중원(靑山一髮是中原)'에서 따온 말.
- 879) 峯峯이. 봉우리마다.
- 880) 愁色. 근심스러운 빛.
- 881) 守直하고. 지키고 있고.
- 882) 이는.

- 883) 印塘水. 가공의 깊은 물 이름.
 884) 狂風. 세차게 부는 바람.
 885) 大作. 크게 일어남.
 886) 뒤집혀 넘어지며.
 887) 魚籠. 물고기와 용. 모든 물고기.
 888) 大川 바다. 넓은 바다.
 889) 櫓. 물을 헤쳐 배를 나아가게 하는 기구. 물속에 들어가는 부분은 납작하고 손잡이 부분은 가늘다.
 890) 돛대에 매놓고 닻을 올리고 내리는 줄.
 891) 키. 배의 방향을 조종하는 장치.
 892) 자욱하게 낀
 893) 저물어
 894) 咫尺. 아주 가까운 거리.
 895) 遑遑大急. 마음이 몹시 급하여 허둥댐.
 896) 告祠器械. 고사를 지내는 데 쓰는 물품.
 897) 섬쌀. 한 섬이나 되는 쌀.
 898) 마구 늘어놓아 흩어지게 하고.
 899) 동이에 담은 술.
 900) 三色. 세 가지 색깔.
 901) 實果. 과일.
 902) 五色. 다섯 가지 색깔.
 903) 湯需. 탕국. 제사에 쓰는 국을 높여서 이르는 말. 그 종류에는 육탕, 어탕, 고기나 비린 것을 넣지 않고 끓이는 소탕, 닭고기를 넣고 끓이는 봉탕, 잡탕 따위가 있음.
 904) 돌. 돼지.
 905) 淨한. 깨끗한.
 906) 바칠 次로. 바치려고
 907) 領座. 한 마을이나 단체의 우두머리가 되는 사람.
 908) 軒轅氏. 황제(黃帝). 고대 중국의 전설의 임금으로 창과 방패를 쓰는 방법을 익히고, 배와 수레를 처음으로 만들었다고 함.
 909) 무어. 만들어.
 910) 以濟不通하고. 통하지 못하던 곳을 건너다니게 하고.
 911) 後生. 뒷 세상 사람들. 여기서는 장사하는 사람들의 뜻.
 912) 爲業하니. 생업으로 삼으니
 913) 夏后氏. 중국의 첫 번째 왕조인 하나라를 세운 우임금. '후'는 우임금이 순임금의 양위로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아름답게 이르는 칭호.
 914) 九年之水. 중국 요임금 때 9년이나 계속된 큰 홍수.
 915) 五服. 우임금이 홍수를 다스린 뒤에 서울을 가운데에 두고 500 리만큼씩 되게 나누어 농사를 짓게 한 전복(甸服), 후복(侯服,) 수복(綏服), 요복(腰服), 황복(荒服)의 다섯 구역.

- 916) 飮食. ‘공수(貢收)’의 잘못. ‘공’은 하나라 때의 세법을 가리키므로, 공수는 세법에 따라 백성들로부터 거두어들인 물품을 뜻함..
- 917) 九州. 고대 중국에서 온 나라를 통치하려고 나누었던 아홉 지방. 곧 온 천하.
- 918) 물굽이를 돌아 들어오고.
- 919) 垓城의. 해성에서. ‘해성’은 항우가 유방에게 패하고 우미인과 헤어진 해하성(垓下城).
- 920) 烏江. 중국 안휘성에 있는 강. 유방에게 패한 항우가 자살한 곳인데, 강동에서 군사를 일으킨 항우가 오강을 건너 천하를 넘보았다가, 마지막에 다시 쫓겨 이 강을 건너 강동으로 달아나려다가 자살했음.
- 921) 壬戌之秋七月에 縱一葦之所如하여. 임술년 음력 칠월에 작은 배가 가는 대로 몸을 맡기고, 송나라 때의 문장가인 소식(蘇軾)이 지은 〈적벽부(赤壁賦)〉의 첫머리. ‘임술’은 그것을 지은 서기 1082년을 가리키고 ‘종일위는’ ‘갈대 한 묶음’, 곧 ‘작은배’를 뜻함.
- 922) 흥을 돋우려고 덧붙이는 어부가의 후렴.
- 923) 經歲又經年. 해가 지나고 또 지나도록. 곧 여러 해가 지남.
- 924) 商賈. 장사치.
- 925) 船人. 뱃사람.
- 926) 이것이 아닌가?
- 927) 爲業하야. 직업을 삼아.
- 928) 經東經西. 동서로 지나다님.
- 929) 人祭需. 제물로 바치는 사람.
- 930) 만기 때문에.
- 931) 江漢之將. 큰 강물을 지키는 장수. 여기서는 강물에 사는 큰 물고기를 의인화한 표현.
- 932) 川澤之君. 냇물과 연못을 다스리는 임금. 여기서는 냇물과 연못에 사는 큰 물고기를 의인화한 표현임.
- 933) 一時로. 한 번에.
- 934) 歆饗. 신명이 제물을 받아서 먹음.
- 935) 飛廉. 중국에서 바람의 신으로 받들리는 신.
- 936) 直手文籍하야. 용왕이 손수 글로 증서를 적어서.
- 937) 무쇠로 만든 배. ‘무쇠’는 1.7% 이상의 탄소를 함유하는 철의 합금(合金). 단단하기는 하나 부러지기 쉽고 강철에 비하여 쉽게 녹이 쏜다. 주조(鑄造)하기가 쉬워 공업 재료로 널리 쓴다.
- 938) 大海. 큰 바다.
- 939) 行船. 배가 다님.
- 940) 點指. 신이나 부처님이 사람에게 자식이나 원하는 물건이 생기게 하여줌.
- 941) 바닷물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때. ‘시각’의 뜻으로도 쓰임.
- 942) 星火같이. 운성이 떨어지듯 매우 급히.
- 943) 一身手足. 손과 발.
- 944) 黑雲. 검은 구름.
- 945) 하얀.
- 946) 淡淡한. 맑고 깨끗한.

- 947) 데. 곳.
 948) 合掌. 두 손을 모음.
 949) 죽지마는.
 950) 天地萬物. 온 세상의 모든 사물.
 951) 나와 같은.
 952) 孑孑單身. 의지할 곳이 없는 외로운 홀몸.
 953) 누구에게.
 954) 腹痛斷腸. 뼈에 사무치도록 원통함.
 955) 億十萬金. 많은 돈. 많은 재물.
 956) 이익.
 957) 哀痛. 슬퍼하고 가슴아파함.
 958) 세상을 버렸으면. 죽었으면.
 959) 存亡. 생존과 사망.
 960) 지나가거든.
 961) 부디.
 962) 그것은.
 963) 遠海. 먼 바다.
 964) 낯덩이. 뉘누리덩이. 뉘누리가 물살의 옛말이니, 큰 물결이란 뜻.
 965) 進退함은. (물에 빠지려고) 앞으로 나아갔다가 그러지 못하고 다시 뒤로 물러섰다가 함은.
 966) 父親의 情. 아버지를 생각하는 효성.
 967) 둘러쓰고.
 968) ‘(손으로 바람 따위를 막으려고) 내치더니’의 뜻.
 969) 江上에. 강물 위에. 여기서는 ‘해상(海上. 바다 위.)’으로 해야 옳음.
 970) 落水格. 물이 떨어지는 것과 같음.
 971) 香火. 향불. 제사를 올릴 때 피우는 향불.
 972) 風浪을 쫓고. 바람과 물결을 타고 흩어지고.
 973) 明月. 밝은 달.
 974) 海門. 두 육지 사이. 또는 그리로 보이는 수평선.
 975) 渺滄海之一粟. 푸른 바다 속의 곡식 한 알과 같이 작음. 소동파의 〈적벽부(赤壁賦)〉의 한 구절.
 976) 祭文. 죽은 사람을 조상하는 글. 제사를 지낼 때 신령에게 고하는 글.
 977) 晴天. 맑은 하늘.
 978) 北天. 북쪽 하늘.
 979) 蒼波萬頃. 푸르고 너른 바다.
 980) 넓은.
 981) 雙雙白鷗. 짝을 지어 나는 갈매기.
 982) 흘러가며 둥둥 떠 있다.
 983) 雨後清江. 비온 뒤에 깨끗해진 강.

- 984) 飛去飛來. 날아갔다 날아왔다함.
- 985) 面面히. 얼굴들마다.
- 986) 後嗣. 대를 잇는 자식.
- 987) 領座. 마을이나 단체의 우두머리.
- 988) 執佐. 영좌를 보좌하는 사공.
- 989) 明年부터는. 다음해부터는.
- 990) 出天大孝. 하늘이 낸 큰 효자.
- 991) 天神. 하늘에 있는 신.
- 992) 玉皇上帝. 도교에서 하늘님을 이르는 말.
- 993) 四海龍王. 동서남북의 네 바다를 맡고 있다는 용왕. 동해신은 아명. 서해신은 거승, 남해신은 축융, 북해신은 우강.
- 994) 下敎. 임금의 내리는 명령.
- 995) 某日. 아무 날.
- 996) 某時. 아무 시.
- 997) 嚴命. 엄한 명령.
- 998) 至嚴하니. 매우 엄하니.
- 999) 白玉 轎子. 흰 옥으로 만든 교자. ‘교자’는 종2품 이상의 벼슬아치가 타던, 앞뒤로 2명씩 네 명이 매는 가마.
- 1000) 悄寂헌디. 조용한데.
- 1001) 天上. 하늘 위, 하늘나라.
- 1002) 仙官. 신선.
- 1003) 太乙眞. 태을진군(太乙眞君). 하늘의 신 가운데 가장 높은 신.
- 1004) 安期生. 중국 진(秦)나라 사람으로, 바닷가에서 약을 팔다가 신선인 하상장인(河上丈人)에게 도를 배워 신선이 되었다는 사람. 그 때의 사람들은 그를 ‘천세옹(千歲翁)’이라고 불렀으며, 진시황이 그를 불러 사흘 동안에 걸쳐 함께 이야기하고 지낸 뒤에 금과 푸른 옥을 선사했으나 모두 거절하고는 사라졌다고 한다.
- 1005) 鸞. 봉황의 한 가지인 신령스러운 새.
- 1006) 赤松子. 중국의 신농씨 때의 신선. 비와 바람을 타고 곤륜산에 와서 놀았다고 함.
- 1007) 葛仙翁. 중국 삼국시대 오(吳)나라 사람으로, 도를 배워 신선이 되었다고 함.
- 1008) 青衣童子 紅衣童子. 푸른 옷을 입은 아이와 붉은 옷을 입은 아이. 신선의 시중을 든다는 아이들.
- 1009) 麻姑仙女. 중국의 전설 상의 선녀. 한나라 환제 때에 모주의 동남쪽에 있는 고여산에서 수도를 하여 선녀가 되었는데, 바다가 세 번이나 뽕나무밭으로 변하도록 오래 살았으나 늘 젊어 보였다고 한다.
- 1010) 南岳夫人. 중국의 5대 명산의 하나인 남악에 있다는 선녀인 위부인(魏夫人).
- 1011) 八仙女. 여덟 명의 선녀.
- 1012) 侍衛. 모시어 호위함.
- 1013) 風樂. 우리나라 고유의 옛 음악.
- 1014) 晉. 주나라 영왕의 태자로, ‘교’라고도 함. 피리를 잘 불었다고 전해짐.

- 1015) 鳳피리. 왕자 진은 피리를 잘 불었는데, 특히 봉황의 소리를 잘 내어서 그 피리에 붙인 이름인 듯하다.
- 1016) 郭處士. 당나라 무종(武宗) 때의 괵도원(郭道原)을 가리키는데, 격구라는 악기를 치는 솜씨가 뛰어났다고 함.
- 1017) '질장구'의 잘못. 당나라 때의 악기인 격구의 소리가 우리나라 질장구와 비슷했다고 하는데, 이 때문에 죽장구라고 한 듯하다. '죽장구'는 '질장구'가 변하여 된 말. 질장구는 흙을 구워서 큰 놋그릇 비슷하게 만든 악기. 질화로 모양의 그릇을 대 위에 올려놓고 채로 쳐서 소리를 낸다.
- 1018) 成連子. 중국 춘추 시대에 살았는데 거문고를 잘 탔다고 한다.
- 1019) 張子房. 한나라 사람으로, 이름은 양(良)인데, 유방을 도와서 초나라를 멸할 때에, 해하 싸움에서 달밤에 옥통소를 구슬프게 불어서 초나라 군사들이 고향 생각에 젖도록 하여 흩어지게 만들었다.
- 1020) '영타(靈鼈)'의 잘못. '영타'는 악어가죽으로 메운, 그 소리가 화평하고 신묘하며, 멀리까지 울려 퍼진다는 북. 명나라의 문인 구우(瞿佑)가 지은 《전등신화(剪燈神話)》의 〈수궁경회록(水宮慶會錄)〉 편에 영타를 울렸다는 구절이 있고, 《시경》의 〈영대(靈臺)〉라는 시에도 '문임금이 영대를 짓고 영타를 울렸'다는 구절이 있음.
- 1021) 嵇康. 진나라 때 사람으로, 자는 숙야(叔夜). 노자나 장자의 허무 사상에 빠져 유교의 형식주의를 마다 하고 청담을 주고 받으며 세월을 보내던 무리인 죽림 칠현 중의 한 사람. 거문고와 시를 즐김. 글에 〈양생론(養生論)〉이 있음.
- 1022) 凌波詞. 당나라 현종이 꿈에 능파못에 사는 선녀의 부탁을 받고 꿈을 깨고 일어나 지었다는 노래.
- 1023) 步虛詞. 선교에서 부르는 노래의 이름. 신선인 보허자의 이름에서 딴 것으로 신선처럼 장수하라는 소망이 들어 있음.
- 1024) 곁들여.
- 1025) 狼藉한. 어지럽게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 1026) 別有天地. 별세계. 이상향을 이룰 때 쓰는 말.
- 1027) 老鯨骨이 爲樑하여 燐光이 如日이요. 늙은 고래의 뼈로 들보를 올렸으니 인광(燐光. 어두운 곳에서도 내는 빛)이 햇빛과 같고.
- 1028) 緝魚鱗而作瓦허니. 물고기의 비늘을 엮어 기와를 만들어 올렸으니.
- 1029) 瑞氣가 蟠空이라. 상서로운 기운이 하늘에 서렸도다.
- 1030) 應天上之三光이요. 하늘의 세 가지 빛 (해·달·별)에 조응함. 《전등신화(剪燈新話)》의 〈수궁경회록(水宮慶會錄)〉에 나오는 말.
- 1031) 備人間之五福이라. 인간의 오복을 다 갖추었다.
- 1032) 珊瑚簾. 산호로 만든 발.
- 1033) 玳瑁 屏風. 바다 거북의 등껍질로 만든 병풍.
- 1034) 扶桑. 중국 전설에서, 해가 뜨는 동쪽 바다 속에 있다고 하는 상상의 나무. 또는 그 나무가 있다는 곳.
- 1035) 一輪紅. 붉게 떠오르는 해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1036) 瑤池 風光. 중국 전설의 선녀인 서왕모가 노닐던 요지의 좋은 경치.
- 1037) 大鵬. 봉새. 한번에 구만리나 난다고 하는 상상의 큰 새.

- 1038) 서쪽으로.
- 1039) 弱水 流沙. 유사로 흘러 들어가는 약수의 긴 강. ‘약수’는 감숙성에서 비롯되어 북으로 영하성을 거쳐 내몽고의 거연 호수에 이르는 강이며, ‘유사’는 오늘날의 서몽고 지방의 사막 지대를 일컫던 이름. 《서경》의 〈우공(禹貢)〉편에 ‘약수는 유사로 들어간다(弱水入于流沙)’라고 되어 있음.
- 1040) 一雙. 한 쌍.
- 1041) 靑鳥. 파랑새. 서왕모에게 먹을 것을 마련하여 갖다 주었다는, 다리가 셋 달린 전설의 새. 푸른 새가 온 것을 보고 동방삭(東方朔)이가 서왕모(西王母)의 심부름꾼이라고 한 옛일에서 반가운 사자(使者)나 편지의 뜻으로 쓰는 말임.
- 1042) 春雪. 눈처럼 흰 꽃을 뜻함. 양나라 원제의 글에 ‘꽃이 봄눈인가 의심한다(花疑春雪)’는 구절이 있음.
- 1043) 碧桃花. 하늘나라에 있다는 벽도나무에서 피는 꽃.
- 1044) 들이는데. 들어오는데.
- 1045) 紫霞酒. 신선이 마신다는 안개로 담근 좋은 술.
- 1046) 千日酒. 담근 지 천 일만에 먹는 좋은 술.
- 1047) 麟脯. 기린포. 기린은 용, 봉황, 거북과 함께 떠받들리는 상상의 상서로운 동물.
- 1048) 醞醕湯. 불교에서 다섯 가지의 으뜸가는 맛의 하나로 꼽는, 우유를 걸러 만든 영양분이 풍부한 음식.
- 1049) 甘露酒. 이슬로 빚어 만든다는 신선 세계의 술.
- 1050) 三千碧桃. 하늘나라에서 삼천년마다 한번씩 열린다는 복숭아.
- 1051) (과일이나 음식이) 높이 쌓아올려져 있다.
- 1052) 下回. 웃어른의 명령이나 지시.
- 1053) 朝夕으로. 아침 저녁으로.
- 1054) 侍衛. 모시어 호위함.
- 1055) 各別하더라. 어떤 일에 대한 마음가짐이나 자세 따위가 유달리 특별하더라.
- 1056) 江頭. 강가의 나무 근처.
- 1057) 碑. 비석.
- 1058) 碑名. 비석의 이름.
- 1059) 墮淚碑. 눈물을 흘린 비. 사마염(司馬炎)이 서진(西晉)을 세우고 무제(武帝)가 되었을 때, 명장인 양호(羊祜)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죽자 호북성 현산에 비를 세웠는데, 그 비문을 보는 사람마다 울어서 붙은 이름. 여기서는 ‘비문을 보는 사람마다 슬픈 눈물을 짓게 하는 비’ 정도의 의미.
- 1060) 江村. 강가에 있는 마을.
- 1061) 水魂. 물 속에 빠진 영혼.
- 1062) 望思臺. ‘딸자식이 다시 살아가기를 기다리는 마음을 담아 지은 누대’라는 뜻을 지닌 누대 이름.
- 1063) 원숭이.
- 1064) (잘못되거나 잘못하여) 명대로 살지 못하고 죽음.
- 1065) 데려가거라.

- 1066) 위로 올라가며 땡끓.
 1067) 아래로 내려가면서 땡끓.
 1068) 단단한 물건이 별안간 깨지거나 부딪치는 소리.
 1069) 罔知所措. 갈팡질팡 어찌할 바를 모름.
 1070) 여자는 곧.
 1071) 號. 이름 외에 따로 부르는 이름.
 1072) 錢穀間. 돈과 곡식.
 1073) 自願出嫁. 스스로 원하여 시집을 감.
 1074) ‘임버릇’을 낮추어 속되게 일컫는 말. ‘임버릇’은 음식을 먹는 버릇.
 1075) 家産. 한 집안의 재산.
 1076) 음식을 먹는 일을 속되게 이르는 말.
 1077) 팔아.
 1078) 淸酒. 다 익은 술에 용수(싸리나 대오리로 만든 등글고 긴 통. 술이나 장을 거르는 데 쓴다.)를 박고 떠낸 맑은 술.
 1079) 濁酒. 막걸리. 맑은술을 떠내지 아니하고 그대로 걸러 잔 술로 빛깔이 흐리고 맛이 텁텁하다.
 1080) 사서.
 1081) 四時長川. 사계절 관계없이 언제나, 늘.
 1082) 식비를 내고 남의 집에서 끼니를 먹기.
 1083) 内外. 남녀간에 서로 예의를 차리느라고 얼굴을 마주하지 않고 서로 피함.
 1084) 請기. 청하기.
 1085) 술 사기.
 1086) 半偏. 한 개를 들로 나눈 한 편 짝. 모자라는 사람의 비유.
 1087) 자꾸 방정맞게 까부는 사람.
 1088) 먹을 속은 꿩파리르다. 꿩파리의 속이 비어서 흰하듯이 먹는 데 대한 것을 잘 알고 찾아드는 경우를 비꼬는 말.
 1089) 가볍게 슬쩍 한번 흘겨보는 모양.
 1090) 가볍게 살짝 한 번 할겨 보는(눈동자를 옆으로 굴려 조금 못마땅하게 노려보는) 모양.
 1091) 빼죽. 비웃거나 언짢거나 울려고 할 때 소리 없이 입을 내미는 모양.
 1092) 빼죽. 비웃거나 언짢거나 울려고 할 때 소리 없이 입을 내미는 모양.
 1093) 썰룩썰룩. 근육의 한 부분이 실그러졌다 썰그러졌다 하며 자꾸 움직이는 모양.
 1094) 害談. 해가 되는 말.
 1095) 행실을 속되게 이르는 말.
 1096) 琴瑟. 거문고와 비파라는 뜻으로 ‘부부간의 사랑’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
 1097) 그거야. 그것이야.
 1098) 집안 살림에 쓰는 온갖 기구.
 1099) 玉皇上帝. 도교에서 하느님을 이르는 말.
 1100) 四海龍王. 동서남북의 네 바다를 맡고 있다는 용왕. 동해신은 아명. 서해신은 거승, 남해신은 축융, 북해신은 우강.

- 1101) 下教. 임금이 내리는 명령.
 1102) 芳年. 이십 세 전후의 꽃다운 나이. 여기서는 '결혼 할 나이'라는 뜻으로 썼음.
 1103) 還送. 돌려보냄.
 1104) 꽃봉오리.
 1105) 兩個. 두 개. 두 사람.
 1106) 侍衛. 곁에서 모시어 호위함.
 1107) 朝夕供養. 아침 저녁으로 음식을 잘 대접하는 일.
 1108) 饌需. 반찬거리.
 1109) 等物. 등등의 물건.
 1110) 天地造化. 대자연의 이치.
 1111) 證驗. 증거로 될만한 경험.
 1112) 搖動허리. 흔들리겠는가.
 1113) 五色彩雲. 다섯 가지 색깔로 아롱진 고운 구름.
 1114) 晝夜로. 밤낮으로.
 1115) 둥실둥실. 물체가 공중이나 물 위에 가볍게 떠 있는 모양.
 1116) 億十萬金. 많은 돈. 많은 재물.
 1117) 이익.
 1118) 祭物. 제사에 쓰는 음식물.
 1119) 望哭祭. 임금이나 부모의 상사를 당하여 몸소 가지 못하고 먼 곳에서 바라보고 울며 지내는 제사.
 1120) 鴻北恨. 작품 이름인 듯하나 불명.
 1121) 王昭君. 성은 왕(王), 소군(昭君)은 자, 이름은 장(嬙). 서한(西漢) 원제(元帝) 때의 궁녀. 한나라의 친화정책 때문에 흉노의 우두머리에게 강제로 시집갔음. 흉노의 우두머리 선우가 청혼을 하니, 원제는 궁녀 중 한 명을 뽑으려고 화공 모연수(毛延壽)에게 궁녀들의 초상을 그려 올리게 하였는데, 모든 궁녀들이 서로 다투어 화공에게 뇌물을 주었으나, 소군은 저의 자색만 믿고 뇌물을 주지 않아, 화공이 초상을 밋게 그려 바쳤으므로 뽐혀 선우에게 시집을 가게 되었다고 한다.
 1122) 堂上. 대청 위. 조부모나 부모가 거처하는 곳 또는 집의 일부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123) 白髮. 하얗게 센 머리.
 1124) 제명대로 살지 못하고 죽은 죽음.
 1125) 歆饗. 신령이 제물을 받아서 먹음.
 1126) 領座. 한 마을이나 단체의 우두머리가 되는 사람.
 1127) 執佐. 영좌를 보좌하는 사공.
 1128) '격군(格軍)'의 잘못. '격군'은 조선시대에 사공의 일을 돕던 뺏사람.
 1129) 火匠. 밥 짓는 일을 맡은 선원.
 1130) 海上. 바다 위.
 1131) 나무로 만든 배의 안쪽 바닥.
 1132) 瑞氣. 상서로운 기운. 복되고 좋은 일이 있을 듯한 기운.

- 1133) 蟠空. 공중에 서립.
 1134) 數多한. 많은.
 1135) 都沙工. 뱃사공 중의 우두머리.
 1136) 淨한. 깨끗하고 정결한.
 1137) 宋天子. 송나라 황제.
 1138) 崩. 임금이나 왕비의 죽음을 높이어 하는 말.
 1139) 納妃. 왕비를 맞아들임.
 1140) 琪花瑤草. 이름답고 고운 꽃과 풀.
 1141) 朝夕으로. 아침 저녁으로.
 1142) 消日. 날을 보냄.
 1143) 都船主. 배의 주인.
 1144) 八月 芙蓉의 君子容. 팔월에 피는 연꽃의 군자 같은 모습.
 1145) 滿塘秋水의 紅蓮花. 가을의 못물에 가득히 핀 붉은 연꽃.
 1146) 暗香浮動月黃昏. 어디선가 그윽한 매화 향기가 희미한 달빛 속에 떠온다. 송나라 때의 시인인 임포가 매화를 두고 지은 시 〈산원소매(山園小梅)〉의 한 구절.
 1147) 전(傳)하던.
 1148) 寒梅花. 매화는 눈 속에서도 피어서 붉은 이름.
 1149) 盡是劉郎去後栽. 이 모두가 유량이 간 뒤에 심어놓은 것들이다. 당나라 때 시인 유우석(劉禹錫)이 모함을 받아 10년을 지낸 뒤에 돌아와, 복숭아꽃이 붉은 것을 보고 지은 시. 〈자랑주지경회중간화제군자(自郎州至京戲贈看花諸君子)〉의 한 구절. 유량은 유우석을 가리킴.
 1150) 복숭아꽃.
 1151) 九月 九日의 龍山飲 笑逐臣 菊花꽃. 음력 구월 구일에 용산에 올라가 시를 읊으니, 쫓겨난 신하를 비웃던 국화꽃. 이백의 시 〈구월용산음(九月龍山吟)〉의 ‘구월용산음 황화소축신(九日龍山吟 黃花笑逐臣)’에서 딴 구절.
 1152) 三千 弟子. 삼천 명이나 되던 공자의 제자들.
 1153) 講論. 학술이나 도의의 뜻을 해설하며 토론함.
 1154) 杏壇春風. 행단의 봄바람. ‘행단’은 산동성 곡부현 공자묘 앞에 있는, 옛날 공자가 학문을 강의하던 터인데, 복송 때에는 여기에 단을 쌓고 주위에 살구나무를 심었으며, 금나라 때에는 행단비(杏壇碑)를 세웠다.
 1155) 梨花滿地不開門. 지는 배꽃 뜰에 가득 쌓여도 (발에 밟힐까 걱정이 되어)문을 열지 않는다. 당나라 때 시인 유방평(劉方平)의 시 〈춘원(春怨)〉의 마지막 구절.
 1156) 長信門前 배꽃. 장신궁의 문 앞에 반녀(班女)처럼 애처로이 핀 배꽃. 한나라 성제 때에 반녀는 현숙하고 아름다워 성제의 사랑을 독차지하였으나, 뒤에 조비연 자매의 모함을 받고 태후의 궁인 장신궁으로 쫓겨 와 쓸쓸히 지냈다.
 1157) 天台山. 중국 절강성 천태현에 있는 산.
 1158) 兩邊開芍藥이라. 길 양쪽에 작약이 피어 있음. 한나라 사람인 유신과 완조가 약을 캐러 천태산에 들어갔을 때에 길 양쪽에 작약꽃이 활짝 피어 있었다는 뜻.
 1159) 怨征夫之離別을 허니. 전쟁터로 떠나는 남편과 헤어짐을 원망하니.

- 1160) 玉窓五見의 櫻桃花. 아름다운 창가에 앵도화가 다섯 번 피는 것을 본다. 곧 전쟁터로 떠난 남편이 다섯해가 지나도 돌아오지 않는다. 이백의 시 〈구별리(久別離)〉의 한 구절.
- 1161) 蜀國恨. 촉나라 망제(望帝)의 한. 망제는 주나라 말기 촉의 제후로, 스스로 황제라 일컬은 두우(杜宇)를 가리키는데, 임금 자리를 빼앗기고 원통하게 죽어, 그 넓이 두견새가 되었다는 전설이 있다.
- 1162) 啼血하던. 피를 토하듯이 슬피 울던.
- 1163) 杜鵑花. 진달래꽃.
- 1164) 李花. 오얏꽃. 자두꽃.
- 1165) 蘆花. 갈대꽃.
- 1166) 鷄冠花. 맨드라미꽃.
- 1167) 紅菊. 붉은 색 국화.
- 1168) 白菊. 흰 색 국화.
- 1169) 四季花. 월계화. 사철 피는, 장미과 식물.
- 1170) 東園桃李片時春. ‘봄 동산의 복사꽃이 잠시 봄빛을 띠다’는 뜻으로, 인생의 덧없음을 표현. 당나라 때 시인 왕발(王勃)의 시 〈임고대(臨高臺)〉의 한 구절.
- 1171) 牧童遙指가 杏花村. 나그네가 술집을 물으니 꿀을 베는 아이가 손을 들어 멀리 살구꽃이 핀 마을을 가리킨다. 당나라의 두목의 시 〈청명(淸明)〉의 한 구절.
- 1172) 月中丹桂無三更. 달은 언제나 밝아서 달에 있는 계수나무에는 삼경(한밤중)이 없다.
- 1173) 梔子. 구충제로 쓰이는, 잎에서 독특한 냄새가 나는 침엽수의 열매.
- 1174) 감자(柑子). 꿀과 비슷하나, 신맛이 적고 담백한 맛이 나는 열매가 열리는 운향과의 늘푸른나무.
- 1175) 노랗다.
- 1176) 가을에 열리는 열매인데, 먹을 수 있으며, 잘 익으면 하얀 열매가 딱 벌어진다.
- 1177) 대추.
- 1178) 香果. 향기로운 과일나무.
- 1179) 香風. 향기로운 바람.
- 1180) 한 줄기의 바람이 스쳐 부는 모양.
- 1181) 나비.
- 1182) 지저귀어.
- 1183) 天子. 하늘을 대신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 군주. 왕. 황제.
- 1184) 進上. 임금이나 윗사람에게 바치는 일.
- 1185)奇特하다고.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신통하여 귀엄성이 있다고.
- 1186) 此邑. 이 고을.
- 1187) 除授하신. 절차를 따르지 않고 임금이 바로 벼슬을 시킨.
- 1188) 皇極殿. 황제가 정사를 보기 위하여 나아가 앉던 전각.
- 1189) 瑞氣. 상서로운 기운.
- 1190) 蟠空. 공중에 서리어 있음.
- 1191) 사랑하시어.
- 1192) 西天西域. 인도, 또는 부처가 있는 곳인 서방정토(西方淨土)를 가리킴.

- 1193) 蓮花꽃. 연꽃.
 1194) 海上. 바다 위.
 1195) 降仙花. '신선이 타고 내려온 꽃'이라는 의미.
 1196) 朝夕으로. 아침저녁으로. 늘.
 1197) 消日. 어떠한 것에 재미를 붙여 심심하지 아니하게 세월을 보냄.
 1198) 一日은. 하루는.
 1199) 花階. 화단.
 1200) 滿庭하고. 뜰에 가득하고.
 1201) 微風. 약하게 부는 바람.
 1202) 浮動. 불박혀 있지 않고 떠서 움직임.
 1203) 꽃봉오리.
 1204) 搖動. 흔들리어 움직임.
 1205) 搖動하더니마는. 흔들리며 움직이더니마는
 1206) 괴이(괴이)하게. 이상아룻하게.
 1207) 가까이
 1208) 움츠리더니.
 1209) 動靜. 사람의 일, 행동 따위가 벌어져 나가는 김새.
 1210) 兩個. 두 사람의.
 1211) 侍衛. 곁에서 모시어 호위함.
 1212) 怪異. 괴이하게. 이상아룻하게.
 1213) 伏地하야. 땅에 엎드려.
 1214) 南海宮. 남해용궁
 1215) 上帝. 하느님.
 1216) 別宮. 특별히 따로 지은 궁전.
 1217) 滿朝百官. 조정에 가득한 모든 벼슬아치.
 1218) 朝會席. 조회하는 자리. '조회'는 벼슬아치들이 아침 일찍이 임금 앞에 나아가 문안을 드리고, 정사를 아뢰던 일.
 1219) 諸臣. 여러 신하.
 1220) 國母. 왕비.
 1221) 日官. 옛날에 천문이나 기상을 관측하여 길한 날을 가리는 일을 맡아 보던 벼슬아치.
 1222) 擇日. 날을 잡음.
 1223) 封하시니. 임금이 벼슬과 지위를 내려 주시니.
 1224) 滿朝諸臣. 조정에 가득한 여러 신하. 조정의 모든 신하.
 1225) 山呼萬世. 나라에 큰 의식이 있을 때에 임금을 축수하려고 신하들이 두 손을 치켜들고 외치던 만세나 천세 따위의 말. 한나라 무제가 화산에서 산제(山祭)를 베풀 때에 백성들이 만세를 불렀던 데에서 비롯된 말로, 옛날에는 '하늘에 가까운' 산꼭대기에서 주로 제사를 지냈으므로, '산꼭대기의 만세 함성'의 뜻으로 붙은 이름.
 1226) 蒼生. 《서경》에 나오는 말. 햇빛과 같은 임금의 은혜로 푸르고 무성하게 자라는 산천의 초목이라는 뜻에서 '백성'을 비유하는 말.

- 1227) 擊壤歌. 풍년이 들어서 농부가 태평한 세월을 즐기는 노래를 일컫는 말. 중국 당요(唐堯) 때 늙은 농부가 태평한 세월을 즐거워하여 땅을 치면서 부른 노래라고 함. 그 내용은 '일출이작(日出而作) 일입이식(日入而息) 착정이음(鑿井而飲) 경전이식(耕田而食) 제력우아하유재(帝力于我何有哉)'로 '해 뜨면 일하고, 해가 지면 쉰다네. 샘을 파서 물을 마시고, 밭을 갈아먹으니, 임금의 힘이 나에게 무슨 소용 있으리'임.
- 1228) 聖德. 임금님의 덕을 높여 이르는 말. 여기서는 황후의 어진 덕을 찬양하기 위한 말.
- 1229) 當年. 그 해.
- 1230) 堯舜의 天地. 중국의 전설적인 황제인 요임금과 순임금 시절과 같은 풍요롭고 태평한 세상.
- 1231) 仙降之界. 신선이 내려오는 태평한 세계.
- 1232) 一夜. 어느날 밤.
- 1233) 玉欄杆. 옥으로 만든 난간.
- 1234) 秋月. 가을 달. 가을 달빛.
- 1235) 滿庭. 뜰에 가득함.
- 1236) 珊瑚珠簾. 산호 구슬로 만든 발.
- 1237) 蟋蟀. 귀뚜라미.
- 1238) 羅帷. 얇은 비단으로 만든 휘장.
- 1239) 晴天. 맑은 하늘.
- 1240) 月下. 달 아래.
- 1241) 날아가니.
- 1242) 반가이. 반갑게.
- 1243) 行하느냐? 가느냐?
- 1244) 蘇中郎. 소중랑장(蘇中郎將). '소중랑장'은 한나라 때의 소무(蘇武)로 벼슬이 중랑장에 이르렀음. 소무가 흉노에게 사신을 갔다가, 사람이 살지 않는 북쪽 바닷가로 귀양을 갔는데, 사연을 적은 비단을 기러기 발에 매어 날려 보내, 제 처지를 알려서 19년 만에 돌아온 일을 가리킴.
- 1245) 北海上. 북해의.
- 1246) 一張. 한 장.
- 1247) 水墨. 빛이 옅은 먹물. 눈물에 젖어 얼어진 먹빛을 표현한 것임.
- 1248) 誤錯. 착오. 잘못. 착각으로 인한 잘못.
- 1249) 乾象. 하늘.
- 1250) 蒼茫한. 넓고 멀어서 아득한.
- 1251) 排設. 연회나 의식(儀式)에서 필요한 것들을 차려놓음.
- 1252) 內宮. 황후가 거처하던 궁전.
- 1253) 愁心. 근심어린 생각.
- 1254) 貴는. 귀하기는.
- 1255) 富. 부유하기.
- 1256) 天下. 온세상.

- 1257) 供養米. 부처님께 바치는 쌀.
 1258) 石. 섬. 부피의 단위. 곡식, 가루, 액체 따위의 부피를 잴 때 쓴다. 한 섬은 한 말의 열 배로 약 180리터에 해당한다.
 1259) 恩德. 은혜로운 덕.
 1260) 鴻恩. 넓고 큰 은혜.
 1261) 皇城. 황제가 있는 나라의 서울.
 1262) 盲人宴. 맹인들의 잔치.
 1263) 相逢. 서로 만남.
 1264) 各邑. 각 고을. 모든 고을.
 1265) 綠陰芳草. 푸르게 우거진 나무와 향기로운 풀이란 뜻으로, 여름철의 자연 경관을 이르는 말.
 1266) 寂寂한다. 조용하고 쓸쓸한데.
 1267) 處子. 처녀.
 1268) 가꿈.
 1269) 三神國 驪鬼. 천신, 지신, 산신의 나라에 있는 시끄러운 잡귀들.
 1270) 餓鬼. (불교에서) 굶주린 귀신.
 1271) 惡神. 사람에게 재앙을 가져오는 나쁜 신.
 1272) 데려가거라.
 1273) 腹痛斷腸聲. 사무치게 원통하고, 창자가 끊어지는 듯이 아프게 내는 소리.
 1274) 官家. 지방의 한 고을의 행정 사무를 보던 관아. 시골 사람이 그 고을을 다스리는 벼슬아치를 일컫는 말.
 1275) 路資. 길가는 데 드는 비용. 여비.
 1276) 厚히. 후하게. 넉넉하게.
 1277) 坐而不動. 그대로 앉아서 꼼짝도 하지 않음.
 1278) 살려는가?
 1279) 三年喪. 부모가 돌아가시어 삼 년 동안 조심하며 지내는 일.
 1280) 그리고 보니까.
 1281) 千女시. 천녀일세. ‘열녀’보다 더 훌륭하다 하여 천녀라고 우습게 일컫은 말.
 1282) 參禮. 예식에 참여함.
 1283) 弊端. (일이나 행동에 드러나는)부정적이거나 옳지 않은 현상.
 1284) 생각해 보니까.
 1285) 제가.
 1286) 어떻게 하나 보려고.
 1287) 쭈서보니까. 일부러 마음이 크게 상하게 해보니까.
 1288) 庸劣. 못생기어 어리석고 변변치 못함.
 1289) 두께.
 1290) 身世. 주로 불행한 일과 관련된 일신상의 처지와 형편.
 1291) 自歎. 자기의 일에 대하여 탄식함.
 1292) 天地萬物. 온 세상의 모든 사물.
 1293) 咫尺 分別. 아주 가까운 곳이나 사물을 구별하여 아는 일.

- 1294) 어떻게 갈꺼냐.
 1295) 日暮. 날이 저물.
 1296) 눈이맞어 가지고. 두 사람의 마음이나 눈치가 서로 통해서.
 1297) 物色. 일의 돌아가는 형편이나 까닭.
 1298) 새벽에 가는 길.
 1299) (일을) 치르거나 겪어야.
 1300) 內外間. 부부간.
 1301) 鰥寡孤獨. 늙은 홀아비, 늙은 홀어미, 부모없는 아이, 자식없는 늙은이를 통틀어 이르는 말.
 1302) 四窮.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네 층의 사람들, 곧 환과고독.
 1303) 他道. 다른 도.
 1304) 他官. 타향.
 1305) 天下. 천하에. 매우 드물거나 뛰어나서 세상에서 비길 데가 없음을 이르는 말.
 1306) 거절하거나 싫다고.
 1307) 어라. ‘그만두라’는 뜻을 나타내는 감탄사.
 1308) 賢哲. 어질고 사리에 밝음.
 1309) 出天大孝. 하늘이 낸 큰 효자.
 1310) 살아 있는 사람의 목숨.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의 목숨.
 1311) 너덜대. ‘너덜대다’는 주제넘게 입을 너불거리며 자꾸 까불다.
 1312) 이만한. 이만한 정도의.
 1313) 無道한. 말이나 행동이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에 어긋나서 막된.
 1314) 잘못이다.
 1315) 北邙山. 무덤이 많은 곳이나 사람이 죽어서 묻히는 곳을 이르는 말.
 1316) 萬無. 결코 없음.
 1317) 생각을 단념하거나 무엇을 포기할 때 내는 소리.
 1318) 急煞. 갑작스럽게 닥치는 재액(災厄).
 1319) 人事不省. (신상에 벌어지는 일을 도무지 모를 만큼) 의식이나 정신을 잃은 상태.
 1320) 소.
 1321) 주저앉으며.
 1322) 三伏時. 삼복 더위 시기.
 1323) 세차게 뿌릴 제. 여기서는 ‘세차게 흘릴 때.’
 1324) 流水. 흐르는 물.
 1325) 합수저. 합수가 되어. 두 개의 물이 합쳐져.
 1326) 천방지축으로 턱을 넘고 굽이쳐.
 1327) 물방울.
 1328) 거품저. 거품이 되어.
 1329) 屏風石. 병풍처럼 앞을 가로막고 우뚝 솟은 절벽.
 1330) 때려.

- 1331) 大海水中. 큰 바닷물 가운데.
 1332) 거품.
 1333) 술, 식혜 등이 꺾어 끓어오르는 모양. 여기서는 물이 쏟아져 내리면서 거품이 끓어오르는 모양을 표현한 것임.
 1334) 물결이 자꾸 흔들리는 모양. 여기서는 물 속에 비친 산 그림자가 물결에 자꾸 흔들리는 모양을 표현한 것으로 생각됨.
 1335) 뒤틀려서 우그러져서.
 1336) 좋겠는가?
 1337)壯히. 매우.
 1338) 덩석. 무엇을 넣큼 움켜잡거나 무는 모양.
 1339) 많은 양의 액체가 급히 쏟아져 세차게 흐르는 소리.
 1340) 이보다.
 1341) 東海水. 동해 바닷물.
 1342) 木手 줄. 목수가 사용하는 줄. 여기서는 ‘먹줄’을 가리킴. ‘먹줄’은 먹통에 팔려 목재에 곧은 줄을 치는 데 쓰는 끈.
 1343) 보니까.
 1344) 어서.
 1345) 人跡. 사람의 자취.
 1346) 완전히.
 1347) 데어서도.
 1348) 白首風神. 머리가 허영게 된 겉모양.
 1349) 위아래. 위와 아래 모두.
 1350) 無知한. 미련하고 험상궂은.
 1351) 許多한. 많은.
 1352) 지나가거든.
 1353) 나보다는.
 1354) 上八字. 매우 썩 좋은 팔자. ‘팔자’는 타고난 운명.
 1355) 日月. 해와 달.
 1356) 東西分別. 동쪽 서쪽을 구별하여 가름. 곧 방향이나 위치를 구별함.
 1357) 三道 네거리. 세 갈래로 갈라진 네거리.
 1358) 小盲. 맹인이 자기를 낮추어 하는 말.
 1359) 衣冠. 옷과 모자.
 1360) 兩端間으로. 두 가지 가운데서 한 가지로.
 1361) 積善之家 必有餘慶이요, 積惡之家 必有餘殃이라. 착한 일을 많이 한 집안은 경사스러운 일이 있고, 악한 일을 많이 한 집안은 반드시 재앙이 따른다. 〈주역〉에서 따온 말.
 1362) 太守丈. 태수를 친근하게 높여 부르는 말.
 1363) 可矜하여. 불쌍히 여겨.
 1364) 百拜致謝. 거듭 절을 하며 고맙다는 뜻을 나타냄.
 1365) 洛水橋. 낙수는 섬서성 정변형에서 비롯되어 위수와 합쳐져서 황하로 흐르는 강.

- 여기서는 가상의 다리 이름. ‘낙수청운(洛水靑雲)’에 빗대어 지은 듯함. ‘낙수청운’은 벼슬길을 이르는 말.
- 1366) 綠水亭. 가상의 정자 이름. ‘푸른 물가에 선 정자’라는 뜻을 지니고 있음.
- 1367) 村家. 시골 마을에 있는 집.
- 1368) 弄. 농담(弄談).
- 1369) 봉사지 아마.
- 1370) 수월찮게. 상당히.
- 1371) 의뭉하구만. 겉으로는 어리석은 것 같으면서도 마음속은 영큼하구만.
- 1372) 방아를 찧을 때 넘어지지 않기 위해 천정에 매달아 잡는 줄.
- 1373) 느슨하게.
- 1374) 방아.
- 1375) 姜太公의 造作. 방아의 등에 ‘경신년(庚申年) 경신월(庚申月) 경신일(庚申日) 경신시(庚申時) 강태공 조작’이라고 써붙인 글귀. 이는 경신이 넷 겹치면 이루어진다는 길일과, 주나라의 재상이던 강태공의 힘을 빌어 목신(木神)을 누른다는 뜻을 나타냈다고 함.
- 1376) 만들.
- 1377) 役軍. 일꾼.
- 1378) 落落長松. 가지가 축 늘어진 키 큰 소나무.
- 1379) 玉鬢紅顏. 아름다운 귀밑머리와 혈색이 도는 얼굴. 젊은 여인의 아름다운 얼굴을 표현한 말.
- 1380) 태도일런가.
- 1381) 허리에다.
- 1382) 簪. 비녀
- 1383) 양쪽 사이를 막대기로 가로 건너 꿰었구나.
- 1384) 萬疊靑山. 사방이 겹겹이 싸인 깊은 산.
- 1385) 桂花나무. 계수나무. ‘계화(桂花)’는 계수나무의 꽃.
- 1386) 구르는구나. 선 자리에서 발로 바닥을 힘주어 밟는구나.
- 1387) 滄海 老龍. 넓고 푸른 바다의 늙은 용.
- 1388) 楚 懷王. 초나라의 임금. 동맹을 맺자는 진나라 소왕에게 초청을 받아 갔으나 굴평이 걱정한 대로, 포로로 잡혀 있다 죽임을 당했다.
- 1389) 돈수(頓首)일런가. 돈수는 ‘머리가 땅에 닿도록 조아림’의 뜻인데, 진나라 소왕에게 붙잡혀 죽은 일을 비유한 말일 듯하다.
- 1390) 뽕樣던가. 본뽕던가. 풍자하던가.
- 1391) 곡식의 한 종류로 벳과의 한해살이 풀.
- 1392) ‘사박사박’ 소리를 내는. ‘사박사박’은 가볍게 바스르질 만큼 무르고 부드러운 것이 부딪치며 내는 소리.
- 1393) 울무. 벳과의 한해살이풀. 높이는 1~1.5미터이며, 잎은 어긋나고 피침 모양이다. 7~9월에 잎겨드랑이에서 꽃이삭이 여러 개 나와 꽃이 피고, 열매는 타원형으로 암갈색이며, 종자는 식용하거나 약용한다. 열대 아시아가 원산지로 우리나라 각지에 분포한다.

- 1394) 버.
- 1395) 지긋지긋하게 힘든.
- 1396) 고소하구나.
- 1397) 깻묵. 기름을 짜낸 깨의 찌끼.
- 1398) 넓고 큼직한 모양을 해학적으로 표현한 말.
- 1399) 물의 힘으로 공이를 오르내리게 하여 곡식을 찧거나 뺑는 기구.
- 1400) 거진 바의 정도나 신분에 맞는 격.
- 1401) 매달아.
- 1402) 발로 디디어 곡식을 찧거나 뺑는 데 쓰는 방아. Y자 모양의 나무 한 끝에 공이를 박고, 두 갈래진 다른 양 끝을 발로 디디게 되어 있음.
- 1403) 充腹 배를 채움. 배불리 먹음.
- 1404) 뽀그덕뽀그덕. ‘뽀그덕뽀그덕’하는 소리를 내면서.
- 1405) 鐘路. 서울에서 가장 변화한 곳이 종로이므로, 황성에서 가장 변화한 곳이라는 뜻으로 쓴말.
- 1406) 奉命 軍士. 명을 받아 움직이는 군사.
- 1407) 令旗. 선조 군중에서 군령을 전하는 데 쓰던 기. 푸른 비단 바탕에 붉은 글씨로 ‘令’이라 썼음.
- 1408) 各邑. 각 고을.
- 1409) 亡終. 마지막.
- 1410) 參禮. 예식에 참여함.
- 1411) 守門將. 문을 지키는 장수.
- 1412) 坐定. 자리를 잡고 앉음.
- 1413) 成冊하야. 책을 만들어. 곧 기록하여.
- 1414) 일이 다 끝날 판.
- 1415) 成冊記道 올리려고. 사는 곳이나 이름 따위를 적으려고 맨 책에다 사는 도를 적어 올리려고.
- 1416) 排設. 의식이나 연회에서 필요한 것을 벌이어 베풀.
- 1417) 一夜. 어느날 밤.
- 1418) 玉欄杆. 옥으로 만든 난간.
- 1419) 天地神明. 하늘과 땅의 모든 신령.
- 1420) 當年 七十. 그 해의 나이가 칠십 세임.
- 1421) 老患. 늙은이의 병환.
- 1422) 哀痛自盡. 슬프고 가슴이 아파 거의 죽을 지경이 됨.
- 1423) 靈驗. 사람의 기원에 대해 신이나 부처가 베풀어주는 효과.
- 1424) 축에서. ‘축’은 일정한 특성으로 나뉘는 사람들의 부류.
- 1425) 어찌해서. 어째서.
- 1426) 어찌하면. 어떻게 하면.
- 1427) 末席. 여럿 중에서 제일 낮은 자리.
- 1428) 居處. 사는 곳.

- 1429) 妻子. 아내와 자식.
- 1430) 小盲. 맹인이 자신을 낮추어 일컫는 말.
- 1431) 居士. 사는 땅. 사는 곳.
- 1432) 青松 沈家. 본관이 경상북도 청송인 심씨 집안. 청송심씨(青松沈氏)는 고려 충렬왕 때 문림랑(文林郎)으로 위위시승(衛尉寺丞)을 지낸 심홍부(沈洪孚)를 시조로 받들고, 그의 증손 덕부(德符)가 우왕 때 문하찬성사(門下贊成事)에 이르러 청성부원군(靑城府院君)에 봉해졌다가 청성군충의백(靑城郡忠義伯)에 진봉되어 후손들이 청송을 본관으로 삼게 되었다.
- 1433) 郭氏門. 곽씨 가문.
- 1434) 娶妻. 아내를 얻음.
- 1435) 二十에. 스무 살에.
- 1436) 眼盲. 눈이 멀.
- 1437) 喪妻. 아내의 죽음을 당함.
- 1438) 襁褓. 포대기. 어린아이를 덮어주거나 깔기도 하며, 업을 때에 둘러 대기도 하는 작은 이불.
- 1439) 女息. 딸자식. 딸.
- 1440) 僅僅히. 겨우겨우.
- 1441) 出天. 하늘이 났. 아주 뛰어남.
- 1442) 供養米. 부처님께 바치는 쌀.
- 1443) 石. 섬. 부피의 단위. 곡식, 가루, 액체 따위의 부피를 잴 때 쓴다. 한 섬은 한 말의 열 배로 약 180리터에 해당한다.
- 1444) 施主. 중이나 절에 물건을 베풀어 주는 일.
- 1445) 凌遲處斬. 대역 죄인에게 과하던 최대의 형벌. 머리, 양팔, 양다리, 몸뚱이의 순으로 여섯 부분으로 찢어서 각지에 보내어 여러 사람에게 구경시키는 형벌.
- 1446) 떨어지기도 하고 맺히기도 함.
- 1447) 다리를 아무렇게나 하고 제멋대로 앉아.
- 1448) 珊瑚珠簾. 산호 구슬로 만든 발.
- 1449) 化主僧. 속세에 나가서 불교를 포교하며 부처에게 바칠 공양물과 중들의 음식과 옷 따위를 대주는 책임을 맡은 중.
- 1450) 신이나 부처에게 무엇을 베풀어달라고 정성을 바친다고.
- 1451) 사람의 소망을 비는 데 대한 신이나 부처님의 감응. 영험.
- 1452) 회번덕회번덕. 눈을 크게 뜨고 흰자위를 굴러가며 자꾸 번득거리는 모양.
- 1453) 나더러. 나에게.
- 1454) 五色彩雲. 여러 가지 색깔의 구름.
- 1455) 皇極殿. 황제가 정사를 보기 위하여 나아가 앉던 전각.
- 1456) 靑鶴. 푸른 학.
- 1457) 白鶴. 흰 학.
- 1458) 鸞鳳. 난새와 봉황을 아울러 이르는 말. '난새'는 중국 전설에 나오는 상상의 새. 모양은 닭과 비슷하나 깃은 붉은 빛에 다섯 가지 색채가 섞여 있으며 소리는 오음(五音)과 같다

- 고 한다. ‘봉황’은 상서로움을 상징하는 상상의 새로 수컷은 ‘봉’, 암컷은 ‘황’이라고 한다.
- 1459) 九重. 구중궁궐(九重宮闕). 겹겹이 문으로 막은 깊은 궁궐이라는 뜻으로, 임금에 있는 대궐 안을 이르는 말.
- 1460) 雲霧間. 구름과 안개 사이.
- 1461) 天地日月. 하늘과 땅, 해와 달.
- 1462) 壯觀. 훌륭하고 장대한 광경.
- 1463) 夢中. 꿈 속.
- 1464) 同志. 뜻이 서로 같은 사람들.
- 1465) 古往今來. 옛부터 지금까지.
- 1466) ‘갓모’가 변하여 된 말. 비가 올 때에 갓에나 맨머리에 덮어 쓰던 우장의 하나인데, 기름을 먹인 종이로 만든 것으로, 퍼면 고깔처럼 되고, 접으면 쥔부채처럼 훌쩍해진다. 이를 펼 때에는 “찍찍” 하는 소리가 몹시 난다.
- 1467) 때느.
- 1468) 時로. 시각으로.
- 1469) 聖德. 임금이나 황후의 덕을 높여서 이르는 말.
- 1470) 無盲人이라. 소경이 모두 없어졌다.
- 1471) 天地日月. 온 세상과 해와 달.
- 1472) 壯觀. 훌륭하고 멋진 광경.
- 1473) 皇極殿. 황제가 정사를 보기 위하여 나아가 앉던 전각.
- 1474) 列坐. 죽 벌여앉은.
- 1475) 춤출 舞字. ‘춤출 무(舞)’라는 글자. 여기서는 ‘춤추는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
- 1476) 堯舜적. 요임금과 순임금 시절. 중국의 전설적인 두 임금. 이들은 중국 제왕의 모범으로서 이상적인 제왕으로 일컬어짐.
- 1477) 太古的. 아주 먼 옛날.
- 1478) 宋天子. 송나라 황제.
- 1479) 萬萬歲. ‘만세’를 강조하여 이르는 말.
- 1480) 府院君. 조선조 때 왕비의 친아버지나 정일품 공신에게 주던 작호.
- 1481) 千千萬萬歲. 환호의 뜻으로 외치는 말. 천 년 만 년.
- 1482) 封히시고. 임금이 벼슬이나 지위를 내려주시고.
- 1483) 別給賞賜. 따로 상을 줌.
- 1484) 化主僧. 속세에 나가서 불교를 포교하며, 부처에게 바칠 공양물과 중들의 음식과 옷 따위를 대주는 책임을 맡은 중.
- 1485) 堂上. 당상관. 정삼품 이상의 높은 관리. 이 벼슬에 있는 사람은 조각한 옥관자(玉貫子)를 하였고, ‘영감’이라고 불렀음. ‘관자’는 망건에 달아 당줄을 꿰어 거는 작은 고리. 관품이나 계급에 따라 금, 은, 옥, 대모, 호박, 쇠발톱 따위를 가려 썼음.
- 1486) 千金賞. 많은 돈을 주는 상.
- 1487) 稅役. 세금과 부역(賦役). ‘부역’은 국가나 공공단체가 국민에게 의무적으로 책임지우는 노역.
- 1488) 판소리의 끝에 쓰이는 말로, 정확한 어원이나 뜻은 알 수 없음. ‘어질더질’이라고도 함.

김소희 창

Sung by Kim So-heui

1. (심봉사 내력) 심학규는 몰락한 양반 가문의 후예로, 이 십 세에 봉사가 되었다.

[아니리] 송나라¹⁾ 원풍²⁾ 말년에 황주 도화동³⁾ 사는 한 소경⁴⁾이 있으며
성은 심 가요. 이름은 학규라.
누대잠영지족⁵⁾으로 문명⁶⁾이 자자터니,⁷⁾
가운⁸⁾이 영체⁹⁾하야 이십에 안맹허니,¹⁰⁾
낙수청운에 발자취 끊어지고,¹¹⁾ 금장장수¹²⁾에 공명¹³⁾이 비었으니,
강근¹⁴⁾한 친척 없고,
겸하여 안맹¹⁵⁾허니
뉘라서¹⁶⁾ 받드리오마는,
양반의 후예¹⁷⁾로 행실¹⁸⁾이 청렴¹⁹⁾허여
일동일정²⁰⁾을 경솔히 아니허니,
사람마다 군자²¹⁾라 칭하것다.²²⁾
그 아내 곽씨부인 또한 현철²³⁾하야
모르는 것 바이없고,²⁴⁾ 백집사가감²⁵⁾이라.
몸을 버려²⁶⁾ 품²⁷⁾을 팔 제.

2. (곽씨부인 품팔이) 현철한 곽씨부인은 품을 팔아 가장을 봉양한다.

[중중모래] 샅바느질,²⁸⁾ 관대,²⁹⁾ 도복,³⁰⁾ 행의,³¹⁾ 창의,³²⁾ 직령³³⁾이며,
협수,³⁴⁾ 쾌자,³⁵⁾ 중치막³⁶⁾과 남녀 의복의 잔누비질,³⁷⁾
상침질,³⁸⁾ 껌음질³⁹⁾과
외울뜨기⁴⁰⁾ 고두누비⁴¹⁾

1. (Mr. Sim's Personal History) Mr. Sim is a descendent of a fallen high class family. He became blind at the age of twenty.

[Aniri] Once upon a time, there lived a blind man in a village called Peach Blossom Village.

His last name is Sim, and his first name is Hak-gyu.

His family once was eminent and powerful.

But all that changed and he became blind at twenty.

His family no longer serves in the government, and has lost the fame.

He doesn't have a close relative.

Besides, he is blind.

So who would respect him?

Being a descendent of a high class family, he is moral.

He is careful in his behavior.

He is widely respected by people.

His wife, Mrs. Gwak, is wise and intelligent.

Being knowledgeable, she can handle anything.

She works as a day laborer.

2. (Mrs. Gwak Works as a Day Laborer) Mrs. Gwak supports Mr. Sim by working as a day laborer.

[Jungjungmori] Mrs. Gwak does needlework on an official's, a Toist's, a scholar's, causal, and military clothes.

She quilts military, male, and female clothes.

She sews the edge of clothing with a needle.

She makes a headband and does fine needlework up and down.

서답⁴²⁾빨래,
 하절⁴³⁾ 의복, 한삼⁴⁴⁾ 고의⁴⁵⁾ 망근⁴⁶⁾ 꾸미기,⁴⁷⁾
 배자,⁴⁸⁾ 단추,⁴⁹⁾ 토시,⁵⁰⁾
 보선, 행전,⁵¹⁾ 줍치,⁵²⁾ 허리띠,⁵³⁾ 약낭,⁵⁴⁾ 볼치,⁵⁵⁾
 휘양⁵⁶⁾이며, 복건,⁵⁷⁾ 풍채,⁵⁸⁾ 처네,⁵⁹⁾ 주의,⁶⁰⁾
 갓은 금침⁶¹⁾에 수놓기와
 각대,⁶²⁾ 흥배,⁶³⁾ 학 그리기.
 일년 삼백육십일 잠시도 놀지 않고,
 돈⁶⁴⁾을 모아서 양⁶⁵⁾ 짓고, 양을 모아서 관⁶⁶⁾ 지어,
 이웃사람께 빚 주었다가 받어들여,
 춘추 시향⁶⁷⁾ 봉제사,⁶⁸⁾
 앞 못 보는 가장⁶⁹⁾ 공대⁷⁰⁾ 정성대로 공경하니,
 상하인리⁷¹⁾ 노소⁷²⁾ 없이 뉘가 아니 칭찬허랴!

3. (기자 치성)⁷³⁾ 괘씨부인이 자식을 낳기 위하여 성을 드리다가 선녀가 품안으로 들어오는 태몽을 꾸다.

[아니리] 하루는 심봉사 자기 마누라를 불러,
 “여보, 마누라! 사람마다 부부야 뉘 없으리오?
 마누라는 전생에 날과⁷⁴⁾ 무삼⁷⁵⁾ 인연으로 이 세상의 부부되어,
 앞 못 보는 가장 나를 한 시, 반 때⁷⁶⁾ 놓지 않고
 의복, 음식 때맞추어 지성⁷⁷⁾으로 공대하니,
 나는 편타⁷⁸⁾ 하려니와,
 마누라 고생살이⁷⁹⁾ 간장⁸⁰⁾이 다 녹는 듯하오.
 날⁸¹⁾ 공대 그만하고 의논이나 합시다.

She washes clothes.
She adorns summer clothes, ramie underwears, trousers, and headbands.
She works on a female vest, a button, wristlets, socks, leggings, a bag, a string, a round bag, a muff, a headgear, a cloth headgear, a furred headgear, a thin quilt, and a coat.
She embroiders all sorts of quilts and pillows.
She makes a belt and draws a crane on a nobilities' clothing.
She doesn't take a rest all the year around.
She earns money little by little.
She lends it to her neighbor.
She holds a ritual to her husband's ancestors.
She consistently takes good care of her blind husband.
Everybody in her village and a neighboring village praises her.

3. (Praying for a Child) Mrs. Gwak prays to gods for a child. One day she dreams a dream in which a goddess comes into her bosom.

[Aniri] One day, Mr. Sim speaks to his wife.
“Hello, honey! We are a good couple like other couples.
But I feel sorry that your life is hard because you married me.
You don't take a rest even for a moment to support me.
You take good care of me with clothes and food.
I am physically happy.
But my liver melts down when I watch you suffer.
Take a break and let's discuss something.

우리 연장사십⁸²⁾인데
 슬하⁸³⁾에 일점 혈육⁸⁴⁾이 없으니,
 죽어 황천⁸⁵⁾에 돌아간들 무삼⁸⁶⁾ 면목⁸⁷⁾으로 선영⁸⁸⁾을 대하오리까?
 명산대찰⁸⁹⁾ 신공⁹⁰⁾이라도 드러
 남녀간⁹¹⁾에 놓고 보면 그 아니 좋겠소?”
 괘씨부인 이른 말씀,
 “자식 보고 싶은 마음이야 무삼 일을 못하리까마는,
 가군⁹²⁾의 정대하십⁹³⁾을 몰라 발설⁹⁴⁾치 못했삽더니,
 오늘날 말씀하옵시니 지성 신공 하오리다.”
[중모레] 명산대찰 영신당⁹⁵⁾과
 고묘⁹⁶⁾ 충사⁹⁷⁾의 석왕사⁹⁸⁾며,
 제불⁹⁹⁾ 제천¹⁰⁰⁾
 보살¹⁰¹⁾ 미륵¹⁰²⁾ 나한불공¹⁰³⁾ 신중맞이¹⁰⁴⁾ 칠성불공¹⁰⁵⁾
 가사시주¹⁰⁶⁾ 창호시주¹⁰⁷⁾ 인등시주,¹⁰⁸⁾
 집에 들어 있는 날도
 성주¹⁰⁹⁾ 조왕¹¹⁰⁾ 당산¹¹¹⁾ 천룡¹¹²⁾ 군웅제¹¹³⁾를 다 드리니,
 공든 탑이 무너지며,
 힘든 남기¹¹⁴⁾가 꺾어질까?
 갑자 사월 초파일날¹¹⁵⁾ 한 꿈을 얻었구나.
 서기¹¹⁶⁾가 반공허고,¹¹⁷⁾
 오채¹¹⁸⁾ 영롱허더니만,
 일개¹¹⁹⁾선녀 학을 타고 하늘로¹²⁰⁾ 내려올 제,
 머리에 오색¹²¹⁾ 채관,¹²²⁾ 몸에는 강선의¹²³⁾요,
 월패¹²⁴⁾를 느짚이¹²⁵⁾ 차고, 옥패¹²⁶⁾ 소리가 쟁쟁,¹²⁷⁾
 계화가지¹²⁸⁾를 손에 들고
 부인전¹²⁹⁾ 읊¹³⁰⁾을 하며 옆에 와 앉는 거동,¹³¹⁾

We are approaching forty.
 Yet we don't have a child.
 After I die, with what face would I see my ancestors?
 Pray for a child in a large buddhist temple on a famous mountain.
 Wouldn't it be nice if we have a child, a boy or a girl?"
 Mr. Gwak responds,
 "What would I not do to have a child?
 I didn't express my thought because I didn't know yours.
 Since you did it today, I will start praying to gods."
[Jungmori] She prays in buddhist temples and shrines on famous mountains.
 She prays in shrines for worshiping gods and in a temple.
 She prays to buddhist saints, gods in heaven,
 statues of Buddha, a Buddha's disciple, a god general, and the Ursa Major.
 She donates clothes, papers, and lamp oil to buddhist monks.
 Even when she is at home,
 she prays to the house god, the kitchen god, the terrace god,
 the sky god, and the earth god.
 Inevitably, her hard efforts pay off.
 Sincerity moves heaven.
 She has a dream at night in April.
 The air is filled with favorable energy.
 The colorful air is bright.
 A goddess comes down from heaven on a stork.
 She wears a colorful hat and divine clothes.
 She wears jade ornaments which make beautiful sounds.
 She holds a cinnamon branch on her hand.
 She gives a big bow to Mrs. Gwak and sits down in front of her.

뚜렷한 달정신¹³²⁾이 품안으로 떨어진 듯,
 심신이 산란¹³³⁾하여 진정키 어렵더니,
 선녀가 여짜오되, “서왕모¹³⁴⁾의 딸일러니,
 반도¹³⁵⁾ 진상¹³⁶⁾가는 길에
 옥진비자¹³⁷⁾를 잠깐 만나 수어¹³⁸⁾ 수작¹³⁹⁾을 하옵다가,
 시가¹⁴⁰⁾ 조금 늦었기로
 상제¹⁴¹⁾께 득죄하여¹⁴²⁾ 인간¹⁴³⁾에 내치시매,¹⁴⁴⁾
 갈 바를 모르고 방황더니,
 태상노군¹⁴⁵⁾ 후토부인¹⁴⁶⁾ 재불¹⁴⁷⁾ 보살¹⁴⁸⁾ 석가님¹⁴⁹⁾이 댁으로 지시
 하옵기에,
 명을 받아 왔사오니
 어여뻐¹⁵⁰⁾ 여기소서.”

4. (심청 출생) 곽씨부인이 태기가 있어 열 달 동안 조심하 며 지내다가 딸을 낳는다.

[아니리] 놀래어 깨달으니
 남가일몽¹⁵¹⁾이었다.
 양주¹⁵²⁾ 몽사¹⁵³⁾ 의논컨대
 둘이 꿈이 꼭 같은지라.
 그날 밤 어찌 되었든지,
 그 달부터 태기¹⁵⁴⁾ 있어
 십삭¹⁵⁵⁾을 배설¹⁵⁶⁾하는데,
 곽씨부인 천성¹⁵⁷⁾이 암전한 부인이라
 꼭 이렇게 허든 것이었다.

It looks as if a clear energy from the moon fell on her breast,
Mrs. Gwak is in raptures and can't calm herself down.
The goddess says, "I am a daughter of a goddess.
I was to offer a divine peach to the King of Heaven.
I had fun briefly with a goddess on my way back home.
But I was a little late.
The King of Heaven expelled me to the world of human beings.
I didn't know where to go.
Lao-tzu, a goddess, Bodhisattva, and Buddha directed me to
your family.
I took their order.
Please take good care of me."

**4. (The Birth of Sim Cheong) Mrs. Gwak conceives,
takes good care of herself for ten months, and gives
birth to a girl.**

[Aniri] Mrs. Gwak is petrified and wakes up.
It was a dream.
The couple discuss their dreams.
They learn that they had the same dream.
Something happens at that night.
From that month, she shows the signs of pregnancy.
She is pregnant for ten months.
Mrs. Gwak has a good character.
She spends the next ten months as follows:

[중중모래] 석부정부좌¹⁵⁸⁾ 할부정불식¹⁵⁹⁾ 이불청음성,¹⁶⁰⁾ 목불시악색.¹⁶¹⁾
 십삭¹⁶²⁾이 점점 차더니,
 하루는 해복¹⁶³⁾ 기미¹⁶⁴⁾가 있는디,
 “아이고, 배야! 아이고, 아이고, 허리야!”
 “거 배가 아파요?”
 심봉사 손을 꼽아 이윽히¹⁶⁵⁾ 생각터니,
 일변¹⁶⁶⁾은 반갑고, 일변은 놀래어,
 밖으로 더듬더듬 나가더니,
 “여보소, 귀덕이네!
 거 방에나 좀 들어가 보소.”
 쪼 한 단,¹⁶⁷⁾ 새 소반¹⁶⁸⁾에 정화수¹⁶⁹⁾ 떠 받쳐 들고
 단정히 꿇어앉아 순산¹⁷⁰⁾허기를 바라더니,
 이향¹⁷¹⁾이 만실¹⁷²⁾허고
 채색¹⁷³⁾ 안개 두르더니,
 혼미중¹⁷⁴⁾에 탄생허니 선인옥녀¹⁷⁵⁾의 딸이로다.

5. (삼신 축원) 심봉사가 삼신님께 딸의 복을 빈다.

[아니리] 아이를 삼¹⁷⁶⁾ 갈라 뉘고,
 첫국밥¹⁷⁷⁾ 얼른 지어
 삼신상¹⁷⁸⁾에 받쳐놓고
 삼신¹⁷⁹⁾에 비는디,
 눈 밝은 사람 같으면 순순히 빌련마는,
 봉사는 매양¹⁸⁰⁾ 마음이 껍성¹⁸¹⁾이라,
 남이 들으면 싸움허듯 빌것다.

[Jungjungmori] Mrs. Gwak avoids bad seats, bad-looking food,
 obscene language, and bad colors.
 Ten months gradually passed.
 One day, she shows the signs of labor.
 “Ouch! My belly hurts! My waist hurts!”
 “Does your belly hurt?”
 He folds his fingers to count and thinks for a while.
 He is delighted on the one hand and scared on the other.
 He moves outside gropingly.
 “Hey, Mrs. Gwideok!
 Please go to my room.”
 He brings a bundle of straws and pure water on a small dining
 table.
 He kneels down and prays for an easy birth.
 Exotic fragrance fills the room.
 A colorful mist drifts around.
 In this faint atmosphere, a girl is born as beautiful as a goddess.

5. (Praying to God of Birth) Mr. Sim prays to the gods for the happiness of his girl.

[Aniri] Mr. Sim cuts the placenta off and lays the baby down.
 He prepares the soup and rice quickly.
 He places them on a table for God of Birth.
 Mr. Sim prays to the god.
 If he had sight, he would pray in a polite manner.
 Being blind, he always loses his temper.
 He prays as if he fought with someone.

[중중모리] “삼십삼천¹⁸²⁾ 도솔천¹⁸³⁾ 석가세존¹⁸⁴⁾ 미륵님네,¹⁸⁵⁾
 화위동심¹⁸⁶⁾하야 다 굽어보옵소서!
 사십에 점지¹⁸⁷⁾한 딸
 한두 달에 이슬 맺고,
 석 달에 피 어리고,¹⁸⁸⁾
 녁 달에 인형¹⁸⁹⁾이 삼겨,¹⁹⁰⁾
 다섯 달 오포¹⁹¹⁾ 나고,
 여섯 달에 육점¹⁹²⁾ 삼겨,
 일곱 달 칠규¹⁹³⁾ 열려,
 여덟 달에 사만팔천 털이 나고,
 아홉 달에 구구¹⁹⁴⁾ 열려,
 열 달에 찬 짐 받아,¹⁹⁵⁾
 금강문¹⁹⁶⁾ 하달문¹⁹⁷⁾ 뻘문¹⁹⁸⁾ 살문¹⁹⁹⁾ 고이²⁰⁰⁾ 열어
 순산²⁰¹⁾으로 해산²⁰²⁾허니,
 삼신 덕택 넓으신 은덕 백골난망²⁰³⁾ 잊으리까?
 다만 독녀²⁰⁴⁾ 딸이오나,
 명²⁰⁵⁾은 동방삭²⁰⁶⁾의 명을 주고,
 복은 석승²⁰⁷⁾같은 복을 주어,
 태임²⁰⁸⁾의 덕행이며,
 반희²⁰⁹⁾의 재질²¹⁰⁾이며,
 대순²¹¹⁾ 증자²¹²⁾ 효행이며,
 축부단²¹³⁾의 복을 주어,
 외 분듯,²¹⁴⁾ 달 분듯 잔병²¹⁵⁾ 없이 잘 자라나서
 일취월장²¹⁶⁾을 시켜주오.”

[Jungjungmori] “All gods in all heavens, Buddha, and Maitreya!
Please form a union and listen to me!
You assigned a daughter to me, a forty year old man.
In the first and the second months, dewdrops got together.
In the third month, a lump of blood was created.
In the fourth month, she acquired the shape of a human being.
In the fifth month, she obtained the five internal organs.
In the sixth month, she came by all the six emotions.
In the seventh month, she got all the seven holes in the head.
In the eighth month, hair began to grow.
In the ninth month, all the nine holes opened.
In the tenth month, she became full of energy.
She came out gracefully through the door of the bone and flesh.
It was an easy birth.
I am eternally grateful to God of Birth for her virtuous work.
She is an only daughter.
Please help her live long.
May she be rich!
May she be a good wife!
May she be intelligent!
May she be a good child!
May she be rich!
May she grow up well without being sick!
May she progress everyday!”

6. (심봉사 딸을 어름) 심봉사가 딸을 안고 어른다.

[아니리] 순산²¹⁷⁾을 하였으나,
남녀간에 무엇인지 몰라,
“여보, 영감! 남녀간에 무엇인지 좀 말씀이나 해주세요.”
“허, 내가 아이를 만져봐야지
어떻게 알겠소?
부인네들은 저렇게 욕심이 많단 말이야.”
더듬더듬 더듬어갈 제,
배꼽 밑을 거침없이 지나가니,
“하! 아마도 마누라같은 아이를 낳았나보오.”
곽씨부인 서운하여,
“만득²¹⁸⁾으로 낳은 자식 딸이라니 원통하오.”
심봉사 이른 말이, “여보, 마누라, 그 말 마오.
아들도 잘못 두면 욕급선영²¹⁹⁾하는 것이요,
딸이라도 잘 길러서
예절 먼저 가르치고, 침선²²⁰⁾ 방적²²¹⁾ 시켜서,
요조숙녀²²²⁾ 좋은 배필 군자호구²²³⁾ 잘 살게 되면,
외손봉산들²²⁴⁾ 못하리까? 그런 말 마오.”
심봉사가 어찌 마음이 좋든지, 아직 물도 덜 마른 얘기를 놓고 어른난디,²²⁵⁾
[중중모리] “둥둥둥, 내 딸이야! 어허 둥둥, 내 딸이야!
금자동²²⁶⁾인가, 옥자동?²²⁷⁾
금을 준들 너를 사며, 옥을 준들 너를 사라?
둥둥둥, 내 딸이야! 어허 둥둥, 내 딸이야!
날아가는 학선이,²²⁸⁾ 얼음 궁기는²²⁹⁾ 수달피,²³⁰⁾ 백미²³¹⁾ 닷 섬²³²⁾의
뉘²³³⁾ 하나.²³⁴⁾

6. (Mr. Sim Dandles His Daughter) Mr. Sim dandles his daughter.

[Aniri] It was an easy birth.

But Mrs. Gwak doesn't know whether the baby is a boy or a girl.

"Hello, darling. Tell me whether the baby is a boy or a girl."

"I haven't yet touched the baby.

How can I know?

A woman wants too much."

He touches the baby.

His hand slides down below the navel.

"Ha! It appears you gave birth to a baby like you."

Mrs. Gwak is disappointed.

"The late child is a girl to my chagrin!"

Mr. Sim responds, "Darling, don't say that.

A bad son can be a disgrace to our family.

Let's raise our daughter well.

Let's teach her etiquettes, needlework, and then weaving.

Let's choose a successful man as her husband.

Their child will hold a ritual for us."

Mr. Sim is so happy that he hugs and dandles the baby who is still wet.

[Jungjungmori] "Oh, my daughter! Oh, my daughter!

You are gold and jade.

You are more valuable than gold or jade.

Oh, my daughter! Oh, my daughter!

You are more precious than a flying divine crane and an otter in the ice hole,

설설이²³⁵ 기어라.

어허 둥둥, 내 딸이야!

남전북토²³⁶를 장만헌들 이에서²³⁷ 반가우며,

산호 진주를 얻었은들 사랑흠기²³⁸가 너 같으랴?

둥 둥둥, 어허 둥둥, 내 딸이야!

너도 어서 수이²³⁹ 자라나서,

현철²⁴⁰하고 효행이 있어

애비귀염²⁴¹을 쉬²⁴² 보여라.

둥둥 둥둥, 어허 둥둥, 내 딸이야!”

7. (곽씨부인 유언) 산후별증이 나서 죽게 된 곽씨부인이 심봉사에게 유언을 한다.

[아니리] 이러구러²⁴³ 세월을 보낼 적에,

곽씨부인 손데²⁴⁴ 없어 가세가 빈한²⁴⁵한고로,

빨래도 하고, 남의 일도 하고

산후의 별증²⁴⁶이 일어났던 것이었다.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다리야!”

병세 점점 위중²⁴⁷하니,

또한 살지 못할 줄 짐작하고

세세²⁴⁸ 유언을 다 하겠다.

[진양조] 가군²⁴⁹의 손길²⁵⁰을 부여잡고,²⁵¹

“아이고, 여보 영감!

우리 둘이 서로 만나 해로백년²⁵² 살까 허고,

앞 못 보는 가군께서

Toddle slowly.
Oh, my daughter!
I feel happier with you than I would with a lot of lands.
You are more lovely than pearls to me.
Oh, my daughter!
Please grow up quickly.
Be intelligent and kind to your parents.
Be cute to your father quickly.
Oh, my lovely daughter!"

7. (The Last Words of Mrs. Gwak) Mrs. Gwak, having childbirth complication, says her last words to Mr. Sim.

[Aniri] Mr. Sim spends time with the baby.
Since they are poor, and nobody can work besides Mrs. Gwak,
she does laundry and works as a day laborer.
She has a childbirth complication.
"Ouch! My waist hurts! My legs hurt!"
The symptom gets serious.
She believes she can't live anymore.
She gives her last words in detail.

[Jinyangjo] Mrs. Gwak holds her husband's hands.
"Oh, my darling!
We promised to live together until we die.
My husband is blind.

내가 조금 범연하면²⁵³⁾ 노염²⁵⁴⁾ 끼기 쉽겠기로,
 남촌 북촌 품²⁵⁵⁾을 팔아 극진공대²⁵⁶⁾를 하였더니,
 천명²⁵⁷⁾이 이뿐이던가,
 인연이 끊쳤는지
 하릴없이 죽게가 되니,
 눈을 어이 감고 가며, 애통함을 어이 허리?
 저 아이 자라나 제 발로 걷거들랑 앞세우고 길을 물어, 내 무덤 앞을
 찾아 와겨²⁵⁸⁾
 모녀상봉²⁵⁹⁾을 시켜를 주면 혼이라도 한 없겠소.
 저 아이 이름을 심청이라 불러주오.
 차생²⁶⁰⁾에 미진한²⁶¹⁾을
 후생²⁶²⁾에 나 다시 만나 이별 없이 사사이다.²⁶³⁾
 혈 말이 장차 무궁 허나²⁶⁴⁾
 숨이 가빠서 못하겠소.”
 잡았던 손길을 시르르르 놓고
 한숨쉬고 돌아누워, 어린아이를 끌어안고
 서²⁶⁵⁾도 차고, 낮도 대고 문지르며,
 “천지도 무심코, 귀신도 야속허다.
 내가 먼저 삼기거나,²⁶⁶⁾
 내가 조금 더 살거나,
 너 낳자 나 죽으니,
 철천지²⁶⁷⁾ 깊은 한을 널로 하야²⁶⁸⁾ 품게가 되니,
 죽는 어미 산 자식이 생사간에²⁶⁹⁾ 무삼²⁷⁰⁾ 죄랴?”
[중모레] 한숨쉬어 부는 바람 삼삼비풍²⁷¹⁾이 되어 있고,
 눈물겨워 오는 비는 소소세우²⁷²⁾ 나리도다.
 하물며 사람이야 뉘가 아니 슬퍼할까?
 자는 듯이 숨이 진다.

If I had not been careful a little, you have lost temper.
I intended to serve you well by working as a day laborer.
But my life stops here.
Our relationship ends here.
I can't help from dying.
I can't close my eyes due to my grief.
If that child grows up and walks on her own, please visit my
tomb with her.
If I see her, my soul will feel better.
Please call that child Cheong.
There is something to be desired in our relationship in this
world.
Let's meet again in the next world and live without parting.
I have many things to say.
But I can't breathe anymore.”
She lets go of his hand.
She sighs, turns around, and hugs the baby.
She clicks her tongue and rubs her face.
“Heaven and gods are heartless.
You should have been born earlier.
Or I should live a little more.
I die upon your birth.
A grief is rooted deep in my mind because of you.
Why does death separate the mother and the living child?”

[Jungmori] A sigh becomes a wind creating plaintive sounds.
A fine rain comes in sad, quiet, and desolate mode.
How can a human being not feel sad?
She takes the last breath as if she falls asleep.

8. (심봉사 통곡) 심봉사가 곽씨부인이 죽은 것을 뒤늦게 알고 몸부림치며 통곡한다.

[아니리] 유언 소리 끊어지니,
심봉사 아무런 줄 모르고,
“여보, 마누라! 병든다고 다 죽겠소?
내 의가²⁷³)에 가 다녀올 테니
가만히 누워 계시오.”
약방을 찾아가,
약을 속히²⁷⁴) 지어 집으로 돌아와,
수일승전반복²⁷⁵)에 얼른 짜 들고
방에 와,
“여보, 마누라! 이 약 좀 자시오.²⁷⁶
이 약을 자시면 직효²⁷⁷)하리라 합디다.”
아무리 부르고, 천만 번 불러본들 죽은 사람이 대답할 리가 있나.
심봉사 의심이 나서
약 그릇을 놓고,
손을 들어 더듬더듬 만져보니,
얼음같이 몸이 차고,
사지²⁷⁸)에 맥이 없으며,
콧궁기²⁷⁹)에 찬바람이 돌거늘,²⁸⁰)
심봉사 그제야 죽은 줄을 알고
한번 미치겠다.
[중중모리] “허허, 이게 웬 일이오!
동네사람들! 우리 마누라가 죽었소!
허! 참으로 죽었소.
참으로 죽을 줄 알았으면, 약 지러 가지 말고

8. (Mr. Sim's Wailing) Mr. Sim later realizes that Mrs. Gwak died, and wails wildly.

[Aniri] Mrs. Gwak finished her last words.
Mr. Sim doesn't know anything.
"Hello dear. Not all sick people die.
I will go and get medicine from a doctor.
Wait for me here."
He goes to a drug store.
He brings medicine quickly.
He pours water, boils the herb, and squeezes it.
He comes back into the room.
"Honey, please take this medicine.
It will have an immediate effect."
No matter how hard he calls, she doesn't answer.
Something occurs in his mind.
He puts the medicine bowl down.
He holds up his hand and touches her.
She is as cold as ice.
Her four limbs don't have strength.
There is no breath in her nostrils.
He now realizes that his wife has died.
He goes crazy.

[Jungjungmori] "I can't believe this!
Villagers! My wife has died.
God, she really died.
If I had known you would die, I shouldn't have gone for the
medicine.

머리맡에 앉었다가 극락세계²⁸¹⁾로 가라고 염불²⁸²⁾이나 외울 것을!
 병불능살인²⁸³⁾이요,
 약능활인²⁸⁴⁾이라더니,
 약이 도리어 원수로다.”
 약그릇을 번뜻 들어 방바닥에 부딪치며,
 뺏다 거꾸러지며, 대그르르르 궁굴러²⁸⁵⁾ 보고,
 가삼²⁸⁶⁾을 쿵쿵 치고,
 머리도 지껄지껄,²⁸⁷⁾
 두 발을 동동²⁸⁸⁾ 동동,
 여광여취²⁸⁹⁾ 실성발광
 남지서지²⁹⁰⁾를 가리켜,
 “아이고, 마누라! 마오. 죽지 마오.
 평생의 정한 뜻이 사생동거²⁹¹⁾하랴더니,
 염라국²⁹²⁾이 어디라고 날 버리고 가려시오?
 마누라, 마누라, 마누라, 이게 웬 일이오?
 인제 가면 언제 와요?
 청춘작반호환향²⁹³⁾의 봄을 따라 오라시오?
 청천유월내기시²⁹⁴⁾의 달을 좇아 오라시오?
 해도 졌다 다시 돌고,
 꽃도 졌다 다시 피고,
 하늘이 장천구만리²⁹⁵⁾되 삼경²⁹⁶⁾이 되면 이슬 오고,
 북경²⁹⁷⁾이 머다 해도 사신행차²⁹⁸⁾가 왕래헌디,
 마누라는 한번 가면 다시 오지 못하노니,
 구차히 사자²⁹⁹⁾ 현들 뉘를 믿고 살어나?
 동지³⁰⁰⁾ 대한³⁰¹⁾ 긴긴 밤에 젓 먹고자 우는 자식
 뉘 젓 먹여 길르리까? 아이고, 마누라!”

I should have been with you and prayed that you go to heaven.
 They say that illness can't kill a person,
 and medicine can save a person.
 The medication was rather an enemy."
 Mr. Sim holds up and throws the medicine bowl on the floor.
 He falls down and tumbles over.
 He hits his chests with his fists.
 He shakes his head back and forth.
 He jumps up and down.
 He looks as if he were crazy or drunk.
 He points to the south and the west.
 "Hello, my dear. Don't die.
 We promised to live and die together.
 How can you go to the world of the dead, leaving me behind?
 Oh, my dear. Oh, my darling. Oh, my dear.
 When are you coming back?
 Are you coming back when spring comes?
 Are you coming back when the moon rises?
 The sun set and rose back.
 Flowers fell down and bloomed again.
 The sky is wide and far, but dew comes down at night.
 Beijing is far, but diplomats come and go.
 But my wife who has gone will never come back.
 Even if I am willing to live, who should I depend on?
 The baby will cry for milk at long night in the cold winter.
 Whose milk should I give her? Alas, honey!"

내리둥굴³⁰² 치둥굴며³⁰³

목제비질³⁰⁴을 덜컹덜컹.³⁰⁵

이리저리 헤매며,

“아이고, 마누라! 아이고, 이를 어쩔꼬?”

9. (상여소리) 동네사람들이 상여소리를 하며 곽씨부인의 상여를 메고 나간다.

[아니리] 동네사람들이 모아들어,

“고분지통³⁰⁶ 진정하오.”

“허허, 여러분들이 오시었소.

어따,³⁰⁷ 우리 곽씨부인이 날 버리고 세상을 떠났소그려.”

“가궁³⁰⁸할 일ियो.”

동네사람들이 모아 공론³⁰⁹하되,

“현철³¹⁰하신 곽씨부인이 어느 사이 죽었으니,

감장³¹¹이나 해줌이 어떠하오?”

공론이 일구여출³¹²이어늘,

의금관곽³¹³ 정히³¹⁴ 하야

소방상³¹⁵ 대뜰³¹⁶ 우에³¹⁷ 결관³¹⁸허여 내어놓고,

지상여³¹⁹를 곱게 꾸며,

명정³²⁰ 공포³²¹ 삽선³²²등물³²³ 좌우로 갈라 세우고,

발인제³²⁴를 지낼 적에,

“영이기가 왕즉유택

재진견례 영결종천!”³²⁵

[중모리] “관하……. 어허 어허!”

요령³²⁶은 땡그랑 땡그랑 땡그랑 땡그랑.

He tumbles over, up and down.
His head falls down as if his neck were broken.
He moves around.
“Oh, my honey. What should I do now?”

9. (The Bier Song) Villagers sing the bier song while carrying Mrs. Gwak's bier.

[Aniri] Villagers come to Mr. Sim's house.
“Mr. Sim, please calm down.”
“Hello, villagers.
My wife has just died, leaving me behind.”
“Oh, we feel sorry.”
The villagers talk to each other.
“Mrs. Gwak, a good woman, has died.
Why don't we have her funeral on behalf of Mr. Sim?”
Opinions from many mouths are in an agreement.
They prepare a clean shroud and coffin.
They prepare a bier tied with a string in front of the room.
They decorate a bier with paper flowers.
A banner, a towel, boards, and so forth are displayed.
They hold a ritual.
“The soul is on the bier to a tomb.
We say with respect good-bye for good!”

[Jungmori] “Oh my god!”
A bell jingles. Jingle, jingle, jingle, jingle.

“어 넘차 너화너.”

“현철하신 꺾씨부인

행실도 음전허고,³²⁷⁾

재질³²⁸⁾이 특수터니마는

어느 사이에 죽었네그려.”

“어너 어어 넘차 어이 가리 넘차 너화너.”

땡그랑 땡그랑 땡그랑 땡그랑.

“어허 넘차 너화너.”

“북망산³²⁹⁾이 머다더니³³⁰⁾

건너 안산³³¹⁾이 북망이로구나.”

“어너 어 넘차 어이 가리 넘차 너화너.”

“여보소, 상두꾼³³²⁾ 말을 듣소.

너도 죽어 이 길이요,

나도 죽어서 이 길이라.

인간 세상을 떠나는 것은 모두 다 일반이로구나.”

“어너 어어 넘차 어이 가리 넘차 너화너.”

땡그랑 땡그랑 땡그랑 땡그랑.

“어 넘차 너화너.”

“남문을 열고

파루³³³⁾를 치니,

계명산천³³⁴⁾에

해 밝아온다.”

“어너 어으 넘차 어이 가리 넘차 너화너.”

“새벽 종달이 지지울³³⁵⁾ 제

달이 지는구나.”

“어허 넘차 너화너. 어너 어 허으 넘차 어 넘차 너화너.”

“Yo-ho! Yo-ho!”

“Mrs. Gwak was wise.

She was nice and kind.

She was talented and special.

But she has already died.”

“Yo-ho! Yo-ho! How should we go? Yo-ho!”

Jingle, jingle, jingle, jingle.

“Yo-ho! Yo-ho!”

“The mountain of the dead is said to be far.

It is that mountain in front of us.”

“Yo-ho! Yo-ho! How should we go? Yo-ho!”

“Hey, bier-carriers! Listen to me.

If you die, you go this way.

If I die, I go this way too.”

All of us will leave the world of human beings.”

“Yo-ho! Yo-ho! How should we go? Yo-ho!”

Jingle, jingle, jingle, jingle.

“Yo-ho! Yo-ho!”

“The south gate is open.

The curfew-lifting bell rings.

The rooster cries on a mountain.

The sun rises.”

“Yo-ho! Yo-ho! How should we go? Yo-ho!”

“A skylark cries in the early morning.

The moon sets on a mountain.”

“Yo-ho! Yo-ho! How should we go? Yo-ho!”

그때의 심봉사는 굴관제복³³⁶⁾ 정히 하고,
 상부³³⁷⁾ 뒤를 검쳐잡고,³³⁸⁾
 ‘아이고, 아이고.’ 울고 가며,
 상부 뒤채³³⁹⁾에다 목도 달려보고,³⁴⁰⁾
 손뻑 치고 ‘허허.’ 웃어도 보며,
 “아이고, 마누라!”
 상여는 그대로 나가면서,
 “어 넘차 너화너.”
 “아이고, 여보 마누라!
 나하고 가세. 나하고 가세.
 눈먼 가장 간난 자식 불고인정³⁴¹⁾을 바리시고³⁴²⁾
 영결중천³⁴³⁾을 허네그려.
 산첩첩 노망망³⁴⁴⁾의
 다리 아파 어이 가며,
 일침침 월명명³⁴⁵⁾의
 어느 곳에 가서 쉬어갈까?
 부창부수³⁴⁶⁾ 우리 정곡³⁴⁷⁾
 날과³⁴⁸⁾ 둘이 함께 가세.
 아이고, 마누라! 무정허고 야속허네.”
 “어 넘차 너화너.”
 도화동 남너노소 호상³⁴⁹⁾으로 따라가며 심봉사를 만류한다.
 앞에 상두꾼이 선소리³⁵⁰⁾한다.
 “먼 산 호랑이 술주정허고,
 물가 가재는 사두걸음³⁵¹⁾친다.”
 “어 넘차 너화너 어너 어으 넘차 어넘차 너화너.”

Meanwhile, Mr. Sim puts his clothes in order.
He holds the end of the bier.
He cries as he follows the bier.
He hangs his neck at the end of the bier.
He claps his hands and laughs.
“Alas! My darling!”
The bier moves forward.
“Yo-ho! Yo-ho!”
“Alas, my honey!
Let me follow you.
You are cruel to leave a blind husband and a little baby.
You left for good.
We have a long journey over mountains.
How can I go when my legs hurt?
It is getting dark, and the moon is dim.
Where can I take a rest?
We were a good couple.
Let me go with you.
Oh, my dear! You are cruel and heartless.”
“Yo-ho! Yo-ho!”
Everybody from Peach Blossom Village follows and consoles Mr. Sim.
A bier-carrier up front leads the song.
“A tiger on a distant mountain is drunken.
A crayfish walks backward.”
“Yo-ho! Yo-ho! How should we go? Yo-ho!”

10. (평토제) 심봉사가 평토제 제문을 지어 읽으며 슬피 운다.

[아니리] 향양지지³⁵² 가려

안장³⁵³을 지은 후에

평토제³⁵⁴를 지낼 적에,

봉사에게 무슨 축문³⁵⁵이 있으리오마는,

이십 안 봉사라

식자³⁵⁶나 넉넉하든가보더라.

[창조] “차호³⁵⁷부인, 차호부인,

유차요조숙녀혜여,³⁵⁸

행불구혜고인이라.³⁵⁹

기백년이해로³⁶⁰터니

홀연몰언귀오?³⁶¹

유치자이영서혜여,³⁶²

이걸 어찌 길러내며,

백양모의 일락헌디³⁶³

산은 첩첩³⁶⁴ 밤 깊어,

여추추두루혜여,³⁶⁵

무슨 말을 허자헌들

격유현이로수혜여,³⁶⁶

게 뉘라³⁶⁷서 대답하리?

선래상지상봉³⁶⁸허여

차생³⁶⁹에는 하릴없네.”³⁷⁰

[진양조] “주과포혜³⁷¹ 박전혜여,³⁷² 많이 먹고 돌아가오.”

축문을 외우더니마는

무덤 앞에 가 거꾸러지더니마는,

10. (Burial Ritual) Mr. Sim weeps, holding the burial ritual in front of the tomb.

[Aniri] A sunny place is selected.
The coffin is carefully buried.
The burial ritual is held.
It sounds impossible that a blind man has an ode.
But he became blind at twenty.
He is knowledgeable.

[Poetic Mode] “Woe to me, my wife!
You were a good wife.
You were a great person.
We promised to grow old together.
How could you come back when you suddenly died?
You left for good, leaving a child behind.
How can I raise her?
The sun already sets over a tree.
Mountains surround us at deep night.
Ghosts seem to make sounds from all directions.
I want to speak with you.
But the world of the dead and the world of the living are separate.
Who could answer me?
Let’s meet again in a divine world.
I can’t speak with you in the world of living anymore.”

[Jinyangjo] “Please help yourself to the poor food on the altar.”
Mr. Sim finishes reciting his ode.
He falls down in front of the tomb.

“아이고, 여보 마누라!
 앞산도 첩첩하고,
 뒷산도 적막헌데,
 마누라의 영혼은 어느 곳으로 가겨시오?
 무정하고 야속하네.
 마누라 시체가 집안에 있을 때는 오히려 마음이 든든터니,
 오날부터는 외로운 이 신세가
 어느 장남³⁷³⁾ 자식이 내가 있소?
 일가 친척이 어데가 있소?
 아무도 없는 이 신세가
 누구를 대하여 의논을 허오리까?
 아이고, 마누라! 나는 가오.
 잘 사시오.³⁷⁴⁾ 마누라 부디 잘 사시오.”
 북통단장성³⁷⁵⁾으로 우니,
 장사³⁷⁶⁾의 요객³⁷⁷⁾들이, “봉사님, 그만 울고, 어서 갑시다.”
 심봉사 정신 차려 눈물 씻고,
 “허허, 수고들 많이 허셨소.
 은혜가 백골난망³⁷⁸⁾이오그려!”
 한숨쉬고 일어나더니마는
 집으로 돌아갈 제, 었더지고³⁷⁹⁾ 자빠지고 울며불며³⁸⁰⁾
 끌리어 돌아를 간다.

“Hello, honey.
There are many mountains in front.
The mountain in the back is dreary.
Where does your soul want to go?
You are cold and heartless.
When your body was at home, I felt rather secure.
But I am alone from now on.
Do I have a grown-up child?
Do I have a relative?
I have nobody to turn to.
Who should I talk with?
Alas, honey. I am leaving.
Take care. Honey, please take care.”
He bewails as if his intestine were cut off.
Guests to the funeral say, “Mr. Sim, please stop crying and get up.”
Mr. Sim collects himself and wipes tears.
“Thank you for the hard work.
I will never forget your favor.”
He takes a deep breath and stands up.
Coming back home, he falls over again and again in tears.
He is helped by others.

11. (심봉사 우는 딸을 달래) 동네사람들의 위로를 받고 집으로 돌아간 심봉사가 우는 딸을 달래며 슬퍼한다.

[중모리] 집이라고 들어서니
부엌은 적막허고,
방안은 텅 비었난디,
향내 쭉내³⁸¹)만 피어있다.
심봉사 실성발광³⁸²) 미치난디,
얼싸덜싸 춤도 추고, 허허 웃어도 보며,
지팽막대 홀어 짚고 이웃집 찾아가서,
“여보시오, 부인님네! 우리 마누라 여기 안 왔소?”
아무리 부르고 다녀도 종적이 바이없어,
집으로 돌아와 부엌을 굽어보며,
“마누라! 마누라! 거기 있소?”
허허, 내가 미쳤구나.”
방으로 다시 들어와
방 가운데 주저앉어 우두머니 앉았을 제,
그때의 귀덕이네 아기 안고 들어와,
“봉사님, 이 애기로 보더라도
너무 우지 마시오.”
“거 귀덕이넴가?
이리 주소.
어디 보세.
종종 와서 젓 좀 주소.”
귀덕이네는 건너가고,
아기 안고 자탄³⁸³)헐 제,

11. (Mr. Sim's Soothing the Baby) Consoled by the villagers, Mr. Sim comes back home and laments while soothing the crying daughter.

[Jungmori] Mr. Sim is back home.
The kitchen is quiet.
The room is empty.
Only the smell of incense and mugwort are left.
Mr. Sim goes crazy and wild.
He dances wildly and laughs loudly.
Using the cane, he goes to his neighbor's house.
"Hello, madam! Is my wife here?"
No matter how hard he calls her around, there is no answer.
He comes back home and faces the kitchen.
"Honey, are you there?"
Gee, I must be crazy."
He comes back into the room.
He sits in the middle of the room, absent-minded.
At that moment, Mrs. Gwideok comes in with the baby.
"Mr. Sim, think about this baby.
Don't cry too much."
"Are you Mrs. Gwideok?"
Let me take the baby.
Let me see.
Please come here often and give her milk."
Mrs. Gwideok goes over to her home.
He holds the baby in his arms and laments his hard fate.

먼 촌³⁸⁴의 닭이 우니,
 찬바람은 시르르르르.
 어린아이가 놀라 깨어 젖 달라고 슬피 운다.
 “응아! 응아!”
 심봉사 기가맥혀,
 “우지 마라.
 너의 모친은 먼 데 갔다.
 낙양동촌³⁸⁵ 이화정의 숙낭자³⁸⁶를 보러 갔다.
 황능묘 이비³⁸⁷한테 하소연을 허러 갔구나.
 가는 날은 안다마는
 오만³⁸⁸ 날은 막연쿠나.
 네 팔자가 얼마나 좋으면,
 너 낳은 칠일만에 너의 모친을 잃었겠느냐?
 우지 마라. 우지 마라.
 배가 고파 운다마는,
 내가 젖을 두고 안 주느냐?
 날 새면 젖 많이 얻어 멕여주마.
 우지 마라. 우지를 마라.
 우지 말라면 우지 마라.”

12. (젓동냥) 심봉사가 젓동냥으로 심청을 기른다.

[중중모리] 날이 차차 밝아지니,
 우물가 두레박³⁸⁹ 소리 심봉사 반기³⁹⁰ 듣고
 젖을 멕이러 나간다.

A rooster cries from a distant village.
A cold wind blows.
The baby is scared and cries sadly for milk.
“Eunga! Eunga!”
Mr. Sim is astonished.
“Please don’t cry.
Your mom went far away.
She went to meet an ancient girl on a pavilion.
She went to a shrine to tell ancient queens about her sad life.
We know when she left.
But we don’t know when she will come back.
You are born with a bad fate.
You lost your mom seven days after you were born.
Please don’t cry.
You cry because you are hungry.
But I don’t have any milk.
If the day breaks, I will feed you a lot of milk.
Please don’t cry.
I told you not to cry.”

12. (Milk-Begging) Mr. Sim raises Sim Cheong by begging for milk.

[Jungjungmori] The day breaks gradually.
Mr. Sim is delighted to hear bucket sounds near the well.
He goes to the well to get milk.

한편에 아기 안고, 또 한편에 지팡이 들고,
 더듬 더듬 더듬 더듬 더듬 찾아가,
 우물가 당도하여 애궁히³⁹¹⁾ 비는 말이,
 “여보시오, 부인님네.
 칠일 안에 모친 잃고
 젓 못 먹어서 죽게 되니,
 이 애 젓 좀 멕여주오.”
 보고 듣는 부인들이, “아이고, 그거 불쌍허구나.”
 젓을 많이 멕여주며,
 “여보시오, 봉사님.
 내일도 안고 오시고, 모레도 안고 오시면,
 우리 아이는 못 멕여도,
 이 애 설마 굶기리까?”
 심봉사 좋아라고,
 “은혜 백골난망이오.”
 육칠월 퇴약별³⁹²⁾에 지심³⁹³⁾매고 쉬는 곳을 허유허유³⁹⁴⁾ 찾아가고,
 시내 여울³⁹⁵⁾ 빨래헌 디 그런 곳도 찾아가서,
 “여보시오, 부인네들. 댁 집에 귀한 애기 먹고 남은 젓 한 통 이 애
 젓좀 멕여주오.”
 보고 듣는 부인들이 다투어 서로 멕여주니,
 심봉사 좋아라고
 양지바른 언덕 밑에 퍼버리고³⁹⁶⁾ 쉬어 앉어,
 아기를 안고 어룬다.
 “둥둥둥, 내 딸이야. 어허 둥둥, 내 딸이야.
 아이고, 내 새끼 배불렀구나!
 이 덕이 뉘 덕이나?

The baby is in one hand, and a cane is in the other.
 He moves forward unsteadily.
 He arrives at the well and asks pathetically.
 "Hello ladies,
 She lost her mom seven days after she was born.
 She is starving.
 Please give some milk to this baby."
 The ladies respond, "What a poor baby!"
 They give her a lot of milk.
 "Hello, Mr. Sim,
 Come to us tomorrow and the day after tomorrow.
 Our babies might be hungry.
 But would we let your baby go hungry?"
 Mr. Sim is delighted.
 "I eternally appreciate your favor."
 He manages to find the women resting after removing weeds
 in the scorching sunshine.
 He finds his way to the women washing clothes in the stream.
 "Hello, ladies! If some milk is left after your precious child is
 fed, please give some to this baby."
 Ladies compete with each to give milk to the baby.
 Mr. Sim is joyous.
 He sits down and takes a rest in a shiny place.
 He dandles the baby.
 "Oh, my lovely daughter. Oh, my daughter.
 My child is now full.
 To whom do we owe this?

동네 부인의 덕이라.
 수복강녕³⁹⁷⁾을 하옵소서.
 너도 어서 수이 자라
 현철하고 효행이 있어,
 아비 귀염을 쉬 보여라.
 어려서 고생하면 부귀다남³⁹⁸⁾을 한다드라.
 아들같은 내 딸이지.
 언덕 밑에 귀남이³⁹⁹⁾ 아니냐?
 설설이⁴⁰⁰⁾ 기어라. 어허 둥둥, 내 딸이야.”
 따둑따둑⁴⁰¹⁾ 잠들이고,
 삼베 전대⁴⁰²⁾를 두 동 지어서⁴⁰³⁾ 왼편 어깨에다가 드러메고,
 한 달 육장⁴⁰⁴⁾ 거두기,
 어린 아기 맘죽⁴⁰⁵⁾차로 갱엿,⁴⁰⁶⁾ 홍합을 많이 사
 근근히⁴⁰⁷⁾ 연명할 제,
 그때의 심청이는 장래 귀히 될 사람이라,
 천지 귀신 도와주고, 제불보살⁴⁰⁸⁾ 음조하여,⁴⁰⁹⁾
 외 분듯,⁴¹⁰⁾ 달 분듯⁴¹¹⁾ 잔병 없이 잘 자라서
 육칠 세가 되었구나.

13. (심청 부친 봉양) 하루는 심청이 아버지께 자신이 밥을 빌어 공양을 하겠다고 말한다.

[아니리] 하루는 심청이 부친 앞에 단정히 꿇어앉아,
 “아버지, 오늘부터 제가 나가 밥을 빌어 조석공양⁴¹²⁾허것나이다.”

We owe this to the ladies in the village.
 May they live long and healthy lives!
 My daughter, please grow up quickly.
 Be wise and virtuous.
 Your father will love you,
 Painful childhood bears future success.
 My daughter is like a son.
 Aren't you my precious child?
 Toddle slowly. Oh, my daughter!"
 He pats her to sleep.
 He hangs a bag made of hemp cloth on his left shoulder.
 He begs from stores in a market.
 He buys a lot of glutinous rice jelly and sea mussels to make
 a soup for the baby.
 They manage to live on.
 Now, Sim Cheong is fated to achieve a feat in the future,
 With the secret help from various gods,
 she grows up well without getting sick.
 She is now seven.

**13. (Sim Cheong Supports Her Father) One day Sim
 Cheong says that she will beg for food to support
 her father.**

[Aniri] One day, Sim Cheong kneels down politely in front of
 her father.
 "Father, from today and on I will beg for food and serve you
 meals."

심봉사 깜짝 놀래,
“악아, 내 아무리 곤궁한들,
무남독녀⁴¹³) 너 하나를 밥을 빌어오게 하다니,
당찮은 소리 하지 마라.”

[중모레] “아버지 들주시오.⁴¹⁴)

자로⁴¹⁵)는 현인⁴¹⁶)으로 백 리에 부미허고,⁴¹⁷)
순우의⁴¹⁸)의 딸 제영⁴¹⁹)이는 낙양⁴²⁰)옥 갇힌 아비⁴²¹) 몸을 팔어 속
죄⁴²²)허고,
말 못 하는 까마귀도 공립⁴²³) 저문 날의 반포지은⁴²⁴)을 혈 줄 아니,
하물며 사람이야 미물⁴²⁵)만 못하리까?”

14. (심청 결식) 심청이 밥을 빌어 아버지를 극진히 봉양한다.

[아니레] “기특타,⁴²⁶) 내 딸이야.
그런 말 다 어디서 배웠느냐?
그런 말 허는 것까지도 너의 모친 닮았구나.
네 뜻이 정 그렇다면, 오늘 아침만 다녀오너라.”

[중모레] 심청이 거동⁴²⁷) 보아라.

밥 빌러 나갈 적의
헌 배 중우⁴²⁸) 다님⁴²⁹) 메고,
청목⁴³⁰) 휘양⁴³¹) 눌러 쓰고,
말⁴³²)만 남은 헌 치마의
짓⁴³³) 없는 헌 저고리,
목⁴³⁴)만 남은 길보선⁴³⁵)에
바가지를 옆에 끼고,

Mr. Sim is surprised.

“Sweetheart, I am poor.

But could I send my only child to beg for food?

Don’t say that again.”

[Jungmori] “Please hear me out, father.

A virtuous student of Confucius carried a rice bag for hundreds of miles to feed his father.

An ancient daughter became a slave for the government to amend for her father’s crime.

Even a speechless crow feeds its old parents in an empty grove at sunset.

How can a human being be worse than an animal?”

14. (Sim Cheong’s Begging) Sim Cheong supports her father well by begging for food.

[Aniri] “Good! My daughter!

Where did you learn those scholarly words?

You resemble your mother to say those words.

If you insist, please make a trip only this morning?”

[Jungmori] Behold Sim Cheong.

She goes out to beg for food.

She wears old hemp trousers tied by ankle bands.

She wears a blue cotton headgear.

Only the top of her skirt remains.

The old jacket doesn’t have a collar.

Only the top part of her 내찬 remains.

She holds a gourd dipper on her side.

바람맞은⁴³⁶⁾ 병신처럼 옆걸음쳐 건너간다.
 먼 산에 해 비치고,
 건넌 마을 연기 일 제,
 주저주저 건너가
 부엌문전⁴³⁷⁾을 다다라 애궁히⁴³⁸⁾ 비는 말이,
 “우리 모친 저를 낳고 칠일 안의 죽은 후의,
 앞 못 보신 우리 부친 나를 안고 다니시며, 동냥젖 얻어 맥여
 이만큼이나 자랐으나,
 구환⁴³⁹⁾할 길 전혀 없어 밥을 빌러 왔사오니,
 한 술씩 덜 잡순고⁴⁴⁰⁾ 십시일반⁴⁴¹⁾ 주옵시면, 추운 방 우리 부친 구환
 을 허겠내다.”⁴⁴²⁾
 한두 집이 죽한지라.⁴⁴³⁾
 밥 빌어 손에 들고 집으로 돌아갈 제
 심청이 허는 말이,
 “아까 내가 나올 때는 먼 산에 해가 아니 비쳤더니,
 벌써 해가 등실 떠
 그새⁴⁴⁴⁾ 반일⁴⁴⁵⁾이 되었구나.”
[자진모리] 심청이 들어온다.
 문전을 들어서며,
 “아버지! 굶긴들 오죽하며, 시장킨들⁴⁴⁶⁾ 앓으리까?
 더운 국밥 잡수시오.
 이것은 흰 밥이요,
 이것은 팔밥이요,
 미역튀각⁴⁴⁷⁾
 갈치, 자반,⁴⁴⁸⁾
 어머니 친구라고 아버지 갖다 드리라허기로 가지고 왔사오니,

She walks on her side as if she were crippled in the wind.
The sun shines from a distant mountain.
A smoke rises up in the neighboring village.
She slowly goes over.
She arrives in front of a kitchen and begs in a pathetic voice.
“My mother died seven days after I was born.
My blind father begged around for milk, holding me in his arms.
I have grown up as you can see.
I am here to beg for food to feed my father.
If you eat a little less and give me some, I can serve my father
in the cold room.”
She gets enough food from a few houses.
She comes back home with food in her hand.
She speaks to herself.
“When I left home, the sun did not shine on the distant
mountain.
The sun is already in the sky.
Half of the day is already gone.”

[Jajinmori] Sim Cheong arrives home.
She goes through the gate.
“Father, you must feel cold and hungry.
Help yourself to this hot soup.
This is pure rice.
This is rice with red bean.
This is seaweed.
This is a hairtail.
A friend of my mom gave me this food to bring it to you.

시장참게 잡수시오.”

심봉사 기가맥혀

딸의 손을 끌어 입에다 넣고 후후 불며,

“아이고, 내 딸 춥다 불 쬐어라.

모진 목숨이 죽지도 않고,

이 지경이 웬 일이냐?”

[아니레] “아버지, 서러워 마시고

진지 잡수세요.

부모를 봉양하고, 자식에게 효도 받기는 인사⁴⁴⁹⁾의 당연이오니

아무 걱정 마옵시오.”

부친을 위로한 연후에,

날마다 얻은 밥이 합쳐놓으니

집집마다 밥이 달라,

흰밥, 팔밥, 콩밥, 보리, 기장,⁴⁵⁰⁾ 수수,⁴⁵¹⁾ 갖가지로 다 있으니,

심봉사 집은 항상 정월 보름 닥친⁴⁵²⁾ 듯하것다.

그렇저렇 세월이 여류하여⁴⁵³⁾

십청 나이 십오 세가 되니,

얼굴이 점점 일색⁴⁵⁴⁾이요,

효행⁴⁵⁵⁾이 출천⁴⁵⁶⁾이라.

이러한 소문이 원근에⁴⁵⁷⁾ 낭자터니,⁴⁵⁸⁾

하루는 무릉촌 장승상택⁴⁵⁹⁾ 부인께서 시비⁴⁶⁰⁾를 보내 심청을 청했것다.

심청이 부친전⁴⁶¹⁾ 여짜오되,

“아버지, 무릉촌 장승상택 부인께서 불러계시오니

어찌 하오리까?”

“아차! 내가 잊었구나.

진즉⁴⁶²⁾ 너를 보냈어야 할 겐.

Please help yourself.”

Mr. Sim is stunned.

He holds her hands in his mouth and warm them up.

“It is cold. Warm yourself up here.

My life is cruel to go on.

I can’t believe what happened to me.”

[Aniri] “Father, please don’t feel sad.

Please eat this food.

It is a natural moral rule that a child serves her parents.

Please don’t worry.”

She consoles her father.

She puts the begged food in one place.

She got different food from different houses.

She has white rice, red been rice, bean rice, barley, and millet.

In Mr. Sim’s house it is always January 15th, the day of mixed food.

Somehow, time passes.

Sim Cheong is now fifteen years old.

She gradually became a rare beauty.

She is a good daughter.

Words about her spread here and there.

One day, the noble lady in Paradise Village sends a maid to invite Sim Cheong.

Sim Cheong asks her father.

“Father, the noble lady in Paradise Village sent me a maid to invite me.

What should I do, father?”

“Oh, I forgot something.

You should have called on her.

너의 모친과 매우 친한 터이고,
일국⁴⁶³의 재상⁴⁶⁴의 부인이니,
묻는 말이나 대답하고 공순히⁴⁶⁵ 앉았다
곧 돌아오너라.”

**15. (장승상택) 무릉촌 장승상택 부인이 심청을 불러 수양
딸을 제안하지만, 심청은 정중히 거절한다.**

[진양조] 시비⁴⁶⁶ 따라 건너간다.
무릉촌을 당도하여 승상택을 들어서니,
좌편은 청송⁴⁶⁷이요,
우편은 녹죽⁴⁶⁸이라.
정하⁴⁶⁹에 심은 반송⁴⁷⁰
청풍⁴⁷¹이 건뚝⁴⁷² 불면 노룡⁴⁷³이 굽니는 듯.⁴⁷⁴
뜰 지키는 백두루미 사람 자취 일어나니,
나래⁴⁷⁵를 땅에다 지르르 끌며, ‘뚜루루루루 깎록’
징검징검⁴⁷⁶ 알연성⁴⁷⁷이 기이허구나.⁴⁷⁸

[중중모리] 계상⁴⁷⁹에 올라서니
부인이 반기 여겨,⁴⁸⁰
심청 손을 부여잡고 방으로 들어가
좌⁴⁸¹를 주어 앉힌 후에,
“네가 분명 심청이냐?
듣던 말과 같은지라.
무릉촌⁴⁸² 내가 있고,
도화동⁴⁸³ 내가 나니,

She was a good friend of your mom.
She was the wife of a prime minister.
Be respectful to her.
Come back quickly.”

15. (The Noble Lady) The noble lady in Paradise Village calls Sim Cheong, and asks her to adopt her. Sim Cheong respectfully declines her proposal.

[Jinyanjo] Sim Cheong follows the maid.
They arrive in Paradise Village and enter the noble lady’s house.
On the right are green bamboos.
A low pine tree grows horizontally below a pavilion.
As a breeze blows, it looks like an old dragon rising up.
A white crane in the yard stands up after hearing human sounds.
It drags its wings on the ground and cries.
As it strides, it makes queer sounds.

[Jungjungmori] Sim Cheong moves up on the stone steps.
The noble lady welcomes her.
She grabs Sim Cheong’s hands and leads her to a room.
She offers a seat.
“Are you really Sim Cheong?
You are as beautiful as they say you are.
I am in Paradise Village.
You are in Peach Blossom Village.

무릎에 봄이 들어
 도화동 개화⁴⁸⁴로다.
 이 내 말을 들어 봐라.
 승상 일찍 기세허고,⁴⁸⁵
 아들이 삼형제나
 황성⁴⁸⁶가 미환⁴⁸⁷허고,
 어린 자식 손자 없어
 적적한 빈 방안에 대하나니⁴⁸⁸ 좃붙이요, 보는 것이 고서⁴⁸⁹로다.
 네 신세 생각허니,
 양반의 후예로 저렇듯 곤궁하니,
 나의 수양딸⁴⁹⁰이 되면 여공⁴⁹¹도 숭상허고, 문필⁴⁹²도 학습허여,
 만년⁴⁹³ 자미⁴⁹⁴를 볼까 허니,
 네 뜻이 어떠하냐?”
[아니리] 심청이 여짜오되,
 “마마⁴⁹⁵께서 미천함⁴⁹⁶을 가리지 않고 딸 삼으려 하옵시니,
 모친을 모시온 듯 감격하옵니다마는,
 마님 말씀 좃사오면 소녀 몸은 영귀⁴⁹⁷하나,
 안맹하신 우리 부친 조석공양 사철 의복 뉘라서 받드오리까?
 부친은 저를 아들 겸 민사웁고,
 저는 부친을 모친 겸 민사오니,
 시측⁴⁹⁸을 일시라도 떠날 길이 없삽내다.”⁴⁹⁹
 두 눈에는 눈물이 돌며,
 목이 메어⁵⁰⁰ 말 못 한다.
 부인 또한 측은⁵⁰¹허여,
 “네 말이 당연허도다.
 출천지효녀⁵⁰²로다.

Spring has come in Paradise Village.
Flowers bloom in Peach Blossom Village.
Listen to me, sweetheart,
My husband died long time ago.
I have three sons.
They live in the capital city without coming back here.
I have neither a young child nor a grandchild.
All I have in this empty room is the candlelight and old books.
Let me see how you are.
You are a descendent of the high class but poor.
I propose that you be adopted by me, and learn womanly things
and books.
You will bring joy to my remaining life.
What do you say?"

[Aniri] Sim Cheong responds,
"Today, you kindly disregarded my humble background and
want to take me as your daughter.
I feel honored as if I met my mother.
If I follow your wish, I will live a happy life,
but who will serve my blind father with meals and clothes all
year around?
My father trusts me as if I were his son.
I trust my father as if he were my mother.
I can't leave my father even for a moment."
Her eyes are full of tears.
She feels choked and can't continue speaking.
The lady feels compassion toward her.
"You are right.
What a good daughter!"

노헌⁵⁰³) 나의 뜻이 미처 생각 못했구나.”
 심청이 여짜오되, “일력⁵⁰⁴)이 다허오니, 이만 물러 가겠내다,”
 부인 또한 연연⁵⁰⁵)하야
 채단⁵⁰⁶)과 양식을 후히⁵⁰⁷)주어
 시비 함께 보내면서,
 “모녀지의⁵⁰⁸)나 맺어 두자.”
 “마마님의 어지신 처분 가르치심을 받겠내다.”
 하직코 돌아올 제,

16. (심봉사 물에 빠짐) 심봉사가 딸을 찾으러 나가다가 개 천에 빠진다.

[창조] 그때의 심봉사는 적적한 빈 방안에 딸 오기만 기다릴 적에,
 [진양조] 배는 고파 등에 가 붙고,
 방은 치워⁵⁰⁹) 한기⁵¹⁰) 들 제,
 먼 데 절 쇠북소리⁵¹¹)
 날 저문 줄 짐작하고, 혼자 앉아 자탄⁵¹²)한다.
 “우리 딸 청이는 웅당 수이⁵¹³) 오련만은,
 어찌 이리 못 오는고?
 청아! 오느냐?
 어이허여⁵¹⁴) 못 오는거나?
 부인이 잡고 만류는가?⁵¹⁵)
 길에 오다 욕⁵¹⁶)을 보느냐?
 백설은 펄펄 휘날린다,
 후후 불고 앉었는가?”

I am older, but I was not as thoughtful as you.”
Sim Cheong says, “Now that the sun has set, I must leave.”
The lady hesitates to say good-bye to the girl.
She gives her silks and food generously.
She has the maid follow her.
“Please take me as your mother.”
“I will uphold your kind wish.”
She says good-bye and leaves.

**16. (Mr. Sim Falls into a Stream) Mr. Sim, worrying
about Sim Cheong, goes out to meet her and falls
into a stream.**

[Poetic Mode] Meanwhile, Mr. Sim waits for his daughter alone
in the quiet and empty room.

[Jinyangjo] Mr. Sim is very hungry.

It is cold in the room.

A bell rings from a distant buddhist temple.

He sighs, thinking that it is getting dark.

“It is time for my daughter to come back.

Why isn’t she coming back?

Cheong, are you coming?

What is holding you?

Is the noble lady holding you?

Did something bad happen to you on a street?

A heavy snow comes down now.

Are you blowing on your hands to warm them up?”

새만 푸루루루루 날아들어도,

“청이 오느냐?”

낙엽만 버썩⁵¹⁷⁾ 떨어져도

심청인가 반기는구나.

아무리 불리도 적막공산⁵¹⁸⁾에 인적⁵¹⁹⁾이 끊겼으니,

“내가 분명 속았구나.

이놈의 노릇을 어찌를 할가나?”

자진복통⁵²⁰⁾으로 울음을 운다.

[자진모리] ‘이래서는 못쓰겠다.’

닫은 방문 펼썩⁵²¹⁾ 열고, 지팡이 견더짚고⁵²²⁾

더듬 더듬 더듬 더듬 더듬 더듬 더듬 나가면서,

“청아! 청이 네 오느냐?”

그때의 심봉사는 딸의 덕에 몇 해를 가만히 앉아 먹어놓으니

도랑출입⁵²³⁾이 서툴구나.

이리 더듬, 저리 더듬, 더듬더듬 나가다가

길 넘는⁵²⁴⁾ 개천물에 한 발 자칫 미끄러져 거꾸로 물에 ‘퐁!’

나오라면 미끄러져 퐁 빠져 들어가고,

나오라면 미끄러져 퐁 빠져 들어가고,

나오라면 무진무진⁵²⁵⁾ 들어간다.

심봉사 겁을 내어,

“아이구, 도화동 사람들! 심학규 죽네!

정신도 말끔허고,⁵²⁶⁾

아픈 데 없이

잘 죽는구나!”

A bird flies, making a sound.
“Are you Cheong?”
Leaves fall down.
He is glad, taking them to be Sim Cheong.
However hard he calls her, there is nobody on the quiet mountain.
“I was deceived.
What should I do now?”
He cries sadly.

[Jajinmori] ‘I shouldn’t just wait.’
Mr. Sim opens the closed door and grabs his cane.
He moves forward unsteadily with the help of his cane.
“Cheong! Are you coming?”
Mr. Sim has stayed home for long time thanks to his daughter.
He is awkward in crossing a stream.
He moves forward unsteadily and gropingly.
He takes a false step and slides upside down into a deep stream.
He pushes himself up but slides back down.
He attempts to get out but goes back down.
He tries to get up but falls back in.
Mr. Sim is frightened.
“Villagers! Sim Hak-gyu is drowning!
My mind is normal.
I am not sick.
But I am dying!”

17. (심봉사 구출) 몽은사 화주승이 물에 빠진 심봉사를 구해낸다.

[아니리] 꼭 죽게 되었는데,
[엇모리] 중 올라간다. 중 하나 올라간다.
다른 중은 내려온디,⁵²⁷⁾ 이 중은 올라간다.
이 중이 어디 중인고?
몽은사 화주승⁵²⁸⁾이라.
절을 중창⁵²⁹⁾허라 허고 시주 집⁵³⁰⁾내려왔다,
날이 우연히 저물어져
서산에 빗긴⁵³¹⁾ 길로 흐늘거리고⁵³²⁾ 올라간다.
저 중의 모양 보소.
굴갓⁵³³⁾ 쓰고, 장삼⁵³⁴⁾ 입고,
백팔염주⁵³⁵⁾ 목에 걸고, 단주⁵³⁶⁾ 팔에 걸고,
용두⁵³⁷⁾ 새긴 육환장⁵³⁸⁾
쇠고리 많이 달아 처절철⁵³⁹⁾ 툭툭 짚고,
흔들흔들 흐늘거리고 올라갈 제,
원산⁵⁴⁰⁾은 암암⁵⁴¹⁾허고,
설월⁵⁴²⁾이 돌아오는디,
백저포⁵⁴³⁾ 장삼⁵⁴⁴⁾은 바람결에 펄렁 펄렁.
흐늘거리고 올라가며 염불⁵⁴⁵⁾을 허는구나.
“상래소수공덕해 회향삼처실원만⁵⁴⁶⁾
원왕생⁵⁴⁷⁾ 원왕생
제불제천제갈녕⁵⁴⁸⁾
나무아미타불.”
염불하고 올라갈 제,

17. (The Rescue of Mr. Sim) A buddhist monk from Mongeun Temple who was passing by rescues Mr. Sim.

[Aniri] It appears that Mr. Sim will die.

[Eotmori] A buddhist monk goes up a mountain.

Other buddhist monks go down, but he goes up.

Who is that monk?

He is a monk from Mongeun Temple in charge of donation affairs.

He solicited donations in the village to reconstruct his old temple.

It's getting dark.

The monk goes up slowly on the oblique road on the west mountain.

Behold his costume!

He wears a cylindrical hat and a hemp coat.

He has strings of 108 beads on his neck and 8 beads on his arm.

He carries a cane on which the head of a dragon is carved.

Six iron rings dangling from it make sounds.

He moves his body left and right as he goes up.

A remote mountain is dark.

The moon rises over the snow.

His white ramie coat flutters in the wind.

As he goes up slowly, he chants a prayer.

May Buddha's grace extend to everything in the world!

I wish I will be reborn in heaven.

I wish the royal family are happy.

Save us, merciful Buddha!"

The monk chants a prayer as he goes up.

한 곳 당도하니
 어디서 울음소리 귀에 얼른⁵⁴⁹⁾ 들린다.
 저 중이 깜짝 놀래,
 “이 울음이 웬 울음? 이 울음이 웬 울음?
 마외역⁵⁵⁰⁾ 저문 날에 하소대⁵⁵¹⁾로 울고 가던 양태진⁵⁵²⁾의 울음이냐?
 이 울음이 웬 울음? 이 울음이 웬 울음?
 여우가 변화허여⁵⁵³⁾ 날 호리란⁵⁵⁴⁾ 울음인가?
 이 울음이 웬 울음?”
 죽장⁵⁵⁵⁾을 드러메고,
 끼웃, 저리 끼웃
 한 곳을 살펴보니,
 어떠한 사람인지 개천물에 풍덩 빠져
 거의 죽계가 되었거늘,
 저 중의 급한 마음, 저 중의 급한 마음, 굴갓 장삼 훨훨 벗고,
 행전 다님⁵⁵⁶⁾ 버선 벗어 되는 대로 내던지고,
 고두누비⁵⁵⁷⁾ 바지가래⁵⁵⁸⁾ 또리돌돌⁵⁵⁹⁾ 말아 자개미⁵⁶⁰⁾ 딱 붙이고,
 무논⁵⁶¹⁾의 백로격으로⁵⁶²⁾ 징검⁵⁶³⁾ 징검 징검 들어가,
 심봉사 꼬드레상투⁵⁶⁴⁾를 에뚜리미쳐,⁵⁶⁵⁾
 이것이 무엇인가?
 건져놓고 보니, 전에 보던 심봉사라.

18. (공양미 시주 약속) 심봉사가 눈을 뜨고 싶은 마음에 시주 약속을 하고, 중이 떠난 뒤 후회한다

[아니리] “날 살린 이가 누구여?”

He monk arrives at a certain place,
 He hears a faint crying sound,
 He is surprised.
 “What is this cry? What is this cry?
 Is this the cry of Yang Gui Fei(楊貴妃) who died at Mawei(馬嵬)
 Station at sunset?
 What is this cry? What is this cry?
 Is this the cry of a fox which intends to bewitch me?
 What is this cry?”
 He holds the bamboo cane on his shoulder,
 He looks here and there,
 He gazes at a place,
 A man is drowning in a stream,
 He is about to die,
 The monk hurriedly takes off his hat and coat,
 He takes off his ankle bands and socks, and throws them
 around,
 He pulls up his cotton trousers up to the crook of the knee,
 He strides on a rice paddy filled with water like a white heron,
 He encircles Mr. Sim’s head with his arm and grabs his topknot,
 Who is this?
 The monk pulls Mr. Sim out and learns that it is Mr. Sim.

**18. (The Promise to Donate Rice) Mr. Sim promises
 to donate rice in the hope that he opens his eyes,
 but he regrets after the monk leaves.**

[Aniri] “Who saved me?”

“예. 몽은사 화주승이옵니다.”

“활인지불⁵⁶⁶이라더니,

죽을 사람 살려주니 은혜백골난망⁵⁶⁷이로구만.”

“무슨 은혜라고야 하오리카마는,

앞 못 보신 탓이지요.

그러나 좋은 수⁵⁶⁸가 있소마는.”

“좋은 수라니, 무슨 수꼬?”⁵⁶⁹

“우리 절 부처님이 영험⁵⁷⁰이 많사와

빌면 아니 되는 일이 없고,

고하면⁵⁷¹ 응하오니,⁵⁷²

공양미⁵⁷³ 삼백 석⁵⁷⁴만 불전에⁵⁷⁵ 시주⁵⁷⁶허면 삼 년 내로 눈을 뜨
시리다.”

심봉사 이 말 듣고 어찌 반갑든지,

후사⁵⁷⁷는 생각짚고⁵⁷⁸ 대번⁵⁷⁹ 일을 저지르는데,

“여보소, 대사! 정녕코 그럴진대

공양미 삼백 석을 권선⁵⁸⁰에 적소, 적어.”

저 중이 어이없어,

“봉사님 가세⁵⁸¹를 생각허면

서 흙⁵⁸² 곡식도 없는 이가

어찌시라고 그러시오?”

“무엇이 어찌?

이 녀석, 네가 내 살림 속⁵⁸³을 어찌 알고 허는 말이냐?

두 말 말고 적게, 적어.”

“봉사님 부처님께 허언⁵⁸⁴을 하면 앓은뱅이가 될 테니

부디 명심하시오.”

“일구이언⁵⁸⁵ 하겠나?

“I am a monk from Mongeun Temple.
 “It is said that Buddha saves people.
 Since you saved me, you have my eternal appreciation.”
 “It was no sweat at all.
 You got into trouble because you are blind.
 I have a good idea.”
 “Good idea? What is it?”
 “Buddha in my temple can work out a miracle.
 A prayer can get you anything.
 Any request is responded to.
 If you donate 300 bags of rice to my temple, you will recover
 sight within three years.”
 At the monk’s words, Mr. Sim can’t contain his joy.
 Without thinking about the consequence, he makes a
 commitment.
 “Hello, monk. I am interested in what you said.
 Write down 300 bags of rice on your donation roster.”
 The monk is dumfounded.
 “Mr. Sim, look at what you’ve got.
 You don’t even have a handful of rice.
 How will you handle the consequence of the commitment?”
 “What did you say?
 What makes you think you know about my financial situation?
 You just write down.”
 “Mr. Sim, if you tell a lie to Buddha, you will be crippled.
 Please keep that in mind.”
 How will I say two words?

불공이나 착실히 잘 하소.”

중은 권선에 기재⁵⁸⁶⁾하고 올라갔었다.

심봉사는 중을 보내고 곰곰이 생각터니,

“아이고, 이놈이 환장⁵⁸⁷⁾한 거 아닌가?”

[중모레] “허허, 내가 미쳤구나.

정녕 내가 사⁵⁸⁸⁾ 들렸네.

깊은 개천물에 빠져 혼미정신⁵⁸⁹⁾ 냇을 잃고

영겁절에⁵⁹⁰⁾ 이리는가?

무남독녀⁵⁹¹⁾ 딸을 내보내 밥을 빌어다 먹는 놈이

쌀 삼백 석을 어쩔거나?

살림을 팔자헌들 단돈 열량을 뉘라 주리?

부처님을 속이면은 앓은뱅이가 된다는디,

앞 못 보는 이 병신놈이 앓은뱅이가 되거드면⁵⁹²⁾

꿈짝 달짝 못 허고 죽겠구나.

수중고혼⁵⁹³⁾ 될지라도 내가 차라리 죽을 것을,

공연한 중을 만나 도리어 내가 후회로구나.

저기 가는 대사!

권선에 쌀 삼백 석 에우고⁵⁹⁴⁾ 가소!

아이고, 아이고, 내 신세야.

내 딸이 이 말을 듣고 보면 복통자진⁵⁹⁵⁾을 할 것이니,

이 일을 장차 어찌할거나?”

Just pray well to Buddha on my behalf.”
The monk records it and goes up the mountain.
After the monk leaves, Mr. Sim reflects on what he did.
“How crazy was I! How stupid!”

[Jungmori] “Gosh, I was out of my mind.
A bad spirit was in me.
I fell into a deep stream, so I was confused.
I did it without thinking clearly.
I live off my only child, a daughter, who begs around.
How can I get 300 bags of rice?
My properties are worth less than ten dollars.
If you deceive Buddha, you will be crippled.
I will be crippled when I am already blind.
I will surely die.
I should have died in the stream.
I met the monk by chance, and now I am troubled.
Hey, monk there!
Erase my name on the donation roster!
Oh God! My fate is sad!
My daughter will grieve to death to hear this.
What should I do now?”

19. (심청의 위로) 심청이 돌아 와서 사정을 듣고 아버지를 위로한다.

[자진모리] 심청이 바빠 와서

저의 부친 모양 보고 깜짝 놀래 발 구르며,

“아이고, 아버지! 아이구, 이게 웬 일이요?

나를 찾아 나오시다 개천에 넘어져서 이 봉변을 당하였소?

승상댁 노부인이 굳이 잡고 만류허기로 어언간⁵⁹⁶⁾ 더디었소.

말씀이나 하여주오.

답답하여 못 살것소.”

[아니리] “아버지, 시장허실 텐데 진지 잡수세요.”

“나 밥 안 먹을란다.”

“아버지 제가 더디⁵⁹⁷⁾ 왔다 노하시었소?”

“아니다. 아버지고 뵈이고

너 알아 쓸데없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는 저를 믿어 대소사⁵⁹⁸⁾를 의논 하옵난디,

오늘날 너 알아 쓸데없다하시니,

도리어 섭사옵니다.”⁵⁹⁹⁾

허고 훌쩍훌쩍 울것다.

“악아, 청아. 우지 마라.

내가 너를 뵈을 속이랴?

내가 알면 걱정만 되겠기로 차마 말 못 하였다.”

“무슨 말씀인데요?”

“글쎄, 너 오기를 기다리다 못하여 너를 찾아 나가다가

개천에 떨어져 꼭 죽게 되었구나.

19. (Sim Cheong Consoles Her Father) Sim Cheong comes back. She listens to the story, and consoles her father.

[Jajinmori] Sim Cheong rushes back home.

She is surprised to look at her father and stamps on the ground.

“Father! What happened?

Did you get into trouble on the stream to meet me?

I am late because the noble lady held me.

Please tell me.

I am anxious to know.”

[Aniri] “Father, you must be hungry. Help yourself.”

“I don’t want to eat.”

“Father, are you mad because I got home late?”

“No. Forget your father.

You don’t need to know.”

“Father, I trust you.

You trust me and consult me on family matters.

but today you said I need not know.

I am disappointed!”

After finishing, she sobs.

“Cheong, don’t cry.

Would I have anything to hide from you?

I was just afraid you might worry about it.”

“What is that?”

“I couldn’t wait for you, so I went outside to meet you.

I fell into the stream and was about to die.

몽은사 화주승이 나를 건져 살려 놓고,
 “아이고, 고마워라!”
 “어, 고마운 게 아냐.
 그렇지, 나를 살려놓고 그냥 갔으면 고마웠지.
 이놈이 나를 살살 찢는 말이,
 공양미 삼백 석을 몽은사로 시주하면, 삼년 내로 이 눈구역을 떠서
 만물⁶⁰⁰을 본다는구나.
 그리하여, 눈 뜬단 말만 반기⁶⁰¹ 듣고, 앞뒤를 생각지 않고 삼백 석을
 권선에 적었으니,
 이런 미친 놈의 애비가 어디 있느냐?”
[중모레] “아버지 들주시오.⁶⁰²
 왕상⁶⁰³은 고빙⁶⁰⁴허여 얼음 궁기⁶⁰⁵ 잉어 낚고,
 맹종⁶⁰⁶은 읍죽⁶⁰⁷ 허여
 눈 속의 죽순⁶⁰⁸ 얻어
 양친성효⁶⁰⁹를 허였으며,
 괘거⁶¹⁰라는 옛사람은 부모 반찬을 하여놓으면
 제 자식이 먹는다고
 산 자식을 묻으랴 제,
 땅을 파다 금을 얻어 부모 봉양을 허였으니,
 사친지효도⁶¹¹가 옛사람만 못하여도,
 지성이면 감천⁶¹²이라
 깊이 근심을 마옵소서.”

A monk from Mongeun temple saved.”

“How nice he was!”

“No, he was not nice.

He would have been nice if he had just left after he had saved me.

The villain spoke a seductive word to me.

He told me that if I donate 300 bags of rice to his temple, I will open my eyes within three years.

I was so excited about opening my eyes that I promised to donate the rice without thinking about the consequence.

I was crazy. I am a bad father.”

[Jungmori] “Look, father.

An ancient man caught fish by making a hole in the ice.

Another ancient man held a bamboo and cried.

He got a bamboo sprout on snow.

They served their parents.

An ancient man wanted to serve his parents well with good food,

but his child ate it.

So he tried to bury his child.

While digging ground, he found gold and supported his parents.

I am not as good as the ancient people,

but wholeheartedness moves heaven,

so don't worry.”

20. (심청 치성) 심청이 자신을 사갈 사람이 나타나길 빈다.

[아니리] 만단⁶¹³으로 위로하고,
그날부터 목욕재계⁶¹⁴ 하고
지극 정성을 드리는디,
[진양조] 후원에 단⁶¹⁵을 못고,
북두칠성자야반⁶¹⁶의
촛불을 돋오⁶¹⁷ 켜고,
새 사발에 정화수⁶¹⁸를 떠서 새 소반⁶¹⁹에다 받쳐놓고,
두 손 합장⁶²⁰ 비는 말이,
“비나니다. 비나니다. 하느님전⁶²¹에 비나니다.
하나님의 일월⁶²² 두심이 사람의 안목이온바,⁶²³
일월이 떨어지면 무삼⁶²⁴ 분별을 하오리까?
무자생⁶²⁵ 소경 애비 이십에 안맹허여⁶²⁶ 시물⁶²⁷을 못 허오니,
아비의 허물은 심청 몸으로 대신하고,
부친 눈을 밝게 점지⁶²⁸허옵소서.”
“인간의 충효지심⁶²⁹ 천신 어이 모르리까?
칠일 안에 어미 잃고,
앞 못 보는 부친에게 겨우 자라나서
십오 세가 되었으나,
육보지덕택인댄 호천망극⁶³⁰ 아니리까?
명천⁶³¹이 감동허사 공양미 삼백 석을 시급⁶³²하여 주옵소서.”
[아니리] 이렇듯 빌어갈 제,
하루는 동리⁶³³에 요란히 외치는 소리,

20. (Sim Cheong Prays) Sim Cheong prays so that somebody shows up to buy her.

[Aniri] Sim Cheong consoles Mr. Sim numerous times.

From that day on, she cleans her body.

She prays conscientiously.

[Jinyangjo] Sim Cheong builds up an altar in the backyard.

It is deep night with the Great Bear.

She lights a candle.

She places a bowl of pure water on a small dining table.

She prays, putting her hands together.

“I pray. I pray. I pray to God. I pray.

God created the sun and the moon so that we can see things.

If they fall down, how can we see things?

My father became blind at twenty and can't see a thing.

I will replace his fault with my body.

Please make his blind eyes open.”

“God must know loyalty and filial piety.

I lost my mother seven days after I was born.

My blind father managed to raise me.

I became fifteen.

I want to return his favor which is as vast as the sky.

All-knowing heaven, please be moved and get me 300 bags of rice.”

[Aniri] She prays everyday.

One day, shouts are heard in the village.

21. (심청 매신)⁶³⁴ 심청이 남경선인들에게 몸을 판 뒤, 행선 날을 기다린다.

[중모레] “우리는 남경⁶³⁵ 장사 선인⁶³⁶)으로
인당수⁶³⁷ 인제수⁶³⁸)를 허는 고로,
십오 세나 십륙 세나 먹은 처녀가 있으면은
중값⁶³⁹)을 주고 살 것이니,
몸 팔릴 처녀 있습나?”⁶⁴⁰
이렇듯 왜는⁶⁴¹ 소리 원근 산천이 땡그렇게도 들린다.
[아니레] 심청이 듣고 반겨, 천우신조⁶⁴²) 기회로다 생각허고,
동네 사람 모르게 선인을 청하여 하는 말이,
“나는 이 본촌⁶⁴³) 사람으로,
부친이 안맹하야
공양미 삼백 석을 불전에 시주허면 어둔 눈을 뜨신다하오나,
가세⁶⁴⁴)가 청빈하와⁶⁴⁵) 주선⁶⁴⁶)할 길이 없어
내 몸을 팔려하니,
나를 사가심이 어떠하오?”
선인들이 듣고,
“출천지대효녀⁶⁴⁷)요.
삼백 석을 어디로 바치리까?”
“몽은사로 바쳐 주십시오.”
“그는 염려 마오.
행선날⁶⁴⁸)이 내달⁶⁴⁹) 십오일이니
그날 꼭 떠나셔야 합니다.”
“중값 받고 팔린 몸이
내 뜻대로 하오리까?

**21. (Sim Cheong Sells Herself) Sim Cheong sells herself
to sailors doing business with the Chinese and
waits for the departure date.**

[Jungmori] “We are sailors doing business with the Chinese.
The dragon king at Indang Water accepts a human sacrifice.
If there is a fifteen or sixteen year old virgin,
we will buy her at a high price.
Is there a virgin for sale?”
The loud shout reaches distant and close mountains and
streams.
[Aniri] Sim Cheong is delighted and thinks that heaven is helping
her.
She speaks to the sailors in secret.
“I live in this village.
My father is blind.
The donation of 300 bags of rice to Buddha would open his
eyes.
But we are poor, so we can’t make that happen.
I intend to sell myself.
What do you say about buying me?”
The sailors are delighted.
“You are a good daughter.
Where do you want us to send 300 bags of rice?”
“Please send them Mongeun Temple.”
“Don’t worry about that.
We are leaving on the 15th next month.
You will have to go with us on that date.”
“I am sold at a high price.
How would I refuse?”

그는 염려 마십시오.”

사공을 보내놓고

부친 앞에 여짜오대,

“아버지!”

“오냐!”

“공양미 삼백 석을 몽은사로 올렸사오니

아무 걱정 마옵소서.”

심봉사 깜짝 놀래,

“아니, 청아! 네가 어떻게 삼백 석을 올렸단 말이냐?”

“저, 승상댁 부인께서 소녀를 수양딸⁽⁶⁵⁰⁾로 정하자고 하신 것을
분명 대답치 못하였삽더니,

오늘 제가 가서 사연을 여쭙으니,

공양미 삼백 석을 몽은사로 올리면서,

저를 아주 수양딸로 다려간다⁽⁶⁵¹⁾ 하옵니다.”

심봉사 이 말 듣고 일희일비⁽⁶⁵²⁾ 기가맥혀,

“양반의 자식으로 몸 팔렸단 말은 청문⁽⁶⁵³⁾이 고이허나,⁽⁶⁵⁴⁾

승상댁 수양딸로 가는 거야

어느 놈이 날 정개⁽⁶⁵⁵⁾하겠느냐?

참 잘 되었다.

그러면 어느 날 데려간다 하시더냐?”

“내월 십오일 다려간다 허옵디다.”

“그럼 나는 어쩐다고 하시데?”

“저, 아버님도 모셔가신다고 하옵니다.”

“그럴 것이다. 그 부인이 어떤 부인이시라고.”

심청같은 효성으로 부친을 속일 리가 있으리오마는,

이는 속인 것도 또한 효성이라.

행선날을 기다릴 제,

Don't worry about that."
 She says goodbye to the sailors.
 She speaks to her father.
 "Father!"
 "Yes!"
 "I donated 300 bags of rice to Mongeun Temple.
 So stop worrying."
 Mr. Sim is surprised.
 "Hey, Cheong! Honey, how did you get 300 bags of rice?"
 "The noble lady expressed her wish to adopt me as her
 daughter.
 I couldn't answer at that time.
 Today I told her about our situation.
 She sent 300 bags of rice to Mongeun Temple.
 She will take me to her house as her daughter for good."
 Mr. Sim is both joyous and sad.
 "It doesn't sound good that a descendent of a high class will
 be sold,
 but you will be adopted to the nobly lady.
 Who will blame me?
 That's good.
 When is she picking you up?"
 "She is taking me on 15th of next month."
 "What about me?"
 "She will take you there too."
 "That's what I expected, given that she is a nice lady."
 Filial piety would have stopped her from telling a lie to her
 father,
 but she told a lie also out of filial piety.
 She waits for the departure date.

22. (행선날) 심청이 부친과 이별할 준비를 해놓고 기다리는데, 선인들이 찾아온다.

[진양조] 눈 어두운 백발부친⁶⁵⁶ 영별⁶⁵⁷하고 죽을 일과
사람이 세상에 삼겨났다⁶⁵⁸ 십오 세에 죽을 일이,
이리하여도 뜻이 없고, 저리하여도 생각이 없네.
식음을 전폐⁶⁵⁹허고
수심⁶⁶⁰으로 지내다가
하루는 생각을 허더니, ‘아서라.⁶⁶¹ 내 이러다 못쓰겠다.
내가 하루라도 살았을 적에 부친 의복을 지어놓으리라.’
춘추 의복 상침⁶⁶² 겹갓⁶⁶³ 박어⁶⁶⁴ 지어 놓에다가 넣고,
갓 망근⁶⁶⁵을 새로 떠서⁶⁶⁶ 끈을 달아 벽에다가 걸어놓고,
행선⁶⁶⁷ 일자⁶⁶⁸를 생각허니
하룻밤이 격한지라.⁶⁶⁹
밤은 적적⁶⁷⁰ 삼경⁶⁷¹이 되었는데,
은하수는 기울어졌네.
부친이 깰까
크게 우든⁶⁷² 못허고,
속으로 느끼어 경경열열⁶⁷³하야
수족⁶⁷⁴도 만지고, 얼굴도 대어보며,
“아이고, 아버지! 날 볼 날이 몇 날이며,
날 볼 밤이 몇 밤이나 되시오?”
천지가 사정이 없어
이윽고 닭이 “꼬끼오!”
“닭아, 닭아, 닭아, 우지를 마라.
반야⁶⁷⁵ 진관⁶⁷⁶의 맹상군⁶⁷⁷이 아니로구나.

22. (Departure Date) Sim Cheong prepares for parting
with her father, and the sailors come to pick her
up.

[Jinyangjo] Thinking about parting with her blind old father for good,
and about dying at the age of fifteen,
Sim Cheong doesn't feel like doing anything.
She neither eats nor drinks anything.
She spends time in anxiety.
One day she thinks, 'No. I shouldn't do this.
I should make clothes for my father while I am alive.'
She sews spring and fall clothes and puts them in a wardrobe.
She repairs his hat and headband, and hang them on the wall.
She thinks about the departure date.
One night remains.
It is quiet and late at night.
The Milky Way is off the center of the sky.
For fear that her father might wake up,
she can't cry loudly,
so she sobs only in her mind.
She caresses his limbs and face.
"Alas, father! How many days can you see me?
How many nights can you see me?"
Time is ruthless.
A rooster cries.
"Rooster, rooster, rooster, please don't cry.
I am not the ancient man your cry once saved at night.

네가 울면 날이 새고,
 날이 새면 나 죽는다.
 나 죽기는 싫잖으나,
 앞 못 보신 우리 부친을 나 어찌 잊고 가드란 말이나?”
[중중모리] 날이 차차 밝아오니
 어느새 사립⁽⁶⁷⁸⁾ 밖으가⁽⁶⁷⁹⁾ 종긋종긋,⁽⁶⁸⁰⁾
 “여보, 낭자! 여보, 낭자! 오날이 행선날이오니, 어서 급히 가옵시다.”
 심청이 선인을 보더니, “여보시오, 선인네들!
 오늘이 행선날이온 줄 내 이미 알거니와,
 앞 어두신 우리 부친이 날⁽⁶⁸¹⁾ 몸 팔린 줄 모르오니,
 잠깐 지체⁽⁶⁸²⁾하옵시면, 진지 망중⁽⁶⁸³⁾ 지어 드린 후 떠나는 것이 어떠
 하오?”

23. (심청 고백) 행선날 아침 심청은 부친께 아침밥을 지어 올리고, 인당수 제수로 가게 되었다고 고백한다.

[아니리] “글랑은⁽⁶⁸⁴⁾ 그리 하오.”
 눈물 섞어 밥을 지어 부친 앞에 상 올리며,
 “아버지, 진지 잡수세요.”
 “악아, 오늘 아침은 왜 이렇게 이르냐?”
 “짓느라 지은 것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부녀천륜⁽⁶⁸⁵⁾의
 몽조⁽⁶⁸⁶⁾가 없을쏘냐?
 “악아, 내가 간밤에 이상한 꿈을 꾸었다.

If you cry, the day breaks.
If the day breaks, I die.
I don't mind my dying.
But how can I forget and leave my poor father?"
[Jungjungmori] The day breaks little by little.
The sailors show their faces outside the twig gate.
"Hello there, miss! Today is the departure day. Let's hurry up."
Sim Sheong responds, "Hello, sailors.
I know today is the departure date.
My blind father doesn't know that I am sold.
Would you hold on so that I can serve him with the last meal?"

23. (Sim Cheong's Confession) In the morning of the departure date, Sim Cheong makes breakfast for her father and confesses that she will leave for Indang Water to be sacrificed to gods.

[Aniri] "That's okay."
She makes a meal in tears and brings it to her father.
"Father, help yourself."
"Honey, why is the breakfast so early today?"
"I just made the breakfast early."
Given that father-daughter relationship is from heaven,
there is sure to be a foreboding dream.
"Honey, I had a strange dream last night.

네가 크나큰 수레를 타고
 한없이 가 보이드구나.
 그래서 내 혼자 해몽⁽⁶⁸⁷⁾을 했지.
 수레라 허는 것은 귀한 사람이 타는 것이라,
 아마도 장승상택 부인이 너를 가마 태워 갈 꿈인가보더라.”
 심청은 저 죽을 꿈인 줄 알되,
 “아버지, 그 꿈 장히⁽⁶⁸⁸⁾ 좋습니다.”
[진양조] 진짓상을 물린 후에
 사당⁽⁶⁸⁹⁾으로 하직⁽⁶⁹⁰⁾을 간다.
 후원으로 돌아를 가서,
 사당문을 가만히 열고
 통곡사배⁽⁶⁹¹⁾ 허는 말이,
 “삼대⁽⁶⁹²⁾ 할아버지! 삼대 할머니! 그 직차⁽⁶⁹³⁾ 불쌍한 우리 어머니!
 불효 여식⁽⁶⁹⁴⁾ 심청이는
 애비의 눈을 띄우라고, 남경 장사 선인들께 몸이 팔려 인당수 제숙으
 로⁽⁶⁹⁵⁾ 죽으러 가옵니다.
 조종향화⁽⁶⁹⁶⁾를 일로 좇아⁽⁶⁹⁷⁾ 꿇게가 되니
 불승황감⁽⁶⁹⁸⁾ 하옵니다.”
 사당문을 가만히 닫더니만
 부친 앞으로 우루루 달려들어,
 부친의 목을 안고 엎드리며,⁽⁶⁹⁹⁾
 “아버지!”
 허더니, 딱 기절허였구나.
 심봉사 마음 놓고 앓았다 깜짝 놀래,
 “악아, 청아! 어? 이게 어찌 이러지?
 너 오늘 반찬이 매우 곱더니⁽⁷⁰⁰⁾

You were on a big coach.
 You were going somewhere ceaselessly.
 I interpreted the dream for myself.
 Only a noble person can be on a coach.
 The dream means that you will be on a carriage to the noble lady's house.
 Sim Cheong believes that his dream is about her death.
 "Father, the dream is great."
[Jinyangjo] Sim Cheong takes the meal table out.
 She goes to the family shrine to say goodbye.
 She turns around to the backyard.
 She slowly opens the door of the ancestral shrine.
 She gives four big parting bows in tears.
 "Alas, grandfather and grandmother, and next, my poor mother!
 I am a bad daughter.
 To open my father's eyes, I am sold to the sailors and to be used as a sacrifice at Indang Water.
 I cannot hold a ritual for you any longer.
 I will miss you forever."
 She slowly closes the door.
 Sim Cheong runs to her father.
 She falls down and hugs him in his neck.
 "Father!"
 She passes out.
 After feeling secured, Mr. Sim is petrified.
 "Honey, what is going on?
 We had a lot of food for breakfast.

무엇 먹고 채했느냐?
 악아, 소금 좀 먹어라, 소금.
 아니, 이것이 기절한 거 아니라고?
 악아, 청아. 어느 놈이 봉사 딸이라고 정개⁷⁰¹⁾허드냐?
 정신 차려 말하여라, 이 자식아! 악아, 청아!”
 심청이 겨우 정신 차려,
 “아이구, 아버지!”
 “오냐. 말해 봐라.”
 “공양미 삼백 석을 누가 저를 주오리까?”
 “그래서?”
 “남경 장사 선인들께 삼백 석에 몸이 팔려
 인당수 제숙으로⁷⁰²⁾ 죽으러 가오니,
 청이를 망종⁷⁰³⁾ 불러주오!”

24. (심봉사 통곡) 심청의 말을 들은 심봉사가 몸부림치며 통곡한다.

[아니레] 심봉사 눈 뜨기커니는⁷⁰⁴⁾ 눈 빠질 말을 들었으니,
 어찌 되었겠느냐?
 [중중모리] 심봉사 이 말 듣고 뗏다 절컹⁷⁰⁵⁾ 주짚으며,⁷⁰⁶⁾
 “허허, 그 말 들음직허다.
 일천하⁷⁰⁷⁾ 그런 말을 네가 어디서 한단 말이나?
 철없는⁷⁰⁸⁾ 이 자식아,
 애비더러 묻도 앓고 네가 어디서 한단 말이나?
 철없는 이 자식아, 애비 설움을 들어라.
 너희 모친 너 낳고 칠일 안으로 죽은 후에,

Do you have an attack of indigestion?
Would you eat some salt?
Oh my god. Did you pass out?
Honey, were you ridiculed because you are a blind man's daughter?
Collect yourself and speak to me, sweetheart!"
Sim Cheong now comes to herself."Father!"
"Yes, talk to me."
"Who would give me 300 bags of rice?"
"What?"
"I am sold to sailors trading with the Chinese at 300 bags of rice.
I am leaving today to be used as a sacrifice at Indang Water.
This is the last time with you."

24. (Mr. Sim Wails) After hearing Sim Cheong, Mr. Sim wails frantically.

[Aniri] He heard her words that could gouge out his eyes rather than open them.
Something serious is about to happen.
[Jungjungmori] After hearing Sim Cheong, Mr. Sim slumps down.
What you said sounds terrific.
How on earth can you say those words to me?
How thoughtless you were!
How could you do that without asking me?
You thoughtless girl, listen to my sorrow.
Your mother died seven days after you were born.

어린 너를 품안에다가 안고 동냥젖 얻어 맥여
 이만큼, 저만큼, 이만큼이나 자랐기에,
 너희 모친 죽은 설움을 차차 잊었더니,
 내가 이것이 웬 말이냐?
 눈 팔아 너를 살테,⁷⁰⁹⁾
 너 팔아 내 눈 뜯들, 뉘를⁷¹⁰⁾ 보자고 눈을 뜨랴?
 너희 선인 도적놈들!
 장사도 좋거니와,
 앞 못 보는 무남독녀 철모르는 어린것을
 날 모르게 유인하여 값을 주고 산단 말이냐?
 동리 방장⁷¹¹⁾ 사람들, 저런 놈들을 그저⁷¹²⁾ 두어?
 너희 천하⁷¹³⁾ 상놈들아,
 옛말을 못 들었나?
 칠년대한⁷¹⁴⁾ 가물 제 사람 잡아 빌라허니,
 탕임금⁷¹⁵⁾ 어지신 말씀,
 ‘내가 지금 비는 바는 사람을 위함이라.
 사람 잡어 빌 양이면⁷¹⁶⁾ 내 몸으로 대신허리라.’
 몸으로⁷¹⁷⁾ 희생하여 전조단발 신영백모⁷¹⁸⁾ 상림뜰⁷¹⁹⁾ 빌었더니,
 대우방수천리⁷²⁰⁾ 풍년이 들었던다.
 그런 일도 있었으니,
 내 몸으로 대신 감이 어떠허냐?”
 마른 땅의 새우 뛰듯,
 여산폭포⁷²¹⁾ 돌 궁굴⁷²²⁾ 듯,
 치둥굴⁷²³⁾ 내리둥굴,⁷²⁴⁾
 가슴 쿵쿵 뛰다려,⁷²⁵⁾
 발 동동 구른다.

I raised you by holding you in my arms and begging for milk
 in the village.
 You are this big now.
 I could take off the grief over your mother's death.
 I can't believe what you said.
 I would rather sell my eyes to buy you.
 What would be the point of opening my eyes if I sold you?
 You bad sailors!
 Doing business is okay,
 but she is just a kid, my only child.
 How can you seduce and buy her without letting me know?
 Villagers, don't leave the sailors alone.
 You villains!
 Don't you know the old story?
 People tried to sacrifice a human during the seven year drought.
 An ancient king said kind words.
 'I pray for the sake of human beings.
 If you want to pray with a human sacrifice, use my body
 instead.'
 He cut nails and hair, tied himself with white grass, and prayed.
 They had a big rain and a good harvest in the wide area.
 That happened in the past,
 so what if I go instead of my daughter?"
 As if a shrimp jumped on the dry ground,
 and a rock rolled over on a waterfall,
 he rolls over up and down.
 He hits his chest with his fists.
 He stamps on the ground.

25. (선인 따라) 심청이 선인들을 따라서 슬피 울며 떠나간다.

[중모리] 선인들을 따라간다.

끌리는 치맛자락 거듬거듬⁷²⁶ 걷어 안고,
흐트러진 머리카락 두 귀 밑에 가 늘였구나.
비같이 흐르는 눈물 옷깃이 모도 다 사무친다.⁷²⁷
엎더지며⁷²⁸ 자빠지며
천방지축⁷²⁹ 따라가다
동네 앞을 나서더니, 건넌 마을 바라보며,
“이진사댁⁷³⁰ 큰악아!
상침질⁷³¹ 수놓기를 놀과⁷³² 함께 허락느냐?
김동지댁⁷³³ 작은악아!
작년 오월 단오날의 앵도⁷³⁴ 따고 노든⁷³⁵ 일을 행여 네가 잊었느냐?
너희들은 팔자 좋아 부모 모시고 잘 있거라.
나는 오늘 우리 부친 이별허고 죽으러 가는 길iero다.”
동네 남녀노소 없이 눈이 붓게 모두 울고,
하나님이 아옵신지,
백일⁷³⁶은 어디 가고 흑운⁷³⁷이 자욱헌디,
청산도 찡그난⁷³⁸ 듯,
간수⁷³⁹는 오열⁷⁴⁰하여
휘늘어져 곱든 꽃이 이울고져⁷⁴¹ 빛을 잃고,
춘조⁷⁴²는 슬피 울어
백반제송⁷⁴³하는 중에,
“물노라, 저 찢꼬리.
너는 뉘를 이별하고⁷⁴⁴
환우성⁷⁴⁵의 지어 울며,

**25. (Following the Sailors) Sim Cheong weeps sadly as
she follows the sailors.**

[Jungmori] Sim Cheong follows the sailors.
She holds up her trailing skirt.
Untidy hair hangs down under her ears.
Her tears fall down like rain and soak her clothes.
She falls down and over.
She hurriedly follows the sailors.
As she passes by the front of the village, she looks at the
neighboring village.
“The first daughter in Mr. Lee’s house!
Whom will you sew and embroider with from now on?
The second daughter in Mr. Kim’s house!
Don’t forget we had good time on May 5th last year, picking
up cherries.
You are fortunate to live with your parents.
Today I parted with my father, and I am going to die.”
Every villager weeps till his eyes swell.
Even heaven knows this.
The bright sun is blocked with dark clouds.
Mountains seem to frown.
A brook in a valley bewails.
Beautiful flowers wither down and lose their color.
A spring bird chirps plaintively.
Everything sees off Sim Cheong in tears.
“I ask you, nightingale.
Did you bid farewell to somebody?
Why are you singing so sadly?”

뜻밖의 두견이 소리 피를 내어 운다마는,
 야월공산⁷⁴⁶⁾ 어디 두고
 진정제송단장성⁷⁴⁷⁾의
 네 아무리 불여귀⁷⁴⁸⁾라 가지 위에 운다마는,
 값을 받고 팔린 몸이
 어느 년, 어느 때에나 돌아오리?”
 바람에 날린 꽃이 얼굴에 와 부딪치니,
 꽃을 떼어 손에 들고,
 “약도춘풍불해의면
 하인취송낙화래라?⁷⁴⁹⁾
 한무제 수양공주 매화장은 있건마는,⁷⁵⁰⁾
 죽으러 가는 몸이
 뉘를 위하여 단장⁷⁵¹⁾하며,
 청산에 지는 꽃은 지고 싶어 지라마는,
 바람에 떨어지니 제 마음이 아니로다.
 죽고 싶어 죽으라마는
 사세⁷⁵²⁾가 부득이⁷⁵³⁾ 되니
 수원수구⁷⁵⁴⁾를 어이 하리?”
 한 걸음에 돌아보고, 두 걸음에 눈물지며
 강두⁷⁵⁵⁾를 점점 당도한다.

26. (범피중류) 심청이 인당수를 향해 배를 타고 가며, 주변 의 경관을 보고 슬퍼한다.

[아니리] 강두를 당도하니,

Unexpectedly, a cuckoo cries, spewing out blood.
You left a moonlit, quiet, and empty mountain.
You weep plaintively.
On a branch you chirp as if you can't return.
I am sold at a price.
When will I come back?"
A flower flies in the wind and hits her face.
She grabs the flower.
"If this spring wind did not know my sorrow,
why would it send the flower to me?
An ancient princess was adorned with ume blossoms.
But I am on my way to die.
so I don't have to be adorned with anything.
Flowers on a green mountain fall down not because they want
to.
A wind makes them fall down even if they don't want to.
I am dying not because I want to.
I have no choice but to die.
I can't blame anybody."
As she walks, she sheds tears and looks back.
She arrives at the ferry.

**26. (Drifting Along in the Sea) On the boat to Indang
Water Sim Cheong feels sad as she looks around
the beautiful scenery.**

[Aniri] They arrive at the ferry.

배이마⁷⁵⁶)에다가 족판⁷⁵⁷) 놓고
긴장한 선인들이 각 채비⁷⁵⁸)를 단속한다.
뎃 감고, 뎃 달아,
북을 ‘두리둥 둥’ 울리며,
“어기야! 어기야!”

[진양조] 범피중류⁷⁵⁹) 둥덩실⁷⁶⁰) 떠나간다.
망망⁷⁶¹)한 창해⁷⁶²)이며
탕탕한⁷⁶³) 물결이로구나.
백빈주⁷⁶⁴) 갈매기는 홍요안⁷⁶⁵)으로 날아들고,
삼강⁷⁶⁶)의 기러기는 한수⁷⁶⁷)로만 돌아든다.
요량한⁷⁶⁸) 남은 소리
어적⁷⁶⁹)이 이언마는,⁷⁷⁰)
곡종인불견의 수봉만 푸르렀다.⁷⁷¹)
애내성중만고수⁷⁷²)는 날로⁷⁷³) 두고 이름인가?
장사⁷⁷⁴)를 지나갈 제,
가태부⁷⁷⁵)는 간 곳 없고,
굴삼려⁷⁷⁶) 어복충훈⁷⁷⁷)
무량⁷⁷⁸)도 허뎛든가?⁷⁷⁹)
황학루⁷⁸⁰)를 당도허니
일모향관하쳐시오?
연파강상의 사인수⁷⁸¹)는
최호⁷⁸²)의 유적⁷⁸³)이로구나.
봉황대⁷⁸⁴)를 당도허니
삼산은 반락청천외요,
이수중분백로주⁷⁸⁵)는
이태백⁷⁸⁶)이 노던 데요,

They put a plank between the land and the bow.
Robust sailors prepare for the departure.
They pull up the anchor and unfold up the sail.
They hit the drum.
“Yo-ho! Yo-heave-ho!”

[Jinyangjo] The boat drifts along in the middle of the sea.
The sea is wide and vast.
The waves are strong.
Seagulls fly from an island of white flowers to a hill of red water pepper.
Geese from three big rivers come back to another big river.
A clear sound approaches from a distant place.
It must be the sound of a pipe by a fisherman.
When the sound stops, there are only green mountain peaks.
The oars make sad sounds as if they were sad about Sim Cheong.
The boat passes by a certain place.
A famous ancient official, Jia Yi(賈誼), has gone.
A famous ancient poet, Qu Yuan(屈原), became food for fish there.
How is he doing now?
The boat arrives at a famous pavilion, Huanhelou(黃鶴樓).
The sun sets. Is my hometown far?
A wet fog rising up from a river intensifies anxiety.
Is that the trace of the ancient poet, Cui Hao(崔灝)?
The boat reaches a famous tower.
Three Mountain's peaks rise up through the clouds.
Two rivers flow around an island.
Another famous ancient poet, Li Bai(李白), enjoyed himself here.

심양강⁷⁸⁷)을 당도하니,
 백낙천⁷⁸⁸) 일거후⁷⁸⁹)에
 비파성⁷⁹⁰)이 끊어졌다.
 적벽강⁷⁹¹)을 그저⁷⁹²) 가랴?
 소동파 노던⁷⁹³) 풍월⁷⁹⁴)
 의구하여⁷⁹⁵) 있다마는,
 조맹덕⁷⁹⁶) 일세지웅⁷⁹⁷) 이금에 안재재오?⁷⁹⁸)
 월락오제⁷⁹⁹) 깊은 밤에
 고소성외⁸⁰⁰)에다가 배를 매니,
 한산사⁸⁰¹) 쇠북소리⁸⁰²) 원근⁸⁰³)을 상응⁸⁰⁴)하여 객선⁸⁰⁵)에 ‘텅텅’ 떨
 어진다.

27. (소상팔경) 심청이 소상팔경을 지나가며 열녀와 충신들 의 원혼을 만난다.

[중모레] 소상팔경⁸⁰⁶) 지내갈 제,
 한 곳을 당도하니,
 옥패⁸⁰⁷) 소리가 쟁쟁⁸⁰⁸) 나며
 어떠한 두 부인이 죽림⁸⁰⁹) 사이로 나오는데,
 선관⁸¹⁰)을 돌오⁸¹¹) 쓰고 신음그려⁸¹²) 나오더니,
 “저기 가는 심소저⁸¹³)야!
 내가 나를 모르리라.
 나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창오산봉상수절이라야
 죽상지루를 내가떨이라,⁸¹⁴)

The boat comes up to another famous river.
 Another famous ancient poet, Bai Letian(白樂天), has gone,
 so has the sound of the lute.
 The boat arrives at another famous river.
 Another famous ancient poet, Su Dongpo(蘇東坡), enjoyed
 himself here.
 The beautiful scenery has not changed.
 Where is the famous one-time hero, Cao Cao(曹操), who was
 here?
 It is deep night when the moon has set and a crow cries.
 The boat arrives at a famous fortress.
 The soft and loud bell sounds from a buddhist temple reach the
 travelers' boat.

**27. (The Eight Beautiful Sites) Sim Cheong meets the
 souls of faithful women and loyal subjects, when
 she passes by the eight beautiful sites.**

[Jungmori] The boat passes by the eight beautiful sites.
 The boat reaches a certain place.
 Clear sounds of jewels are heard.
 Two ladies come out of a bamboo grove.
 They wear divine hats and groan as they come out.
 "Hello there, Miss Sim!
 You must not know us.
 Let me tell you who we are.
 After the mountain collapses and the river dries up,
 our tears on the bamboos will disappear.

천추⁸¹⁵의 깊은 한을 하소할⁸¹⁶ 곳 없었더니,
 지극한 네 효성에 하례⁸¹⁷코자 내 왔노라.
 요순우탕기천년고?⁸¹⁸
 지금은 어느 때며,
 오현금⁸¹⁹ 남풍시⁸²⁰를 이제까지 전하드냐?
 수로 천 리 먼먼 길을 조심하여서 다녀오너라.”

28. (인당수 투신) 인당수에 당도한 심청이 제사를 마친 후, 아버지 눈뜨기를 빌면서 물로 뛰어든다.

[자진모레] 한 곳을 당도하니,
 이는 곧 인당수라.
 광풍⁸²¹이 대작⁸²²허고,
 어룡⁸²³이 싸우난 듯,
 벽력⁸²⁴이 일어난 듯,
 운무⁸²⁵가 대작하여⁸²⁶ 천지 지척⁸²⁷ 알 길 없고,
 천지 적막하여
 가치늪⁸²⁸ 떠 뱃전을 탕탕 부딪칠 제,
 대천바다⁸²⁹ 한가운데 노⁸³⁰도 잃고, 닻⁸³¹도 끊쳐,⁸³²
 용충줄⁸³³ 끊어져,
 키⁸³⁴ 빠지고
 바람 불 제,
 안개 저저진⁸³⁵ 날,
 갈 길은 천 리, 만 리나 남었는데,
 사면이 어둑 점그러져⁸³⁶

We had nobody to talk with about our old griefs.
We are here to praise your filial piety.
Thousands of years have passed since the great ancient kings
died.
When is it now?
Are a pentachord and a poem inherited?
Take care in the long journey on the sea.”

**28. (Jumping into Indang Water) Sim Cheong reaches
Indang Water. After the ritual, she jumps into the
water, wishing that her father opens his eyes.**

[Jajinmori] They arrive at a certain place.
This is Indang Water.
A strong wind blows.
It is as if a fish fought with a dragon.
It is as if thunder fell.
Cloud and fog make even close things invisible.
The sky and the sea are desolate.
Strong currents hit the bow of the boat hard.
In the middle of the vast sea, they lost oars and the anchor.
The string holding the sail is cut off.
The rudder is pulled off.
A wind blows.
There is heavy fog.
They have a long way to go.
It is dark in all four directions.

천지 지척 알 길 없다.

수중고혼,⁸³⁷⁾ 잡귀,⁸³⁸⁾ 잡신⁸³⁹⁾ 심청의 지기⁸⁴⁰⁾ 보라 허고,

섯돌며⁸⁴¹⁾ 우는 소리 풍파강산⁸⁴²⁾ 섞어 날 제,

선인들이 황황대급⁸⁴³⁾ 고사⁸⁴⁴⁾ 기구를 차려,

섬쌀⁸⁴⁵⁾로 밥을 짓고,

큰 소 잡아 헤뜨리고,⁸⁴⁶⁾

동우술⁸⁴⁷⁾ 삼색실과⁸⁴⁸⁾ 오색탕수⁸⁴⁹⁾ 받쳐놓고,

산 돌⁸⁵⁰⁾ 잡아

큰 칼 꽃아 기는 듯이 받쳐놓고,

심청을 정한⁸⁵¹⁾ 의복 입혀

고사 끝에 바칠 차로⁸⁵²⁾ 뱃머리에다 얹혀 놓고,

[아니레] 영좌⁸⁵³⁾가 북을 울려 고사를 지내는데,

[중중모레] 북을 두리둥 둥 둥 둥둥 두리둥 둥둥둥.

“헌원씨⁸⁵⁴⁾ 배를 무어⁸⁵⁵⁾ 이제불통⁸⁵⁶⁾허고,

후생⁸⁵⁷⁾이 본을 받아 다 각기 위업⁸⁵⁸⁾하니

막대한 공 이 아닌가?

하후씨⁸⁵⁹⁾ 구년지수⁸⁶⁰⁾ 배 타고 다스릴 제,

오복의 정한 공수⁸⁶¹⁾ 구주⁸⁶²⁾로 돌아들고,

해성의⁸⁶³⁾ 패한 장수 오강⁸⁶⁴⁾으로 돌아들 적에 그도 또한 배를 타고,

임술지추칠월에 종일위지소요하여⁸⁶⁵⁾ 지국충⁸⁶⁶⁾ 어사와⁸⁶⁷⁾는 어부

의 즐거움이라.

경세우경년⁸⁶⁸⁾의 상고선⁸⁶⁹⁾이 이 아닌가?

우리 동료 스물네 명 상고⁸⁷⁰⁾로 위업하여⁸⁷¹⁾ 경동경서⁸⁷²⁾ 다니다가,

인당수 용왕님이 인제수⁸⁷³⁾를 받삼기로 십오 세 처녀를 넣사오니,

동해신 청룡신,

남해 적룡신,

Nothing can be seen.
 Water demon and ghosts are here to watch Sim Cheong.
 Their sounds are mixed with the sounds of the wind and the wave.
 The sailors hurriedly prepare for a rite.
 A bag of rice is cooked.
 A cow is slaughtered for food.
 A jar of wine, fruits of three colors, and soups of five colors are prepared.
 A live pig is slaughtered.
 It is hung on a big knife as if it crawled.
 They have her put on clean clothes.
 To be offered at the end of the ritual, she is placed at the bow.
[Aniri] The leader hits the drum, starting the ritual.
[Jungjungmori] The drum creates sounds: tom-tom, boom-boom.
 An ancient king made a boat, connecting two separated places.
 Some people followed him and became sailors.
 This is a great accomplishment.
 Another ancient king dealt with the nine year flood on a boat.
 He levied taxes on five areas and shipped them to nine areas.
 A defeated ancient warrior, Xiang Yu(項羽), came back to a river on a boat.
 A fisherman spent leisure time in summer drifting around on a small boat.
 We, sailors, have been doing business for several years.
 We, 23 sailors, have been taking business trips to many places.
 We offer a fifteen year old virgin to the dragon king at Indang Water.
 The blue dragon king in the east sea,
 the red dragon king in the south sea,

서해 백룡신,
 북에 흑룡신,
 강한지장⁸⁷⁴)과
 천택지군⁸⁷⁵)이
 일시로⁸⁷⁶) 흠향⁸⁷⁷)을 하옵시고,
 비렴⁸⁷⁸)으로 바람 불어
 직수문적하야,⁸⁷⁹) 배도 무쇠배⁸⁸⁰)가 되어,
 수천 리 대해⁸⁸¹) 중의 무사히 행선⁸⁸²)하옵기를 점지⁸⁸³)하여 주옵소서.”
 그저 북을 두리둥 둥둥.
 고사를 그치더니,
 “심낭자 물때⁸⁸⁴) 늦어가니 어서 급히 물에 들어라!”
 성화같이⁸⁸⁵) 재촉하니,
 심청이 이 말을 듣더니
 일신수족⁸⁸⁶)을 벌벌 떨고
 하는 말이, “여보시오, 선인네들. 도화동 쪽이 어디요?”
 선인이 손을 들어 도화동을 가르친다.
 “저 건너 흑운⁸⁸⁷)이 적막허고, 희연⁸⁸⁸) 구름이 담담헌⁸⁸⁹) 데,
 그 아래가 도화동일세.”
 심청이 바라보더니 두 손을 합장⁸⁹⁰)허고
 뱃장⁸⁹¹) 안에 엎드려져,
 “아이고, 아버지! 심청은 죽사오나
 아버지는 눈을 떠 천지만물⁸⁹²)을 보옵시고,
 날같은⁸⁹³) 불효여식⁸⁹⁴)을 생각지 마옵소서!
 나 죽기 싫지 않으나
 혈혈단신⁸⁹⁵) 우리 부친 누굴 의지한단 말이냐?”
 가삼⁸⁹⁶)을 뚜다리며⁸⁹⁷) 북통단장⁸⁹⁸)터니,

the white dragon king in the west sea,
 the black dragon king in the north sea,
 the generals of rivers,
 and the kings of streams and ponds,
 please take this sacrifice together.
 Give us a wind via the god of the wind.
 Make our boat strong with the certificate from the dragon king.
 Please let our boat travel safely in the middle of the vast sea."
 The drum is hit. Tom-tom.
 The rite is over.
 "Sim Cheong, it is time to get into the water. Jump in quickly!"
 They urge her to get in.
 Sim Cheong heard them.
 Her limbs tremble.
 She asks, "Hello, sailors. In which direction is Peach Blossom Village?"
 A sailor holds up his hand and points to a direction.
 "Over there, black clouds are desolate, and white clouds are clear.
 Below them is Peach Blossom Village."
 Sim Cheong looks at that direction and puts her hands together.
 She gets down on her knees inside the boat.
 "Alas, my father! I am dying.
 Please open your eyes and see the world.
 Please don't think about your bad daughter.
 I don't mind dying.
 But who will my lonely father turn to?"
 She hits her chest in grief.

“여보시오, 선인네들!
 억십만금⁸⁹⁹⁾ 퇴⁹⁰⁰⁾를 내어
 고국으로 가는 길에 도화동 찾아가서,
 우리 부친이 눈 뵈으면 뵈다든지,
 애통⁹⁰¹⁾하여 세상을 버렸으면⁹⁰²⁾ 버렸다든지
 존망⁹⁰³⁾을 알아다가,
 이 물에 지내거든⁹⁰⁴⁾ 나의 혼을 불러 그 말 부디 일러 주오.”
 “글랑은⁹⁰⁵⁾ 염려 말고
 어서 급히 물에 들어라!”
 물결을 살펴보니
 원해만리⁹⁰⁶⁾는 하늘에 닿았난디,
 태산같은 덩이⁹⁰⁷⁾ 뱃전을 움죽,⁹⁰⁸⁾
 풍랑은 우루루루루,
 물결은 위리렁 출렁 뒤척,⁹⁰⁹⁾
 뱃전⁹¹⁰⁾을 탕탕 와르르르르.
[휘모리] 심청이 거동⁹¹¹⁾ 보라.
 바람 맞은 사람처럼 이리 비틀, 저리 비틀
 뱃전으로 나가더니, 다시 한 번 생각한다.
 ‘내가 이리 진퇴키는⁹¹²⁾ 부친 효성이 부족함이라.’
 치마폭 무릎쓰고,
 두 눈을 딱 감고,
 뱃머리로 우르르르르르.
 “아이고, 하나님! 명천⁹¹³⁾이 감동하사⁹¹⁴⁾
 아버지의 허물일랑 심청 몸으로 대신하고,
 아버지의 어두운 눈을 밝게 점지하옵소서!”
 기러기 낙수격으로⁹¹⁵⁾ 뿔다 물에 가 ‘퐁!’

“Hello, sailors.
I hope you make a lot of money.
Come back to our country and visit Peach Blossom Village.
Please see if my father opened his eyes or not,
and if he left this world in resentment or not.
Please find out whether he is alive or dead.
When you pass by here, please call to my soul and let me
know.”
“Don’t worry about that.
Hurry up into the water.”
She takes a look at waves.
The distant sea touches the sky.
Large waves hit the stern.
Winds generate loud sounds.
Waves roll over vigorously.
They hit the bow, creating loud sounds.

[Hwimori] Behold Sim Cheong!
She staggers as if she were hit by a wind.
She proceeds to the bow and thinks one more time.
‘I move back and forth because I don’t love my father enough.’
She covers her face with her skirt.
She closes her eyes.
She runs to the bow.
“Alas, God! I wish that all-knowing God moves.
Please amend my father’s fault with my body.
Please help my father open his eyes!”
She flies into the water like a seagull.

29. (선인 탄식) 심청이 물에 빠진 뒤 선인들이 탄식하며 떠나간다.

[진양조] 향화⁹¹⁶)는 풍랑⁹¹⁷)을 쫓고,
명월⁹¹⁸)은 해문⁹¹⁹)에 잠겼구나.
묘창해지일속이라.⁹²⁰)
제문⁹²¹)을 물에다가 놓을 적에,
청천⁹²²)의 외기러기는 북천⁹²³)으로 울고 가고,
창과만경⁹²⁴) 너른⁹²⁵) 바다 쌍쌍백구⁹²⁶)만 홀리 뒀구나.⁹²⁷)
우후청강⁹²⁸) 좋은 흥의 비거비래⁹²⁹) 왕래커늘,
선인들 마음이 처량하여 면면히⁹³⁰) 바라보며,
“아차차차! 불쌍허구나.
우리가 장사도 좋거니와,
사람을 사다가 물에다 넣고 우리 후사⁹³¹)가 잘 되겠느냐?
명년부터는 이 장사를 말자.
뎃 감어라. 어기야 기야, 어기야 기야, 어기야 기야, 어허.”
둥둥둥둥, 남경으로 떠나간다.

30. (심청 용궁행) 옥황상제의 명을 받은 용왕이 물에 빠진 심청을 수정궁으로 데려가는데, 용궁이 화려하다.

[아니리] 이 때에 옥황상제⁹³²)께옵서 사해 용왕⁹³³)께 하교⁹³⁴)하시되,
모일⁹³⁵)모시⁹³⁶)에 출천대효⁹³⁷) 심청이가 물에 들 것이니

29. (The Sailors' Lamentation) After Sim Cheong jumps into water, the sailors feel sorry and leave.

[Jinyangjo] Incense follows the waves.
The bright moon is below the horizon.
Sim Cheong's body is a little grain in the blue sea.
The written ode is thrown into the sea.
A wild goose flies to the north sky, while crying.
Seagulls hover over the wide blue sea in pairs.
The birds are flying to a clear river after it rained.
The sailors, feeling sad, look at each other's face.
"Oh, poor Sim Cheong.
Doing business is all right.
But children won't be able to prosper because we threw a
human into the water."
Let's stop this from next year on.
Pull up the anchor. Yo-ho! Yo-heave-ho!"
They head to China.

**30. (Sim Cheong's Heading to the Dragon Palace)
Under the order from the King of Heaven, the
dragon king brings Sim Cheong to the magnificent
dragon palace.**

[Aniri] The King of Heaven gives an order to the dragon king
of the four seas.
Sim Cheong, a good daughter, will jump into the water at a
certain time.

고이 모시라는

엄명⁹³⁸)이 지엄하거늘,⁹³⁹⁾

사해 용왕 영을 듣고 그 시⁹⁴⁰)를 기다릴 제,

과연 옥같은 낭자가 홀연히⁹⁴¹) 물에 들거늘,

백옥⁹⁴²) 교자⁹⁴³)에 고이 모셔 수궁으로 들어갈 제,

[엇모레] 위의⁹⁴⁴)도 장할시고.⁹⁴⁵⁾ 위의도 장할시고.

천상⁹⁴⁶) 선관⁹⁴⁷) 선녀들이 심소저⁹⁴⁸)를 보라하고 좌우로 벌였난디,

태을진⁹⁴⁹)은 학을 타고,

안기생⁹⁵⁰) 연⁹⁵¹)을 타,

구름 탄 적송자,⁹⁵²⁾

사자 탄 갈선옹⁹⁵³)과

고래 탄 이적선,⁹⁵⁴⁾

청의동자,⁹⁵⁵⁾ 홍의동자⁹⁵⁶⁾ 쌍쌍이 모셨네.

월궁향아⁹⁵⁷⁾ 마고선녀⁹⁵⁸⁾ 남악부인⁹⁵⁹⁾

팔선녀들⁹⁶⁰⁾이 좌우로 모셨난디,

풍악⁹⁶¹⁾을 갖추 제

왕자진⁹⁶²⁾의 봉피리⁹⁶³⁾ ‘니나노 나노나’, 괘처사⁹⁶⁴⁾ 죽장구⁹⁶⁵⁾ ‘찌리
령 정궁’,

장자방⁹⁶⁶⁾의 옥통소⁹⁶⁷⁾ ‘띠띠루 띠루디’, 성연자⁹⁶⁸⁾ 거문고 ‘시르령
등덩’.

낭자⁹⁶⁹⁾헌 풍악소리 수궁이 진동헌다.

노경골이위랑허니 인광이 여일이요,

집어린이작와허니 서기 반공이라.⁹⁷⁰⁾

주궁패궐은

응천상지삼광이요,

곤의수상은 비인간지오복이라.⁹⁷¹⁾

Take good care of her.
The order is grim.
The dragon king takes the order and waits for the time.
As expected, a beautiful damsel jumps into the water.
She is taken to the dragon palace on a white carriage.

[Eotmori] How magnificent and majestic!
Gods and goddesses from heaven are in rows to get a glimpse
of Miss Sim.
The highest god is on a crane.
Another is on a carriage.
Another is on a cloud.
Another is on a lion.
Another is on a whale.
Children in blue and red clothes stand in pairs.
The goddess from the moon, a legendary goddess, a goddess
from a mountain,
and the eight goddesses are on the left and right.
Music is played.
The musical instruments are a phoenix-shaped pipe, a
brassware-shaped drum,
a jade flute, and a six-stringed zither.
The music trembles the sea palace.
The crossbeam made of old whales' bones gives off light like
the sun.
The roof made of fish scales radiates favorable energy into the
sky.
It is ornamented with all sorts of jewels.
The sun, the moon, and stars shine together.
The king's embroidered clothes represent the five blessings.

산호 주렴⁹⁷²⁾

백옥 안상⁹⁷³⁾ 광채⁹⁷⁴⁾도 찬란하다.

주안⁹⁷⁵⁾을 드릴 적에 세상 음식이 아니라.

유리잔⁹⁷⁶⁾ 호박병⁹⁷⁷⁾에 천일주⁹⁷⁸⁾ 가득 담고,

한가운데 삼천벽도⁹⁷⁹⁾를 덩그렇게⁹⁸⁰⁾ 괴었으니⁹⁸¹⁾

세상의 못 본 바라.

삼일에 소연⁹⁸²⁾치고, 오일에 대연하야⁹⁸³⁾ 극진히 봉공⁹⁸⁴⁾한다.

31. (심청 모친 상봉) 심청이 용궁에서 어머니를 만난다.

[아니리] 이렇듯 수궁에 머무를 제,

하루는 천상에서 옥진부인⁹⁸⁵⁾이 하강⁹⁸⁶⁾하십니다,

이는 뉘신고 하니,

세상에서 곱씨부인이 죽어 광한전⁹⁸⁷⁾ 옥진부인이 되었겠다.

심청이 수궁에 머문단 말을 듣고

모녀상봉차⁹⁸⁸⁾ 내려오시난디,

[진양조] 오색 채단⁹⁸⁹⁾을 기린에 가득 싣고,

벽도화⁹⁹⁰⁾ 단계화⁹⁹¹⁾를 사면에 벌여 꽃고,

청학 백학은 전배⁹⁹²⁾ 서고,

봉황은 춤출 제,

수궁에 내려오니

용왕도 황겁⁹⁹³⁾하야 문전에 배례⁹⁹⁴⁾할 제,

옥진부인이 들어와 심청 손을 부여잡고,

“네가 나를 모르리라.

나는 세상에서 너를 낳은 곱씨로다.

A splendid door blind is made of corals.
A lustrous chair is made of white jewels.
Divine food and wine are brought in.
Glasses and amber bottles are filled with old wine.
Divine peaches are piled up at the center of the table.
These things can't be seen in the human world.
Sim Cheong is served with small and big feasts every several days.

31. (The Mother and the Daughter Meet,) Sim Cheong meets her mother in the dragon palace.

[Aniri] Sim Cheong is served well in the sea palace.
Meanwhile, the goddess of the moon comes down to the earth.
Who is the goddess?
Mrs. Gwak died and became the goddess of the moon.
She heard that Sim Cheong stays in the sea palace.
She is coming down to meet her.

[Jinyangjo] The goddess comes down with a giraffe carrying silks
of various colors.
She is decorated with divine blue peach flowers and cinnamon
flowers.
She is escorted by a blue crane and a white crane.
A phoenix dances.
She comes down to the sea palace.
The dragon king shows bows to her at the gate.
The goddess comes in and grabs Sim Cheong's hands.
"You must not know me.
I was your mother in the human world.

너의 부친 많이 늙었으리라.
 나는 죽어 귀인이 되고,
 광한전⁹⁹⁵⁾ 옥진부인이 되었는데,
 너는 부친 눈 띄우라고 삼백 석에 몸이 팔려 이 곳에 왔단 말을 듣고,
 너를 보러 내 왔노라.”
 심청의 얼굴을 끌어다가 가슴에 대고 문지르며,
 “아이고, 내 새끼야!
 꿈이던 께까 염려로다.
 귀와 목이 의젓한 게 너의 부친 도싱허구나.”⁹⁹⁶⁾
 그제야 심청이 모친인 줄을 짐작하고,
 부인의 목을 부여잡고,
 “아이고, 어머니! 어머니, 이게 꿈이요, 생시오?
 불효여식 청이는 앞 어두운 백발 부친 홀로 두고 나왔는데,
 외로우신 아버지는 뉘를 의지하오리까?”
 부인이 심청을 달래는데,
 “내 딸 청아, 우지마라.
 너는 일후⁹⁹⁷⁾ 너의 부친 다시 만나 만종록⁹⁹⁸⁾을 누리리라.
 광한전 말은 일이 직분⁹⁹⁹⁾이 허다¹⁰⁰⁰⁾하여
 오래 지체 어려워라.”
 옥패¹⁰⁰¹⁾ 소리가 쟁쟁¹⁰⁰²⁾ 나더니
 오색 채운¹⁰⁰³⁾으로 올라가니,
 심청이 따라갈 수 전혀 없고
 가는 모친을 우두머니¹⁰⁰⁴⁾ 바라보며,
 모녀 작별이 또 되는구나.

Your father must be old now.
I became noble after I died.
I am now the goddess of the moon.
I heard you are here because you were sold at 300 bags of rice
to open your father's eyes.
I am here to see you."
She pulls Sim Cheong's face to her bosom and rubs her.
"Oh my sweetheart!
I am afraid I might wake up if this were a dream.
Your earlobes and neck look good, resembling those of your
father."
Sim Cheong now thinks that the goddess is her mother.
She hugs the goddess's neck.
"Oh my mother! Is this a dream or real?
I, a bad daughter, left my old blind father behind.
Whom will my lonely father rely on?"
The goddess consoles Sim Cheong.
"My daughter, Cheong! Don't cry.
You will meet your father again and be served by the
government.
I have many things to do on the moon.
I can't stay here for long."
Clear sounds by jewels are made.
The goddess flies up on colorful clothes.
Sim Cheong can't follow her.
She watches her going up vacantly.
The mother and the daughter are separated again.

32. (심청 환생) 심청이 환생하여 꽃봉을 타고 인당수로 나오니, 마침 돌아가던 선인들이 꽃을 발견하다.

[아니리] 하루는 옥황상제께옵서 사해 용왕께 다시 하명¹⁰⁰⁵)하시되,
“심낭자 방년¹⁰⁰⁶)이 늙어가니
인간 환송시켜¹⁰⁰⁷) 귀한 배필을 정해 주라.”
용왕이 수명¹⁰⁰⁸)하고
심낭자를 환송할 제,
꽃 한 송이를 조화 있게 만들어,
양개¹⁰⁰⁹) 시녀¹⁰¹⁰)로 시위¹⁰¹¹)하야
인당수에 띄웠것다.

[진양조] 꿈같이 번듯 뒸다.

천상의 조화¹⁰¹²)요,
용왕의 신접¹⁰¹³)이라,
바람이 분들 흘러가며, 비가 온들 요동¹⁰¹⁴)을 하랴.
오색 채운¹⁰¹⁵)에 꽃봉이¹⁰¹⁶)가 어리어서¹⁰¹⁷)
주야로 등실 떠 있거늘,
남경 갔던 선인들이 억십만금¹⁰¹⁸) 퇴¹⁰¹⁹)를 내어 고국으로 돌아갈
적에,
복을 ‘두리 둥둥’ 올리면서,
“어기야, 어기야.”
인당수 다다라
심낭자 혼을 불러 슬픈 말로 제 지낸다.
“넋이야, 넋이로다.
이 넋이 뉘 넋인가?

**32. (The Reincarnation of Sim Cheong) Sim Cheong is
reincarnated in a flower and sent back to Indang
River. The sailors going back home spot the
flower.**

[Aniri] One day, the King of Heaven again calls the dragon king
and gives him an order again.

“Miss Sim is old enough to get married.

Send her back to the human world and get her a good spouse.”

The dragon king comes down with the order.

He sends her back to the human world.

He makes a mysterious flower.

He has two maids serve her.

He has the flower spring up at Indang Water.

[Jinyangjo] The flower swiftly springs up.

This is the work of god.

This is a miracle by the dragon king.

The flower does not move despite a wind or rain.

Colorful clouds surround it.

It stays on the surface day and night.

Meanwhile, the sailors go back home after making a lot of profit.

They hit the drum.

“Yo-ho! Yo-heave-ho!”

They arrive at Indang Water

They invoke Miss Sim’s soul and hold a ritual with sad words.

“We hereby invoke a soul.

Whose soul do we invoke?

오장원¹⁰²⁰)에 낙상¹⁰²¹)허던 공명¹⁰²²)의 녀도 아니요,
 삼년 무관의 초 회왕¹⁰²³)의 녀도 아니요,
 부친 눈을 띄우라고 삼백 석에 몸이 팔려 인당수 제수 되신 심낭자의
 녀이로구나.
 혼이라도 와졌거든¹⁰²⁴) 많이 흠향¹⁰²⁵)을 하옵소서.”
 제물¹⁰²⁶)을 물에 풀고,
 눈물 씻고 바라보니,
 난데없는 꽃봉이가 해상¹⁰²⁷)에 등실 떠 있거늘,

33. (화초타령) 천자가 꽃을 좋아하여 심어놓고 즐기는데, 이를 안 도선주는 바다에서 건져온 꽃을 바친다.

[아니리] 선인들이 괴이히 여겨,
 가까이 가서 그 꽃을 건져 뱃장¹⁰²⁸) 안에 놓고 보니,
 크기가 수레 같고, 향취¹⁰²⁹) 진동커늘,
 고국으로 돌아와 수다히¹⁰³⁰) 남은 재물¹⁰³¹) 다 각기 분배할 제,
 도사공¹⁰³²)은 무슨 마음인지 재물을 마다하고
 꽃봉이만 차지하야,
 저의 집 후원 정한¹⁰³³) 곳에 잘 모셨던가 보더라.
 이때는 어느 때이고 하니,
 송 천자께서 황후 봉¹⁰³⁴)하신 후 납비¹⁰³⁵)를 아니하시고,
 기화요초¹⁰³⁶)를 모아 황극전¹⁰³⁷)에 심어놓고
 조석으로¹⁰³⁸) 소일¹⁰³⁹)하시는데,
 [중중모리] 화초도 많고 많다.

It is not the soul of an ancient strategist, Kong Ming(孔明), who got hurt from a fall.

It is not the soul of an ancient king who was held in hostage for three years.

It is the soul of Miss Sim who was sold at 300 bags of rice and became a sacrifice at Indang Water to open her father's eyes. If you are with us, please help yourself with this food."

The sailors spread the offering over the sea.

They wipe their tears.

Out of the blue, they spot a flower floating on the sea.

33. (Flower Song) The emperor, loving flowers, plants flowers and enjoys watching them. The owner of the boat offers the flower from the sea to him.

[Aniri] The sailors think the flower is mysterious.

They approach it, pull it up, and place it on the boat.

It is as large as a wheel, and gives off fragrance.

They come back to their country and divide the huge properties among themselves.

Somehow, the leader is not interested in any property.

He only takes the flower.

He carefully puts it in a clean place in his backyard.

What happens in the world now?

The emperor remains unmarried after the queen died.

He plants beautiful flowering plants in his office.

He spends time watching them day and night.

[Jungjungmori] There are many flowers and flowering plants.

팔월부용군자용¹⁰⁴⁰⁾
 만당추수의 흥련화.¹⁰⁴¹⁾
 암향부동월황혼¹⁰⁴²⁾ 소식 전튼¹⁰⁴³⁾ 한매화.¹⁰⁴⁴⁾
 진시유랑거후재¹⁰⁴⁵⁾는 붉어 있다고 복송꽃.¹⁰⁴⁶⁾
 구월구일용산음 소축신 국화꽃.¹⁰⁴⁷⁾
 삼천 제자를 강론¹⁰⁴⁸⁾을 허니 행단춘풍¹⁰⁴⁹⁾의 은행꽃.
 이화만지불개문¹⁰⁵⁰⁾하니 장신궁중¹⁰⁵¹⁾ 배꽃이요,
 천태산¹⁰⁵²⁾ 들어가니 양변개작약¹⁰⁵³⁾이요,
 원정부지이별¹⁰⁵⁴⁾허니 옥창오건의 앵도화.¹⁰⁵⁵⁾
 축국한¹⁰⁵⁶⁾을 못 이기어 제혈¹⁰⁵⁷⁾허든 두견화.¹⁰⁵⁸⁾
 이화¹⁰⁵⁹⁾ 노화¹⁰⁶⁰⁾ 계관화¹⁰⁶¹⁾
 홍국¹⁰⁶²⁾ 백국¹⁰⁶³⁾ 사계화,¹⁰⁶⁴⁾
 동원도리편시춘¹⁰⁶⁵⁾
 목동요지가 행화춘¹⁰⁶⁶⁾.
 월중단계무삼경¹⁰⁶⁷⁾ 달 가운데 계수나무.
 백일홍 영산홍 왜철쭉
 진달화¹⁰⁶⁸⁾ 난초 파초¹⁰⁶⁹⁾
 오미자 치자¹⁰⁷⁰⁾ 감과¹⁰⁷¹⁾ 유자
 석류 비파¹⁰⁷²⁾ 능금
 포도 머루 으름¹⁰⁷³⁾ 대추
 각색 화초, 갓은 향과¹⁰⁷⁴⁾ 좌우로 심었난디,
 향풍¹⁰⁷⁵⁾이 건듯¹⁰⁷⁶⁾ 불면, 벌, 나비, 새, 짐생들이 지지울며¹⁰⁷⁷⁾ 노
 난다.

A lotus flower blooming in August looks like a wise man.
 An autumn pond is full of red lotus flowers.
 The fragrance of Japanese apricot wanders in the dim moonlight.
 All the peach blossoms were planted by an ancient poet.
 A chrysanthemum once derided a relegated subject in fall.
 Gingko blossoms bloomed in spring when Confucius gave a
 lecture to three thousand students.
 A court lady didn't open the gate when pear blossoms were
 piled up in a palace.
 There were peony blossoms on both sides of a road on a
 mountain.
 A woman watched cherry blossoms from a window while
 missing her husband in the battle field.
 Azalea threw up blood, overtaken by the grief that its country
 fell.
 There are plum flower, reed flower, cockscomb,
 red chrysanthemum, white chrysanthemum, and Chinese rose.
 A peach blossom blooms in spring.
 A shepherd points to a village of apricot blossoms.
 A cinnamon tree is on the bright moon.
 There are garden zinnia, wild azalea,
 azalea, irise, plantain,
 Maximowiczia chinensis, torrey nut, citron,
 pomegranate, loquat, apple,
 grape, wild grape, clematis berry, and jujube.
 Diverse flowering plants and fragrant fruit trees are on the left
 and right.
 Bees, butterflies, and birds sing and dance when a gentle breeze
 blows.

34. (천자 심청 발견) 천자가 꽃을 보다가 꽃 속에 있는 심청을 발견한다.

[아니리] 그때에 도사공은 천자께옵서 세상의 기화요초¹⁰⁷⁸)를 모은 단 말을 듣고,

인당수에 얻은 꽃을 천자님께 진상¹⁰⁷⁹)하니,
천자 보시고 기특타 칭찬하시고 후히 상을 주셨것다.

그 꽃을 옮겨 황극전에 놓고 보니
크기가 무쌍¹⁰⁸⁰)이요, 향취 진동터라.

[중모리] 천자 보시고 대희하사,¹⁰⁸¹

“저 꽃이 웬 꽃이나? 저 꽃이 웬 꽃이나?

요지벽도화¹⁰⁸²)를 동방삭¹⁰⁸³)이 따온 지가 삼천 년이 못 다 되니
벽도화도 아니요,

극락세계 연화꽃이 떨어져서 해상에 등실 떠왔는 듯.”

그 꽃 이름을 강선화¹⁰⁸⁴)라 지으시고

조석으로¹⁰⁸⁵) 구경허실 제,

일야는¹⁰⁸⁶) 천자 심신이 산란하여 화계상을 배회할 제,

뜻밖에 강선화 벌어지며

선녀들이 서 있거늘,

천자 고이¹⁰⁸⁷) 여겨,

“너희들이 귀신이나? 사람일다?”¹⁰⁸⁸)

시녀, “예이!” 하고 여짜오되, “남해 용궁 시녀로서

심소저를 모시고 세상에 나왔다가

불의에¹⁰⁸⁹) 천안¹⁰⁹⁰)을 범하였사오니¹⁰⁹¹)

황공무지¹⁰⁹²)하오이다.”

이 말이 지듯 마듯¹⁰⁹³) 인흘불견¹⁰⁹⁴) 간 곳 없고,

한 선녀만 서 있거늘,

34. (The Emperor Sees Sim Cheong.) While watching his flowers, the emperor sees goddesses in the flower.

[Aniri] Meanwhile, the owner of the boat hears that the emperor seeks a beautiful flower.

He donates the flower from Indang Water to the emperor.

The emperor praises him and gives him a prize.

He moves the flower to his office and watches it.

It excels in size and emits fragrance.

[Jungmori] The emperor is happy to see the flower.

“What flower is this? What flower is this?”

Three thousand years have not passed since an ancient man picked up a divine peach blossom from a pond.

So it can't be a divine peach blossom.

It looks as if a lotus flower came from the paradise via the sea.”

The emperor names it God Descending Flower.

He watches it day and night.

One night, he feels uneasy and takes a walk in the garden.

Unexpectedly, God Descending Flower opens up.

Goddesses stand there.

He is surprised.

“Are you ghosts or human beings?”

The maids respond, “We are maids from the dragon palace.

We have taken Miss Sim to the world of human beings.

Unexpectedly, we are spotted by you.

We are nervous.”

The moment they finish, they disappear.

Only one goddess is now in the flower.

35. (심청 황후 책봉) 천자가 심청을 황후로 삼는다.

[아니레] 천자 대강 탐문¹⁰⁹⁵하시니 세상의 심소저라.
궁녀로 시위하야 별궁¹⁰⁹⁶으로 모셔놓고,
이튿날 만조백관¹⁰⁹⁷ 조희석¹⁰⁹⁸에 간밤 꽃 사연을 말씀하시니,
제신등¹⁰⁹⁹이 여짜오되, “국모¹¹⁰⁰ 안 계심을 하늘이 알으시고 인연
을 보냈사오니,
국모로 모시옵소서.”
[중모레] 천자 이 말을 옳게 들으시고,
일관¹¹⁰¹ 시켜 택일¹¹⁰²허여
꽃봉¹¹⁰³ 속의 심소저를 황후로 봉하시니,¹¹⁰⁴
국가의 경사가 되어 만조제신¹¹⁰⁵들은 산호만세¹¹⁰⁶를 부르고,
억조창생¹¹⁰⁷ 만민¹¹⁰⁸들은 격양가¹¹⁰⁹로 일삼을 제,
심황후 어진 성덕¹¹¹⁰으로 당년¹¹¹¹부터는 풍년이 들어
요순천지¹¹¹² 다시 되고,
선강지계¹¹¹³ 되었더라.

36. (추월만정) 심황후가 부친 생각을 하며 눈물짓다가, 맹 인잔치를 제안한다.

[아니레] 심황후 몸은 비록 귀히 되었으나
다만 생각 부친뿐이라.
일야¹¹¹⁴는 옥난간¹¹¹⁵에 비겼을¹¹¹⁶ 제,
[진양조] 추월은 만정허여¹¹¹⁷

35. (Sim Cheong Becomes an Empress) The emperor takes Sim Cheong as an empress.

[Aniri] After asking some questions, the emperor realizes that the goddess is Sim Cheong of the human world.

He orders his maids to take her to the residence for empress.
On the following morning, he discusses the matter about the flower with his subjects in a meeting.

The subjects say, "Heaven knows we don't have an empress, so it sent one to us.

Please take her as the mother of this country."

[Jungmori] The emperor thinks that his subjects are right.

He has the fortune-telling official choose a lucky date.

He appoints Miss Sim from the flower as his empress.

All the subjects wish happiness for the emperor and empress.

All the people sing the happy song everyday.

Thanks to the empress's virtue, a year of good harvest begins.

The country becomes a paradise.

Happy and peaceful days continue.

36. (The Garden with the Bright Fall Moon) Empress Sim in tears misses her father and proposes that they hold a banquet for the blind.

[Aniri] Empress Sim became a noble person.

But she only thinks about her father.

On night, she leans obliquely on the terrace.

[Jinyangjo] The garden is bright with the fall moon.

산호주렴¹¹¹⁸)에 비치어들 제,
 청천¹¹¹⁹)의 외기러기는 월하¹¹²⁰)에 높이 떠서,
 “뚜루루 깎륙.” 울음을 울고 가니,
 심황후 반겨 듣고
 기러기 불러 말을 한다.
 “오느냐? 저 기러기가
 소중량¹¹²¹) 복해상¹¹²²)의 편지 전턴¹¹²³) 기러기냐?¹¹²⁴)
 도화동을 가거들랑 불쌍허신 우리 부친전¹¹²⁵)에 편지 일장을 전하여라.”
 방으로 들어가 편지를 쓰랴할 제,
 한 자 쓰고 눈물 짓고,
 두 자 쓰고 한숨을 쉬니,
 눈물이 떨어져 글자가 수묵¹¹²⁶)이 되니
 언어가 도착¹¹²⁷)이로구나.
 편지 접어 손에 들고 문을 열고 바라보니,
 기러기는 간 곳 없고,
 창망¹¹²⁸)헌 구름 밖에 별과 달만 뚜렷이 밝았구나.
[아니레] 천자 마침 내궁¹¹²⁹)에 들으시어 황후를 보시니,
 수심이 가득하고 눈물 흔적이 있거늘,
 천자 물으시되, “귀¹¹³⁰) 황후시고, 부¹¹³¹)는 천하¹¹³²)를 가지셨는데,
 무삼¹¹³³) 근심 계시기에 눈물 흔적이 있나이까?”
 심황후 공손히 전후사를 다 말씀을 드렸것다.
 천자 들으시고 심황후의 지극한 효심에 감동되어
 승지¹¹³⁴) 불러 분부하시되,
 “천하 맹인을 불러 한 때나마 고적한¹¹³⁵) 한을 위로하도록 하라.”
 승지 분부 듣고 각 도, 각 읍 행관¹¹³⁶)하시되,
 “황성¹¹³⁷)서 맹인잔치를 배설¹¹³⁸)하였으니,

The moonlight comes in through the coral blinds.
A lonely wild goose flies high in the clear sky.
It cries sadly and goes away.
Empress Sim is glad to see it.
She speaks to it.
“Hey, wild goose!
Are you the wild goose which sent a letter to an ancient
diplomat?
If you go to Peach Blossom Village, please send a letter to my
father.”
Empress Sim comes back into her room.
She writes one character and sheds tears.
She writes another character and sighs.
The tears make all the characters indistinct.
The letter becomes illegible.
She holds the letter in her hand and looks up to the sky.
The wild goose is gone.
The bright moon and stars are over the clouds.

[Aniri] The emperor visits the empress’s residence.
He realizes her face is filled with worry and her eyes with tears.
The emperor asks, “You are an empress, having all the wealth
in the world.
What worries you to have the trace of tears?”
Empress Sim tells him everything.
After hearing her, he is moved by her filial piety.
He gives an order to his secretary.
“Bring all the blind people here and console them.”
The secretary sends an official letter to every provincial official.
“A banquet is held for the blind in the capital city.

맹인들께 노비¹¹³⁹)를 후히 주어 황성¹¹⁴⁰)으로 올라오도록 하라.”
 이렇듯 분부하여 놓으니,
 어명인지라 지어 애기봉사¹¹⁴¹)까지도 황성잔치에 참례¹¹⁴²)하든가 보
 더라.
 [창조] 심황후가 맹인잔치를 배설하였어도
 부친은 오시지 아니하는구나.

37. (망사대) 한편 심봉사는 딸을 생각하며 눈물로 세월을 보낸다.

[진양조] 그 때에 심봉사는 모진 목숨이 죽지도 않고 근근부지¹¹⁴³)
 살아갈 제,
 무릉춘 승상부인은 강두¹¹⁴⁴)에다 망사대¹¹⁴⁵)를 지어 놓고 춘추
 로¹¹⁴⁶) 제 지낸다.
 도화동 사람들도 심소저 효성에 감동되어
 망사대 곁에다 타루비¹¹⁴⁷)를 세워놓고,
 비문¹¹⁴⁸)에 허였으되, ‘지우노친평생한하여
 살신성효행선거라.
 연파만리 행심벽허니
 강초년년환불귀라.’¹¹⁴⁹)
 이렇듯 비문을 새기어 세워 놓으니,
 오고가는 사람들이 뉘 아니 슬퍼하랴!
 심봉사도 딸 생각이 나거드면¹¹⁵⁰)
 망사대를 찾아가서 비문을 안고 우더니라.¹¹⁵¹)
 일일도¹¹⁵²) 심봉사 마음이 산란하여
 지팽막대를 흠어짚고¹¹⁵³) 더듬더듬 망사대를 찾아가서

Give travel money to the blind generously so that they can join the banquet.”

The order is sent out.

With the emperor's order, even a young blind child goes to the banquet in the capital city.

[Poetic Mode] Empress throws the banquet.

But her father doesn't show up.

37. (Tower) Meanwhile, Mr. Sim spends time shedding tears, thinking about his daughter.

[Jinyangjo] Meanwhile, Mr. Sim, a die-hard person, manages to live on.

The noble lady builds a tower near the ferry, and holds a ritual every fall and spring.

The villagers are also touched by Sim Cheong's filial piety.

They build a monument of tears near the tower.

The monument reads, 'she worried that her old father was blind.

She left on board to kill herself and to serve her parent.

The water is always blue and deep with fog.

Flowers and grass become green every year, but she does not come back.'

The epitaph is inscribed in the monument as above.

Would there be a passerby who does not feel sad?

Whenever Mr. Sim misses his daughter,

he visits the tower, hugs the epitaph, and sheds tears.

One day, he feels uneasy.

He manages to walk to the tower with the help of his cane.

비문을 안고 울음을 운다.
 “아이고, 내 새끼야! 악아, 내가 왔다.
 너는 내 눈 띄우려고 수중고혼¹¹⁵⁴이 되고,
 나는 모진 목숨이 죽지도 않고
 이 지경이 웬일이란 말이냐!
 날 데려 가거라!
 나를 데려 가거라!
 살기도 나는 귀찮히고,
 눈뜨기도 내사¹¹⁵⁵ 싫다.”
 비문 앞에 가 거꾸러져
 내리둥굴¹¹⁵⁶ 치둥굴¹¹⁵⁷며,
 머리도 찢고, 가삼¹¹⁵⁸을 꿩꿩,
 두 발을 굴러
 남지서지¹¹⁵⁹를 가리키는구나.

38. (뽕덕이네) 뽕덕이네가 심봉사에게 자원출가를 했는데, 이 여자는 행실이 아주 나쁘다.

[아니리] 낮이면 강두에 가 비석 안고 울음 울고,
 밤이면 집에 돌아와 눈물로 세월을 보낼 적에,
 그때에 이웃 사는 묘한 여자 하나가 있는데,
 그 여잔즉슨¹¹⁶⁰ 호¹¹⁶¹가 뽕파였다.
 심봉사가 딸 덕분에 전곡간¹¹⁶²이나 두고 산단 말을 얻어들었는지,
 놀고먹을 양으로 동네 사람들도 모르게 자원출가¹¹⁶³를 했던가 보더라.
 이 뽕판즉 어떻게 먹성¹¹⁶⁴ 속¹¹⁶⁵이 좋던지,
 그 불쌍한 심봉사 가산¹¹⁶⁶을 꼭 먹성 속으로 없애는디,

He hugs the epitaph and weeps.
“Hello, my baby. I am here.
You became a lonely soul in water to open my eyes.
My life is persistent.
I can’t believe what happens to me.
Please take me there.
Please take me there.
I don’t want to live.
I don’t want to open my eyes.”
He gets down in front of the monument.
He rolls over up and down.
He hits his head and chest hard.
He moves his legs wildly.
His finger points to this and that direction randomly.

38. (Bbaengdeok) Bbaengdeok, who voluntarily marries Mr. Sim, is a bad woman.

[Aniri] Mr. Sim cries near the ferry during the day.
He comes back home at night and spends time crying.
Meanwhile, there is a strange woman in the village.
Her name is Bbangdeok.
She hears that Mr. Sim has some grain and money thanks to
his daughter.
In order to live without working, she voluntarily marries him
without announcing to the villagers.
She is a voracious woman.
She eats away his pathetic properties.

이년의 입정머리¹¹⁶⁷)가 이렇던 것이었다.

[자진모리] 쌀 퍼주고 떡 사먹고,

배 주고 고기 사기,

헌 의복은 옛 사먹고,

잡곡일랑 돈을 사¹¹⁶⁸) 청주,¹¹⁶⁹ 탁주¹¹⁷⁰) 모두 받아 저 혼자 실컷
먹고

시원한 정자 밑에 옷통 벗고 낮잠자기.

사시장천¹¹⁷¹) 밥을 앓고 이웃집에다 밥불이기.¹¹⁷²)

코 큰 총각 유인,

여자 보면 내외¹¹⁷³)허고,

남자 보면 썩긋 웃고,

빈 담뱃대 손에다 들고 보는 대로 담배 청키.¹¹⁷⁴)

이 돈, 저 돈 모두 받아 조석으로¹¹⁷⁵) 술 받기¹¹⁷⁶)와

상하춘¹¹⁷⁷) 머슴들과 팔 잡고 춤추기.

이웃집에 가 욕 잘하고,

초상집에 가 씌¹¹⁷⁸) 잘하기.

잠자면서 이 갈기와 배 꿇고,

발목 떨고, 한밤중 울음 울고,

일에는 반편이¹¹⁷⁹)요,

말에는 출랑이¹¹⁸⁰)라.

먹을 속은 갱매기¹¹⁸¹)로다.

힐끗¹¹⁸²) 허면 핏끗¹¹⁸³) 허고, 핏끗 허면 힐끗 허고, 뺨쪽¹¹⁸⁴) 허면

뺨쪽¹¹⁸⁵) 허고, 뺨쪽 허면 뺨쪽 허고,

남의 혼인 허라허고 단단히 믿었는데 해답¹¹⁸⁶)을 잘허기와

신랑 신부 잠자는데 가만 가만 가만 문 앞에 들어서서,

손뼉 치고, “불이야!”

Her bad eating habit is as follows:

[Jajinmori] She sells hulled rice to buy and eat rice cakes.
She sells unshelled rice to buy and eat meat.
She sells old clothes and buys rice jelly.
She sells various grains, buys clear wine and rice wine, and
drinks them alone heartily.
She takes a nap on a pavilion with her chest naked.
She doesn't cook and only orders food from her neighbor.
She seduces a man with a big nose.
She avoids women.
She smiles at men.
She always holds a pipe and asks for tobacco.
She spends a lot of money to drink alcohol day and night.
She dances with male servants from neighboring villages.
She visits a neighbor and curses at him.
She fights during a funeral.
While sleeping, she grinds her teeth and scratches her belly.
She shakes her feet, and cries at night.
She can't get work done.
She is imprudent in her words.
She is greedy about food.
She always teases others with peculiar facial expressions.
She speaks ill of a man and a woman who planned to marry
later.
When a newly wed couple sleep, she furtively approach them.
She claps her hands. "Fire!"

이년의 행실이 이리하여도¹¹⁸⁷⁾

심봉사는 아무런 줄을 모르고,

어떻게 빠져왔던지 뺨덕이네한테 홀딱 반해서

나무칼로 귀를 베어가도¹¹⁸⁸⁾ 모를 지경이 되었던가 보더라.

39. (황성길) 심봉사가 뺨덕이네를 데리고 황성길을 떠난다.

[아니리] 하루는 심봉사가 전곡¹¹⁸⁹⁾ 조사를 헐 양으로,¹¹⁹⁰⁾

돈케¹¹⁹¹⁾를 내놓고 손을 넣어 더듬더듬 더듬어 보니 엽전¹¹⁹²⁾ 한
푼¹¹⁹³⁾ 없겠다.

심봉사가 기가 맥혀,

“여, 뺨파!”

“예?”

“아니, 여 돈케에 엽전 한 푼이 없으니 어찌된 일이여?”

“아이고, 영감도!

저래서 외정¹¹⁹⁴⁾은 살림 속을 모른단 말야.

영감 드린다고, 고기 사고, 술 사고, 담배 사고,

다 같이 핀¹¹⁹⁵⁾ 것이 그 돈이지,

하늘에서 뚝 떨어진 돈이요?”

“흥! 나 술 담배 고기 많이 사다 주더라.”

“여보, 영감! 어째 나는 인자¹¹⁹⁶⁾ 죽었소.”

“무엇이 어찌니?”

“아무리 생각해¹¹⁹⁷⁾ 살던 못할 것 같소.”

심봉사 은근히 겁이 나서,

“뭣이 어째? 여, 뺨파! 어디 아파?”

This woman behaves badly as stated above.
But Mr. Sim doesn't know anything.
Mr. Sim fell in love with Bbaengdeok so deeply that
he wouldn't even realize even if his ear were cut off a little with
a wood knife.

39. (On the Way to the Capital City) Mr. Sim goes to the capital city with Bbaengdeok.

[Aniri] One day, in order to investigate his properties,
he puts his hands into his safe and realizes that there is not even
a coin.

He is struck dumb.

"Bbaengdeok!"

"Yes?"

Why is it that there is not even a coin in the money box?"

"Oh, honey!

That's why people say a man doesn't have an eye for finance.

I bought you meat, drinks, and tobacco.

We spend the money together.

Do you think the money fell down from heaven?"

"What? You bought me a lot of wine, tobacco, and meat?"

"Honey, I might die now."

"What did you say?"

"I think I can't live anymore."

He is surprised in his mind.

"What? Bbaengdeok! Are you sick?"

“다른 것 아니라, 지나간 달부터 몸엿것¹¹⁹⁸⁾을 좃¹¹⁹⁹⁾ 걷더니,¹²⁰⁰⁾
 딱 입맛은 딱 떨어지고, 시디신 좃국¹²⁰¹⁾만 구미에 당기고,
 그것도 젓내기¹²⁰²⁾로만 연명을 허니,
 뽕도 녹는다는 게 아니오?
 나는 인자 못 살고 죽겠소.”
 심봉사 은근히 좋아라고,
 “아니, 무엇이 어째여?
 퍼! 아, 이 잡것 태기¹²⁰³⁾로구나.
 여, 뽕과 거 남녀간에 하나만 낱자.
 내가 눈을 못 보아서 그렇지, 우리 뽕과 양 불이 불고죽죽¹²⁰⁴⁾하렸다.”
 그때에 관가¹²⁰⁵⁾에서 부름이 있거늘,
 심봉사 들어가니,
 “황성¹²⁰⁶⁾서 맹인잔치를 배설하였으니 어서 급히 올라가라.”
 하며 노자¹²⁰⁷⁾까지 후히¹²⁰⁸⁾ 주셨것다.
 집으로 돌아와,
 “여보게, 뽕과!”
 “왜 그래요?”
 “내가 자네에게 물어볼 말이 있는데,
 내가 만일에 자네 몰래 멀리 어디로 가버리면 자네 어쩔 텐가?”
 “영감 없는데 내가 어찌 혼자 산다요?
 천 리라도, 만 리라도 찾아댕기제.”¹²⁰⁹⁾
 “그래, 인제 보니 뽕과가 열녀구나.
 만일 내가 먼저 죽으면 어쩔 텐가?”
 “아이고, 영감 죽고 없는데 내가 어찌 혼자 살아요?
 깊은 물에라도 풍덩 빠져 죽지요.”
 “어허, 우리 뽕과가 열녀도 더 되고, 백녀¹²¹⁰⁾다. 백녀여.

“Since last month, my period stopped completely,
I lost my appetite and only wanted to eat a sour vinegar soup.
I only drank sour rice wine.
My bones might melt down.
I can’t live anymore.”
Mr. Sim is delighted.
“What did you say?
Oh, you must be pregnant.
Bbaengdeok, let’s have one, a boy or a girl.
I am blind, but I can feel that your cheeks are red.”
Meanwhile, Mr Sim is called into the provincial government
office.
He enters the office.
“A banquet is held in the capital city for the blind. Go quickly.”
He is given a lot of travel money.
He comes back home.
“Bbaengdeok!”
“What?”
“I have something to ask you.
What would you do if I run away from you in secret?”
“How can I live alone without you?
I will look for you all around the world.”
“I now realize that you are a faithful woman.
What if I die before you?”
“Alas! How can I live alone when you died?
I will jump into a deep river and die.”
“Oh, you are better than a faithful woman.

그런 게 아니라,
황성서 맹인잔치를 험다고
노자까지 이렇게 후히 주시니,
우리 같이 올라가세.”
“그릅시다.”

[진양조] 뽕덕이네 앞을 세우고,
심봉시는 뒤를 따라 황성길을 떠나간다.
“어이 가려나? 어이 가리? 어이 갈거나? 어이 가리?
황성천리를 어이 갈거나?
오늘은 가다가 어디 가 자고 가며,
내일은 가다가 어디 가 잘거나?
조자룡¹²¹¹⁾의 월강¹²¹²⁾하던 청충마¹²¹³⁾나 있거드면, 이 날 이 시로
가련마는,
조그마한 요 내 다리로 몇 날을 걸어서 황성을 갈거나?
어이 가려나? 어이 가리?
황성천리를 어이 가리?
여보게, 뽕덕이네!”
“예!”
“길소리¹²¹⁴⁾를 맞아주소. ¹²¹⁵⁾
다리 아파 못 가겠네.”
뽕덕이네가 길소리를 맞는다,
“어이 가리? 어이 가리?
황성천리를 어이 갈거나?
앞 못 보는 가장 다리고 몇 날을 걸어서 황성을 갈거나?
어이 가리네, 어이를 갈꼬?”

Let me tell you something.
They are holding a banquet in the capital city for the blind.
They even gave me a lot of travel money.
Let's go together."
"Sounds good."

[Jinyangjo] Bbaengdeok precedes Mr. Sim.
He follows her to the capital city.
"How can I go? How can I go?
How can I go to the capital city?
Where should I sleep tonight?
Where should I sleep tomorrow night?
If I have the ancient warrior's bluish horse, I can arrive there
today.
How many days should I walk with my short legs to the capital
city?
How can I go?
How can I go to the capital city?
Hello, Bbaengdeok!"
"Yes!"
"Sing the travel song with me.
My legs hurt."
"Bbaengdeok responds to him in the travel song.
"How can I go?
How can I go to the capital city?
How many days should I walk with my blind husband to the
capital city?
How can I go?"

40. (뽕덕이네 도망) 황성 가는 길에 뽕덕어미는 황봉사와 눈이 맞아 심봉사를 버리고 도망해 버린다.

[중모리] 이렇듯이 올라가다, 일모¹²¹⁶)가 되니
주막¹²¹⁷)에 들어 잠자는데,
그때의 뽕덕이네는 근처 사는 황봉사와 눈이 맞아,¹²¹⁸)
심봉사를 잠들여 놓고 밤중 도망을 허였는데,
심봉사는 아무런 줄을 모르고
첫새벽에 일어나서 뽕덕이네를 찾는구나.

[아니리] “여, 뽕파! 어서 일어나소. 어서 일어나.
삼복성염¹²¹⁹)에 뜨거워서 낮에는 못가겠으니,
해장길¹²²⁰) 사오십 리 처야할¹²²¹) 걸.

어서 일어나!”

방 네 구석을 헤메어도 간 곳이 없지.

그제야 의심이 나서,

“여보게, 주인! 혹시 우리 마누라 안에 들어갔소?”

“아니요. 간밤에 어떤 봉사와 밤길 친다고¹²²²)

떠난 지 벌써 오래요.”

“아니, 무엇이 어찌?”

아, 그럼 진즉 그런 말을 헐 것이지,

이제사 말을 험단 말이오?”

“아니, 그 봉사와 내원¹²²³) 줄 알었지,

어찌 봉사님과 내외인 줄 알었소?”

그제야 심봉사 도망간 줄 알고,

[진양조] “허허, 뽕덕이네가 갔네그러! 덕이네! 덕이네! 뽕덕이네! 뽕
덕이네가 갔네그러!

40. (Bbaengdeok Runs Away.) On the way to the capital city, Bbaengdeok elopes with Mr. Hwang, another blind man, deserting Mr. Sim.

[Jungmori] While Mr. Sim and Bbaengdeok walk on the road, the sun sets.

They drop by an inn and go to sleep.

Bbaengdeok falls in love with Mr. Hwang, a blind man, living nearby.

After Mr. Sim goes to sleep, she elopes with Mr. Hwang at night. Mr. Sim doesn't know anything about it.

He gets up early in the morning and looks for Bbaengdeok.

[Aniri] "Hey, Bbaengdeok! Wake up.

We can't walk in the middle of the day because it is too hot.

We should walk a lot in the morning.

Get up!"

He looks for her in the room in vain.

He is now suspicious.

"Hey, landlady! Is my wife there?"

"No, she and a blind man said they would walk during the night.

They left long time ago."

"What did you say?"

You should have told me earlier.

How can you tell me now?"

"I thought they were a couple.

How would I know you are her husband?"

Mr. Sim now realizes that she ran away.

[Jinyangjo] "Oh god. Bbaengdeok has left me.

야, 이 몸쓸 의리 없고, 사정없는 이년아!
 당초에¹²²⁴⁾ 내가 버릴 테면 있든 곳에서 마다고 허지,
 수백 리 타향¹²²⁵⁾에다가 날 버리고,
 네가 무엇이 잘 될소냐, 이년아.
 귀신이라도 못 되리라, 이년아.
 워라¹²²⁶⁾ 워라, 워라, 워라,
 현철¹²²⁷⁾하신 꺾씨도 죽고 살고,
 출천대호¹²²⁸⁾ 내 딸 청이 생목숨¹²²⁹⁾도 죽었는디,
 네까짓년을 생각하는 내가 미친 놈이로구나.”
[아니레] “에이, 호랑이가 파썩¹²³⁰⁾ 깨물어갈 년!
 다시 너를 생각하면 인사불성¹²³¹⁾이다.”
 주인과 작별허고,

41. (심봉사 목욕) 심봉사가 황성 가는 길에 목욕을 하다가 옷을 도둑맞는다.

[중모리] 주막 밖을 나서더니,
 그래도 생각나서 섰던 자리 털썩 주저앉더니,
 “아이고, 뺑덕이네! 뺑덕이네! 덕이네! 뺑덕이네야! 모질고도 무정한 년.
 네 그럴 줄 내 몰랐다.
 에이, 천하¹²³²⁾ 무정한 년.
 눈뜬 가장 배반키도 사람치고는¹²³³⁾ 못할 텐데,
 눈 어둔 날 버리고
 네가 무엇이 잘 될쏘냐?
 새 서방 따라서 잘 살어라.”

What an ungrateful and cruel woman she is!
If you had wanted to desert me, you should have done it in
the village.
You abandoned me in a strange place.
Do you think you will be happy? Bad woman!
You cannot even become a ghost. Wicked woman!
Oh god! Let me stop!
I survived the death of my virtuous wife, Mrs. Gwak.
I even survived the unfair death of my daughter, Cheong.
I am crazy to think about a shallow woman like you.”
[Aniri] “Oh! A tiger should bite her hard and take her away!
I will not think about you again.”
He says goodbye to the landlady.

**41. (Mr. Sim Takes a Bath) Mr. Sim gets his clothes
stolen while taking a bath on his way to the capital
city.**

[Jungmori] Mr. Sim goes out of the inn.
He thinks about his wife again and slumps down.
“Bbaengdeok! What a cruel and heartless woman!
I didn’t know you would betray me.
What a cold woman!
It is cruel even to betray a sighted husband.
But you betrayed a blind man,
Do you think you will be happy?
Have a happy life with the new husband!”

바람만 우루루루 불어도
 뽕덕이넨가 의심을 허고,
 나무잎만 버썩¹²³⁴ 떨어져도
 뽕덕이넨가 의심을 한다.
 더듬 더듬 올라갈 제,
 한 곳을 당도하니,
 천 리 시내는 청산¹²³⁵으로 돌고,
 이 골 물이 쭈루루루, 저 골 물이 살살,
 열의 열두 골 물이 한 데¹²³⁶ 합수쳤다,¹²³⁷
 천방자 지방자 월터져 구부쳐,¹²³⁸ 방울이 버큼져,¹²³⁹
 건너 병풍석¹²⁴⁰에다 마주 광광 마주 때려,
 산이 울렁거려¹²⁴¹ 떠나 갈 제,
 심봉사 좋아라고,
[중중모리] 물소리 듣고 반긴다.
 “얼씨구나 절씨구. 얼씨구나 절씨구. 얼씨구 절씨구.”
 목욕을 할 양으로 더듬 더듬 들어가,
 상하 의복 훨훨¹²⁴² 벗어 지팡이로 눌러놓고,
 더듬 더듬 들어가, 물에 풍덩 들어서서,
 “에이, 시원하고 장히¹²⁴³좋다.”
 물 한 줌 덥벽¹²⁴⁴ 쥐어 양치질도 팔팔 하고,
 또 한 줌 덥벽 쥐어 가슴도 훨훨¹²⁴⁵ 문지르며,
 “어이, 시원하고 장히 좋다.
 삼각산¹²⁴⁶ 올라선들 이어서¹²⁴⁷ 시원허며,
 동해유수¹²⁴⁸를 다 마신들 이어서 시원헐거나?
 얼씨구, 좋구나. 지화자 좋네. 얼씨구나 절씨구.”
[아니리] 이렇듯 목욕을 허고 물 가상으로¹²⁴⁹ 나와

A wind blows,
He takes it to be Bbaengdeok,
Leaves fall down,
He takes them to be Bbaengdeok,
He goes to the capital city unsteadily.
He arrives at a certain place.
A long river turns around a blue mountain,
Water flows naturally from valleys,
The water from many valleys forms a stream,
The stream rolls wildly, making foams.
It bumps head-on against a large rock,
The mountain trembles,
Mr. Sim is joyous.

[Jungjungmori] Mr. Sim is delighted at the sound of water.
“Yippee! Whoopee! Hurrah! Hurray!”
He moves slowly into the water to take a bath.
He takes off his clothes and weighs them down with his cane.
He goes slowly into the water and completely gets in.
“Oh, cool! It feels so good.”
He holds up a handful of water and cleans his teeth.
He holds up another handful of water and cleans his chest.
“Oh, cool! It feels so good.”
There would be no cooler stream than this one.
No water would be cooler than this one.
Yippee! Whoopee! Hurrah!”

[Aniri] After taking a bath, Mr. Sim gets out of the water.

의복을 입으랴할 적에,
 어떤 무지한¹²⁵⁰⁾ 놈인지, 심봉사 의관¹²⁵¹⁾ 의복을 몽땅 도적질해 가
 없겠다.
 심봉사는 목수 먹줄¹²⁵²⁾ 튕기듯 줄바르게¹²⁵³⁾ 주우웁¹²⁵⁴⁾ 나와,
 “하, 내가 여기다¹²⁵⁵⁾ 분명 놔뒀는디,
 어디로 갔을까?
 바람에 날라갔나?
 하! 응, 지팽이가 여기 있는 것이 분명 근방에 있겠는 걸.
 하하, 누가 장난헌 것이로구나.
 허, 장난 그만하고 내 옷 갖고 와! 안 가져와? 내 옷 가지고 와!”
 아무리 찾고 헤메어도 적막공산¹²⁵⁶⁾에 대답이 없으니,
 그제야 도적맞은 줄 알고 우는디,
[중모레] “허허, 이제는 꼭 죽었네.
 허허, 이제는 영 죽었네.
 불꽃같은 이 더위에 훨씬¹²⁵⁷⁾ 벗었으니
 뜨거워서도 죽겠구나.
 알몸이 되었으니 굶어서도 꼭 죽었네.
 백수풍신¹²⁵⁸⁾ 늙은 놈이
 위아래를 벗었으니,
 황성길을 어이 갈고!
 네 이 무지한 도적놈아!
 옷 가져오너라!
 먹고 입고 남은 허다헌¹²⁵⁹⁾ 부잣집 다 버리고 내 것을 가져가니,
 그게 차마 될 말이나?
 봉사 것 가져가면 열두 대¹²⁶⁰⁾ 줄봉사¹²⁶¹⁾ 난단다.
 내 옷 가져오너라! 내 옷 가져오너라!”

He tries to put on his clothes.
A bad man has stolen all of Mr. Sim's hat and clothes.
He comes out of the water in a straight line.
"Gosh, I put my clothes here.
Where did they go?
Were they blown away by a wind?
Yes, my cane is here, so they must be near here.
Oh, somebody must be playing with me.
Stop teasing me! Bring my clothes right away!"
No matter how hard he speaks, there is no answer.
He now thinks he got them stolen and weeps.

[Jungmori] "Gee, I will surely die now!
Gosh, I will certainly die now!
I am naked in this hot weather.
So I will be scorched to death.
Or since I am naked, I will starve to death.
I am old with grey hair.
Besides, I am completely naked.
How can I go to the capital city?
Hey, you cruel villain!
Bring my clothes.
You chose me over a rich person having lots of extra clothes.
How absurd that is?
Your family will be blind for 12 generations for stealing from
a blind man.
Bring me my clothes."

죽어도 양반이라, 체면은 아는지라,
 “여보시오, 혹시 내 앞에 부인네 지나가거든 저리로 돌아서 가시오!
 나 어찌다 훨씬 벗었소!
 귀머거리, 앓은뱅이 나보다는 상팔자¹²⁶²)라.
 일월이 밝았어도 동서분별¹²⁶³)을 내 못허니,
 살어 있는 내 팔자야!
 모진 목숨 죽지도 못하고
 내가 이 지경이 웬 일이냐?”

42. (무릉태수) 심봉사가 탄식하다가 무릉태수를 만나 의복 과 노자를 얻는다.

[아니리] 이렇듯 자탄¹²⁶⁴)혈 제, 때마침 관장¹²⁶⁵)이 지내노라¹²⁶⁶)
 벽제¹²⁶⁷) 소리 요란커늘,
 심봉사 좋아라고,
 “웁다, 됐다. 어디서 관장 행차¹²⁶⁸)하시나보다.
 관은 민지부모¹²⁶⁹)라 하였으니,
 관장에게 사정을 하리라.
 훨씬 벗은 알몸으로 양손으로 앞을 가리고, 엉금엉금 기어 들어가며,
 “아뢰어라! 아뢰어라! 급창¹²⁷⁰) 통인¹²⁷¹) 아뢰어라!
 황성 가는 맹인으로 배알차로¹²⁷²) 아뢰어라!”
 행차가 머물더니,
 관장이 보시고, “허허 허허허, 거 무슨 말을 할려는고?”
 [중모리] “예, 소맹¹²⁷³)이 아뢰리다. 소맹이 다른 봉사가 아니라,

Being once a high class person, he respects his honor.
“If there is a woman in front of me, please turn around.
I somehow got naked.
A deaf or a crippled person are better than I.
I can’t see anything even if the sun and the moon are bright.
What a bad fate I have!
My life is cruel to persist.
Why did this trouble fall on me?”

**42. (Governor of Paradise Region) While lamenting,
Mr. Sim comes across the governor of Paradise
Region, and gets clothes and travel money from
him.**

[Aniri] While Mr. Sim laments, a governor passes by.
The sounds of a procession are heard.
Mr. Sim is glad.
“Yes! That must be the procession of a governor.
A government official is like a parent to the people.
I will ask him to help me.
The naked blind man covers his front part with his hands and
slowly steps forward.
“Servant, report to your master.
Tell your master a traveler wants to see him.”
The procession stops.
The governor asks, “God, what do you want to say?”

[Jungmori] “Okay. Let me report to you, sir.

황성 잔치 가는 봉사온디,
 간밤에 이 아래 주막에서 계집을 잃고 오다가,
 날이 심히 더웁기에 목욕을 하고 나와보니,
 무지한 도적놈이 의관 의복을 가져갔소.
 적선지가필유여경이라¹²⁷⁴⁾ 하였으니,
 태수장¹²⁷⁵⁾ 덕택에 살거지다.”¹²⁷⁶⁾
[아니레] 태수 가공히¹²⁷⁷⁾여겨,
 “네, 여봐라! 의룡¹²⁷⁸⁾을 열고 새 의복 한 벌 내어 주고, 갓, 망건,
 노자까지 내주어라.”
 심봉사 좋아라고,
 “은혜 백골난망¹²⁷⁹⁾이오.”
 백배사례¹²⁸⁰⁾ 하직하고
 낙수교¹²⁸¹⁾를 얼른 지나, 녹수정¹²⁸²⁾을 들어갈 제,
 그때에 부인네들이 방아를 찼느라고 야단이로구나.

43. (방아타령) 심봉사가 황성길에 방아 찼는 여인들을 만 나 방아를 찼어준다.

[중중모리] “어유아 방아요. 어유아 방아요.
 떨크덩 땡, 잘 찼는다. 어유아 방아요.”
 “이 방아가 뉘 방아?
 강태공¹²⁸³⁾ 조작이로다.”¹²⁸⁴⁾
 “어유아 방아요.”
 “태고라 천황씨는 이목덕으로 왕허였으니,¹²⁸⁵⁾
 낭기¹²⁸⁶⁾ 아니 중할쏜가.”
 “어유아 방아요. 떨크덩 땡, 잘 찼는다. 어유아 방아요.”

I am heading to banquet in the capital city.
I lost my wife in an inn over there last night.
It was so hot that I took a bath.
A cruel thief has stolen my hat and clothes.
An old saying holds that a fortune will befall a good family.
Governor, please help me.”

[Aniri] The governor takes pity on him.
“Servant! Open the wardrobe, and give him new clothes, a hat,
a headband, and some travel money.”
Mr. Sim is delighted.
“Eternally appreciated.”
Mr. Sim bows to the governor many times and says goodbye
to him.
He walks over a bridge and passes by a pavilion.
Some women are milling together, make loud sounds.

43. (Mill Song) Mr. Sim comes across milling women and mills for them.

[Jungjungmori] “Here goes a mill. Here goes a mill.
The mill works well. Here goes a mill.”
“Whose mill is this?
This mill is made by an ancient politician.”
“Here goes a mill.”
“An ancient king became a king thanks to a tree energy.
Wood is valuable.
“Here goes a mill. The mill works well. Here goes a mill.”

“유소씨 구목위소¹²⁸⁷) 이런 낭기¹²⁸⁸)로 집 지셨나?”¹²⁸⁹)

“어유아 방아요.”

“옥빈홍안¹²⁹⁰) 비너런가?

가는 허리에 잠¹²⁹¹)을 질렀구나.”¹²⁹²)

“어유아 방아요.”

“머리 들어서 오르는 양은

창해노룡¹²⁹³)이 성을 낸 듯.”

“어유아 방아요.”

“머리 숙여 내리는 양

주문왕¹²⁹⁴)의 돈수¹²⁹⁵)런가?”

“어유아 방아요.”

“오고대부¹²⁹⁶) 죽은 후에 방아소리가 끊쳤더니,

우리 성상¹²⁹⁷) 즉위하사 국태민안¹²⁹⁸)하옵신디,

하물며 맹인잔치 고금예¹²⁹⁹) 없는지라.

우리도 태평성대 방아타령을 하여보세.”

“어유아 방아요.”

[자진모리] “어유아 방아요. 어유아 방아요. 어유아 방아요.”

“만첩청산¹³⁰⁰)을 들어가, 길고 끝은 술¹³⁰¹)을 베어

이 방아를 놓았는가?”¹³⁰²)

“어유아 방아요.”

“방아 만든 형용¹³⁰³) 보니,

사람을 비양턴가¹³⁰⁴)

두 다리를 짹 벌렸구나.”

“어유아 방아요.”

“한 다리 늘여 딛고,

한 다리 내려 딛고,

“Did another ancient king build a house with this kind of wood?
 “Here goes a mill.”
 “Is this a beautiful young woman’s hairpin?
 It pierces through the thin waist of the mill.”
 “Here goes a mill.”
 “The mill pulls up its head.
 It looks as if an old dragon lost its temper in a wide blue sea.”
 “Here goes a mill.”
 “The mill pulls down its head.
 It looks as if an ancient king bowed.”
 “Here goes a mill.”
 “After a great ancient politician died, the milling sound stopped.
 Since the present king came to the throne, the people were
 happy.
 In addition, a banquet for the blind is unprecedented.
 Let’s sing the mill song for the peaceful world.”
 “Here goes a mill.”

[Jajinmori] “Here goes a mill. Here goes a mill.”
 “On deep mountains, trees were cut down.
 Was this mill made of those trees?”
 “Here goes a mill.”
 “Let me look at the shape of this mill.
 It looks like a human body.
 It has two legs spread wide.”
 “Here goes a mill.”
 “One leg supports the body.
 The other leg stamps the mill.

오르락내리락 허는 양은 이상허고도 맹랑하다.”¹³⁰⁵⁾

“어유아 방아요.”

“황성천리 가는 길에 방아 쪼기도 처음이로구나.”

“어유아 방아요. 떨크덩 땡땡, 잘 쪼는다.

어유아 방아요. 어유아 방아요. 어유아 방아요.”

“고소하구나, 깨방아.

쪼덕쪼덕 찰떡방아.”

“어유아 방아요.”

“재채기 난다, 고추방아.”

“어유아 방아요. 어유아 방아요. 어유아 방아요. 어유아 방아요.”

“떨크덩 땡, 자주 쪼어라.

점심때가 늦어진다.”

“어유아 방아요.”

[아니리] 이렇듯 점심밥 얻어먹고, 그렁저렁¹³⁰⁶⁾ 황성을 당도허엿것다. 때마침,

44. (심황후 탄식) 심황후가 오지 않는 아버지를 기다리며 탄식한다.

[중중모리] 어전 사령¹³⁰⁷⁾이 나온다. 어전사령이 나온다.

“각 도, 각 읍 맹인님네!

오늘 잔치 망중¹³⁰⁸⁾이니,

어서 나와 참례¹³⁰⁹⁾하소!”

골목골목, 거리거리 이렇듯 웨는¹³¹⁰⁾ 소리

원근산천¹³¹¹⁾에 땡그렇게¹³¹²⁾ 들린다.

[아니리] 이 때에 심황후는 석 달 열흘 맹인잔치를 했어도

When the mill moves up and down, it looks bizarre.”
“Here goes a mill.”
“This is the first time to mill on the way to the capital city.”
“The mill works well. Here goes a mill.”
“Here goes a mill. Here goes a mill.”
“A sesame mill smells good.
A sweet rice mill is sticky.”
“Here goes a mill.”
“A pepper mill makes us sneeze.”
“Here goes a mill. Here goes a mill.”
“Mill more quickly.
It is time for lunch.”
“Here goes a mill.”

[Aniri] After eating lunch from the women, Mr. Sim arrives in the capital city.

44. (The Empress’s Sigh) Empress Sim sighs, waiting for her father.

[Jungjungmori] An officer comes out. He comes out.
“Blind people from this country!
Today is the last day of banquet.
Please hurry up to the banquet.”
He shouts in allies.
The shouting sounds tremble the world.
[Aniri] Meanwhile, the banquet lasted for three months and ten days.

마지막 날까지 부친이 보이지 아니하니,
 다시 탄식을 하시는데,
 [진양조] “천지 신령님이 이다지 무심헌거나?
 황송한 처분¹³¹³)을 물어 맹인잔치를 하옵기는 불쌍한 우리 부친을
 상봉할까¹³¹⁴) 바랐더니,
 어이하여 못 오신고?
 몽은사 부처님의 영험¹³¹⁵)으로 감은 눈을 뜨옵시고, 맹인 잔치에 빠
 지셨나?
 어이하면¹³¹⁶) 상봉을 할거나?”
 아무도 모르게 울음을 운다.

45. (심황후 부친 상봉) 심황후가 부친을 만난다.

[아니리] 이렇듯 탄식하시다가,
 “오늘도 참례한 맹인들을 후히 대접하고,
 성명을 명백히 기록하되,
 황주 도화동 사는 심학규 맹인이 계시거든 별궁¹³¹⁷)으로 모시고 오너라.”
 분부¹³¹⁸) 듣고 차례로 물어갈 제,
 말석¹³¹⁹)에 앉은 심봉사 앞에 당도하여,
 “여, 봉사 성명이 뭐요?”
 “잔치에 오면 먹을 것을 주든¹³²⁰) 앓고,
 이름을 알아 뭐할랴요?”
 “여보세요! 성명을 알려줘야 밥도 주고, 옷도 주지 않소?”
 “그러면 내 성명이 황주 도화동 사는 심학규요.”
 “심맹인 여기 계시다! 여보시오, 별궁으로 들어갑시다.”

But the empress's father doesn't show up.
 The empress sighs again.
[Jinyangjo] "God is cruel to me.
 I asked the emperor to hold a banquet for the blind so that I
 meet my poor father.
 Why isn't he coming?
 Is he not coming because he opened his eyes thanks to Buddha
 in Mongeun Temple?
 How can I meet him?"
 She sobs alone.

45. (The Empress Meets Her Father) The empress meets her father.

[Aniri] After lamenting, the empress says,
 "Serve the participating blind persons well.
 Be sure to write down their names.
 If you find Sim Hak-gyu from Peach Blossom Village, take him
 to my place."
 As being told, the officer checks the names of the blind people.
 Mr. Sim at the end of the row moves forward to him.
 "What is your name?"
 "If a guest joins a party, you should give him food first.
 What do you want my name for?"
 "Look, you should first tell me your name before I give you food
 and clothes."
 "Okay. I am Sim Hak-gyu from Peach Blossom Village."
 "Mr. Sim is here. Look, let's go to the empress's place."

“아니, 다른 봉사는 다 버리고 나만 가자고?”

“그야 위에서 상을 주실지, 벌을 주실지 모르나,
별궁으로 모시라는 분부가 계시니, 어서 들어갑시다.”

심봉사 이 말을 듣고, “좋지. 잘 되었다.

내가 딸 팔아먹은 죄가 있는디,

이 잔치를 배설키는 천하맹인¹³²¹ 만좌중¹³²²에 나를 내어 죽일라고,
이 잔치를 배설을 한 것이구나. 갑시다.”

[아니레] “심맹인 대령하였소.”

심황후 부친을 살펴보니,

백수풍신¹³²³ 늙은 형용¹³²⁴

피골¹³²⁵이 상접¹³²⁶이라.

또한 산호주렴¹³²⁷에 가리어 자세히 볼 수 없어,

“여봐라! 그 맹인에게 처자¹³²⁸가 있나 물어보아라.”

심봉사 처자 말을 듣더니, 먼 눈에서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며,

[중모레] “예, 소맹¹³²⁹이 아뢰리다. 예, 소맹이 아뢰리다.

소맹이 사육기는 황주 도화동이 고토¹³³⁰웁고,

성명은 심학규요,

을축년 정월달에 산후탈¹³³¹로 상처¹³³²하고,

어미 잃은 딸자식을 동냥젖을 얻어 맥여 이만큼이나 자랐더니,

십오 세가 되어지니

효성이 출천하여,¹³³³

공양미 삼백 석을 불전에¹³³⁴ 시주¹³³⁵하면 정녕¹³³⁶ 눈을 뜬다 하니,

효성 있는 내 딸 청이 남경장사 선인들께 삼백 석에 몸이 팔려

인당수 제수¹³³⁷로 물에 빠져 죽었소!

눈도 뜨지를 못하고

자식만 팔아먹었으니,

“Wait. Other blind people are here. Why do you take only me there?”

“I don’t know whether you will be rewarded or punished. I was ordered to take you to her place. Let’s go.”

Mr. Sim responds, “That sounds good.

I am guilty of selling my daughter.

They are holding this banquet to kill me in front of all the blind people. Let’s go.”

[Aniri] “Mr. Sim is here, Your Highness.”

The empress takes a look at her father.

His hair is grey.

His body is thin.

She can’t see him clearly because of the coral blind.

“Officer, ask him if he has a wife and children.”

Mr. Sim scarcely hears the words of wife and children when tears fall down from his blind eyes.

[Jungmori] “Let me report to you, sir.

I lived in Peach Blossom Village.

My name is Sim Hak-gyu.

My wife died of a disease after childbirth.

I raised my daughter who lost her mom by begging around for milk.

She became fifteen.

Her filial piety was great.

I was told that I would open my eyes if I donated 300 bags of rice to Buddha.

My good daughter, Cheong, sold herself at 300 bags of rice to sailors.

She died at Indang Water as a sacrifice.

I haven’t yet opened my eyes.

I only sold my daughter.

자식 팔아먹은 놈을 살려두어 되오리까?
비수검¹³³⁸) 드는 칼로 당장에 목숨을 끊어 주오.”

46. (심봉사 개안) 심봉사가 딸을 만난 기쁨에 눈을 뜬다.

[자진모리] 심황후 이 말 듣고 산호주렴을 걷쳐¹³³⁹) 버리고 보선
발¹³⁴⁰)로 우루루루루.

부친 목을 덜컹¹³⁴¹) 안고, “아이고! 아버지!”

심봉사는 깜짝 놀래, “아니, 이게 누구여? 누가 날더러¹³⁴²) 아버지여?
에이?

공연한 장난이지.

나는 아들도 없고 딸도 없는 사람ियो.

무남독녀¹³⁴³) 내 딸 청이 물에 빠져 죽은 지가 우금¹³⁴⁴) 삼년이 되었
는디,

누가 날더러 아버지여?”

“아이고, 아버지! 여태 눈을 못 뜨셨소?

인당수 빠져 죽던 불효여식 청이가 살아서 여기 왔소.

아버지, 눈을 떠서 심청을 보옵소서!”

“에이! 청이라니? 청이라니?

이것이 꿈이냐, 생시냐?

내가 지금 죽어 수궁에 들어왔느냐?

내가 지금 꿈을 꾸느냐?

죽고 없는 내 딸 청이 여기가 어디라고 살아오다니 웬 말이냐?

어디!¹³⁴⁵) 어디! 내 딸 좀 보자.

어디! 아이고, 답답허여라!

What would be the use of forgiving a parent who sold his child?
Please kill me right away with a sharp sword.”

**46. (Mr. Sim Opens His Eyes) Mr. Sim opens his eyes
at the joy of meeting his daughter.**

[Jajinmori] After listening to him, she pulls the coral blind away
and runs to him without putting on shoes.

She hugs her father's neck, “Oh, father!”

Mr. Sim is surprised. “Uh? Who is calling me father? Uh?

You must be kidding.

I have neither a son nor a daughter.

My daughter, only child, was drown to death three years ago.
Who is calling me father?”

“Oh, father! Haven't you opened your eyes yet?

Sim Cheong, your bad daughter who died at Indang Water came
back alive.

Father, please open your eyes and take a look at me.”

“What? Are you Cheong?

Is this a dream or real?

Did I die and come to the sea palace?

Am I dreaming now?

My daughter, Cheong, died. How can she be here alive?

Oh, let me see my daughter.

Alas! I feel choked!

내가 눈이 있어야 내 딸을 보지!

어디! 어디! 내 딸 좀 보자!”

심봉사 두 눈을 끔적끔적¹³⁴⁶⁾하더니만 눈을 번쩍 떴구나!

47. (심봉사 환호) 심봉사가 춤을 추면서 좋아한다.

[아니레] 이것이 모두 부처님의 도술¹³⁴⁷⁾이었다.

심봉사 정신차려 공안을 살펴보니,

칠보 금관¹³⁴⁸⁾에 황홀하야,

딸이라니 딸인 줄 알지

전후불견초면이로구나.¹³⁴⁹⁾

그제야 겨우 정신이 드는디,

[중모레] “옳지. 인자 알겠구나. 내가 이제야 알았구나.

갑자 사월 초과일야¹³⁵⁰⁾ 꿈속에 보든 얼굴 분명한 내 딸이다.

어둔 눈을 뜨고 보니 황성 궁궐이 웬 일이나?

이것이 꿈인가?¹³⁵¹⁾ 이거 생신가?

꿈과 생시 분별¹³⁵²⁾을 못하겠네.

나도 이제까지 맹인으로,

지팡이를 잡고 나서면은

어데로 갈 줄을 아느냐, 올 줄을 알았더냐?

지척분별¹³⁵³⁾을 못했더니,

오늘 나도 눈을 떠 천지만물¹³⁵⁴⁾을 다시 보게되니,

지팡이 너도 여태 고생 많이 했다.

이제 너도 너 갈 데로 잘 가거라.

‘피르르르’ 내던지고,

얼씨구나, 좋네! 얼씨구나, 좋구나! 얼씨구나, 지화자 좋을씨고!”

How can I see my daughter when I don't have eyes?
God, let me see my daughter!"
Mr. Sim blinks his eyes repeatedly and opens them.

47. (Mr. Sim Cheers) Mr. Sim dances in joy

[Aniri] All this is the divine work of Buddha.
Mr. Sim gathers himself and takes a look around.
He gazes in rapture at a woman with a golden crown.
He believes she is his daughter because he was told so.
But this is the first time to see her.
He now comes to himself.

[Jungmori] "Oh, I see now. I see now.
This is clearly the face I saw in a dream with my wife.
I can't believe I see the palace with my eyes.
Is this a dream or real?
I can't tell dream from reality.
I was blind for so long.
I got on the road with a cane.
I didn't know how I could get around.
I couldn't see anything.
Now that I opened my eyes, I can see everything in the world.
'Mr. Cane! Your life must have been hard.
You are now free to go anywhere you want!
He throws his cane away.
Hurrah! Hurray! Whoopee! Yippee! What a delight!"

[중중모리] “얼씨구나 절씨구. 얼씨구나 절씨구.

궁 안을 살펴보니,

창해만리¹³⁵⁵) 먼먼 길 인당수 죽은 몸이

환세상¹³⁵⁶) 황후 되기 천천만만¹³⁵⁷) 뜻밖이라.

얼씨구나 절씨구.

어둡침침¹³⁵⁸) 빈 방 안에 불 켜 듯이 반갑고,

산양수 큰 싸움¹³⁵⁹)에 자룻¹³⁶⁰) 본 듯이 반갑네.

홍진비래 고진감래¹³⁶¹) 날로 두고¹³⁶²) 이름인가?

부중생남중생녀¹³⁶³) 날로 두고 이름인가?

얼씨구나 절씨구!”

여러 봉사들도 좋아라고 춤을 추며 논다.

“얼씨구 좋구나, 지화자 좋네! 얼씨구나 절씨구!

이 덕이 뉘 덕이나?

심황후 폐하의 덕이라.

일월이 밝어 중화¹³⁶⁴)하니,

요순 천지¹³⁶⁵)가 되었네.

얼씨구나 절씨구!

태고적¹³⁶⁶) 시절이라도 봉사 눈 떴단 말 처음이로구나.

얼씨구나 절씨구!

송천자¹³⁶⁷) 폐하도 만만세!

심황후 폐하도 만만세!

부원군¹³⁶⁸)도 천천만만세¹³⁶⁹)를 태평으로만 누리소서.

얼씨구 절씨구야!”

[Jungjungmori] “Hurrah! Hurray! Whoopee!

Let me look inside the palace.

I thought she died at Indang Water away from here.

I never imagined she would be back alive and become an empress.

Hurrah! Hurray!

I feel great as if a light got turned on in a dark room.

I am glad as if I met a great warrior on a battlefield.

For me, happy and unhappy events occur alternately.

For me, a daughter is more precious than a son.

Hurrah! Hurray!”

Other blind people dance too in joy.

“Hurrah! Hurray! Whoopee! What a delight!

Whom do we owe this to?

We owe this to the empress.

The sun and the moon are bright on the sky.

It became a paradise.

Hurray! Whoopee!

We never heard a blind person opened his eyes since ancient times.

Hurrah! Hurray!

Hurray for the emperor!

Hurray for the empress!

Hurray for the empress’s father!

What a delight!”

48. (후일담) 천자가 심생원을 부원군으로 삼고, 도화동 사람들의 세금을 면해준다.

[옛중모리] 그때에 심생원은 부원군을 봉하시고,
도화동 백성들은 세역¹³⁷⁰을 없앴으니
천천만만세를 부르더라.

“어화, 세상 소년님네! 어화, 세상 소년님네!
인간의 백행근본¹³⁷¹은 충효밖에 또 있느냐?
부모에게 효도하면 복록¹³⁷²이 진진타네.”¹³⁷³

48. (Subsequent Story) The emperor officially recognizes Mr. Sim as the empress's father and exempts the villagers in Peach Blossom Village from taxes.

[Eotjungmori] Mr. Sim is officially recognized as the empress's father.

Villagers of Peach Blossom Village are exempted from taxes and drafted labor.

The villagers give hurrahs.

“Young people in the world!

Loyalty to a king and filial piety to parents are the most important virtues.

- 1) 宋. 중국 역사상 당나라, 오대십국(五代十國)에 이어지는 왕조(960-1279). 처음 개봉(開封)에 도읍하였으나, 1126년 정강(靖康)의 변(수도 개봉이 금나라의 공격으로 함락되고 북송이 망하게 된 사건)으로 강남으로 옮겨 임안(臨安, 杭州)으로 수도를 옮겼다. 개봉시대를 북송, 임안시대를 남송이라고 한다.
- 2) 元豐. 송나라 신종(神宗)의 연호.
- 3) 黃州 桃花洞. 중국의 지명.
- 4) 장님.
- 5) 簪纓之族. 높은 벼슬을 지낸 양반의 자손.
- 6) 文名. 글을 잘하여 세상에 알려진 이름.
- 7) 藉藉더니. 자자하더니. (피진 소문 따위가) 왁자하더니.
- 8) 家運. 집안의 운수.
- 9) 零替. 세력이나 살림이 차차 아주 보잘 것 없이 구차하게 됨.
- 10) 眼盲. 눈이 멀.
- 11) 洛水靑雲에 발자취 끊어지고, 벼슬길에 나아가지 못하고, '낙수청운'은 벼슬길을 이르는 말.
- 12) 金章紫綬. 재상의 지위에 있는 사람의 황금으로 된 인(印)과 이를 몸에 차기 위한 자줏빛으로 된 끈. 따라서 '금장자수'는 높은 벼슬에 오르는 것을 나타냄. '인'은 벼슬자리에 임명될 때 임금으로부터 받는, 신분이나 벼슬의 등급을 나타내는 관인(官印).
- 13) 功名. 공을 세워 드러난 이름.
- 14) 強近. 촌수가 매우 가까움.
- 15) 眼盲. 눈이 멀. 눈이 보이지 않음.
- 16) 누가.
- 17) 後裔. 후손. 자신의 세대에서 여러 세대가 지난 뒤의 자녀를 통틀어 일컫는 말.
- 18) 行實. 실제로 드러나는 행동.
- 19) 清廉.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음.
- 20) 一動一靜. 하나하나의 동정. 또는 모든 동작.
- 21) 君子. 행실이 점잖고 어질며 덕과 학식이 높은 사람.
- 22) 稱하것다. 일컫는다. 부른다.
- 23) 賢哲. 어질고 총명함.
- 24) 전혀 없고.
- 25) 百執事可堪.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음.
- 26) 잘 간수하거나 관리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내버려두면서.
- 27) 일하는 데 드는 힘이나 수고.
- 28) 품삯을 받고 해주는 바느질.
- 29) 冠帶. 본래 벼슬아치가 쓰던 모자와 허리띠를 함께 일컫는 말로, 관리의 복장을 가리킴.
- 30) 道服. 도사가 입는 옷.
- 31) 行衣. 소매가 넓고 검정색 천으로 가를 꾸민, 선비의 옷.
- 32) 弊衣. 소매가 넓고 뒤틀기가 갈라진 옷. 벼슬아치가 평시에 입던 옷.

- 33) 直令. 무관이 입던 옷옷의 하나.
- 34) 夾袖. '동달이'라고도 함. 붉은 소매를 단 검은 두루마기에 붉은 안감을 넣고 뒷술기를 길게 켜 준복.
- 35) 快子. 등술기는 길게 찢고, 소매를 달지 않은 무관의 옷옷.
- 36) 소매가 넓고 길며, 옆이 터져서 네 쪽으로 된 남자의 옷옷.
- 37) 작은 바늘로 가늘게 누비는 바느질.
- 38) 박이웃이나 보료·방석 따위의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실밥이 겹으로 드러나게 꿰매는 일.
- 39) 바느질의 한 종류인 듯하나 불명.
- 40) 여러 겹이 아닌 단 하나의 올로 뜬 망건이나 탕건.
- 41) 위와 아래로 곧게 촘촘히 누비는 바느질.
- 42) 빨래 또는 생리대.
- 43) 夏節. 여름철.
- 44) 汗衫. 땀받이. 속적삼.
- 45) 袴衣. 사내의 훌바지.
- 46) 망건(網巾). '망건'은 상투를 할 때, 머리가 흘러내리지 않게 하기 위해 이마에 매던 그물처럼 생긴 물건.
- 47) 상투를 할 때, 머리가 흘러내리지 않게 하기 위해 이마에 매던 그물처럼 생긴 물건.
- 48) 櫛子. 마고자처럼 생기고, 소매가 없는 여자의 덧저고리.
- 49) 옛날에는 바둑알 같은 것을 넣고 형겅으로 짜서 만들거나, 형겅을 뭉치어 실로 꿰매어 매듭으로 만들어 썼다.
- 50) 팔뚝에 끼워 추위를 막는데 쓰는 기구. 저고리 소매처럼 생겼는데, 한 쪽은 넓고, 한 쪽은 좁음.
- 51) 行纏. 바지·고의를 입을 때 가든하게 하기 위하여 정강이에 꿰어 무릎 아래에 매는 물건.
- 52) 주머니.
- 53) 예전에, 젓가슴을 가리기 위하여 여자의 가슴에 둘러 띠던, 끈이 달린 옷의 하나.
- 54) 藥囊. 두루주머니. 아가리에 잔주름을 잡고 끈 두 개를 좌우로 꿰어서 여단게 된 주머니. 끈을 줄라매면 전체가 거의 둥글게 됨.
- 55) 불기. 방한구(防寒具)의 하나로, 털가죽이나 형겅 조각에 솜을 놓아 기름하게 접어 만들어서, 두 뺨을 싸서 머리 위에 잡아매.
- 56) '휘항(揮項)'이라고도 함. 추울 때 머리에 쓰는 물건으로, 남바위같이 생겼으나 뒤가 훨씬 길고, 목덜미와 뺨까지 싸게 되었음.
- 57) 幅巾. 도복(道服)에 갖추어서 머리에 쓰는 쓰개. 검은 형겅으로 위는 둥글고 뾰족하게 만들며, 뒤에 넓은 자락이 길게 늘어지고, 양 옆에 끈이 있어 뒤로 돌려 맴.
- 58) 풍차(風遮). 머리에 쓰던 방한구.
- 59) 덧덮는 얇고 작은 이불.
- 60) 周衣. 두루마기.
- 61) 衾枕. 이불과 베개, 곧 침구.
- 62) 角帶. 벼슬아치의 예복에 매던 띠.

- 63) 胸背. 관복의 가슴과 등에 붙이던, 수를 놓은 형짚. 문관은 학을, 무관은 호랑이를 수 놓음.
- 64) 열 푼. 한 냥의 10분의 1.
- 65) 兩. 예전 돈의 단위로, 열 돈에 해당함.
- 66) 貫. 엽전 열 냥에 해당하는 돈.
- 67) 春秋時享. 해마다 음력으로 시월에 조상의 산소에서 지내는 것과, 음력 이월, 오월, 팔월, 십일월에 사당에 지내는 제사.
- 68) 奉祭祀. 제사를 지내는 일.
- 69) 家長. 남편. 집안의 어른.
- 70) 恭待. 공손하게 잘 대접함.
- 71) 上下隣里. 위아래 이웃마을.
- 72) 老少. 늙은이와 젊은이.
- 73) 祈子 致誠. 자식을 얻기 위하여 신이나 부처에게 지성으로 빌.
- 74) 나와.
- 75) 무슨.
- 76) 아주 짧은 시간.
- 77) 至誠. 지극한 정성.
- 78) 便다. 편하다. 편하다고.
- 79) 苦生살이. 어렵고 고되게 꾸려가는 살림살이.
- 80) 肝腸. 간과 창자. '마음'을 비유적으로 일컫는 말.
- 81) 나를.
- 82) 年將四十. 나이가 곧 40이 됨.
- 83) 膝下. 자식을 두어 대를 이어야 할 처지.
- 84) 一點血肉. 단 하나의 자식.
- 85) 黃泉. 저승. 사람이 죽은 뒤에 그 혼이 가서 산다고 하는 세상.
- 86) 무슨.
- 87) 面目. 얼굴의 생김새. 사람을 대할 용기.
- 88) 先塋. 조상의 무덤.
- 89) 名山大刹. 이름난 산에 있는 큰 절.
- 90) 神供. 신이나 부처에게 음식이나 재물, 기도 등을 바치며 소원을 비는 일.
- 91) 男女間. 아들이나 딸이나 무엇이든지.
- 92) 家君. 남에게 자기의 아버지나 남편을 이룰 때 씀.
- 93) 正大하심. 바르고 옳아서 사사로움이 없음.
- 94) 發說. 입 밖에 냄.
- 95) 靈神堂. 부처와 신령을 모신 집.
- 96) 古廟. 오래된 사당.
- 97) 叢祠. 여러 신을 모신 사당.
- 98) 釋王寺. 석가모니를 모시는 절.
- 99) 諸佛. 여러 부처

- 100) 諸天. 천상계의 모든 신불(神佛).
- 101) 菩薩. 부처를 따르고 중생을 구제한다는, 부처의 다음가는 성인. 고승을 존경하여 이르
는 말.
- 102) 彌勒. 도솔천에 살며, 억만 년 뒤에 인간 세상에 내려와 중생을 구제한다는 미래의
부처.
- 103) 羅漢佛供. 소승 불교의 수행자 가운데 가장 높은 경지에 이른 성자인 나한에게 드리는
불공.
- 104) 神衆맞이. 여러 신장(神將)에게 드리는 불공.
- 105) 七星佛供. 칠성님을 모신 칠성당에 드리는 불공. '칠성님'은 칠원성군으로 복두칠성을
가리킴. 자손의 탄생과 화복을 주관한다고 함.
- 106) 袈裟施主. 중이 입는 옷인 법의를 짓는 데에 드는 비용을 내는 일.
- 107) 窓糊施主. 절에 있는 방의 창문을 탈라 주는 일.
- 108) 引燈施主. 부처 앞의 등불을 켜는 데에 쓰이는 기름을 불가에 바치는 일.
- 109) 성조(成造). 본디 집을 지키는 신령을 뜻하였으나, 대개는 새로 집을 짓는 일을 가리킴.
- 110) 竈王. 부엌을 지킨다는 신.
- 111) 堂山. 남쪽 지방의 민속신앙으로, 토지나 마을의 수호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곳. 보통
마을에 가까운 산이나 언덕, 또는 큰 나무 밑이 되는데, 제사는 정초에 지낸다. 여기서
는 '당산제'의 뜻으로 쓰였다.
- 112) 천룡(天龍). 천상계에 산다는 귀신.
- 113) 군웅제. 군웅에게 드리는 제사. '군웅신(구농신)'은 무속 신의 하나.
- 114) 힘들여 심은 나무. '남기'는 나무.
- 115) 甲子 四月 初八日날 : 갑자년 4월 8일.
- 116) 瑞氣. 상스러운 기운. 복되고 좋은 일이 있을 듯한 기운.
- 117) 蟠空하고. 공중에 서리고.
- 118) 五彩. 파랑, 노랑, 주홍, 까맣, 하양의 다섯 가지 빛깔을 말하는데, '갓가지 빛깔'의
뜻으로도 쓰인다.
- 119) 一介. 한 사람.
- 120) 하늘로부터.
- 121) 五色. 여러 가지 색깔.
- 122) 彩冠. 빛깔이 고운 관.
- 123) 降仙衣. 선녀가 하늘에서 내려올 때 입는 옷.
- 124) 月佩. 선녀들이 찬다는, 달처럼 생겼거나 달이 그려진 패물.
- 125) 조금 느슨하게.
- 126) 玉佩. 여자들이 차던, 옥으로 만든 패물.
- 127) 琤琤. 옥이 울리는 맑은 소리.
- 128) 桂花가지. 계수나무의 가지.
- 129) 夫人前. 부인 앞.
- 130) 揖. 두 손을 맞잡아 얼굴 앞으로 들어올리고 허리를 구부려서 공손히 하는 절.
- 131) 舉動. 행동하는 짓이나 태도.

- 132) 달의 정기(精氣).
- 133) 散亂. 어수선하고 뒤숭숭함.
- 134) 西王母. 옛날 중국에서 받들었던 선녀(仙女). 성(性)은 양(陽), 이름은 회(回). 산해경(山海經)에는 그 모양이 반인(半人) 반수(半獸)로 표범의 꼬리에 범의 이를 가지고, 더벅머리에 풀다리(풀로 만든 머리 장식)를 썼다 함. 그 여자의 남쪽에는 세 청초(靑鳥)가 있어서 먹을 것을 마련해 주었다 함.
- 135) 蟠桃. 신선의 복숭아. 선경의 복숭아로 한 번 먹으면 장생불사(長生不死)를 한다 함.
- 136) 進上. 바치리.
- 137) 玉眞妃子. ‘옥진낭자’라고 하는 선녀.
- 138) 數語. 몇 마디 말.
- 139) 酬酌. 말을 주고받음.
- 140) 時가. 시간이.
- 141) 上帝. 옥황상제. 도교에서 말하는 하느님으로, 천지 창조 때에 나타나서 영원히 죽지 않고 옥경산에서 산다고 함.
- 142) 得罪하여. 죄를 얻어.
- 143) 人間. 사람이 사는 세상.
- 144) 내어 쫓으시니. 내쫓으시므로.
- 145) 太上老君. ‘노자’를 도가에서 높이어 부르는 말.
- 146) 后土夫人. 당나라 때 중국인들이 받들던 신. 중국 양주에 가면 이 신을 모시는 사당이 있다고 함.
- 147) 諸佛. 여러 부처.
- 148) 菩薩. 부처의 다음 가는 성인. 고승을 존경하여 이르는 말.
- 149) 釋迦님. 석가모니. 현세를 다스리는 부처.
- 150) 어여쁘게. 예쁘게.
- 151) 南柯一夢. 중국 당나라 때의 이공좌(李公佐)가 지은 소설 〈남가기(南柯記)〉에서 유래된 말로, ‘덧없이 지나간 한때의 부귀와 영화가 꿈과 같다’는 뜻으로 이르는 말.
- 152) 兩主. 바깥주인과 안주인. 부부.
- 153) 夢事. 꿈꾼 일.
- 154) 胎氣. 아이를 뱃 기미.
- 155) 十朔. ‘삭’은 ‘음력 초하루’를 나타내는 말인데, ‘달’의 뜻으로도 쓰인다.
- 156) 排設하는데. ‘배설(排設)’은 연회나 어떤 의식에 쓰는 여러 가지 기구를 벌여 배풀어 놓는 일. 여기서는 ‘(아기가 자라나는 데에 걸리는 열 달을) 준비하다’ 곧 ‘(열 달이) 걸리다’의 뜻으로 쓰였다.
- 157) 天性. 타고난 성품.
- 158) 席不正不坐. 자리가 반듯하지 않으면 앉지 않고. 주나라 문왕의 어머니인 태임(太任)이 실천했던 태교의 한 가지.
- 159) 割不正不食. 바르게 자르지 않은 음식은 먹지 않음. 주나라 문왕의 어머니 태임(太任)이 실천했다는 태교의 한 가지.
- 160) 耳不聽淫聲. 귀로는 음란한 소리를 듣지 않음. 주나라 문왕의 어머니 태임(太任)이

- 실천했다는 태교의 한 가지.
- 161) 目不視惡色. 눈으로는 좋지 않은 색깔을 보지 않음. 주나라 문왕의 어머니 태임(太任)이 실천했다는 태교의 한 가지.
- 162) 十朔. 열 달.
- 163) 解腹. 해산.
- 164) 機微. 어떤 일의 조짐.
- 165) 한참 동안.
- 166) 一邊. 한편.
- 167) 쥘, 땔나무, 채소 따위의 묶음을 세는 단위.
- 168) 小盤. 자그마한 밥상.
- 169) 井華水. 이른 새벽에 길은 물.
- 170) 順產. 순순히 출산함.
- 171) 異香. 이상한 향기.
- 172) 滿室. 방에 가득 참.
- 173) 彩色. 여러 가지 고운 빛깔.
- 174) 昏迷中. 정신이 헛갈리고 가물가물하여 희미한 가운데.
- 175) 仙人玉女. 신선의 딸처럼 아름답고 고운 딸.
- 176) 태아를 싼 막과 태반(胎盤).
- 177) 아이를 낳은 뒤에 산모가 처음으로 먹는 국과 밥. 주로 미역국과 흰밥을 먹는다.
- 178) 三神床. 삼신에게 바칠 음식을 차려놓은 상. '삼신'은 아이 낳는 일을 맡고 있다는 민속의 세 신.
- 179) 三神. 아이 낳는 일을 맡고 있다는 민속의 세 신.
- 180) 늘. 마냥.
- 181) 온순하지 못하고 급하며 화를 잘 내는 성질.
- 182) 三十三天. 불교 용어로, 사람이 생사 윤회하는 욕계(慾界) 여섯, 색계(色界) 열여덟, 무색계(無色界) 아홉 하늘을 아울러 이르는 말.
- 183) 忉率天. 불교의 욕계(慾界) 육천(六天)의 넷째 하늘. 내외의 두 원(院)이 있는데, 내원은 미륵보살이 살면서 석가의 교화를 받지 못한 중생을 위하여 설법하며, 외원은 천중(天衆)의 환락 장소라고 함.
- 184) 釋迦世尊. 석가모니.
- 185) 彌勒님네. 미륵님들. '미륵'은 도솔천에 살며, 억만 년 뒤에 인간 세상에 내려와 중생을 구제한다는 미래의 부처. 둘로 새긴 부처.
- 186) 和爲同心. 서로 화합하여 한 마음이 됨.
- 187) 點指. 신이나 부처님이 사람에게 자식이나 원하는 물건이 생기게 하여줌.
- 188) 엉기고. 묶은 것이 묵처럼 되직하여지고.
- 189) 人形. 사람 꼴.
- 190) 생겨.
- 191) 五包. 오장(五臟). 사람 몸의 다섯 가지 내장인 간장, 심장, 비장, 폐장, 신장.
- 192) 육부(六腑). 사람 뱃속의 여섯 가지 기관인 담, 위, 대장, 소장, 삼초, 방광.

- 193) 七竅. 사람 얼굴에 있는 귀, 눈, 코, 입의 일곱 개 구멍. 칠성구멍이라고도 함.
- 194) 九竅. 칠구에다 똥, 오줌 구멍을 더한 아홉 구멍.
- 195) 열 달 만에 달이 다 찬 기운을 받아. ‘짐’은 김. 기운.
- 196) 金剛門. 금강석같이 단단한 문. 곧 여자의 음문.
- 197) 下達門. 아래로 통하는 문. 곧 여자의 음문.
- 198) 여자의 골반을 비유하는 말.
- 199) 여자의 음부를 해학적으로 표현한 말.
- 200) 축내거나 다침이 없이 있는 그대로 온전히.
- 201) 順産. 아무 탈 없이 아이를 낳음.
- 202) 解産. 아이를 낳음.
- 203) 白骨難忘. 죽어서 흰 뼈가 되어도 은혜를 잊지 못함.
- 204) 獨女. 외딸. 하나밖에 없는 딸.
- 205) 命. 목숨. 수명.
- 206) 東方朔. 한(漢)나라 무제 때의 사람. 해학과 변설로 이름이 났는데, 속설에 서왕모의 복숭아를 훔쳐 먹고 장수하였다고 함.
- 207) 石崇. 중국 진(晉)나라 남안(南安) 사람으로, 자는 계륜(季倫). 벼슬길에 나서 형주자사(荊州子使)를 거쳤으며, 뒤에 무역으로 큰 부자가 되어 금곡원(金谷園)에서 천하일색 녹주(綠珠)와 행락(幸樂)을 누렸다 함. 땀나무 대신 촛불을 사용하고, 50리나 되는 비단의 장막을 만들 정도로 낭비벽이 심했다고 한다. 권신 사마소(司馬昭)의 인척인 왕개(王愷)와 부를 다투었으나 왕개가 항상 졌다고 한다. 사마륜(司馬倫)에 의해 살해되었다.
- 208) 太任. 주나라 왕계(王季)의 아내이며 문임금의 어머니. 왕계의 어머니인 태강(太姜), 문임금의 아내인 태사(太似)와 더불어 주나라 왕실의 세 어머니로 꼽히며, 여진 아내의 표상으로 받들린다.
- 209) 班姬. 반첩여(班婕妤). 중국 한나라의 여류시인. 반황(班況)의 딸. 성제 때 뽑혀서 첩여가 되었으나, 조비연(趙飛燕) 자매에게 미움을 받아 장신궁으로 물러가 태후(太后)에게 시종드는 동안 서글픈 마음을 시로 읊었는데, 〈원가행(怨歌行)〉을 지었음.
- 210) 才質. 재주와 기질.
- 211) 大舜. ‘순임금’을 높여 부르는 말. 어리석은 아버지와 악독한 계모 밑에서 자라났는데, 계모가 여러 차례 그를 죽이려고 했으나, 늘 효성을 다하여 어머니를 섬겼다.
- 212) 曾子. 이름은 삼(參). 공자의 제자 일흔두 명 가운데서 특히 증자와 민손(閔損)이 효자로 꼽힌다. 일찍이 외밭을 가꾸다가 외 덩굴을 다치게 했다고 꾸짖는 아버지를 원망하는 노래를 지어 부르다가 공자에게 꾸중을 들은 뒤로는 효성을 다해 부모를 섬겼다. 《효경》과 《대학》을 지었다.
- 213) 알 수 없음.
- 214) 불어나듯.
- 215) 자주 앓는 자질구래한 병.
- 216) 日就月將. 나날이 다달이 자라거나 발전함.
- 217) 順産. 순조롭게 출산을 함.

- 218) 晩得. 뒤늦게 얻음.
 219) 辱及先榮. 욕됨이 조상에까지 미침.
 220) 針線. 바느질.
 221) 紡績. 길쌈.
 222) 窈窕淑女. 마음씨가 착하고 자태가 아름다운 여자.
 223) 君子好逑. 군자의 좋은 배필. ‘군자’는 덕행과 학식이 있는 남자를 가리키나, 조선조 때에는 아내가 자기 남편을 이르는 말로도 썼음.
 224) 外孫奉祀인들. 외손자가 제사를 받들어 모시는 것인들.
 225) 어르는데. 무엇을 보이거나 들려주거나 몸을 흔들어 주거나 하여 어린애의 마음을 기쁘게 해 주는데.
 226) 金子童. 금자동이. 어린아이를 금처럼 보배롭고 귀하다는 뜻으로 이르는 말.
 227) 玉子童. 옥자동이. 어린아이를 옥처럼 보배롭고 귀하다는 뜻으로 이르는 말.
 228) 鶴仙이. 신선이 타고 다닌다는 학.
 229) 궁기에는. 구멍에는.
 230) 水獺皮. 수피. 수달의 가죽. 갓옷, 옷깃 따위의 털볼이로 쓴다. 수달이 얼음 밑에 구멍을 드나들기 때문에 이렇게 말함.
 231) 白米. 흰 쌀.
 232) 다섯 섬. ‘섬’은 부피의 단위. 곡식, 가루, 액체 따위의 부피를 잴 때 쓴다. 한 섬은 한 말의 열 배로 약 180리터에 해당한다.
 233) 방아를 쪼어 껌질을 벗겨낸 쌀 속에 있는 껌질이 벗겨지지 않은 벼 알갱이.
 234) 여기서는 ‘쌀 닷 섬에 든 벼 한 알갱이’라는 말. 곧 ‘아주 귀한 것’을 뜻함.
 235) 잇따라 가볍게 기어 다니는 모양.
 236) 南田北土. 남쪽에 있는 밭과 북쪽에 있는 땅. 여기저기 있는 논과 밭.
 237) 이보다.
 238) 사랑스럽기.
 239) 빨리.
 240) 賢哲. 어질고 사리에 밝음.
 241) 아버지로부터 받는 귀여움.
 242) 빨리.
 243) 이럭저럭 일이 진행되는 모양. 이럭저럭 시간이 흐르는 모양.
 244) 일할 사람.
 245) 貧寒. 살림이 매우 가난하여 쓸쓸함.
 246) 產後の別症. 아이를 낳은 후에 조섭을 잘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병 증세.
 247) 危重. 병세가 위험할 정도로 심함.
 248) 細細. 자세하고 자세한.
 249) 家君. 남편, 혹은 자기 아버지.
 250) 손바닥을 펴 내민 손.
 251) 붙들어 잡고.
 252) 偕老百年. 백년이나 살아 함께 늙음. 부부가 함께 늙음.

- 253) 泛然하면. 차근차근하지 못하고 데면데면하면.
 254) 노여움.
 255) 일하는 데 드는 힘이나 수고.
 256) 極盡恭待. 마음을 다하여 공손하게 잘 대접함.
 257) 天命. 타고난 수명.
 258) 찾아와거 : 찾아와서.
 259) 母女相逢. 어머니와 딸이 서로 만남.
 260) 此生. 이승.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세상.
 261) 未盡恨. 다하지 못한 한.
 262) 後生. 죽어서 저승에서 사는 삶.
 263) 사십시다.
 264) 無窮허나. 끝이 없으나.
 265) 허.
 266) 생기거나. 태어나거나.
 267) 徹天之. 하늘에 사무치는.
 268) 너로 인하여.
 269) 生死間에. 살거나 죽거나. 세상에 다시는 없을 만큼 썩 심한 형편임을 한탄할 때에 쓰임. 천하에.
 270) 무슨.
 271) 颯颯悲風. 구슬피 부는 바람 소리.
 272) 蕭蕭細雨. 적막하고 쓸쓸히 내리는 가는 비.
 273) 醫家. 의원의 집.
 274) 速히. 빨리.
 275) 水一升煎半服. 물 한 되를 붓고 절반이 될 때까지 달여 먹음.
 276) 잡수시오.
 277) 卽效. 즉시 나타나는 효력.
 278) 四肢. 두 팔과 두 다리.
 279) 콧구멍.
 280) (어떤 기운이) 길으로 나타나거늘
 281) 極樂世界. 불교에서 말하는 세계로서, 아미타불이 늘 설법하고 있으며 근심과 고통이 없는 안락한 세계.
 282) 念佛. 불경을 외는 일.
 283) 病不能殺人. 병은 사람을 죽이지 못함.
 284) 藥能活人. 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
 285) 텅굴어.
 286) 가슴.
 287) 절커덕절커덕. 크고 단단한 물체가 자꾸 부딪치는 소리 또는 모양.
 288) 매우 안타깝거나 추워서 발을 가볍게 자꾸 구르는 모양.
 289) 如狂如醉. 미친 듯 취한 듯, 제 정신이 아닌 상태.

- 290) 南之西之. 이리저리.
- 291) 死生同居. 죽으나 사나 함께 삶.
- 292) 閻羅國. '염라대왕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뜻으로, '저승'을 달리 일컫는 말.
- 293) 青春作伴好還鄉. 청춘을 벗삼아 기쁜 마음으로 고향에 돌아가리라. 당나라 두보의 시 <문관군하남하북(聞官軍河南河北)>의 한 구절.
- 294) 青天有月來幾時. 푸른 하늘에 머지않아 달이 떠오르는 때. 이백의 시 <파주문월(把酒問月)>의 첫 구절.
- 295) 長天九萬里. 구만 리나 되는 매우 높고 먼 하늘.
- 296) 三更. 저녁 일곱 시부터 다음날 새벽 다섯 시까지의 밤 동안을 다섯으로 나눈 것 가운데서 세 번째 시간. 곧, 밤 열한 시부터 다음날 한 시까지의 한밤중.
- 297) 北京. 중국의 수도.
- 298) 使臣行次. 사신들이 길을 가는 행렬.
- 299) 살자. 살자고.
- 300) 冬至. 이십사절기의 하나로 대설(大雪)과 소한(小寒) 사이 양력 12월 22일경임. 일년 중 밤이 가장 긴 날.
- 301) 大寒. 이십사절기의 하나로 소한(小寒)과 입춘(立春) 사이 양력 1월 21일경임. 일년 중 가장 추운 날.
- 302) 아래쪽으로 내려가며 텅끓.
- 303) 윗 쪽으로 올라가며 텅끓.
- 304) 목젢이질. 목이 부러진 것처럼 힘없이 꺾여 숙여지는 동작.
- 305) 크고 단단한 물건이 자꾸 서로 (맞닿아) 세게 부딪칠 때에 거칠게 나는 소리, 또는 그렇게 내는 소리.
- 306) 鼓盆之痛. 중국 춘추시대에 초나라의 장주가 그 아내가 죽자, 슬픈 노래를 지어 질동이를 두드리며 불렀다는 옛일에서 나온 말로, '아내가 죽은 슬픔'을 뜻함.
- 307) 무엇이 몹시 심하거나 하여 못마땅해서 빈정거릴 때 내는 소리.
- 308) 可矜. 불쌍하고 가엾음.
- 309) 公論. 여럿이 모여 하는 의논.
- 310) 賢哲. 어질고 총명함.
- 311) 勘葬. 장사를 지내는 일을 끝냄.
- 312) 一口如出. 여러 사람의 말이 한 입에서 나온 듯이 똑같은. '여출일구(如出一口)'를 변형시킨 말.
- 313) 衣衾棺槨. 수의와 관을 한꺼번에 이르는 말.
- 314) 정성들여 깨끗하고 온전하게.
- 315) 小方牀. 대방상을 쓰지 못할 만큼 좁은 곳에서 쓰는 작은 상여. 대방상은 나라의 높은 벼슬아치가 죽었을 때에 쓰는 크고 호화로운 상여.
- 316) 댕돌이 놓이는 부분. '토방'이라고도 함.
- 317) 위에.
- 318) 結棺. 종이, 자리, 베 따위로 관을 싼 뒤에 삼줄 따위로 묶는 일.
- 319) 紙喪輿. 종이로 꽃을 만들어 꾸민 상여.

- 320) 銘旌. 정해진 길이와 폭의 주홍빛 천에다 죽은 사람의 관직과 본관과 성씨 따위를 적은 깃발. 장대에 달아 상여 앞에서 들고 갔다가 널 위에 펴고 함께 묻음.
- 321) 功布. 삼베를 다섯 자에서 여섯 자 길이로 잘라 만든, 상여가 집에서 떠날 때에 명정과 함께 앞에 세우고 갔다가 관을 묻을 때에 관을 닦는 수건.
- 322) 襲扇. 운불삼. 발인 때에 상여의 앞뒤에 들고 가는 제구인 운삼과 불삼을 한꺼번에 일컫는 말. 운삼은 구름무늬가 그려진 부채모양의 널판. 불삼은 ‘亞’자 꼴이 그려진 널조각.
- 323) 等物. 같은 종류의 물건.
- 324) 發靸祭. 상여가 집에서 떠날 때 상여 앞에서 지내는 제사.
- 325) 靈輶既駕 往即幽宅 載陳遺禮 永訣終天. 혼백이 상여에 오르자마자 무덤으로 가옵시니, 보내는 예는 모두 갖추어 배운 뒤에 아주 헤어집니다. 영구가 떠날 적에 음식 따위를 차려놓고 외는 축문.
- 326) 搖鈴. 손에 들고 흔들며 소리를 내는, 작은 종처럼 생긴 기구. 상여가 나갈 때 앞에서 흔들며 소리를 메김.
- 327) 암전하고. 말이나 행동이 곱고 점잖고.
- 328) 才質. 재주와 기질.
- 329) 北邙山. 중국의 낙양에 가까이 공동묘지가 있던 언덕들을 통틀어 일컫던 말로, ‘묘지’, 또는 ‘저승’의 뜻으로 쓰임.
- 330) 멀다고 하더니.
- 331) 案山. 청룡(靑龍), 백호(白虎), 주산(主山)과 함께 풍수학상의 네 요소의 하나로, 집터나 뒤편의 앞에 있는 산.
- 332) 상여를 메는 사람.
- 333) 罷漏. 조선 시대에, 서울에서 통행금지를 해제하기 위하여 종각의 종을 서른 세 번 치던 일. 오경 삼점(五更三點)에 쳤다.
- 334) 鷄鳴山川. 닭이 울어 날이 밝아 올 무렵의 산천.
- 335) 지저귀어 울.
- 336) 屈冠 祭服. 상주가 두건 위에 덧쓰는 관과 상복. ‘굴관’은 ‘굴건’이라고도 하는데, 넓이가 한 치 오分寸 되는 삼베 세 가닥을 종이로 여러 겹 붙인 것.
- 337) 상여.
- 338) 거머쥐어 잡고.
- 339) 가마나 상여 들것 따위의 뒷부분으로, 사람이 매거나 들게 된 부분.
- 340) 매달리게 해 보고.
- 341) 不顧人情. 인정을 돌아보지 않음.
- 342) 저버리고.
- 343) 永訣終天. 죽어서 영원히 이별함.
- 344) 山疊疊路茫茫. 산은 겹겹이 둘러 있고, 길은 아득히 멀.
- 345) 日沈沈月暝暝. 날이 저물고 달빛도 어두움.
- 346) 夫唱婦隨. 남편이 부르면 아내가 곧 뒤따라서 답한다는 뜻으로, 부부가 서로 뜻이 잘 통하여 화에합을 말함.

- 347) 情曲. 간곡한 정.
- 348) 나와.
- 349) 護喪. 초상을 치르는 데에 관한 온갖 일을 처리하는 사람.
- 350) 다른 사람들이 후렴으로써 받아 할 수 있도록 먼저 메기는 소리.
- 351) 뒷걸음.
- 352) 向陽之地. 남쪽을 향해서 별이 잘 드는 곳.
- 353) 安葬. 편안히 장사지냄.
- 354) 平土祭. 관을 묻은 후에 흙을 덮어 원래의 바닥 높이와 같게 한 뒤에 지내는 제사.
- 355) 祝文. 제사 때 읽어 신명께 고하는 글.
- 356) 識字. 지식.
- 357) 嗟乎. 아, 슬프다.
- 358) 邀此窈窕淑女兮여. 어진 여자를 맞아들였으나.
- 359) 行不苟兮古人이라. 행실과 범절이 옛날의 훌륭한 아녀자에 견주어서 조금도 뒤지지 않는다.
- 360) 期百年而偕老. 백 년을 기약하고 함께 늙자 함. 곧 ‘늙도록 오래 같이 살자’는 말.
- 361) 忽然沒兮焉歸오? 갑자기 죽었으니 어찌 다시 돌아올 수 있으리오?
- 362) 遺稚子而永逝兮여. 어린 자식을 두고 세상을 떠나다니.
- 363) 白楊暮에 日落한다. (중국에서, 묘지에 심던 나무인) 백양나무에는 이미 날이 매우 저물어 해가 지는데. 박지원이 적은 〈열하일기〉의 ‘도강록(渡江錄)’편에 “길옆에 흔히 무덤이 있는데……백양을 줄지어 많이 심었다”라고 되어있다.
- 364) 疊疊. 겹겹이 쌓여 있음.
- 365) 如啾啾 두루兮여. 귀신이 우는 듯한 소리가 사방에 가득하구나.
- 366) 隔幽顯而路殊兮여. 이승과 저승이 갈리어 길이 다르구나.
- 367) 그 누가.
- 368) 仙來相知相逢. 신선세계에서 왔으므로 서로 알아보고 함께 만남.
- 369) 此生. 이승.
- 370) 어쩔 수 없네.
- 371) 酒果脯醢. 술, 과일, 말린 고기, 식혜. 제삿상을 차리는 기본 음식.
- 372) 薄奠兮여. 변변치 못한 제사여.
- 373) ‘장성한’의 잘못된 뜻.
- 374) 저승에 가서 잘 살라는 뜻.
- 375) 腹痛斷腸聲. 마음이 아파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소리.
- 376) 葬事. 예를 갖추어 시신을 묻는 일.
- 377) 繞客. 혼인 때에 가족 중에서 신랑이나 신부를 데리고 가는 사람. 따라서 여기는 ‘빈객(賓客, 손님.)’의 잘못.
- 378) 白骨難忘. 죽어서 흰 뼈가 되어도 은혜를 잊지 못함.
- 379) 엮드리지며. 실수로 엮어지며.
- 380) 소리 내어 야단스럽게 부르짖으며 우는 모양.
- 381) 시체가 나간 뒤에, 집안에서 그 냄새를 없애려고 향과 쑥을 태워 피우는 냄새.

- 382) 發狂. 미친 증세.
 383) 自嘆. 스스로 탄식함.
 384) 村. 마을.
 385) 洛陽東村. 중국 낙양성의 동쪽 마을.
 386) 梨花亭의 淑娘子. 숙향은 송나라 때의 미인인데, 난리를 만나 부모와 헤어지고, 천태산에서 마고 선녀를 만나 이화정에서 수를 놓으며 살게 되었다고 한다.
 387) 二妃. 순임금의 두 왕비인 아황과 여영.
 388) 오마는. 온다고 하는.
 389) 줄을 길게 매어 물을 끄는 도구. 바가지나 판자 또는 양철로 만들.
 390) 반갑게.
 391) 哀矜히. 불쌍하게.
 392) 심하게 내리찍는 여름의 뜨거운 별.
 393) 기음. 논밭에 난 잡풀.
 394) 허위허위. 허위적거리는 모양.
 395) 강이나 바다의 바닥이 얇거나 폭이 좁아 물살이 세게 흐르는 곳.
 396) 팔다리를 아무렇게나 편하게 뻗고.
 397) 壽福康寧. 명이 길고, 복이 많고, 건강함.
 398) 富貴多男. 부자로 잘 살며, 몸이 귀하게 되고, 아들을 많이 낳음.
 399) 귀한 자식.
 400) 슬슬.
 401) 다독다독. 자꾸 다독이는 모양. ‘다독이다’는 ‘아기를 재우거나 달래거나 귀여워할 때 몸을 가만가만 두드린다.’
 402) 纏帶. 무명이나 베 따위로 길게 만들어 허리에 두르거나 어깨에 매던 긴 자루.
 403) 굵게 묶어서 두 덩이로 만들어.
 404) 六場. 여섯 번의 장날.
 405) 암죽. 곡식이나 밤의 가루로 묽게 쑤어 어린아이에게 젓 대신으로 먹이는 죽.
 406) 검은 엿. 갓 고아낸 검은 색깔의 엿. 이것을 여러 번 잡아늘이면 회고 연한 엿이 된다.
 407) 僅僅히. 겨우겨우. 간신히.
 408) 諸佛菩薩. 모든 부처와 보살.
 409) 陰助하여. (하늘이나 귀신이) 남몰래 도와서.
 410) 오이가 불어나듯.
 411) 달이 점점 차듯이.
 412) 朝夕供養. 웃어른을 모시면서 아침저녁으로 음식을 잘 대접하는 일.
 413) 無男獨女. 아들 없이 오직 하나만 있는 딸.
 414) 들어주십시오.
 415) 子路. 공자의 제자. 노나라 사람으로, 성은 중(仲), 이름은 유(由)임. ‘자로’는 그의 자(字).
 416) 賢人. 어질고 총명하여 성인의 다음 가는 사람.
 417) 百里에 負米하고. 자로가 부친 봉양을 위해 백 리나 떨어진 곳에서 쌀을 구해 짊어지고 온 일을 가리킴.

- 418) 淳于意. 한나라 문제(文帝) 때 태창령(太倉令). 국고금을 사사로이 써 버리고 낙양의 옥에 갇혀 죽게 되었을 때, 그의 딸 제영이 몸을 관비(官婢)로 팔아 속죄하였다.
- 419) 醢醢. 한나라 문제(文帝) 때 태창령(太倉令) 순우의의 딸. 그의 아버지 순우의가 국고금을 사사로이 써 버리고 낙양의 옥에 갇혀 죽게 되었을 때, 제영이 몸을 관비(官婢)로 팔아 속죄하였다.
- 420) 洛陽. 고대 중국의 수도.
- 421) ‘아버지’를 낮추어 일컫는 말.
- 422) 贖罪. (물질적으로나 그밖의 방법으로) 저지른 죄나 과오를 씻음.
- 423) 空林. 빈 숲. 거울 숲.
- 424) 反哺之恩 새 새끼가 자란 후에 늙은 어미 새에게 밥을 물어다 은혜를 갚는 일.
- 425) 微物. 작고 보잘것없는 물건.
- 426) 기특하다.
- 427) 舉動. 일에 나서서 움직이는 행동이나 태도.
- 428) 중의(中衣). 고의(袴衣). 바지.
- 429) 대님. 한복 바지를 입은 후에 바지 가랑이 끝을 매는 끈.
- 430) 검푸른 물을 들인 무명.
- 431) ‘휘항(揮項)’이라고도 함. 추울 때 머리에 쓰는 물건으로, 남바위같이 생겼으나 뒤가 훨씬 길고, 목덜미와 뺨까지 싸게 되었음.
- 432) 말기. 치마나 바지 따위의 맨 위, 허리에 둘러댄 부분.
- 433) 깃. 옷깃. 저고리나 옷옷의 목에 둘러대어 앞으로 여미는 부분.
- 434) 어떤 사물의 윗부분.
- 435) 길버선. ‘길 갈 때 시는 버선’인 듯.
- 436) 바람을 쐬.
- 437) 부엌門前. 부엌문 앞.
- 438) 애궁(哀矜)히. 불쌍하게.
- 439) 求患. 어려운 지경에서 구함.
- 440) 잡수시고.
- 441) 十匙一飯. 열 손가락이면 한 끼의 식사가 됨.
- 442) 하겠나이다. 하겠습니다.
- 443) 못한지라. 충분한지라. 충분하다.
- 444) 그 사이에.
- 445) 半日. 반 나절.
- 446) 시장하긴들. 배가 고프기인들.
- 447) 미역을 말려 기름에 튀긴 반찬의 일종.
- 448) ①물고기를 소금에 절인 반찬감, 또는 그것을 굽거나 찌서 만든 반찬감. ②나물이나 해산물 같은 것에, 간장이나 참싹풀을 발라 말린 다음, 굽거나 기름에 튀겨 만든 반찬.
- 449) 人事. 사람의 일 또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
- 450) 벼과와 한해살이풀. 열매는 ‘황실(黃實)’이라고도 하는데 옅은 누런색으로 떡, 술, 엿, 빵 따위의 원료나 가축의 사료로 쓴다. 선사 시대부터 이집트, 아시아 등지에서 재배했

- 으며 강원, 경북 등지에 분포한다.
- 451) 벼과의 한해살이풀. 줄기는 높이가 2미터 정도이며, 잎은 어긋나게 나고 넓은 선 모양이다. 열매는 곡식이나 엿, 과자, 술, 떡 따위의 원료로 쓰고 줄기는 비를 만들거나 건축재로 쓴다. 아프리카 또는 인도가 원산지로, 우리나라에는 중국을 거쳐 건너와 오랜 옛날부터 재배되었다.
- 452) 가까이 다다른.
- 453) 如流. 흐르는 물과 같이 빨라서.
- 454) 一色. 아주 뛰어난 미인.
- 455) 孝行. 효성스런 행동.
- 456) 出天. 하늘이 났. 아주 뛰어난.
- 457) 遠近에. 멀고 가까운 곳에. 곧 널리 여기저기에.
- 458) 狼藉하더니. 매우 어지럽게 여기저기 흩어져 있더니.
- 459) 張丞相宅. 장씨 성을 지닌 승상 벼슬을 하거나 했던 집. '승상'은 옛 중국의 벼슬로 우리나라의 정승과 같음.
- 460) 侍婢. 늘 가까이 있으면서 시중드는 여자 종.
- 461) 父親前. 아버지께.
- 462) 진작.
- 463) 一國. 한 나라.
- 464) 宰相. 임금을 보필하며 모든 관원을 지휘, 감독하는 자리에 있는 이품 이상의 벼슬을 통틀어 이르는 말.
- 465) 恭順히. 공손하고 온순하게.
- 466) 侍婢. 시중드는 여자 종.
- 467) 青松. 푸른 소나무.
- 468) 綠竹. 푸른 대나무.
- 469) 亭下. 정자 아래.
- 470) 盤松. 키가 작고, 가지가 옆으로 퍼진 소나무.
- 471) 清風. 부드럽고 맑은 바람.
- 472) 한 줄기의 바람이 스쳐 부는 모양.
- 473) 老龍. 늙은 용.
- 474) 굽이치며 일어나는 듯.
- 475) 날개.
- 476) 발을 멀쩡멀쩡 띄어놓으며 걷는 모양.
- 477) 戛然聲. 학이 우는 소리.
- 478) 奇異하구나. 신기하고 이상하구나.
- 479) 階上. 섬돌 위.
- 480) 반가와 하여.
- 481) 座. 앉을 자리.
- 482) 武陵村. 가상의 마을 이름. '무릉'은 무릉도원(武陵桃源)을 뜻하기도 하는데, 도연명이 쓴 <도화원기(桃花源記)>에 나오는 별천지를 이름.

- 483) 桃花洞. '복사꽃이 핀 마을'이라는 뜻을 지닌, 심청이가 사는 동네 이름.
 484) 開花. 꽃이 폼.
 485) 棄世하고. 세상을 버리고, 돌아가시고.
 486) 皇城. 황제가 있는 서울.
 487) 未還. 돌아오지 않음.
 488) 對하나니. 대하는 것이.
 489) 古書. 오래된 책. 옛날 책.
 490) 收養딸. 남의 자식을 데려다가 제 자식처럼 기른 딸.
 491) 女工. 여성들이 하는 일. 길쌈이나 바느질 등.
 492) 文筆. 글과 글씨.
 493) 晚年. 나이가 들어 늙어가는 시기.
 494) 滋味. '재미'의 잘못.
 495) 媽媽. 임금과 그 가족들의 칭호 뒤에 쓰여, 존대의 뜻을 나타내던 말. 또는 벼슬아치의 첩을 높여 이르던 말. 여기서는 벼슬아치의 아내를 높여서 일컫는 말.
 496) 微賤함. 보잘 것 없고 천함.
 497) 榮貴. 지체가 높고 귀함.
 498) 侍側. 곁에 있으면서 웃어른을 모심.
 499) 없사옵나이다. 없습니다.
 500) 어떤 감정이 복받쳐 말소리가 잘 나지 않아.
 501) 惻隱. 가엾고 애처로움. 불쌍하게 여김.
 502) 出天之孝女. 하늘이 낸 아주 훌륭한 효녀.
 503) '노쇠(老衰)한'의 잘못. 늙고 쇠약한.
 504) 日力. 하루의 해가 질 때까지의 남아 있는 동안.
 505) 戀戀. 안타깝게 그리움.
 506) 綵緞. 온갖 비단을 통틀어 일컫는 말.
 507) 厚히. 많고 푼푼하여 인색하지 아니하게.
 508) 母女之誼. 어머니와 딸 사이의 두터운 정.
 509) 추워.
 510) 寒氣. 추운 기운. 병적으로 몸에 생기는 추운 기운.
 511) 종소리.
 512) 自歎. 자기의 일에 대해 탄식함.
 513) 빨리.
 514) 어찌하여. 어째서.
 515) 挽留하는가. 만류하는가.
 516) 수고롭고 고생스런 일.
 517) 마른 검불이나 부스러기 따위가 놀리어 서로 달아서 나는 것과 같은 소리.
 518) 寂寞空山. 나뭇잎이 다 떨어진 고요하고 깊은 산.
 519) 人跡. 사람의 자취.

- 520) 自盡腹痛. 뼈에 사무치도록 원통함.
- 521) 활짝.
- 522) 흠어 쥘고. 아무렇게나 함부로 쥘고.
- 523) 도량 出入. 도량을 드나드는 일. '도량'은 (물이 흐르도록 땅을 좁고 길게 판) 작은 개울.
- 524) 한 길이 넘는. '길'은 자기 키만한 높이나 깊이.
- 525) 無盡無盡. 끝없이.
- 526) 맑고. 흐리지 않고 뚜렷함.
- 527) 내려오는데.
- 528) 化主僧. 속세에 나가서 불교를 포교하며, 부처에게 바칠 공양물과 중들의 음식과 옷 따위를 대주는 책임을 맡은 중.
- 529) 重棚. (낡은 건물을) 헐기도 하고 고쳐서 새로 지음.
- 530) 施主 집. 중이나 절에 물건을 베풀어 주는 집.
- 531) 비스듬한.
- 532) 행동이 빠르지 못하고 자꾸 느리게 움직이며.
- 533) 벉슬한 중이 쓰던 갓. 대로 만들었는데 모자 위가 등글게 되었음.
- 534) 長衫. 중의 옷. 검은 베로 길이가 길고, 품과 소매를 넓게 만듦.
- 535) 百八念珠. 실에 작은 구슬 108개를 꿰어서 그 끝을 맞댄 염주. '염주'는 (염불하는 수를 헤아린다는 뜻으로) 염불할 때 손으로 돌려서 그 수효를 세는 기구. 여러 개의 보리자, 금강주, 또는 모감주나무의 열매 따위를 실에 꿰어서 만듦.
- 536) 團珠. 밤알만한 나무 구슬 여덟 개를 꿰어 만들어 팔에 거는 염주.
- 537) 龍頭. 용의 머리.
- 538) 六環杖. 도가 높은 중이 쥘고 다니던, 고리가 여섯 개 달린 지팡이.
- 539) 쇠고리가 부딪치며 내는 소리.
- 540) 遠山. 멀리 보이는 산.
- 541) 暗暗. 어두컴컴함.
- 542) 雪月. 눈 위로 뜨는 달.
- 543) 白苧布. 흰 모시베.
- 544) 長衫. 중의 옷. 검은 베로 길이가 길고, 품과 소매를 넓게 만듦.
- 545) 念佛. 부처의 모습이나 그 공덕을 생각하면서 부처의 이름을 외는 일, 특히 '나무아미타불'을 외는 일.
- 546) 上來所修功德海 回向三千悉圓滿. 옛부터 닦아온 공덕은 바다처럼 넓으니, 이를 다른 사람에게 돌리며, 자타가 공히 부처님의 은덕을 입어, 각 부처가 다스리는 삼천의 세계 곧 온 우주가 다 원만하길 바람.
- 547) 願往生. 죽어서 극락에 다시 태어나기를 바람.
- 548) '제궁종실각안녕(諸宮宗室各安寧)'의 잘못된 듯. 임금의 친족과 왕실이 두루 평안하기를 빕.
- 549) 언뜻. 잠깐. 얼핏.
- 550) 馬嵬驛. 중국 섬서성에 있는, 당나라 태종이 안록산의 난을 당해 피난을 가면서 양귀비

- 를 죽인 곳.
- 551) 누대의 이름인 듯하나 자세한 것은 알 수 없음.
- 552) 楊太眞. 양귀비(楊貴妃. 719-756). 당나라 현종의 비. 이름은 옥환(玉環) 또는 태진. 채주와 미색을 겸비하고 가무 음곡에 뛰어나, 현종이 매혹되어 정사를 소홀히 하였다고 함.
- 553) 둔갑하여.
- 554) 호리려는. 남의 정신을 흐리게 하여 넋을 빼앗으려는.
- 555) 竹杖. 대나무 지팡이.
- 556) 대님. 남자의 한복에서 바지를 입은 뒤에 그 가랑이 끝쪽을 접어서 가든하게 발목을 졸라 매는 좁다란 끈.
- 557) 곧추누비. 위 아래로 곧게 촘촘히 누비는 바느질.
- 558) 가랑이.
- 559) 작은 물건이 여러 겹으로 동글게 말리는 모양.
- 560) 자개미에. ‘자개미’는 겨드랑이 또는 오금 양쪽의 오목한 곳.
- 561) 물이 꺾여 있는 논.
- 562) 白鷺格으로. 백로에 어울리는 분수나 품위로.
- 563) 발을 멀쩡멀쩡 띄어 놓으며 걷는 모양.
- 564) ‘고드름상투’인 듯. 고드름처럼 가늘고 길게 생긴 상투.
- 565) 에후리쳐. 얼싸안아. 여기서는 ‘감아 쥐어’ 정도의 의미.
- 566) 活人之佛. 사람을 살리는 부처님.
- 567) 白骨難忘. 죽어 흰 뼈가 되어도 잊지 못함. 영원히 잊지 못함.
- 568) 수완이나 방법.
- 569) 수일꼬? 수일까?
- 570) 靈驗. 사람의 기원에 대하여 신이나 부처가 배풀어주는 영묘한 효과.
- 571)告하면. 알리면. 사뢰어 알리면.
- 572) 應하오니. 응하니. (물음이나 부름, 요구 따위의 사실에) 맞추어 대하거나 들어주니.
- 573) 供養米. 부처님께 바치는 쌀.
- 574) 石. 섬. 부피의 단위. 곡식, 가루, 액체 따위의 부피를 잴 때 쓴다. 한 섬은 한 말의 열 배로 약 180리터에 해당한다.
- 575) 佛前에. 부처님께.
- 576) 施主. 중이나 절에 물건을 배풀어 주는 일.
- 577) 後事. 뒷일. 나중 일.
- 578) 생각하지 않고.
- 579) 서슴지 않고 단숨에. 갑자기.
- 580) 勸善. 절을 짓거나 불사(佛事)를 하기 위하여 선심(善心) 있는 신자들에게 보시를 청함. 여기서는 ‘권선책(勸善冊)’인. ‘권선책’은 시주(施主)의 이름과 시주한 재물의 액수를 기록한 장부.
- 581) 家勢. 집안 살림살이의 경제적 형편.
- 582) 부피의 단위. ‘되’의 십분의 일이 홑임.

- 583) 감추어진 일의 내용.
 584) 虛言. 빈 말. 거짓말.
 585) 一口二言. (한 입으로 두 말을 한다는 뜻으로) 한 사람이 한 가지 일에 대하여 이랬다 저랬다 상반되게 하는 말을 이름.
 586) 記載. 적어 올림. 적어 놓음.
 587) 換腸. 환심장(換心腸). 정상적인 상태에서 벗어나게 마음이 바뀌어 아주 달라짐.
 588) 邪. 요사스러우며 나쁜 기운.
 589) 昏迷精神. 혼미한 정신. 미혹하여 사리에 어두운 정신.
 590) 엉겁결에.
 591) 無男獨女. 아들 없이 단 하나 있는 딸.
 592) 된다면.
 593) 水中孤魂. 물 속에 빠져 죽은 외로운 영혼.
 594) 지우고.
 595) 腹痛自盡. 배에 사무치게 원통하여 거의 죽을 지경이 됨.
 596) 於焉間. 어느새.
 597) 어떤 움직임이나 일에 시간이 오래 걸려서.
 598) 大小事. 크고 작은 일.
 599) 서럽습니다.
 600) 萬物. 모든 사물.
 601) 반갑게.
 602) 들어주십시오.
 603) 王祥. 서진(西晉) 시대에 태보(太保) 벼슬을 지낸 효자. 그의 계모가 한겨울에 산 물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여, 도끼로 얼음을 깨고 물고기를 잡으려 하자, 그 구멍에서 잉어 두 마리가 튀어나와, 이것을 갖다 드렸다고 함.
 604) 叩氷. 얼음을 두드림.
 605) 구멍.
 606) 孟宗. 중국 삼국시대 오나라 사람으로 효자. 그의 늙은 어머니가 병이 들어, 겨울임에도 죽순이 먹고 싶다고 하므로, 구할 길이 없어 대숲에 가서 슬피 울었는데, 밤이 깊어진 뒤에 보니 죽순이 두어 줄기 솟아나와 이를 어머니께 갖다 드렸다고 함.
 607) 泣竹. 대숲에서 울.
 608) 竹筍. 대나무의 땅속 줄기에서 돋아나는 어리고 연한 싹.
 609) 事親誠孝. 진실한 효로 아버지를 섬김.
 610) 郭巨. 후한(後漢) 사람으로, 부모에게 효성이 지극하였으나 가난하였다.
 611) 事親之孝道. 아버지를 섬기는 효도.
 612) 至誠이면 感天. 지극한 정성을 다하면, 하늘도 감동시킴.
 613) 萬端. 무수히 많은 갈래나 토막. 여기서는 ‘무수히 많은’이라는 의미.
 614) 沐浴齋戒. (부정을 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목욕을 하고, 육식을 삼가며, 몸가짐을 깨끗이 하는 일.
 615) 壇. 제사를 지내기 위해 흙이나 돌을 쌓아 만든 터.

- 616) 子夜半에. 한밤중에.
 617) 돋우어.
 618) 井華水. 이른 새벽에 길은 물.
 619) 小盤. 자그마한 밥상에.
 620) 合掌. 두 손바닥을 합하여 마음이 한결같음을 나타냄.
 621) 하느님前. 하느님께.
 622) 日月. 해와 달.
 623) 眼目이온바. 안복이니. 눈이니.
 624) 무슨.
 625) 戊子生. 육십갑자의 무자년에 태어난.
 626) 眼盲하여. 눈이 멀어.
 627) 視物. 사물을 봄.
 628) 點指. 신이나 부처님이 사람에게 자식이나 원하는 물건이 생기게 하여줌.
 629) 忠孝之心. 충성과 효도하는 마음.
 630) 欲報之德澤인댄 昊天罔極. 그 덕택을 갚으려 하면 넓고 큰 하늘과 같이 다함이 없음.
 631) 明天. 모든 것을 다 아는 하늘.
 632) 施給. 베풀어 줌.
 633) 洞里. 동네. 마을.
 634) 賣身. 몸을 팔.
 635) 南京. 중국 강소성의 성도. 옛부터 여러 번 도읍지가 되었으므로 유적이 많음. 옛 이름은 금릉.
 636) 船人인데. 뱃사람인데.
 637) 印塘水. 가공의 깊은 물 이름.
 638) 人祭需. 제물로 바치는 사람.
 639) 重畝. 많은 돈.
 640) 있습니까?
 641) 외치는.
 642) 天佑神助. 하늘과 신의 도움.
 643) 本村. 주가 되는 마을을 갈라져 나간 마을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
 644) 家勢. 집안 살림살이의 경제적 형편.
 645) 淸貧하여. 성품이 깨끗하고 재물에 대한 욕심이 없어 가난하여.
 646) 일이 잘되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힘씀.
 647) 出天之大孝女. 하늘이 낸 큰 효녀.
 648) 行船날. 배가 떠나는 날.
 649) 다음달.
 650) 다른 사람의 자식을 제 자식으로 삼아 기른 딸.
 651) 데려간다.
 652) 一喜一悲. 한편으로는 기쁘고, 또 한편으로는 슬픔.

- 653) 聽聞. 들리는 소문.
 654) 괴이(怪異)하나. 괴이하지만. 이상야릇하지만.
 655) 정가. 지난 허물이나 결함을 자꾸 들춰내어 흥분.
 656) 白髮父親. 머리가 허연 늙으신 아버지.
 657) 永別. 영원히 이별함.
 658) 생겨났다. 태어났다.
 659) 全廢. 아주 그만둠.
 660) 愁心. 매우 근심함. 매우 근심하는 마음.
 661) 그렇게 하지 말라고 금지할 때 하는 말. 해라할 자리에 쓴다.
 662) 上針. 박이웃이나 보료·방석 따위의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실밥이 겹으로 드러나게 꿰매는 일.
 663) 겹옷. 솜을 넣지 않고 거죽과 안을 맞추어서 지은 옷.
 664) 박아. 촘촘히 눌러 꿰매어.
 665) 網巾. 상투를 한 사람이 머리털을 걸어 올려 가지런히 하기 위하여 이마에서 뒤통수에 걸쳐 쓰던, 그물처럼 생긴 물건.
 666) 한 땀 한 땀 새로 바느질을 하여.
 667) 行船. 배가 떠남.
 668) 日字. 날짜.
 669) 隔한지라. 사이가 떨어진지라. 남은지라. 남았다.
 670) 寂寂. 고요함.
 671) 三更. 밤 열한 시에서 새벽 한 시 사이. 한밤중.
 672) 울지는.
 673) 哽哽咽咽. 슬픔에 목이 메어 울음.
 674) 手足. 손과 발.
 675) 半夜. 한밤중.
 676) 秦關. 진나라의 관. ‘관’은 국경이나 국내의 요지의 통로에 두어서, 외적을 경비하며, 출입하는 사람이나 화물을 조사하던 곳. 여기서는 맹상군이 닭울음소리를 잘내는 식객의 도움으로 무사히 도망쳐 나온 함곡관을 가리킴.
 677) 孟嘗君. 맹상군은 전국시대 제(齊)나라 사람으로, 성은 전(田), 이름은 문(文)임. 일찍이 빈객들을 후히 대접하여 많은 사람이 그의 집에 출입하였는데, 맹상군이 진(秦)나라 소왕에게 잡혀 죽게 되었을 때, 닭울음소리를 잘내는 식객(食客)의 도움으로 함곡관을 빠져나와 무사히 도망친 일이 있었다.
 678) 사립문.
 679) 밖에.
 680) 여럿이 자꾸 뽀족이 내미는 모양.
 681) 내가.
 682) 遲滯. 때를 늦추거나 질질 끄는 것.
 683) 亡終. 마지막
 684) 그것일랑은. 그것은.

- 685) 父女天倫. 하늘이 정해준 아버지와 딸 사이의 인륜.
 686) 夢兆. 꿈자리.
 687) 解夢. 꿈속에 나타난 일의 좋고 나쁨을 풀어 판단함.
 688) 壯히. 아주.
 689) 祠堂. 조상의 신주를 모셔놓은 집.
 690) 下直. 작별 인사.
 691) 痛哭四拜. 매우 슬프게 울며 네 번 절을 함.
 692) 三代. 할아버지와 아들 손자의 세 대(代).
 693) 즉차(卽次). 바로 그 다음.
 694) 女息. 딸자식. 딸.
 695) 祭需(祭需)로. 제사에 쓰는 여러 가지 재료로.
 696) 祖宗香火. 시조가 되는 조상에게 올리는 향불. 제사에는 언제나 향불을 피우기 때문에 제사를 가리킴.
 697) 이로부터. 지금부터.
 698) 不勝惶惑. 황송하고 감격스러움을 이기지 못함.
 699) 엎터지며 : 엎드러지며.
 700) 음식이 가짓수가 많고 푸짐하더니.
 701) 정가. 지난 허물이나 잘못을 자꾸 들춰내어 흥분.
 702) 祭需(祭需)로.
 703) 亡終. 마지막.
 704) 눈 뜨기는커녕.
 705) 털썩. 갑자기 힘없이 주저앉거나 쓰러지는 소리. 또는 그 모양.
 706) 주저앉으며.
 707) 一天下. 온 천하에 두루 통함.
 708)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없는.
 709) 살 텐데.
 710) 누구를.
 711) 坊長. 방의 우두머리. ‘방’은 행정구역의 명칭으로 지금의 면과 비슷하나 조금 작음.
 712) 그냥. 다른 일은 하지 않고 그냥.
 713) 매우 드물거나 뛰어나서 세상에서 비길 데가 없음을 이르는 말.
 714) 七年大旱. 중국 은(殷)나라 탕(湯)임금 때에 7년 동안이나 지속되었던 큰 가뭄.
 715) 湯임금. 중국 전설상의 은나라 왕조의 건설자. 하(夏)나라의 걸왕(桀王)을 내쫓고 천가의 자리에 올랐음. 이름은 이(履), 또는 천을(天乙).
 716) 빌 것 같으면. 빌려면.
 717) 자신으로.
 718) 剪爪斷髮 身嬰白茅. 손톱 깎고, 머리카락을 자르고, 몸을 흰 띠폭로 묶음. 탕임금이 기우제를 지낼 때 그렇게 했다고 함.
 719) 상림(桑林) 들에서. 상림은 탕임금이 기우제를 지낸 곳.
 720) 大雨方數千里. 사방 수천 리에 큰 비가 내림.

- 721) 廬山瀑布. 중국 여산에 있는 폭포 이름. 여산은 지금의 강서성 남쪽에 위치한 산으로, 중국의 명승지이자 유명한 피서지이다.
- 722) 뿔굴.
- 723) 위쪽으로 뿔굴.
- 724)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뿔굴.
- 725) 두드려. 두드리며.
- 726) 대강 건너서.
- 727) 깊이 스며든다.
- 728) 엮드리지며. ‘엮드리지다’는 실수나 고장으로 엮어지다.
- 729) 天方地軸. 너무 급하여 허둥지둥 분주한 모양.
- 730) 李進士宅. 성이 ‘이’씨인 진사 벼슬을 하는 사람의 집. ‘진사(進士)’는 조선 시대에, 소과(小科)와 진사과(進士科)에 급제한 사람을 일컫던 말.
- 731) 上針질. 박이웃이나 보료·방석 따위의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실밥이 겹으로 드러나게 꿰매는 일.
- 732) 누구와.
- 733) 金同知宅. 김씨 성을 가진 동지 벼슬을 한 집, 혹은 김씨 성을 가진 벼슬을 하지 않은 노인의 집. ‘동지’는 동지중추부사, 또는 벼슬을 하지 않은 노인을 일컫는 말.
- 734) 앵두.
- 735) 놀던.
- 736) 白日. 밝은 해.
- 737) 黑雲. 검은 구름.
- 738) 쟁그리는.
- 739) 澗水. 골짜기에서 흐르는 물.
- 740) 嗚咽. 목이 메어 울.
- 741) 시들려고.
- 742) 春鳥. 봄철의 새.
- 743) 百般啼送. 온갖 것이 모두 울면서 보냄.
- 744) 이별하였기에.
- 745) 환우성(喚友聲). 짝을 그리워하며 우는 소리.
- 746) 夜月空山. 달 뜬 밤의 빈 산.
- 747) 盡情啼送斷腸聲. 마음을 다하여 울며 떠나보내는, 창자를 끊어내는 듯한 슬픈 소리.
- 748) 不如歸. 두견새의 울음소리를 흉내낸 의성어이면서, 두견새의 다른 이름. ‘돌아가지 못한다’는 뜻을 지니고 있음.
- 749) 若道春風不解意 何因吹送落花來라. 만약 봄바람이 나의 뜻을 알지 못한다면, 무엇 때문에 지는 꽃을 날려 보내겠는가. 당나라 때의 시인 왕유(王維)의 시 〈희제반석(戲題盤石)〉의 끝 구절임.
- 750) 宋武帝 垂陽公主 梅花粧은 있건마는. 송나라 무제의 딸 수양공주가 매화로 단장한 일은 있지만, ‘매화장’은 처마 밑에 누운 공주의 얼굴에 매화꽃이 떨어져 마치 매화 꽃잎으로 화장한 것과 같이 그윽한 향기를 풍겼음을 나타낸 말.

- 751) 丹粧. 얼굴, 머리, 옷차림 따위를 곱게 꾸밈.
- 752) 事勢. 일의 돌아가는 형편.
- 753) 不得已. 마지못해 하는 수 없이.
- 754) 誰怨誰咎. 누구를 원망하거나 탓하리오.
- 755) 江頭. 강가의 나루 근처.
- 756) 뱃머리. 배의 앞 끝.
- 757) 足板. 배에 오르기 쉽도록 배와 물을 이어대는 판자.
- 758) 어떤 일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건, 자세 따위를 미리 갖추어 차림. 또는 그 물건이나 자세.
- 759) 泛彼中流. 저 물 가운데 떠서.
- 760) 어떤 물건이 물 위에 떠서 흘러가는 모양.
- 761) 茫茫甸. 아득하게 넓은.
- 762) 滄海. 넓고 큰 바다.
- 763) 蕩蕩甸. 넓고 큰. 물살이 힘찬.
- 764) 白蘋洲. 흰 꽃이 피는 부평초가 가득한 물가 섬.
- 765) 紅蓼岸. 단풍이 들어 붉은 대만 남은 여뀌가 가득한 언덕.
- 766) 三江. 오나라의 송강·전당강·포양강의 세 강.
- 767) 漢水. 양자강의 한 지류.
- 768) 嘹唳한. 소리가 맑아 멀리까지 들리는.
- 769) 漁笛. 어부들이 부는 피리, 혹은 그 소리.
- 770) 그것이건마는.
- 771) 曲終人不見에 數峯만 푸르렀다. 당나라 때 시인 전기(錢起)의 〈상영고슬(湘靈鼓瑟)〉의 한 구절임. 원문은 ‘곡종인불견 강상수봉청(曲終人不見 江上數峯靑. 노래 소리가 끝나자 사람은 보이지 않고, 강물 위에 두어 개 산봉우리만 푸르다)’임.
- 772) 欸乃聲中萬古愁. 배의 노질하는 소리에 만고의 근심이 들어 있음.
- 773) 나로. 나를.
- 774) 長沙. 중국 화남성의 중심지. 가의(賈誼)가 태부의 벼슬자리에 있던 곳.
- 775) 賈太傅. 이름은 의(誼), 태부는 벼슬 이름. 중국 전한(前漢) 사람으로, 굴원의 닮은 위로하는 부(賦)를 남겼음.
- 776) 屈三閭. 중국 전국시대의 초(楚)나라 사람으로, 이름은 평(平), 자(字)는 원(原)이다. 삼려대부의 벼슬자리에 있다가 주위의 참소로 쫓겨나, 〈어부사〉, 〈이소〉를 짓고, 먹라수에 빠져 죽었다.
- 777) 魚腹忠魂. 강물에 빠져 죽어 고기 뱃속에 장사 지낸 굴원의 충성스런 영혼.
- 778) 無恙. 몸에 병이나 탈이 없음.
- 779) 하던가?
- 780) 黃鶴樓. 중국의 호북성 무창현의 서쪽 황학산에 있는 누각.
- 781) 日暮鄉關何處是. 煙波江上使人愁. 날은 저무는데 고향은 어디쯤인가. 강물 위에 피어오르는 물안개는 시름만 더해준다. 당나라 때 시인 최효의 〈황학루(黃鶴樓)〉의 끝 구절.

- 782) 崔灝. 당나라 현종 때의 시인. 하남성 개봉 사람으로, 벼슬은 보잘 것이 없었으나, 노후의 시가 좋았다.
- 783) 遺蹟. 옛 자취.
- 784) 鳳凰臺. 중국 강소성 남경에 있는 이름난 누대.
- 785) 三山半落青天外, 二水中分白鷺洲. 이태백의 <등금릉봉황대(登金陵鳳凰臺)>에 있는 구절. 삼산은 반이나 구름 속에 가려 마치 푸른 하늘 밖으로 떨어진 듯이 우뚝 솟아있고, 두 줄기 강물은 백로주를 끼고 흘러간다. 삼산은 세 봉우리로 된, 남경 서남쪽에 있는 산. 백로주는 양자강 가운데 있는 섬. 이수(李水)는 진수(秦水)와 회수(淮水)를 가리킴.
- 786) 太白. 당나라 때 시인 이백(李白). 태백(太白)은 자(字)이고 호(號)는 청련(靑蓮, 성당(盛唐) 때의 대시인으로 두보와 함께 시종(詩宗)으로 존앙받았다. 신선이 하늘에서 땅으로 귀양와서 사람이 되었다는 뜻으로 '적선(謫仙)'이라고도 일컬어진다.
- 787) 尋陽江. 강서성 구강현 북쪽에 있는 양자강의 한 줄기로, 당나라 때의 시인인 백낙천이 밤에 늙은 기생이 타는 비파 소리를 듣고 <비파행(琵琶行)>이라는 시를 지으며 놀던 곳.
- 788) 白樂天. 당나라 때의 시인.
- 789) 一去後. 한 번 간 후. 한 번 죽은 후.
- 790) 琵琶聲. (기생이 타는) 비파 소리.
- 791) 赤壁江. 호북성 황강현에 있는 강. 소동파가 <적벽부>를 짓고 놀던 곳이며, 삼국시대 조조가 오와 촉의 연합군과 싸운 적벽대전으로 유명한 곳임.
- 792) 아무 일 없이 그냥.
- 793) 놀던.
- 794) 風月. 청풍명월. 자연 경치, 또는 그것을 노래한 시.
- 795) 依舊하여. 옛과 같이.
- 796) 曹孟德. 조조(曹操). 맹덕은 그의 호임.
- 797) 一世之雄. 한 때의 영웅.
- 798) 而今에 安在哉오. 지금은 어디에 있는가.
- 799) 月落烏啼. 달은 지고 까마귀가 울.
- 800) 姑蘇城外. 고소성 밖. '고소성'은 중국 강소성 오현에 있는 소주(蘇州).
- 801) 寒山寺. 중국 강소성 소주부 풍교진(楓橋鎮)에 있는 절. 당나라 때 시인인 장계(張繼)의 <풍교야박(楓橋夜泊)>이란 시로 유명함.
- 802) 종소리.
- 803) 遠近. 멀고 가까움.
- 804) 相應. 서로 호응함. 서로 어울림.
- 805) 客船. 나그네가 탄 배.
- 806) 소상팔경(瀟湘八景) : 중국의 소주와 상강이 합치는 곳에 여덟 가지 아름다운 경치로 '평사낙안(平沙落雁), 원포귀범(遠浦歸帆), 산시청람(山市晴嵐), 강천모설(江天暮雪), 동정추월(洞庭秋月), 소상야우(瀟湘夜雨), 연사모종(煙寺暮鐘), 어촌낙조(漁村落照)'를 꼽는다.
- 807) 玉佩. (여자들이 지니는) 옥으로 만든 패물.
- 808) 琤琤. 옥이 울리는 맑은 소리.

- 809) 竹林. 대나무 숲.
 810) 仙冠. 신선이 쓰는 모자.
 811) 돋우어. '높이'라는 뜻으로 쓰인 듯.
 812) 呻吟거려. '신음을 하면서'라는 뜻인 듯.
 813) 沈小姐. 심씨 성을 지닌 아가씨.
 814) 蒼梧山崩湘水絶이라야 竹上之淚乃可滅이라. 이태백이 쓴 시 <원별리(遠別離)>의 한 구절. 창오산이 무너지고 상수 강물이 끊어져야, 대나무 위에 흘린 눈물이 사라질 것이다. '창오산'은 순임금이 죽은 곳. 순임금이 죽자, 그의 두 왕비인 아황과 여영이 달려가 피눈물을 흘리다가 따라 죽었는데, 그 눈물이 소상강 가의 대나무에 묻어 소상반죽(소상강 가에서 나는 알록달록한 무늬가 있는 대)이 되었다는 전설이 있다.
 815) 千秋. 오래고 긴 세월.
 816) 하소연할.
 817) 賀禮. 축하하는 인사.
 818) 堯, 舜, 禹, 湯, 幾千年고. 요임금, 순임금, 우임금. 탕임금과 같은 여진 임금이 죽은 지 몇 천 년이 지났는가?
 819) 五絃琴. 순임금이 타던 다섯줄로 된 악기.
 820) 南風詩. 순임금이 지었다는 시로, 순임금은 오현금을 타며 이 시를 노래불렀다고 한다.
 821) 狂風. 거세게 부는 바람.
 822) 大作. 크게 일어남.
 823) 魚龍. 물고기와 용. 모든 물고기.
 824) 霹靂. 벼락.
 825) 雲霧. 구름과 안개를 아울러 이르는 말.
 826) 大作하여. 크게 일어나서.
 827) 咫尺. 아주 가까운 거리.
 828) 까치늪누리. 사나운 물살.
 829) '대양(大洋)바다'의 잘못. 크고 넓은 바다.
 830) 櫓. 물을 헤쳐 배를 나아가게 하는 기구. 물속에 들어가는 부분은 납작하고 손잡이 부분은 가늘다.
 831) 배를 한곳에 멈추어 있게 하기 위하여 줄에 매어 물 밑바닥으로 가라앉히는, 갈고리가 달린 기구. 갈고리가 흙바닥에 박히어 배가 움직이지 못하게 된다.
 832) 끊어져.
 833) 돛대에 매어 놓은 줄. 돛을 올리거나 내리는 데 쓴다.
 834) 배의 방향을 조종하는 장치.
 835) 자욱하게 긴.
 836) 저물어져.
 837) 水中孤魂.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의 외로운 넋.
 838) 雜鬼. 잡스러운 모든 귀신.
 839) 雜神. 잡다한 신.
 840) 志氣. 의지와 기개. 뜻과 기백.

- 841) 섞어 돌며.
- 842) 風波江山. 세찬 바람과 험한 물결이 이는 세상.
- 843) 遑遑大急. 마음이 몹시 급하여 허둥댐.
- 844) 告祠. 액운은 없어지고 풍요와 행운이 오도록 집안에서 섬기는 신에게 음식을 차려 놓고 비는 제사.
- 845) 한 섬이나 되는 쌀.
- 846) 마구 늘어놓아 흩어지게 하고.
- 847) 동이술. 동이에 담은 술.
- 848) 三色實果. 세 가지 색깔이 다른 과일.
- 849) 五色湯需. 제사에 쓰는 다섯 가지 색깔이 서로 다른 탕국.
- 850) 돼지.
- 851) 淨한. 깨끗한.
- 852) 바치려고.
- 853) 領座. 마을이나 단체의 우두머리.
- 854) 軒轅氏. 고대 중국의 전설상의 임금으로, 창과 방패를 쓰는 법을 가르치고, 배와 수레를 처음으로 만들었다고 함.
- 855) 만들어.
- 856) 以濟不通. 통하지 못하던 곳을 건너다니게 함.
- 857) 後生. 뒤에 태어난 사람.
- 858) 爲業. 직업으로 삼음.
- 859) 夏后氏. 중국의 첫 번째 왕조인 하(夏)나라를 세운 우(禹)임금. ‘후’는 우임금이 순(舜)임금의 양위로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아름답게 이르는 칭호.
- 860) 九年治水. 중국의 요임금과 순임금 때에 일어났던 9년 동안의 큰 홍수를 다스린 일. 우는 이 때의 공로로 왕위를 물려받아 하나라를 세웠음.
- 861) 五服으로 定한 貢收. 오복에 (따라) 정한 공수. 오복에 따라 정한 세금의 징수. ‘오복’은 서울을 가운데 두고 주위를 순차적으로 나눈 다섯 구역. 상고시대에는 전복(甸服)·후복(侯服)·수복(綏服)·요복(要服)·황복(荒服)으로 나누었는데, 한 복은 각각 500리 임. ‘공’은 하나라 때의 세법(稅法)을 가리키므로, 공수는 세법에 따라 백성들로부터 거두어들인 물품을 뜻함.
- 862) 九州. 고대 중국에서 온 나라를 통치하려고 나누었던 아홉 지방. 곧 온 천하.
- 863) 垓城의. 해성에서. ‘해성’은 항우가 유방에게 패하고 우미인과 헤어진 해하성(垓下城).
- 864) 烏江. 중국 안휘성에 있는 지명. 화현(和縣)의 북동에 자리잡고 있으며, 양자강 연안에 있음. 항우가 자결한 곳임.
- 865) 壬戌之秋七月에 縱一葦之所如하여. 임술년 음력 칠월에 작은 배가 가는 대로 몸을 맡기고. 송나라 때의 문장가인 소식(蘇軾)이 지은 〈적벽부(赤壁賦)〉의 첫머리. ‘임술’은 그것을 지은 서기 1082년을 가리키고 ‘종일위’는 ‘갈대 한 묶음’, 곧 ‘작은 배’를 뜻함.
- 866) 배가 떠날 때 배에서 나는 소리의 의성어. 노를 젓고 닻을 감는 소리.
- 867) ‘어기영차’와 같은 의성어.
- 868) 經歲又經年. 해가 지나고 또 지나도록. 곧 여러 해가 지남.

- 869) 商賈船. 장사하는 배.
 870) 商賈. 장사.
 871) 爲業하여. 직업을 삼아.
 872) 經東經西. 동서로 지나다님.
 873) 人祭需. 제물로 바치는 사람.
 874) 江漢之將. 큰 강물을 지키는 장수. 여기서는 강물에 사는 큰 물고기를 의인화한 표현.
 875) 川澤之君. 냇물과 연못을 다스리는 임금. 여기서는 냇물과 연못에 사는 큰 물고기를 의인화한 표현임.
 876) 一時로. 한 번에.
 877) 歆饗. 신명이 제물을 받아서 먹음.
 878) 飛廉. 중국에서 바람의 신으로 받드는 신.
 879) 直手文籍하야. 용왕이 손수 글로 증서를 적어서.
 880) 무쇠로 만든 배. ‘무쇠’는 1.7% 이상의 탄소를 함유하는 철의 합금(合金). 단단하기는 하나 부러지기 쉽고 강철에 비하여 쉽게 녹이 쓴다. 주조(鑄造)하기가 쉬워 공업 재료로 널리 쓴다.
 881) 大海. 큰 바다.
 882) 行船. 배가 다님.
 883) 點指. 신이나 부처님이 사람에게 자식이나 원하는 물건이 생기게 하여줌.
 884) 바닷물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때.
 885) 星火같이. 운성이 떨어지듯 매우 급히.
 886) 一身手足. 자신의 손과 발.
 887) 黑雲. 검은 구름.
 888) 하얀.
 889) 淡淡한. 맑고 깨끗한.
 890) 合掌. 두 손을 모음.
 891) 나무로 만든 배의 안쪽 바닥.
 892) 天地萬物. 온 세상의 모든 사물.
 893) 나와 같은.
 894) 不孝女息. 불효한 딸자식.
 895) 子子單身. 의지할 곳이 없는 외로운 홀몸.
 896) 가슴.
 897) 두드리며.
 898) 腹痛斷腸. 배에 사무치도록 원통함.
 899) 億十萬金. 많은 돈. 많은 재물.
 900) 이익.
 901) 哀痛. 슬퍼하고 가슴아파함.
 902) 세상을 버렸으면. 죽었으면.
 903) 存亡. 생존과 사망.
 904) 지나가거든.

- 905) 그것일랑은. 그것은.
 906) 遠海萬里. 만 리나 떨어진 먼 바다.
 907) 낯덩이. 뉘누리덩이. 뉘누리가 물살의 옛말이니, 큰 물결이란 뜻.
 908) 한 번 움직이는 모양.
 909) 물건이나 몸을 이리저리 자꾸 뒤집는 모양.
 910) 배의 양쪽 가장자리 부분.
 911) 舉動. 몸을 움직임. 또는 그런 짓이나 태도.
 912) 進退하기는. 나아갔다 물러났다 라는 것은.
 913) 明天. 모든 것을 다 아는 하느님.
 914) 感動하사. 감동하시어.
 915) 기러기 落水格으로. 기러기가 물에 떨어지는 풍수로. 기러기가 물에 떨어지는 것처럼.
 916) 香火. 향불. 제사를 올릴 때 피우는 향불.
 917) 風浪. 바람에 의해서 일어나는 물결.
 918) 明月. 밝은 달.
 919) 海門. 두 육지 사이의 바다나 그 사이에 보이는 수평선.
 920) 渺滄海之一粟. 푸른 바다 속의 곡식 한 알과 같이 작음. 소동파의 <적벽부(赤壁賦)>의 한 구절.
 921) 祭文. 죽은 사람을 조상하는 글. 제사를 지낼 때 신령에게 고하는 글.
 922) 晴天. 맑은 하늘.
 923) 北天. 북쪽 하늘.
 924) 蒼波萬頃. 푸르고 너른 바다.
 925) 넓은.
 926) 雙雙白鷗. 짝을 지어 나는 갈매기.
 927) 흘러가며 둥둥 떠 있구나.
 928) 雨後清江. 비 온 후의 맑은 강물.
 929) 飛去飛來. 날아갔다 날아왔다함.
 930) 面面히. 얼굴들마다.
 931) 後嗣. 대를 이을 자식.
 932) 玉皇上帝. 도가(道家)에서 하느님을 이르는 말.
 933) 四海龍王. 동서남북의 네 바다를 맡고 있다는 용왕. 동해신은 아명. 서해신은 거승, 남해신은 축융, 북해신은 우강.
 934) 下教. 임금의 내리는 명령.
 935) 卯日. 12간지로 묘(卯)에 해당하는 날.
 936) 卯時. 아침 5~7시 사이.
 937) 出天大孝. 하늘이 낸 큰 효자.
 938) 嚴命. 엄한 명령.
 939) 至嚴하거늘. 매우 엄하거늘.
 940) 時. 시각. 때.
 941) 忽然히. 뜻하지 않게. 갑자기.

- 942) 白玉. 흰 옥.
- 943) 轎子. 종2품 이상의 벼슬아치가 타던, 앞뒤로 2명씩 네 명이 메는 가마.
- 944) 威儀. 위엄 있는 거동.
- 945) 壯할시고. 대단하고 훌륭하구나.
- 946) 天上. 하늘나라의.
- 947) 仙官. 신선.
- 948) 沈小姐. 심씨 성을 지닌 아가씨.
- 949) 太乙眞. 태을진군(太乙眞君). 하늘의 신 가운데 가장 높은 신.
- 950) 安期生. 중국 진(秦)나라 사람으로, 바닷가에서 약을 팔다가 신선인 하상장인(河上丈人)에게 도를 배워 신선이 되었다는 사람.
- 951) 輦. 임금의 거동할 때 타고 다니던 가마. 옥개(屋蓋)에 붉은 칠을 하고 황금으로 장식하였으며, 등근기둥 네 개로 작은 집을 지어 올려놓고 사방에 붉은 난간을 달았다.
- 952) 赤宋子. 중국 신농씨(神農氏) 때의 신선. 비와 바람을 타고 곤륜산에 와서 놀았다고 함.
- 953) 葛仙翁. 중국 삼국시대 오(吳)나라 사람으로, 도를 배워 신선이 되었다고 함.
- 954) 李謫仙. '이씨 성을 가진 귀양 온 신선'이란 뜻으로, 당나라 때 시인 이백을 가리킴.
- 955) 青衣童子. 푸른 옷을 입은, 신선의 시중을 든다는 아이.
- 956) 紅衣童子. 붉은 옷을 입은, 신선의 시중을 든다는 아이.
- 957) 月宮姬娥. '항아'는 달에 산다고 전해 오는 선녀. '월궁'은 항아가 살고 있다는 궁전.
- 958) 麻姑仙女. 중국의 전설상의 선녀. 한나라 환제 때에 모주의 동남쪽에 있는 고여산에서 수도를 하여 선녀가 되었는데, 바다가 세 번이나 뿔나뭇발로 변하도록 오래 살았으나 늘 젊어 보였다고 한다.
- 959) 南岳夫人. 중국의 5대 명산의 하나인 남악에 있다는 선녀인 위부인(魏夫人).
- 960) 八仙女들. 여덟 선녀들.
- 961) 風樂. 우리나라 고유의 옛 음악.
- 962) 王子 晉. 중국 주(周)나라 영왕(靈王)의 태자로 피리를 잘 불었다고 함.
- 963) 鳳피리. 왕자 진은 피리를 잘 불었는데, 특히 봉황의 소리를 잘 내었기 때문에 그 피리에 붙인 이름인 듯하다.
- 964) 郭處士. 당나라 무종(武宗) 때의 곽도원(郭道原)을 가리키는데, 격구라는 악기를 치는 솜씨가 뛰어났다고 함.
- 965) 질장구. 당나라 때의 악기인 격구의 소리가 우리 나라 질장구와 비슷했다고 하는데, 이 때문에 죽장구라고 한 듯하다. '죽장구'는 '질장구'가 변하여 된 말. 질장구는 흙을 구워서 큰 놋그릇 비슷하게 만든 악기. 질화로 모양의 그릇을 대 위에 올려놓고 채로 쳐서 소리를 낸다.
- 966) 張子房. 이름은 양(良)이며, 자방은 그의 자(字). 유방을 도와 한나라를 건국하는 데 큰 공을 세웠음. 특히 해하의 싸움에서 옥통소를 구슬뜨게 불어 항우의 군사로 하여금 전의를 잃고 흩어지게 하여 크게 이긴 것으로 유명함.
- 967) 玉洞簫. 옥으로 만든 통소.
- 968) 成連子. 중국 춘추시대 사람으로 거문고를 잘 탔다고 함.
- 969) 狼藉. 어지럽게 여기저기 흩어져 있음.

- 970) 掛龍骨以爲櫟하니 靈光이 照日이요, 緝魚鱗以作瓦하니 瑞氣 蟠空이라. 용의 뼈를 걸어 들보를 삼으니 신령한 빛이 햇살에 더욱 빛나고, 고기들의 비늘로 기와를 만들어 덮으니 상서로운 기운이 하늘을 가렸도다. 《전등신화》의 〈수궁경회록〉에 나오는 말.
- 971) 珠宮貝闕은 應天上之三光이요, 袞衣繡裳은 備人間之五福이라. 진주와 보배로운 조개로 만든 궁궐은 하늘의 세 가지 빛 (해·달·별)에 조응하고 곤의(고대 천자가 입던 옷)와 수상(고대 천자가 입던 수놓은 하의)은 인간의 다섯 가지 복을 갖추었도다. 《전등신화》의 〈수궁경회록〉에 나오는 말.
- 972) 珊瑚珠簾. 산호 구슬로 만든 발.
- 973) 案床. 책상.
- 974) 光彩. 찬란한 빛깔.
- 975) 酒案. 술상.
- 976) 琉璃盞. 유리로 만든 술잔.
- 977) 琥珀瓶. 호박 구슬로 만든 술병.
- 978) 千日酒. 담근 지 천 일이나 된 좋은 술.
- 979) 三千碧桃. 삼천 년에 한 개씩 연다는 신선 세계의 푸른 복숭아.
- 980) 높이 우뚝 솟아서 당당하게.
- 981) ‘과다’는 ‘과일이나 음식을 높이 쌓아올리다’라는 뜻.
- 982) 小宴. 작은 잔치
- 983) 大宴하며. 큰 잔치를 벌이며.
- 984) 奉供. 받들어 공양함.
- 985) 玉眞夫人. 달 속에 산다는 선녀.
- 986) 下降. 신선이 속계로 내려오거나 옷어른이 아랫자리로 내려옴.
- 987) 廣寒殿. 달 속의 선녀인 항아(姮娥)가 산다는 전각.
- 988) 相逢次. 서로 만나려고.
- 989) 五色綵緞. 여러 가지 색깔의 비단.
- 990) 碧桃花. 신선세계에 있다는 푸른 복숭아의 꽃.
- 991) 丹桂花. 달 속에 있다는 붉은 계수나무의 꽃.
- 992) 前陪. 벼슬아치의 행차 떠나, 상관을 뵈러 갈 때 앞을 인도하던, 관가에서 부리던 하인.
- 993) 惶怯. 마음이 몹시 급하여 겁먹은 듯이 허둥댄.
- 994) 拜禮. 절을 함.
- 995) 廣寒殿. 달 속에 있다는 궁전.
- 996) 아주 비슷하구나.
- 997) 日後. 뒷날.
- 998) 萬鐘祿. 매우 많은 봉록(俸祿). ‘봉록’은 나라에서 벼슬아치에게 주던 봉급. ‘종’은 용량의 단위로 64말(斗).
- 999) 職分. 맡은 바 일의 본분.
- 1000) 許多. 몹시 많음.
- 1001) 玉佩. (여자들이 지니는) 옥으로 만든 패물.
- 1002) 琤琤. 옥이나 좋은 금속이 울리는 맑은 소리.

- 1003) 彩雲. 여러 가지 고운 빛깔의 구름.
 1004) 우두커니.
 1005) 下命. 명령을 내림.
 1006) 芳年. 꽃다운 젊은 나이. 여기서는 '혼인할 나이'로 쓰였음.
 1007) 還送시켜. 돌려보내.
 1008) 受命. 명령을 받음.
 1009) 兩個. 두 개. 두 사람.
 1010) 侍女. 몸 가까이에서 시종드는 여자.
 1011) 侍衛. 곁에서 모시어 호위함.
 1012) 造化. 남이 모르게 이리저리 꾸며 만들어 놓은 일.
 1013) 神接. 신령이 몸에 들어와 신통력을 가지다.
 1014) 搖動. (물체가) 흔들려 움직임.
 1015) 五色彩雲. 여러 빛깔로 아롱진 고운 구름.
 1016) 꽃봉오리.
 1017) 빛이나 그림자, 모습 따위가 희미하게 비치어서.
 1018) 億十萬金. 아주 많은 돈.
 1019) 이익.
 1020) 오장원(五丈原). 중국 섬서성에 있는 옛 전쟁터. 제갈공명이 병사한 곳임.
 1021) 落傷. 떨어지거나 넘어져 다침.
 1022) 孔明. 제갈량(諸葛亮). 중국 삼국 시대 촉한의 정치가(181~234). 자가 공명. 시호는 충무(忠武). 뛰어난 군사 전략가로, 유비를 도와 오(吳)나라와 연합하여 조조(曹操)의 위(魏)나라 군사를 대파하고 파촉(巴蜀)을 얻어 촉한을 세웠다. 유비가 죽은 후에 무향후(武鄉侯)로서 남방의 만족(蠻族)을 정벌하고, 위나라 사마의와 대전 중에 병사하였다.
 1023) 三年 武關의 楚懷王. 옛 중국의 전국시대 초나라의 회왕이 진(秦)나라의 소왕(昭王)에게 속아, 무관에서 만나자는 말을 믿고 무관에 갔다가 잡혀서, 3년이나 갇혀 있다가 죽은 일을 말함.
 1024) 오셨거든.
 1025) 歆饗. 귀신이 제물을 받아서 먹음.
 1026) 祭物. 제사에 쓰는 음식물.
 1027) 海上. 바다 위.
 1028) 나무로 만든 배의 안쪽 바닥.
 1029) 香臭. 향기로운 냄새.
 1030) 數多이. 많이.
 1031) 財物. 돈이나 그밖의 값나가는 모든 물건.
 1032) 都沙工. 뱃사공의 우두머리.
 1033) 淨한 깨끗한.
 1034) 崩. 붕어(崩御). 임금이 세상을 떠남.
 1035) 納妃. 왕비를 맞아들임.

- 1036) 琪花瑤草. 신선 세계에 있다는 아름다운 꽃과 풀.
- 1037) 皇極殿. 황제가 정사를 보기 위하여 나아가 앉던 전각.
- 1038) 朝夕으로. 아침저녁으로. 늘.
- 1039) 消日. 어떤 일에 마음을 붙여 심심하지 않게 시간을 보냄.
- 1040) 八月芙蓉君子容. 팔월에 피는 연꽃의 군자와 같은 모습.
- 1041) 萬塘秋水의 紅蓮花. 가을 연못에 가득히 핀 붉은 연꽃.
- 1042) 暗香浮動月黃昏. 그윽한 매화 향기가 희미한 달빛 속에 떠돈다. 송나라 때 시인 임포의 시 〈산원소매(山園小梅)〉의 한 구절.
- 1043) 전(傳)하던.
- 1044) 寒梅花. 추운 가운데 피는 매화.
- 1045) 盡是劉郎去後栽. 이 모두가 유랑이 간 뒤에 심어놓은 것들이다. 당나라 때 시인 유우석(劉禹錫)이 모함을 받아 10년을 지낸 뒤에 돌아와, 복숭아꽃이 붉은 것을 보고 지은 시. 〈자랑주지경화중간화제군자(自郎州至京戲贈看花諸君子)〉의 한 구절. 유랑은 유우석을 가리킴.
- 1046) 복숭아꽃.
- 1047) 九月九日龍山吟 笑逐臣 국화꽃. 음력 구월 구일에 용산에 올라가 시를 읊으니, 쫓겨난 신하를 비웃던 국화꽃. 이백의 시 〈구월용산음(九月龍山吟)〉의 ‘九月龍山吟 黃花笑逐臣’에서 딴 구절.
- 1048) 講論. 학술이나 도의의 뜻을 해설하며 토론함.
- 1049) 杏壇春風. 행단의 봄바람. ‘행단’은 산동성 곡부현 공자묘 앞에 있는, 옛날 공자가 학문을 강의하던 터인데, 복숭 때에는 여기에 단을 쌓고 주위에 살구나무를 심었으며, 금나라 때에는 행단비(杏壇碑)를 세웠다.
- 1050) 梨花滿地不開門. 지는 배꽃 뜰에 가득 쌓여도 문을 열지 않는다. 당나라 때 시인 유방평(劉方平)의 시 〈춘원(春怨)〉의 마지막 구절.
- 1051) 長信宮中. 장신궁 속. ‘장신궁’은 한나라 성제(成帝)의 궁녀인 반녀(班女)가 조비연(趙飛燕) 자매에게 미움을 받아 쫓겨 가 있던 태후의 궁. 반녀는 쫓겨 가 있던 동안에 〈원가행(怨歌行)〉을 썼음.
- 1052) 天台山. 중국 절강성 천태현에 있는 산.
- 1053) 兩邊開芍藥. 길 양쪽에 작약이 피어 있음.
- 1054) 怨征夫之離別. 전쟁터에 나간 낭군과의 이별을 원망함.
- 1055) 玉窓五見의 櫻桃花. (전쟁터에 나간 낭군과의 이별을 원망하면서) 아름다운 창가에 앵도화를 다섯 번 본다. 곧 이별한 지가 5년이 되었다.
- 1056) 蜀國恨. 촉나라 망제(望帝)의 한. 망제는 주나라 말기 촉의 제후로, 스스로 황제라 일컫은 두우(杜宇)를 가리키는데, 임금 자리를 빼앗기고 원통하게 죽어, 그 넋이 두견새가 되었다는 전설이 있다.
- 1057) 啼血. 피를 토하며 울.
- 1058) 杜鵑花. 진달래꽃의 다른 이름.
- 1059) 李花. 오얏꽃. 자두꽃.
- 1060) 蘆花. 갈대꽃.

- 1061) 鷄冠花. 맨드라미.
- 1062) 紅菊. 붉은 색 국화.
- 1063) 白菊. 흰 색 국화.
- 1064) 桂花. 계수나무의 꽃.
- 1065) 東園桃李片時春. 봄동산의 복사꽃 오얏꽃이 잠시 동안의 봄을 누림. 당나라 때 시인 왕발(王勃)의 시 〈임고대(臨高臺)〉의 한 구절.
- 1066) 牧童遙指가 杏花村. 목동이 손을 들어 살구꽃을 가리킴. 당나라 때 시인 두목(杜牧)의 시 〈청명(清明)〉의 ‘차문주가하처재(借問酒家何處在)오 목동요지행화촌(牧童遙指杏花村)’ ‘주막이 어디에 있는지 물으니, 목동이 손을 들어 살구꽃 핀 마을을 가리키네’에서 따온 구절.
- 1067) 月中丹桂無三更. (달은 언제나 밝아서) 달에 있는 계수나무에는 삼경(밤11시에서 1시 사이의 시간. 곧 한밤중)이 없다.
- 1068) 진달래.
- 1069) 芭蕉. 중국 원산의 잎이 크고 넓은 화초로 여러 품종이 있는데, 따뜻한 지방에서 관상용으로 가꿈.
- 1070) 梔子. 꼭두서니과에 딸린 늘푸른 떨기나무. 높이는 2~3m정도이며, 7월에 크고 흰 꽃이 핀.
- 1071) 柑果. 장과(漿果)의 하나. 속 열매껍질의 일부가 주머니처럼 생기고 속에 액즙이 들어 있는 과일을 이른다. 귤, 감자, 유자 따위가 있다.
- 1072) 枇杷. 비파나무. 장미과에 딸린 늘푸른 큰키나무. 높이 10m 가량. 늦가을에 향기롭고 누르스름한 꽃이 가지 끝에 피고, 열매는 이듬해 여름에 서양 배, 또는 악기 비파 모양으로 노랗게 익음.
- 1073) 가을에 열리는 열매인데, 먹을 수 있으며, 잘 익으면 하얀 열매가 딱 벌어진다.
- 1074) 香果. 향기로운 과일.
- 1075) 香風. 향기로운 바람.
- 1076) 슬쩍.
- 1077) 지저귀어 울며.
- 1078) 琪花瑤草. 신선 세계에 있다는 아름다운 꽃과 풀.
- 1079) 進上. (지방의 토산물을) 임금이나 윗사람에게 바침.
- 1080) 無雙. 서로 견줄만한 짝이 없음.
- 1081)大喜하사. 크게 기뻐하시어.
- 1082) 瑤池 碧桃花. 중국 곤륜산에 있다는 선녀인 서왕모(西王母)가 사는 연못가에 있다는 푸른 복숭아의 꽃. 삼천 년에 한 번씩 꽃이 피어 열매를 맺는다고 함.
- 1083) 東方朔. 한나라 무제(武帝) 때의 사람. 자(字)는 만청(曼淸). 벼슬이 금마문시중에 이르고, 해학과 변설로 이름이 났음. 속설(俗說)에, 서왕모의 복숭아를 훔쳐 먹고 장수하였다고 함.
- 1084) 降仙花. ‘신선이 타고 내려온 꽃’이라는 의미.
- 1085) 朝夕. 아침저녁으로. 자주.
- 1086) 一夜는. 하룻밤에는.

- 1087) 고이히. 괴이(怪異)하게. 이상아룻하게.
- 1088) 사람인가?
- 1089) 不意에. 뜻하지 않게.
- 1090) 天眼. 임금을 높이어 그 눈을 가리키는 말.
- 1091)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경계나 지역 따위를 넘어 들어갔사오니. 잘못을 저질렀사오니.
- 1092) 惶恐無地. (몸가짐이나 몸 둘 바를 모르게) 매우 무섭고 두려움.
- 1093) 떨어지자마자.
- 1094) 因忽不見. 언뜻 보이다가 바로 없어져 보이지 아니함.
- 1095) 探問. 더듬어 찾아 물음.
- 1096) 別宮. 임금이나 왕세자의 혼인 때 왕비나 세자빈을 맞아들이던 궁전.
- 1097) 滿朝百官. 조정의 모든 관리.
- 1098) 朝會席上. 조회를 하는 자리. '조회'는 벼슬아치들이 아침 일찍이 모여 임금에게 문안을 드리고, 정사를 아뢰던 일.
- 1099) 諸臣等. 여러 신하들.
- 1100) 國母. 나라의 어머니, 곧 왕후.
- 1101) 日官. 조선 시대에, 관상감에 속하여 길일(吉日)을 가리는 일을 맡아보던 벼슬.
- 1102) 擇日. 날을 잡음.
- 1103) 꽃봉오리.
- 1104) 封하시니. 임금이 작위(爵位)나 작품(爵品)을 내려 주시니.
- 1105) 滿朝諸臣. 조정의 여러 신하.
- 1106) 山呼萬歲. 나라에 큰 의식이 있을 때 임금을 축수하려고 신하들이 두 손을 치켜들고 외치던 '만세'나 '천세' 따위의 말. 한나라 무제(武帝)가 화산(華山)에서 산제(山祭)를 베풀 때 백성들이 만세를 불렀던 데서 비롯된 말로, 옛날에는 하늘에 가까운 산에서 주로 제사를 지냈으므로, '산꼭대기의 만세 함성'이라는 뜻으로 붙은 이름.
- 1107) 億兆蒼生. 수많은 백성들.
- 1108) 萬民. 모든 백성.
- 1109) 擊壤歌. 풍년이 들어서 농부가 태평한 세월을 즐기는 노래를 일컫는 말. 중국 당요(唐堯) 때 늙은 농부가 태평한 세월을 즐겨워하여 땅을 치면서 부른 노래라고 함. 그 내용은 '일출이작(日出而作) 일입이식(日入而息) 착정이음(鑿井而飲) 경전이식(耕田而食) 제력우아하유재(帝力于我何有哉)'로 '해 뜨면 일하고, 해가 지면 쉰다네. 샘을 파서 물을 마시고, 밭을 갈아먹으니, 임금의 힘이 나에게 무슨 소용 있으리'임.
- 1110) 聖德. 임금님의 덕을 높여 이르는 말. 여기서는 황후의 어진 덕을 찬양하기 위해 한 말.
- 1111) 當年. 그 해.
- 1112) 堯舜天地. 중국의 전설적인 황제인 요임금과 순임금 시절과 같은 풍요롭고 태평한 세상.
- 1113) 仙降之界. 신선이 내려오는 태평한 세계.
- 1114) 一夜. 어느날 밤.
- 1115) 玉欄杆. 옥으로 만든 난간.

- 1116) 비스듬히 기대어 있을.
- 1117) 秋月은 滿庭히여. 가을 달빛은 정원에 가득하여.
- 1118) 珊瑚珠簾. 산호 구슬로 만든 발.
- 1119) 晴天. 맑은 하늘.
- 1120) 月下. 달 아래.
- 1121) 蘇中郎. 소중랑장(蘇中郎將). '소중랑장'은 한나라 때의 소무(蘇武)로 벼슬이 중랑장에 이르렀음. 소무가 흉노에게 사신을 갔다가, 사람이 살지 않는 북쪽 바닷가로 귀양을 갔는데, 사연을 적은 비단을 기러기 발에 매어 날려 보내, 제 처지를 알려서 19년 만에 돌아온 일을 가리킴.
- 1122) 北海上. 북해의.
- 1123) 傳聞. 전하던.
- 1124) 蘇中郎 北海上의 便紙 傳聞 기러기나. 소중랑은 한 무제(漢武帝) 때의 충신으로, 이름은 무(武), 자(字)는 자경(子卿). 벼슬이 중랑장에 이르렀으므로 소중랑이라고 함. 소무는 흉노에게 사신으로 갔다가 붙잡혀 있었는데, 기러기 발에다 편지를 묶어 날려보내, 자신이 있는 곳을 알려 19년 만에 돌아왔음.
- 1125) 父親前에. 부친께. 아버지께.
- 1126) 水墨. 빛이 옅은 먹물. 여기서는 글씨에 물이 번져 뭉개진 것을 이룸.
- 1127) 誤錯. 잘못되어 뒤섞임.
- 1128) 滄茫. 너르고 멀어 아득함.
- 1129) 內宮. '왕비가 거처하는 궁'이란 의미로 쓴 듯함.
- 1130) 貴는. 귀하게 되기는. 귀함으로 말하면.
- 1131) 富는. 부유하기는.
- 1132) 天下. 온 세상.
- 1133) 무슨.
- 1134) 承旨. 승정원에 속하여 왕명의 출납을 맡아보던 정삼품의 당상관.
- 1135) 孤寂한. 외롭고 쓸쓸한.
- 1136) 行關. 동등한 관청 사이에 공문을 보내던 일.
- 1137) 皇城. 황제가 있는 서울.
- 1138) 排設. 벌여 베풀어 놓음.
- 1139) 路費. 먼 길을 떠나 오고갈 때 드는 비용.
- 1140) 皇城. 황제가 있는 나라의 서울.
- 1141) 얘기 봉사에 이르기까지. '지어(至於)'는 ~에 이르기까지.
- 1142) 參禮. 예식, 제사, 전쟁 따위에 참여함.
- 1143) 僅僅扶持. 겨우 견디어 나감.
- 1144) 江頭. 강가의 나루 근처.
- 1145) 望思臺. 한나라 무제(武帝)가 간신의 모략으로 달아나 목매어 죽은 태자의 무죄함을 뒤에 알게 되자, 사자궁을 짓고, 그 안에다 태자의 닢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은 누각. 애매하게 죽은 사람의 닢을 달래거나,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짓는 누각에 곧잘 붙이는 이름.

- 1146) 春秋로. 봄, 가을로.
- 1147) 墮淚碑. 눈물을 흘린 비. 사마염(司馬炎)이 서진(西晉)을 세우고 무제(武帝)가 되었을 때, 명장인 양호(羊祜)가 죽은 것을 애석하게 생각하여 양양현 현산에 비를 세웠는데, 그 비문을 보는 사람마다 울어서 붙은 이름.
- 1148) 碑文. 비석에 새긴 글.
- 1149) 至憂老親平生恨하여 殺身成孝行船去라. 煙波萬里常深碧허니 芳草年年還不歸라. 늙으신 아버지의 평생의 한을 지극히 근심하여, 자신을 죽여 효를 이루고자 배를 타고 떠났네. 멀고 먼 안개 낀 물 늘 깊고 푸른데, 꽃다운 풀은 해마다 다시 피어나지만, (심청은) 돌아오지 못하는구나.
- 1150) 나면.
- 1151) 울더니라.
- 1152) 一日도. 어느 하루도.
- 1153) 아무렇게나 함부로 짓고.
- 1154) 水中孤魂. 물 속의 외로운 혼령.
- 1155) 나는.
- 1156) 아래로 내려가면서 텅텅.
- 1157) 위로 올라가며 텅텅.
- 1158) 가습.
- 1159) 南之西之. 여기 저기.
- 1160) 여자인즉슨. 여자는 곧.
- 1161) 號. 별호(別號). 달리 부르는 이름.
- 1162) 錢穀間. 돈이든지 곡식이든지 무엇이냐.
- 1163) 自願出家. 자기가 원하여 시집을 감.
- 1164) 음식을 먹는 분량. 음식을 먹는 일.
- 1165) 감추어진 일의 내용.
- 1166) 家山. 집안의 재산.
- 1167) '입버릇'을 낮추어 숙되게 일컫는 말. '입버릇'은 음식을 먹는 버릇.
- 1168) 돈을 산다는 말은 물건을 주고 돈으로 바꾼다는 말.
- 1169) 淸酒. 다 익은 술에 용수(싸리나 대오리로 만든 둥글고 긴 통. 술이나 장을 거르는 데 쓴다.)를 박고 떠낸 맑은 술.
- 1170) 濁酒. 막걸리. 맑은술을 떠내지 아니하고 그대로 걸러 짠 술로 빛깔이 흐리고 맛이 텁텁하다.
- 1171) 四時長蜷. 사철의 어느 철이나 늘.
- 1172) 밥을 시켜 먹는 일.
- 1173) 內外. 남녀간에 서로 예의를 차리느라고 얼굴을 마주하지 않고 서로 피함.
- 1174) 請기. 청하기.
- 1175) 朝夕으로. 아침저녁으로.
- 1176) 사기.
- 1177) 上下村. 위아래 마을.

- 1178) 싸움.
- 1179) 半偏이. 지능이 보통 사람보다 아주 낮은 사람.
- 1180) 체신없이 까불며 경망스럽게 행동하는 사람을 조롱하여 일컫는 말.
- 1181) 뽕과리. 뽕과리는 매우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악기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먹을 것을 요란하게 밝히는 사람'이란 뜻으로 썼음.
- 1182) 가볍게 슬쩍 한번 흘겨보는 모양.
- 1183) 가볍게 살짝 한 번 할겨 보는(눈동자를 옆으로 굴러 조금 못마땅하게 노려보는) 모양.
- 1184) 빼죽. 비웃거나 언짢거나 울려고 할 때 소리 없이 입을 내미는 모양.
- 1185) 빼죽. 비웃거나 언짢거나 울려고 할 때 소리 없이 입을 내미는 모양.
- 1186) 毀談. 헐뜯는 말.
- 1187) 이러하여도. 이래도.
- 1188) 둥글게 빙 돌려서 베어내도.
- 1189) 錢穀. 돈과 곡식.
- 1190) 생각으로.
- 1191) 돈櫃. 돈을 넣어두는 께. '궤'는 나무로 상자처럼 만든 그릇.
- 1192) 葉錢. 예전에 사용하던, 낱쇠로 만든 돈. 둥글고 납작하며 가운데에 네모진 구멍이 있다.
- 1193) 예전에, 엽전을 세던 단위. 한 푼은 돈 한 냥으로, 돈의 10분의 1이다.
- 1194) 外丁. 남자.
- 1195) 피운.
- 1196) 이제.
- 1197) 생각해도.
- 1198) 월경을 말함.
- 1199) 싹. 조금도 남기지 않고 전부.
- 1200) 멈추더니.
- 1201) 초처럼 신 국.
- 1202) '젓내기술'의 잘못된 듯. '젓내기술'은 막걸리. 막걸리는 신 맛이 있음.
- 1203) 胎氣. 아이를 뱃 기미.
- 1204) 불그스름. 약간 붉은 기운이 도는 색깔.
- 1205) 官家. 지방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던 관청.
- 1206) 皇城. 황제가 있는 서울.
- 1207) 路資. 먼 길을 오고가는 데 드는 비용.
- 1208) 厚히. 넉넉하게.
- 1209) 찾아다니지.
- 1210) '열녀(烈女)'보다 더하므로 '백녀'라고 했는데, '백녀'는 '백여우'를 연상시켜, '간사하고 요망한 계집'이라는 의미까지 함축함.
- 1211) 趙子龍. 조운(趙雲). 중국 삼국시대 유비 막하의 용장. 상산(常山) 사람으로, 자는 자룡(子龍). 본디 원소의 부하로 있다가 공손찬에게 갔으며, 이 때 유비를 만나 그를 몹시 흠모하였다. 후에 이들과 함께 하면서 여러 곳에서 크게 공을 세웠다.

- 1212) 越江. 강을 건너 땀.
 1213) 青驄馬. 갈기와 꼬리가 파르스름한 흰 말.
 1214) 길을 가면서 부르는 노래.
 1215) 받아주소. 앞소리를 하면 뒤에 받아 소리를 하여 주소.
 1216) 日暮. 날이 저물.
 1217) 酒幕. 시골 길가에서 밥과 술을 팔고, 돈을 받고 나그네를 묵게 하는 집.
 1218) 서로 마음이 통하여.
 1219) 三伏盛炎. 삼복의 불꽃같은 더위.
 1220) 아침에 가는 길.
 1221) 가야할.
 1222) 밤길 간다고.
 1223) 內外. 부부.
 1224) 當初에. 처음에.
 1225) 他鄉. 자신의 고향이 아닌 다른 고장.
 1226) 어라. “그만두라”는 뜻으로 하는 감탄사.
 1227) 賢哲. 어질고 사리에 밝음.
 1228) 出天大孝. 하늘이 낸 큰 효자.
 1229)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의 목숨.
 1230) 단단하고 부스러지기 쉬운 물건이 부스러지면서 내는 소리.
 1231) 人事不省. 신상에 벌어지는 일을 도무지 모를 만큼 의식이나 정신을 잃은 상태.
 1232) 天下. 매우 드물거나 뛰어나서 세상에서 비길 데가 없음을 이르는 말.
 1233) 사람으로서.
 1234) 물기가 없는 물건이 가볍게 부스러지거나 깨지는 소리. 또는 그 모양.
 1235) 靑山. 푸른 산.
 1236) 한 곳으로.
 1237) 습수쳤다. 합수졌다가. 물이 합쳐졌다가.
 1238) 천방지축으로 턱을 넘고 굽이쳐.
 1239) 거품이 일어.
 1240) 병풍처럼 생긴 바위.
 1241) 물결이 자꾸 흔들리는 모양. 여기서는 물 속에 비친 산 그림자가 물결에 자꾸 흔들리는 모양을 표현한 것으로 생각됨.
 1242) 옷 따위를 매우 시원스럽게 벗어 버리거나 벗기는 모양.
 1243) 壯히. 매우.
 1244) 무엇을 닮은 물거나 잡는 모양.
 1245) 먼저 따위를 거침없이 매우 시원스럽게 떨어 버리는 모양.
 1246) 三角山. 서울 남산의 옛 이름.
 1247) 이에서. 이보다.
 1248) 東海流水. 동해의 흐르는 물.

- 1249) 가로.
- 1250) 無知한. 하는 것이 어리석고 우악한.
- 1251) 衣冠. 남자의 옷옷과 갓이라는 뜻으로, 남자가 정식으로 갖추어 입는 옷차림을 이르는 말.
- 1252) 먹통에 팔려 목재에 곤은 줄을 치는 데 쓰는 끈.
- 1253) 줄을 따라 반듯이.
- 1254) 죽. 한 줄로 끊어지지 아니하고 이어지는 모양.
- 1255) 여기에다.
- 1256) 寂寞空山. 고요하고 쓸쓸한 깊은 산중.
- 1257) 완전히. 남김없이 모두.
- 1258) 白首風神. 머리가 허영게 된 겉모양.
- 1259) 許多한. 많은.
- 1260) 12대. 열두 세대.
- 1261) 줄줄이 이어 따라 나오는 봉사.
- 1262) 上八字. 좋은 팔자.
- 1263) 東西分別. 동쪽 서쪽을 구별하여 가름. 곧 방향이나 위치를 구별함.
- 1264) 제 스스로 처지를 한탄함.
- 1265) 官長. 관청의 우두머리.
- 1266) 지나가느라고.
- 1267) 辟除. 존귀한 사람의 행차 때 하인들이 여러 사람의 통행을 금하고 길을 치던 일로, '물렀거라'하고 소리침.
- 1268) 行次. '웃어른이 길 가는 것'을 높여 이르는 말.
- 1269) 官은 民之父母. 관리는 백성의 부모임.
- 1270) 及唱. 옛날 지방 관청에 딸려있던 하인.
- 1271) 관청에서 잔심부름을 하던 하인.
- 1272) 拜謁次로. 뵈겠다고.
- 1273) 小盲. 맹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자신을 낮추어 일컫는 말.
- 1274) 積善之家에 必有餘慶이라. 착한 일을 많이 한 집안에 반드시 경사스런 일이 있다.
- 1275) 太守長. 태수 어른.
- 1276) 살고 싶습니다.
- 1277) 可矜히. 불쌍하게.
- 1278) 衣籠. 옷을 넣어두는 농작.
- 1279) 白骨難忘. 죽어 흰 뼈가 되어도 잊지 못함.
- 1280) 百拜謝禮. 여러 번 절을 하며 감사함.
- 1281) 洛水橋. 푸른 물 위에 놓인 다리라는 뜻으로 지어 붙인 가상의 다리 이름.
- 1282) 綠水亭. 푸른 물가에 있는 정자라는 뜻으로 지어 붙인 가상의 정자 이름.
- 1283) 姜太公. 이름은 여상(呂尚). 무왕을 도와 재상이 되어 은나라를 치고 주나라를 세웠으며, 후에 제나라의 임금에 봉해졌다.
- 1284) 造作이로다. 만든 것이로다. 방아의 등에 '경신년 경신월 경신일 경신시 강태공 조작'이라고 썼는데, 이는 경신이 벼 겹치면 이루어진다는 길일과, 주나라의 재상이던 강

- 태공의 힘을 빌어 목신(木神)을 누른다는 뜻을 나타냈다고 함.
- 1285) 太古라 天皇氏는 以木德으로 王하였으니. 옛적 천황씨는 목덕으로서 왕노릇을 하였으니. 천황씨는 중국 전설상의 최초의 왕. '목덕'은 총명예지와 인·의·예·지의 다섯 가지 덕을 오행으로 형상화한, 우주 만물에 그 힘이 미친다는 임금의 덕.
- 1286) 나무.
- 1287) 有巢씨 構木爲巢. 유소씨가 나무를 엮어 집을 지었음. 유소씨는 중국 전설상의 임금으로, 새가 둥지를 틀고 사는 것을 보고, 나무를 엮어 집을 만드는 법을 가르쳤다고 함.
- 1288) 나무.
- 1289) 지으셨나?
- 1290) 玉鬢紅顏. 아름다운 귀밑머리와 붉은 얼굴. 젊은 여인의 아름다운 얼굴을 표현한 말.
- 1291)簪. 비녀.
- 1292) 가로질러져 있구나.
- 1293) 滄海老龍. 넓고 푸른 바다의 늙은 용.
- 1294) 周文王. 주나라 문왕. 주나라 문왕은 은나라를 멸망시키고 천자에 오른 주나라 무왕의 아버지임. 그러나 '돈수'와 관련이 없음.
- 1295) 頓首. 머리가 땅에 닿도록 조아림.
- 1296) 五穀大夫. 춘추시대 사람 백리해(百里奚)를 말함. 백리해가 초나라 사람에게 잡혀 있을 때, 진(秦)나라 목공(穆公)이 오고양피(값비싼 암양의 가죽 다섯 장)를 주고 다시 찾아서 정치를 맡겼으므로 오고대부라 불렀음. 백리해가 정치를 잘하여 진나라는 패자가 되었고, 태평했음.
- 1297) 聖上. 자기 임금을 높여 이르는 말.
- 1298) 國泰民安. 나라가 태평하고, 백성이 평안함.
- 1299) 古今에. 옛부터 지금까지에.
- 1300) 萬壘青山. 첩첩이 둘러싸인 아주 깊은 산.
- 1301) 소나무.
- 1302) 설치하였는가?
- 1303) 形容. 생김새. 모습.
- 1304) 비양했던가. 흉내냈던가.
- 1305) 孟浪하다. 가볍게 만만히 볼 수 없을 만큼 뚝뚝하고 깜찍하다.
- 1306) 그럭저럭. 정한 방법이 따로 없이 그렇게 저렇게 되어 가는 대로.
- 1307) 使令. 관아에서 심부름하는 사람.
- 1308) 亡終. 마지막
- 1309) 參禮. 예식, 제사, 전쟁 따위에 참여함.
- 1310) 외치는.
- 1311) 遠近山川. 멀고 가까운 산천. 온 산천.
- 1312) 크고 우렁차게.
- 1313) 處分. 일정한 대상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하여 지시하거나 결정함. 또는 그런 지시나 결정.
- 1314) 父親相逢하겠더니. 부친을 만나려고 했더니.

- 1315) 靈驗. 사람이 비는 대로 되는 신기한 징험.
 1316) 어찌하면. 어떻게 하면.
 1317) 別宮. 특별히 따로 지은 궁전.
 1318) 分付. 아랫사람에게 무슨 일을 어떻게 하라고 명령을 내림, 또는 그 명령.
 1319) 末席. 여럿 중에서 제일 낮은 자리. 맨 끝자리.
 1320) 주지는.
 1321) 天下盲人. 온 세상의 모든 맹인.
 1322) 滿座中에. 자리에 가득한 가운데서.
 1323) 白首風神. 머리가 허영게 된 겉모양.
 1324) 形容. 모습.
 1325) 皮骨. 살가죽과 뼈.
 1326) 相接. 서로 맞닿음.
 1327) 珊瑚珠簾. 산호 구슬로 만든 발.
 1328) 妻子. 아내와 자식.
 1329) 小盲. 맹인이 자신을 낮추어 일컫는 말.
 1330) 故土. 고향의 땅. 고향.
 1331) 產後頗. 출산 후에 일어난 병.
 1332) 喪妻. 아내를 잃음.
 1333) 出天하여. 하늘이 내서. 아주 뛰어나서.
 1334) 佛前에. 부처님께.
 1335) 施主. 자비심으로 조건 없이 절이나 중에게 물건을 베풀어 주는 일.
 1336) 丁寧. 더 이를 데 없이 정말로.
 1337) 祭需. 제사에 쓰이는 사람이나 물건.
 1338) 匕首劍. 비수. 크기가 작고 날이 날카로운 칼.
 1339) 건어.
 1340) (신을 신지 않고) 버선만 신은 발.
 1341) 어떤 일이 매우 갑작스럽게 진행되는 모양.
 1342) 나더러. 나에게.
 1343) 無男獨女. 아들 없이 오직 하나 있는 딸.
 1344) 于今. 지금까지.
 1345) 버르거나 다짐할 때 쓰는 말.
 1346) ‘깜짝깜짝’의 약한 말. 자꾸 깜짝거리는 모양.
 1347) 道術. 도를 닦아 여러 가지 조화를 부리는 요술이나 술법.
 1348) 七寶金冠. 칠보로 화려하게 꾸민 금관. ‘칠보’는 금·은·유리·파리·마노·거거·산호, 또는 금·은·유리·마노·거거·진주·매괴.
 1349) 前後不見初面이라. 이전에도 이후에도 본 적이 없이 처음 보는 얼굴이라.
 1350) 甲子 四月 初八日夜. 갑자년 4월 8일 밤. 짝씨부인과 심봉사가 태몽을 꾸던 밤.
 1351) 꿈인가?

- 1352) 分別. 서로 구별을 지어 가름.
 1353) 咫尺分別. 아주 가까운 거리를 구별함.
 1354) 天地萬物.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모든 사물.
 1355) 滄海萬里. 만 리나 되는 멀고 먼 푸른 바다.
 1356) 還世上. 세상으로 다시 돌아옴.
 1357) 千千萬萬. '천만'을 강조한 말. '천만'은 '전혀, 절대로'라는 의미.
 1358) 어둡고 컴컴함.
 1359) 山陽水 큰 싸움. <삼국지>를 기초로 하여 창작한 고전 소설 <산양대전>의 싸움터.
 여기서 관우와 마초가 조조의 군사에게 포위되어 5일 동안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 자룡이 사천으로부터 달려와 이들을 구해냈음.
 1360) 子龍. 중국 삼국시대 촉(蜀)의 명장. 성은 조(趙), 이름은 운(雲). 자룡은 그의 자(字)임.
 1361) 興盡悲來 苦盡甘來. 즐거운 일이 다하면 슬픈 일이 돌아오고, 고통이 다하면 기쁜 일이 돌아온다.
 1362) 나를 두고.
 1363) 不重生男重生女. 아들 낳기를 중하게 여기지 말고, 딸 낳기를 중히 여김. 백거이(白居易)의 <장한가(長恨歌)>에 나오는 구절.
 1364) 中華. '中'은 중앙이나 중심, '華'는 문화라는 뜻. 중국의 한족(漢族)이 주위의 문화적으로 뒤떨어진 민족에 대하여, 자기 민족을 중앙에 자리잡고 있는 문명국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일컫는 말.
 1365) 堯舜天地. 요임금과 순임금이 다스리던 것과 같은 세상, 곧 태평성대.
 1366) 太古積. 아주 오래된 옛날.
 1367) 宋天子. 송나라의 천자. 송나라 황제.
 1368) 府院君. 조선조 때 왕비의 아버지나 정1품 공신에게 주던 작호.
 1369) 千千萬萬歲. 경축과 환호의 뜻으로 외치는 말. '천세'와 '만세'를 강조한 말.
 1370) 稅役. 세금과 부역.
 1371) 百行根本. 모든 행동의 근본.
 1372) 福祿. 타고난 복과 벼슬아치의 녹봉이라는 뜻으로, 복되고 영화로운 삶을 이르는 말.
 1373) 진진하다네. 풍성하게 많다네.